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자료집

2013~2018

Arts Council Korea

overseas The Residenc

denc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

ncil Korea overseas

CONTENTS

시각

CHAPTER 01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6
최원준(2017) 유노아(2016)

CHAPTER 02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 16
이영호(2018) 유비호(2017) 김덕영(2014)

CHAPTER 03 **영국 테이트모던 - 인텐시브 프로그램** 27
김수정(2018) 김윤서(2016)

CHAPTER 04 **핀란드 HIAP** 35
정필주(2018) 성용희(2017) 이은애(2016) 김성우(2014)

CHAPTER 05 **아르헨티나 프로젝토 에이스 피랄** 54
전보경(2018) 유영주(2017)

CHAPTER 06 **폴란드 타데우스 칸토르 파운데이션** 64
손선경(2018)

CHAPTER 07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68
김재원(2018)

CHAPTER 08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73
이혁준(2014)

문학

CHAPTER 0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80
김남일(2018) 이상우(2018) 이여진(2017) 한은형(2016)
김인숙(2015)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100
최정례(2018) 전성현(2018) 한유주(2017) 백가흠(2017)
오주영(2016) 황선미(2015)

CHAPTER 11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123
허진원(2018) 강석경(2017) 정태언(2014)

CHAPTER 12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138
이성아(2018) 김애란(2017) 김다은(2015)

CHAPTER 13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155
백순원(2018) 부희령(2017) 김이듬(2015) 김재욱(2014)

CHAPTER 14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176
정민(2018) 최은영(2017) 이혜경(2014)

CHAPTER 15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 190
김도윤(2017) 김경욱(2013)

CHAPTER 16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199
강훈구(2018) 문부일(2017) 강석경(2014)

CHAPTER 17 **스웨덴 주스웨덴한국대사관** 211
조용미(2018) 황선미(2017) 이경혜(2015)

CHAPTER 18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 225
유재영(2018)

CHAPTER 19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230
이지홍(2017) 박진희(2015) 서성란(2013)

CHAPTER 20 **이란 주이란한국대사관** 246
최창근(2017) 윤순례(2015) 박찬순(2015)

CHAPTER 21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264
오주영(2017) 김남중(2016) 이나미(2014)

공연 예술

CHAPTER 22 **이탈리아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286
김시연(2018) 홍윤경(2017)

CHAPTER 23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304
박현지(2018) 김신우(2017) 김민제(2016)

CHAPTER 24 **덴마크 오딘씨어터** 324
배요섭(2018)

CHAPTER 25 **오스트리아 댄스웹** 327
김현신(2017)

CHAPTER 26 **영국 더플레이스 CHOREODROME** 331
김이슬(2018)

CHAPTER 27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335
주남희(2018) 조아라(2018)

CHAPTER 28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 345
유태선(2018) 이상진(2018) 박은경(2017) 부다혜(2017)



시각



CHAPTER 01.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CHAPTER 02.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

CHAPTER 03. **영국 테이트모던 - 인텐시브 프로그램**

CHAPTER 04. **핀란드 HIAP**

CHAPTER 05. **아르헨티나 프로젝토 에이스 피랄**

CHAPTER 06. **폴란드 타데우스 칸토르 파운데이션**

CHAPTER 07.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CHAPTER 08.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Netherlands

CHAPTER 1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프로그램명	라익스 아카데미
국가	네덜란드
참가연도	2017~2018년
참가기간	2017. 1. 1 ~ 2018. 12. 31
작가명	최원준

레지던스 기관 소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위치한 라익스 아카데미는 19 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현대미술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네덜란드 정부는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지로 보내 선진 문화와 새로운 미술 경향을 익히고 받아들여 자국의 현대미술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국의 현대미술 발전을 위해 암스테르담 시내의 빈 공간을 이용해 전 세계의 작가들을 역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네덜란드 미술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거란 생각이 들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유명한 작가와 이론가들을 초빙해 최고 수준의 '라익스 왕립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 년 후, 세계 최고의 미술학교로는 한계를 느끼고 현재의 라익스 아카데미(Rijksakademie, 네덜란드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젊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각국의 현대미술작가들(네덜란드 및 외국작가 약 50 명)에게 전용 작업공간(개별 스튜디오)을 제공하고 서로의 작업과정을 개방하고 때로는 공동작업을 통해 작가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픈 아뜰리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큐레이터, 평론가, 관람객들에게 참가작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Visitin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작가가 현지와 세계의 미술계에 집중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라익스 아카데미는 사진과 영상, 디지털 뉴미디어에서부터 회화와 도자기, 금속과 목공, 판화 등에 이르는 세분화된 공방의 11 명의 기술 전문가가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공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50평에서 70평 정도입니다.

스튜디오의 경우는 매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가 없으나 약 15평에서 30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편의 시설의 경우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3유로, 저녁은 5유로에 먹을수 있으나 메뉴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생활공간의 경우 라익스에서 시내 중심가에서부터 여러 군데에 아파트를 정부, 개인 후원자로부터 제공받아 저렴한 월세에 작가들이 머물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년차 작가에게는 조금 작은 집을 제공하고 2년차 작가에게는 좀 더 큰 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거나 파트너가 있는 경우를 조금씩 고려해서 집을 제공하기 때문에 집의 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드바이저 시스템은 20여명의 어드바이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미술 무대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와 비평가,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자문은 작가들에게 보다 넓고 깊은 사유의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학교처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 진행합니다. 작업에 대한 설명과 질문 등 모든 것이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역할을 정의내리자면 선배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그런 분들이며 영어대화에 익숙할수록 작가들이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상주 테크니션은 말 그대로 도자기를 구울 때 방법을 알려주고, 사진을 찍을때도 조명 쓰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며 상당히 숙련된 중년의 기술자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경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작가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창작활동

올해 3월 포르투칼의 리스본에서 그룹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올해 12월의 아트선재에서 열리는 퍼포먼스를 준비 중입니다.

워크샵

라익스에서 정기적으로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며, 메탈, 세라믹, 나무 등 전문 워크숍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네크워크 구축

이곳에 오는 어드바이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고 또한 어드바이져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라익스에 방문하여 작가들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식사에 대해서는 라익스 아카데미에 있는 구내 식당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집의 경우 초기에 사진도 보내주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집은 좀 작지만 편안하며 날씨가 춥거나 덥지 않기에 생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정규입주작가가 45명에 교류 프로그램으로 오는 단기 입주작가들이 2,3명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에서 작가들을 일일히 챙겨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개인주의문화를 잘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개인주의로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생활하고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도 없고 작품에 매진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시에 오피스에 도움을 요청하면 아주 세심하게 작가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라면 암스테르담의 특수한 문화인데 그것은 매춘이 자유롭고 마약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는 현지인들이나 유럽인들에게 이미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경험해 보는 것이기에 라익스아카데미의 인텔리한 작가들이나 현지 미술계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거나 매춘을 하는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치인들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으로 상당히 검소하며 예의가 바릅니다. 술을 즐겨 마시지만 술문화는 세계 어디나 있는 것이기에 딱히 문화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쉽게 적응을 하였습니다. 만약 서양음식을 못 먹는 한국인이라면 지원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한국식당이 파리, 런던과 달리 시내 중심에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라익스 구내 식당이 운영을 하지 않기에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요리도 하고 혼자 작업도 하는 환경에 익숙해 져야 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프로그램은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작가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유학을 다녀온 작가에게는 쉽게 말해 유럽 메인 스트림에서 활동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운게 있다면 그것은 유럽의 작가들이 즐기는 토론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영어능력과는 별개로 말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참여를 준비하는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영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최종인터뷰 심사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통역을 써서 라익스아카데미에 합격한 예가 있는데, 그렇게 라익스에 입주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2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영어회화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경쟁률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험삼아 지원하는 것은 본인의 돈과 시간 낭비입니다. 한국에서 경험을 좀 쌓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작가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현재 라익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최고 연장자로 이곳의 최연소 작가와는 크게 10년의 나이와 경험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곳에 있는 작가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로간에 교류가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높은 경쟁률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준비 되야 합니다. 이 곳에 입주한 이후에는 어드바이저들과의 관계를 쌓아 가려면 어느정도 국제 미술계의 판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품을 제작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전부 글로벌한 감각이 필요하기에 학교를 금방 졸업한 신예작가들은 이곳에 바로 올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Netherlands

CHAPTER 1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프로그램명	라익스 아카데미
국가	네덜란드
참가연도	2015년 ~ 2016년
참가기간	2015 . 1 ~ 2016. 12
작가명	유노아

레지던스 기관 소개

라익스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좋은 작업 환경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인데 이름에 '아카데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공간이 원래는 몬드리안(Piet Mondrian)이나 카렐 아펠(Karel Appel) 등을 배출한 국립 미술학교였기 때문이다. ('라익스'Rijks는 '국가의', '국립의' 따위를 의미하는 네덜란드 단어다.) 80년대에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기관의 성격이 바뀌지만 그 이름만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현재도 네덜란드에서는 단순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아닌 포스트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으로 여겨진다. 그 이름에 걸맞게 작가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강의, 워크샵 등)과 도움이 제공되고, 기간 역시 총 2년이나 되는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작가활동을 한 작가들인데, 라익스아카데미 웹사이트에는 지원자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작가들이 많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선발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 보다는 작가의 성취도나 발전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일단 선발이 되면 작가의 작업방식과 상황에 따라 작업실과 숙소가 배정되는데, 각각의 작업실과 숙소는 그 크기와 위치가 다 다르다. 보통 1년차에는 비교적 작은 작업실을 배정받고 2년차에 더 큰 작업실로 옮겨가게 되는데, 숙소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원한다면 계속 같은 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숙소는 기숙사같이 다함께 모여 사는 형태가 아니고, 암스테르담 시내 곳곳에 있는 집에서 각자 사는 것이다. 사는 지역이 다르므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다른데, 사실 암스테르담은 서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라 암스테르담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는 지역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반 고흐가 살았을 법한 아주 작은 네덜란드 전통 가옥에서 살았고, 2016년 11월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내부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비교적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은 '카렐 아펠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라익스 아카데미 출신 카렐 아펠이 살았던 곳이다.) 라익스아카데미는 집 구하기 뿐 아니라 암스테르담에 서류상으로 등록하는 것 역시 도와준다.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주고, 등록하는 방법까지 아주 잘 안내해주는데,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적 업무는 끝난다.

라익스아카데미에는 배정받은 개인 작업실 외에 다양한 공동 작업장이 존재한다. 목재, 금속, 도자기, 페인팅, 판화, 컴퓨터 프린팅, 3D 프린팅, 전자기계, 영상 편집, 음악 작업 등 작가가 원한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각각의 작업장에는 우수한 능력의 테크니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근무하는 날짜와 시간에 약속을 잡고 만나는 방식이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각각의 공동 작업장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므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식당과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만 일반 도서관 외에 아주 오래된 책이나 시각자료들을 따로 모아놓은 수집물 창고가 있는데, 레지던트 아티스트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도서관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열람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라익스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연말에 하는 오픈 스튜디오다. 한 해 동안의 작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오픈 스튜디오가 끝나면 1년의 프로그램이 전부 마무리된다. 오픈 스튜디오는 5일간 열리는데, 처음 3일간은 일종의 프리뷰기간으로 이때는 예술계 종사자, 언론 및 VIP들이 방문하고 나머지 이틀은 일반인들이 방문한다. 일반인 오픈 날에는 라익스아카데미 건물 앞으로 길게 줄이 늘어설 정도로 방문자가 많다. 2013년에는 오픈스튜디오 기간에 70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한다.

이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전시 기획자들과 연결되고 판매도 이루어진다. 나 역시 2015년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큐레이터를 통해 이듬 해 벨기에 브뢰셀에서 개인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을 구입한 콜렉터의 초청으로 콜렉터의 집과 그의 콜렉션에 방문하기도 했다. 낯선 곳에서 누구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어 작가로서 활동하기 어려울 때, 오픈 스튜디오는 자기 작업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가 본인의 작업을 각국에서 온 재능있는 작가들과 나란히 둠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라익스아카데미는 오픈 스튜디오라는 최종 이벤트가 있기까지 작가들의 작업이 재정적, 물리적인 큰 제한 없이 계속해서 행해지는, 말하자면 꿈같은 공간이다. 작업실, 작업비용과 더불어 생활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과정에서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작가 맞춤형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작가들에게 조언을 주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레귤러 어드바이저와 특별히 방문하는 게스트 어드바이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방문 스케줄이 공지되면 원하는 어드바이저를 선택해 스케줄을 잡는데, 약속된 시간에 작가의 작업실에서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작가나 큐레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는 다양한 편이다. 작업 과정에 대한 신뢰할만한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을 때 이런 대화 시간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어드바이저와의 만남은 작가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가끔은 기관 측에서 작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특정 어드바이저와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한다.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주선하는 어드바이저 외에 누군가 만나고 싶다면 어드바이저로 초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물론 일정이나 위치 등의 이유로 성사되기 않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다. 그렇지만 나는 운 좋게도 내가 만나고 싶었던 독일 작가 토마스 샤이비츠Thomas Scheibitz와 만날 수 있었다. 그 만남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는데,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여기에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픈 스튜디오나 어드바이저 미팅 같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라익스아카데미에는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함께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여행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있는 머무는 2년 동안 라익스아카데미 작가들은 네덜란드의 작은 섬에서부터 멀리는 아테네와 이스탄불까지도 다녀왔다. 대부분의 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행 중에는 현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이벤트에 참가하기도 하고, 동행한 어드바이저의 강의를 듣고 질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 외 당일치기 견학 같은 것은 종종 있다.

라익스아카데미에서는 작가에게 네덜란드 내에서 지원해 볼 만한 예술대회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나도 소개를 받고 Buning Brongers Prijzen에 지원해서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6명의 수상자들은 상금과 더불어 도록이 출간되고 암스테르담에서 3주가량 그룹전을 갖는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콜렉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행사라던가,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는 행사 등 작가들에게 필요할 법한 것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물론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다보면 정작 작업에 소홀해질 수도 있으므로 작가는 자기 스케줄을 잘 관리해야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암스테르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의 3분의 1정도로 작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는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자전거가 많다. 자전거도로가 매우 잘 깔려있어서 자전거만으로도 웬만한 장소는 다 갈 수 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기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게 추천한 것이 자전거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다. 중고 자전거 매매가 활발하므로 자전거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역시 중고는 고장 나기가 쉬우므로 잘 따져보고 사야한다. 사람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전거를 탄다. 나 역시도 매일 자전거를 탔다. 다행인 것은 비가 자주 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하면 건조한 편이라 비에 젖은 옷이 금세 마른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싫다면 트램이나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도시 내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매우 편리하다. 대중교통이 서로 잘 연계되어 있고 공항도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전혀 못해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인종차별 역시 거의 없는 편이다. 무역업을 하던 전통 때문인지 내가 만났던 현지인들은 대부분 개방적이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직설적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런 것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물론 불쾌하게 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투가 직설적이기 때문은 아니었고, 오히려 대부분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단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주로 라익스아카데미 내부의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네덜란드 음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특별히 내세우는 음식도 없고, 대부분 음식이 특징이 별로 없다.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맛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음식들을 주로 먹는다. 그런데도 평균 신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키는 무관하다는 불공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평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네덜란드 남자 평균 신장이 184.8센티미터라고 하는데 평균키 보다 큰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나. 처음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죄다 너무 커서 마치 내가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라익스아카데미의 큰 작업실에 금방 익숙해지듯이, 지내다보면 그런 것은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된다. 한국음식을 먹고 싶다면 한인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 요리해 먹으면 된다.

흔히들 성매매와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암스테르담을 환락의 도시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런 명칭은 과장된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법이라고 해도 모두가 대마초를 피고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을 즐긴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홍등가red light street는 관광객들이나 한 번씩 들러서 어떤지 구경하고 가는 장소로 그 규모를 보면 귀여울 정도다. 대마초 역시 핀다고 하

더라도 암스테르담에서는 일반 담배 같은 느낌이라 특별히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한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이 시대에 다시 <쾌락의 동산>을 그린다면 조용한 암스테르담보다는 오히려 홍대나 이태원을 더 많이 참고할 것 같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일이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지원서가 그러하듯 본인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파일 몇 개와 간략한 작업소개만 있으면 된다. 특히 라익스아카데미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쉽게 지원서를 보낼 수 있다. 나 역시 창문도 없던 과거의 작업실에서 지원서를 보냈었다.

처음 지원서를 보낸 후, 몇 년이 거짓말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못했던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모든 과정을 마친 지금, 나는 그 시간들의 가치를 잘 알기에 한국의 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지원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본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이 프로그램에 눈길이 간다면 관심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지원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Germany

CHAPTER 2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베타니엔 스튜디오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8 ~ 2019년
참가기간	2018. 4 ~ 2019. 3
작가명	이영호

레지던스 기관 소개

Künstlerhaus Bethanien은 베를린의 국제 문화 센터이다. 전문 예술가 및 전시 공간을위한 작업 공간을 갖춘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으로 현대 시각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레지던스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배경과 분야의 예술가들과 일반인들 간의 활발한 대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ünstlerhaus Bethanien은 월간 전시회 오프닝부터 오픈스튜디오를 일년에 3회 개최한다. 그 다양한 임무의 초점은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발표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Künstlerhaus Bethanien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Künstlerhaus는 또한 예술가 및 전시회 카탈로그뿐만 아니라 Be Magazine과 같은 다양한 간행물을 통해 현대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을 장려 한다. 예술과 비평을 위한 연례 저널인 이 소책자는 독자들에게 기관의 활동과 올해의 예술인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작업의 과정과 개발은 나에게 기본적이다. 나는 예술가, 큐레이터, 기술자, Bethanien팀과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2회의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대중과의 교류를 할 수 있었다. Künstlerhaus Bethanien의 지원을 통해 결과물이 진행 중이던, 또는 전시회가 있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감 있게 내 전문 직업에서 새로운 단계를 밟을 수 있었다.

나는 예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베를린에서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 행동하며, Künstlerhaus Bethanien은 국제 및 지역 제작자 및 베를린 시민과 창의적인 교류를 심화시킬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Künstlerhaus Bethanien에서 레지던스의 중요한 역할인 “예술과 환경”, “문화 다양성과 새로운 예술 기관의 활동” 또는 “협력의 가능성”과 같은 프로그램의 핵심 인 주제를 토대로 새로운 창조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100만 그루의 꽃향기가 나는 바람과 다양한 꽃에서 날아다니는 벌이 날아다니며 꿀로 변하는 바람과 같이 예술 창조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레지던스 작가로서의 나의 임무였다.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감정과 생각에 유형을 창조하고 제공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내 비전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가진 도시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100만 그루의 꽃향기가 나는 바람과 다양한 꽃에서 날아다니는 벌이 날아다니며 꿀로 변하는 바람과 같이 예술 창조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레지던스 작가로서의 임무라 생각하며, 레지던스 참여 목표는 예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베를린에서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베타니엔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제 및 지역 제작자, 베를린 시민과 창의적인 교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며 “예술과 환경”, “문화 다양성과 새로운 예술 기관의 활동” 또는 “협력의 가능성”과 같은 프로그램의 핵심인 주제를 토대로 새로운 창조 활동에 임하기를 권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도시의 시각 예술은 물론, 특성, 문화, 사회, 언어, 교육, 철학 등 본질적으로 베를린만의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와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찾아내야 하고, 그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요구해야 하고 요청해야 하며 협력 파트너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타니엔스튜디오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을 관리하기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작가 개인이 베타니엔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 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지원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기에 나만의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할 경우 충분히 일 년이라는 시간이 길수도 있지만, 한 편으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기엔 한없이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생산적이며 작업 활동에 있어 또는 작가로서의 태도에 있어 많은 영향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Germany

CHAPTER 2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베타니엔 스튜디오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3. 20 ~ 2018. 3. 5
작가명	유비호

레지던스 기관 소개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스튜디오는 전세계 이머징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전세계 대표적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이 곳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을 자국의 기관이나 후원단체, 개인 후견인등으로부터 작가스튜디오 운영비와 작가 생활/활동비등을 지원받고 있다. 대체로 유럽권 작가들은 추가적으로 숙소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아시아작가들은 대체로 스튜디오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베타니엔 스튜디오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1층은 전시장, 2층 전층은 베타니엔 스튜디오의 사무실과 작가스튜디오 그리고 3층~5층 일부를 작가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층에는 워크샵 및 회의를 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24시간 영상편집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건물 지하에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에 한해 개방되는 목공과 철재작업실, 도색작업 공간 등이 있으며, 세탁시설 등이 있다.

베타니엔에서 입주작가들에게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큐레이터 및 미술평론가들의 만남이다. 개인적으로 한시간 정도의 미팅이 이루어지며 미팅은 횟수는 작가들마다 상이하다. 두번째는 1년에 3번 있는 오픈스튜디오이다. 오픈스튜디오는 하루 3~4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대체로 베타니엔 1층 기획전시에 맞춰 오픈스튜디오 일정을 조율하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한다. 마지막 세번째는 레지던스 마감전으로 치르는 전시가 있다. 이 전시가 작가 자신의 작업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인만큼 작가 당사자는 물론 베타니엔 사무실측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이 전시준비에 소정의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어 작업제작비 및 인건비로 지불할 수 있어 전시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작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이곳 담당자는 매주 초에 베를린의 주요 이슈가 되는 전시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가 작가를 만나고자 할 때 미팅일정들을 조율하기도 한다. 물론 마지막 베타니엔에서의 전시와 관련한 작업내용 논의와 장비 및 시설담당자와의 소통자리도 주선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레지던스 체류기간동안 베타니엔 아티스트 프로그램 중 본인은 5번의 전문가 미팅, 3번의 오픈스튜디오 그리고 1번의 전시를 진행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타니엔이 위치한 지역은 베를린에서 가장 힙한 지역 중 하나이다. 2차 대전 이후 베를린시의 재건시기에 많은 터키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기에 현재도 많은 터키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이방인과 예술가들이 살고 있다. 베를린은 유럽 혹은 독일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왕성한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도시가 아니기에 내 생각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특히 느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느림이 현재 전세계 많은 가난한 작가들이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독일 이민정책이 포용적이어서인지 비자발급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다.

나에게 베를린은 공연문화는 무척 흥미로웠다. 8월 한달은 베를린시에서 '댄스페스티벌', '실험음악'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더불어 일년에 봄,가 을 두 번에 걸쳐 소개되는 베를린 아트위크 주간에서는 거침없이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는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외 베를린에는 HKW, daad 갤러리, ngbk, savvy 컨텀포러리, KW, nbk등 다양한 전시기획공간들이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이곳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스스로에 대한 인풋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바라는 작가들에게 유익한 곳이라 여기며, 1년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베타니엔은 위에서 언급한 주요 3개 프로그램외에는 강제적인 행사참여나 모임들은 없다. 다만 작가들 사이의 소소한 모임들은 있을 수 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작가 스스로에게 작고 큰 변화의 쉼의 시간이 될 것이라 본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Germany

CHAPTER 2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베타니엔 스튜디오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4년 ~ 2015년
참가기간	2014. 3. 15 ~ 2015. 3. 1
작가명	김덕영

레지던스 기관 소개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은 디렉터인 크리스토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디렉터 이외에 작가의 전시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해주는 발레리아와 홍보를 담당해주는 크리스티나, 행정 디렉터의 안드레아, 회계 담당 우트, 헤드 테크니션의 토니, 테크니션 피터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1-2명의 인터쉽을 뽑아 작가들을 관리한다.

베타니엔은 대한민국 외에도 다른 여러 국가의 문화재단(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대만, 포르투갈 등등)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국의 미술가를 지원하는 도이치 뱅크에서 선발한 작가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일본은 개별적으로 공모에 지원을 하고, 선발된 인원은 일본 사기업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또한,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스튜디오 이외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금도 따로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스튜디오는 대략 15평 정도의 크기로 건물의 1층(한국의 2층) 안쪽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공간 외에 부산문화재단과도 교류를 맺어 2개의 한국작가 스튜디오가 있다. 스튜디오에는 싱글 침대와 2구짜리 인덕션, 소형 냉장고가 있어서 숙식이 모두 가능하다. 화장실과 샤워장은 각 층에 남, 여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세탁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공동 작업실이 있다.

작가의 개별 스튜디오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동 작업실과 미디어실, 자료실이 있다. 공동 작업실은 나무, 금속, 캐스팅, 분진 작업,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평일 사무실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그 외 시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헤드 테크니션인 토니와 상의하여 합당한 이유라 생각되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키를 다시 세팅해준다. 그리고 공동 작업실은 개인전 1달 전부터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다.

공동 작업실에는 합판을 재단하기 위한 대형 톱, 테이블소 등 다양한 기계들이 있다. 대형 톱과 테이블 소 같이 위험한 기계들은 테크니션들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 외는 작가 사용을 금하고 있다. 만약 합판 재단을 원한다면 테크니션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의 합판을 받을 수 있다. 목공 작업 외에 금속 밀링 작업과 용접 등을 할 수 있는 금속 조형공간과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컬러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분할되어 있다.

미디어실은 영상편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한국작가 스튜디오와 같은 층에 있으며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미디어 플레이어, 빔 프로젝터, 스피커 등 영상 장비는 테크니션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토니와 상의한 후 사용목적이 확실한 경우 대여가 가능하다.

자료실은 여러 종류의 미술서적이 존재하고, 직접 자료실에서 책을 보거나 대여 목록에 자신이 이름과 대여할 책을 기재하고 대여가 가능하다. 사용시간은 사무실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리고 자료실은 작가들의 프레젠테이션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베타니엔에서 가지고 있는 공구 및 장비 외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재료와 도구는 베타니엔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재료비는 1년에 총 3,000유로다. 재료비 정산은 매달 말에 진행되며, 영수증을 회계 담당인 우트에게 제출하면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재료비는 개인전 준비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전에 대한 부분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한다.

재료비의 사용은 테크니션을 통해 구입하는 재료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목재와 금속재료, 미디어 기계 대여 등을 토니에게 문의하면, 그가 구입 및 대여를 대행해준다.

마지막으로 비자는 발레리아가 초대장을 독일어로 다시 제공해주며, 인턴들과 함께 움직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베타니엔은 다양한 국적의 작가와 교류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기획자와 큐레이터의 방문이 잦은 편이다. 작가와 방문자의 매칭은 방문자가 관심이 있어 하는 작가를 우선적으로 베타니엔에서 연결해주고, 베타니엔도 방문자에게 작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략 작가 당 7회 남짓 미팅의 기회가 있다.

베타니엔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오픈스튜디오, 장기 작가(1년 거주)의 개인전, 단기 작가들을 위한 Show me your architecture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다.

Show me your architecture는 3개월 거주하는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작가와 동유럽 작가들이 이에 속한다. 3개월의 시간은 개인전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에 이를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참여는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그 이후 작가들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하면 참여를 권장한다.

오픈스튜디오는 3-4개월 주기로 진행하며 1년에 3번 정도 오픈스튜디오를 한다고 볼 수 있다(장기 작가 기준). 정해진 하루 3시간(19시-22시)만 행사를 진행하는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시간만 진행하는데 사람이 올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3시간 동안 족히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베타니엔을 방문한다. 오픈스튜디오 때 필요한 장비는 테크니션 사무실에 여분의 장비가 있을 경우 대여가 가능하며 미리 예약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전은 12월 중순부터 설치가 가능했다. 그리고 한국작가는 1월에 개인전을 오픈하며, 5명의 작가와 갤러리 공간을 분할하여 개인전의 형태로 전시를 진행한다. 개인전이 진행될 때 비평가 한 명과 매칭해주는데 그 비평가가 차후 발간될 베타니엔 잡지의 글을 쓰게 된다.
(베타니엔은 작가 소개 자료인 소책자 이외에 1년씩 묶어 작가들의 작품과 비평글을 연간 잡지의 형태로 발간한다.)

베를린은 생각보다 한국의 기획자와 갤러리가 꽤 있는 곳이다. 안도 갤러리와 논 베를린, 리 갤러리를 말할 수 있으며, 최근 생긴 디스쿠어스가 있다. 이들 기획자나 디렉터가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작가들의 거주기간과 맞을 경우 작가 영입이 유용하기에 작가는 이를 활용하여 해외전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본인은 거주기간 동안 폴란드 포츠난에서 정미 큐레이터의 기획하여 진행한 Mediation Biennale에 나현, 원성원, 송호준, 양진우 작가와 함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타니엔 거주기간 동안 숙식은 스튜디오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글 침대, 2구짜리 인덕션, 소형 냉장고와 싱크대가 스튜디오에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베타니엔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5개 정도 있어 식자재 구입이 매우 용이하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자재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싸고, 외식을 하는 경우 한국의 외식 값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베타니엔 근처에는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덕분에 양질의 케밥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아프리카, 그리스, 이태리 음식점도 있는데 모두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 지금도 그곳의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교통은 베타니엔이 지하철 u1 라인에 코트부서 토어와 숀라인 스트라쎄 사이에 있는데, 완전 시내의 중심은 아니지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아주 용이하다.

베타니엔 주변은 예전에 힙스터의 성지라 불릴 정도로 핫한 동네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클럽과 더불어 다양한 맛집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숍들이 존재한다. 베를린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독일 사람부터 유럽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음악과 미술, 디자인 쪽 관련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예술 관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어쩌면 유럽에서 가장 서울과 비슷한 느낌의 도시가 아닌가 싶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은 레지던스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베타니엔은 작가를 홍보에서부터 관리까지 굉장히 세심하고 깊은 배려를 해주는 최고의 레지던스라 생각한다. 또한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같이 집중해주고 고민하는 인간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작품에만 집중하고 움직임 자체를 줄이는 작가보다는 활동적이고 새로운 경험과 시선에 대해 거리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작가들이 더욱 활발히 지원했으면 하는 공간이다.

지원하는 작가들이 비자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겠지만, 국가의 지원금 확인서와 베타니엔의 초대장으로 1년간의 비자는 쉽게 받을 수 있으니 거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3

영국 테이트모던 인텐시브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테이트모던-인텐시브 프로그램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7. 8 ~ 2018. 7. 13
작가명	김수정

레지던스 기관 소개

테이트 인텐시브 프로그램은 시각예술을 매개하는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참가자 약 25인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큐레이토리얼 실천과 방법론, 사회 문화적 기관으로서 미술관의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향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프로그램은 대주제 안에서 소주제를 정해 그에 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에 집중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약 6일 동안 지정된 논의 주제에 대해 각자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시점에서 발언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의 식견과 경험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외 매일 다양한 예술영역 줄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기조발제와 현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주제와 장르에 대해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얻게 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2018 테이트 인텐시브의 주제는 “구축하고, 점유하고, 나누는 (예술)공간(TATE INTENSIVE: Making Space, Holding Space, Giving Space”이었다. 이에 입각해 동시대 문화, 기술,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적응하고 경향을 선도하는 21세기 형 미술기관 운영과 전략에 대한 사례연구와 토론, 각종 기관 방문, 발제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여섯 줄기로 나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작가, 큐레이터, 문화예술 기관 운영자들의 키노트 스피치
2. 테이트 갤러리의 스탭들이 참여하고 이끄는 워크숍
3. 테이트 모던의 기획전과 컬렉션 디스플레이 현장탐방
4. 테이트 브리튼과 타 런던 문화예술기관 현장탐방
5. 테이트 모던의 테이트 익스체인지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그룹 토론
6. “Making Space, Holding Space, Giving Space” 주제에 따른 토론과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초대한 연사, 모더레이터, 워크숍 리더, 포럼 참여자들
Ryan Gander(아티스트), Achim Borchard-Hume(테이트모던 전시디렉터), Frances Morris (테이트모던 디렉터), Anne Barlow(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디렉터), Alex Farquhason (테이트 브리튼 디렉터), Fatos Ustek(독립 큐레이터), Gregor Muir(테이트모던 컬렉션 디렉터), Linsey Young(테이트 브리튼 큐레이터), Ralph Rugoff(Hayward Gallery 디렉터), Jenny Waldman(14-18NOW 디렉터), Anna Cutler(테이트모던 러닝 디렉터), Jane Finnis(Culture24 디렉터), Rebecca Sinker(큐레이터)

방대한 컬렉션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시각예술의 산실이자 대형 커미션 프로젝트의 연례 운영으로 대표되는 테이트모던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술 기관의 비전을 탐색하는 자리였던 만큼 테이트라는 브랜드 아래 4 개 기관(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으로 분리 운영되는 대형 문화예술 현장에 초대되어 그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 자체로 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도 많이 접했다. 이를테면 “placemaking”은 명쾌한 정의가 따로 없는 개념이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무언가 문화적이거나 의미있는 활동을 하거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활동 전반의 기반이 되는 장소를 만드는 행위이다. 전시물을 제시하고 관객이 이를 감상하는 것으로 교환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 이 개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연구와 각 지역에 맥락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25인의 참가자들은 국적과 배경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활동 분야 (큐레이토리얼, 교육, 프로그래밍, 이론 연구 등)가 각기 달랐다. 개인적으로 놀랍고 반가웠던 점은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이다. 근래 인큐베이팅 경향을 띤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젊은 예술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테이트 인텐시브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에너지와 장년 세대가 더하는 통찰력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토론이 풍성해졌고 그 시간에 감사했다. 소그룹을 정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시간이 적지 않았기에 각 참가자들 한 명 한 명과 인간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점도 기억에 남는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야와 인식을 확장해 국내에 돌아와 많은 예술인들과 다시 의견을 나누며 기획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네트워킹이 중요한 예술계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25인의 참가자들 모두가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힘에서 나오는 긍적적인 에너지를 사회로 연결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개인들이었다. 우리는 이같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자리와 모두의 현실이 테이트라는 거대한 브랜드에서 시작되는 선구적인 체계를 시작점으로서 맞춰질 수는 없었다. 이미 성중립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곳의 "표준"은 내가 온 곳과 매우 달랐다. 한국의 예술행정이나 그것에 대한 의의 자체가 초기단계이며, 기획자의 자율성이 오너의 의견 하위에 있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여전히 실재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상기되어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로인해 느끼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문화기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하며 버거운 마음도 들었다. 프로그램 종료 파티에서 한 참가자가 지난 6일간 토론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그 코멘트를 듣고 관객과의 연관성과 고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게끔 매개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의 런던의 모습, 그리고 트럼프의 방문에 대한 영국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 월드컵 열기, 여름의 멋진 날씨에서, 그리고 영국에 머물렀던 짧은 기간 동안 목격하고 관찰했던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시민의식들에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세계를 넓혀주는 여러 계기들이 있었다. 짧지만 촘촘한 커리큘럼을 소화하면서 런던일대 투어를 다니며 비단 미술기관 뿐만 아니라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정서, 난민, 유럽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촘촘히 진행된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테이트모던 근처 도보 10분 이내의 숙소에 머무르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침에는 간단한 빵과 커피, 주스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점심에는 직원 카페테리아 식권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이후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자나 다른 식사가 제공되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테이트 인텐시브 프로그램에서 사전 제공하는 세부일정 정보와 참가자들 소개글을 자세히 읽고 참가하기를 권한다. 해당 일정에 어떤 스피커가 와서 어떤 내용의 발제를 하는지, 그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지 미리 생각해 가는 것이 좋다. 동료 참가자들의 이력과 관심사를 사전에 숙지해둔다면 차후 협력이나 조언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 이다. 토론 시간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해의 주제에 대한 견지를 정

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발언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코멘트에 대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고, 다른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후에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3

영국 테이트모던 인텐시브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테이트모던-인텐시브 프로그램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7. 4 ~ 2016. 7. 8

작가명 김윤서

레지던스 기관 소개

테이트 산하에는 총 네 곳의 미술관, 테이트모던(Tate Modern), 테이트브리튼(Tate Britain), 테이트리버풀(Tate Liverpool), 테이트세인트아이브즈(Tate St Ives)가 있다. 그 중 테이트모던을 중심으로 진행된 본 워크샵 TATE INTENSIVE는 테이트 모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템즈 강변에 위치한 테이트 브리튼, 총 두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컨텐츠 구성면에서도 테이트 소속의 유수한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강의 및 인솔을 주도하였다. TATE INTENSIVE는 쥬디스 네스빗(Judith Nesbitt)이 디렉터로 있는 테이트 국제 및 국내 프로그램 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팀원인 에밀리 비글리아(Emily Vigliar)가 PM으로 전면에서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퍼블릭프로그램 위원장 마르코 다니엘(Marko Daniel)과 팀원들도 협력해 비중있게 운영되었다.

아르코 웹사이트에서 TATE INTENSIVE 공지를 보고는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에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제출한지 보름만일까. 국내 지원자 서류 합격 소식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트 측으로부터 직접 최종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받았다. 담당자와 사전에 이메일로 스카이프 인터뷰 시간을 정하고, 저녁 무렵에 모니터 앞에서 면접관 2명을 마주했다. 미리 제출했던 이력서와 한국에서의 업무 이력,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2016년 1회 TATE INTENSIVE의 대주제인 '*Making Tomorrow's Art Museum*'에서 파생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영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모니터를 통한 면접이었지만, 상대편의 따뜻함과 편안한 기운이 전해져 면접이라기 보다는 30여분간의 티타임과 같은 대면이었다. 나중에야 나눈 이야기지만, 심사를 진행한 직원들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분포된 많은 지원자들과 화상 면접 시간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테이트인텐시브 팀은 전세계 기관 네트워크에 오픈콜을 보내 각 국가의 지원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최종 15개국 30명의 미술 전문인이 선정되었다. 비자 문제로 결국 참여하지 못한 한명을 제외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29명의 참가자들의 면면은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경력 2년차 큐레이터부터 디렉터까지, 대형 기관 소속 큐레이터는 물론 소규모 신생 기관 디렉터, 에듀케이터, 홍보담당자, 비엔날레 운영진, 갤러리스트까지 다양했다. 운영팀은 사전에 최종 참가자들의 사진과 이력을 담은 리스트, 요일별 주제와 세부일정, 초대강사 정보를 배포해주었고, 소주제별 미리 함께 읽으면 좋을 책과 논문 등을 추천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만남 전,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도, 운영팀은 워크샵 준비와 진행 과정을 열어놓고 참가자들과 함께 밀도있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2016년에 첫회에는 '*Making Tomorrow's Art Museum*'이라는 대주제 아래, 5일간 요일별 소주제 워크샵과 기관/전시 답사로 매일의 일정이 말그대로 '인텐시브'하게 구성되었다. 테이트모던 신축 건물의 한 개 층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주제별로 테이트 소속 직원들이 초대되어 함께했는데, 그 외에도 Plus Tate라 불리는 테이트 연계 시각예술 기관의 전문인, 주요 이론가/교수, 작가 등이 강사로 함께해주어 테이트 뿐 아니라 영국 전체를 아우르는 런던 밖 지역 미술관들의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다.

그간 한국에서 경험해온 강의·발제 중심의 연수와는 달리, 초청 강사는 발표 비중을 줄이고 논의점을 제공하는 역할로만 기능했다. 예로, 주제별 2시간의 워크샵의 경우, 강사 프리젠테이션은 고작 8분에 그치고, 강사와 함께하는 그룹 토론이 1시간 30분 이상 이어졌다. 참가자 30명이 동시에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 5~6명씩 조를 짜서 토론을 이어갔는데, 그러한 소그룹의 구성원은 매회 바뀌어 기간 중에 결국 모든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개개인이 관심 워크샵을 사전에 표시해 해당 시간에 참가자가 초대강사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거나, 자신의 시각으로 총평하며 해당 워크샵을 참가자가 매듭짓는 식으로 진행했다. 결국 개개인의 발언 기회와 참여도가 무척이나 높아 참가자들은 충분히 자신이 속한 기관을 홍보하고, 업무 내용을 교환하는 등, 전세계 각 미술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미술관의 교육을 주제로한 워크샵에서는 테이트 Leaning Team의 팀장 뿐 아니라 팀원 전체가 함께 나와 각자의 위치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각각 짧은 브리핑으로 공유해주었다. 미술관 교육과 관람자의 변화 양상을 서로 질문하며 의견을 나누는 중에 미술관에서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체감했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대화 방식에서 남녀노소,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반가웠다. 미술관의 공공성과 관람객을 주제로 한 워크샵에서는 테이트와 같은 대형 미술관의 이야기보다는 미들즈브러나 맨체스터의 지역 미술관 디렉터의 발표를 통해 지역 미술관 운영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제한된 예산, 온라인 홍보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적고 보수적

인 성향의 관람객들과 지역에서 미술관이 기능하는 과정들을 나눌 때, 본인이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안고 있던 고민과 맞닥뜨려 크게 공감하며 참조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무렵까지 테이트모던 신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숙박 장소를 마련해야 했다. 테이트모던이 위치한 런던 템스 강 남쪽 뱅크사이드는 이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로, 프로그램 기간이 여름 성수기 중인데다 해당 지역의 호텔 숙박비는 지원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보니, 참가자들은 도보 3분 거리의 호텔에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떨어진 동네에서의 에어비앤비까지 다양한 형태로 거처를 마련했다. 테이트인텐시브팀은 참가자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크라상과 커피를 준비해주었고, 늦는 사람 하나 없이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열 수 있었다. 모든 시간이 자율성에 기반했지만, 프로그램과 참가자가 서로 존중하고 한 팀을 이뤄 다같이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갔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16년 테이트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소규모 국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시선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스탭들의 유연하고 밀도있는 진행,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 마련으로 거의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테이트는 일주일간의 워크샵 종료 후에도 참여자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주었고, 참가자들도 이에 부응해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을 즐거이 홍보하고 있다. 어떤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두고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고 표현했을만큼, 개인적으로도 본 프로그램의 오픈콜을 본 순간부터 운이 따른 것 같다. 한국 큐레이터로서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니, 아르코가 테이트인텐시브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비엔날레 운영진, 소규모 신생 기관 디렉터, 기관 홍보담당자, 갤러리스트, 독립큐레이터는 물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기관 큐레이터에게도 5일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참여해볼만한 기회일 듯 하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Finland

CHAPTER 4

핀란드 HIAP

프로그램명	HIAP
국가	핀란드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10. 1 ~ 10. 30
작가명	정필주

레지던스 기관 소개

제가 참여했던 헬싱키 국제 예술가 프로그램(HIAP: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me, http://hiap.fi)은 1998년에 설립되어 20년의 역사를 지닌 비영리 예술가레지던시 기관입니다. 입주작가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창작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심분야를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HIAP이 위치한 곳은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수오멘린나 섬입니다. 수오멘린나 섬은 헬싱키 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0분 걸리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15분간 배를 타고 진입하게 됩니다. 배는 1시간에 보통 2대 가량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10월 한 달간 관광객을 항상 볼 수 있었으며, 주말에는 단체관광객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HIAP은 제가 머물렀던 수오멘린나 외에도 헬싱키 도심에 케이블 팩토리라는 곳에도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오멘린나 레지던시는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지 주민들과 평소에도 자연스레 마주칠 수 있습니다. HIAP 사무동은 레지던시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사무동에서는 아우구스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보통 레지던시 작가들의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합니다. HIAP 프로젝트 스페이스도 사무동에 있으며, 이곳은 다목적 공간으로, 워크숍, 낭독회, 스크리닝, 집담회 등이 열립니다. 입주작가는 언제든 사무동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HIAP은 도예작가, 조각가들을 위한 별도의 레지던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제가 체류했던 당시 저와 긴밀히 교신했던 HIAP 담당자는 약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첫날 수오멘린나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서 저를 맞이해줬고, 한달 간 체류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저의 체류기간동안 저처럼 입주작가로 와있는 다른 입주작가들과 제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모닝 커피라고 하는 정례회가 열리는데, 이 날은 모든 입주작가들이 모여 본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소개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받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닝 커피 시간은 HIAP 사무동에서 열리기도 하고, 입주작가의 방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기획한 행사와 기획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제가 머물고 있던 방에서 열었습니다. 약 20명 가량의 입주작가 및 직원들이 제 방을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고 열렬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HIAP 담당자들은 전시오프닝, 북런칭 행사, 미술관 등에서 열리는 아티스트 토크 행사 및 컨퍼런스, 네트워킹 파티 등의 현지 정보를 미리 제공해줬습니다. 덕분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행사에 다닐 수 있었고, 현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행사들에도 초청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현지 생활은 언어문제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헬싱키에서는 일반 상점에서도 영어가 통용되었기에 영어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체류했던 수오멘린나섬은 헬싱키 도심과 떨어져있기 때문에 접근성면에서만 보자면 탁월한 입지조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으며, 핀란드 현지인과 교류하기 용이하다는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사우나가 유명한데, 여러 유명 사우나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곳의 매력입니다. 식사는 레지던스 방 내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취사가 가능하고, 시내에는 아시아 식재료를 파는 슈퍼마켓도 있기 때문에 음식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침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색을 즐기기에도 용이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HIAP은 파리, 런던, 뉴욕과 같은 메가시티가 줄 수 있는 화려함이나 북적거림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HIAP 측에서는 입주작가들이 예술기관과 예술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IAP에서는 제가 체류하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기획하고 있는 주제에 맞는 관련 전문가와의 미팅을 여러 차례 주선해줬고, 체류기간 내에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을 통해 해당 전문가와 첫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배려해줬습니다. 또한 관련서적을 조사하여 전자파일로 보내주고, 실물 책도 읽을 수 있게 빌려주는 등 네트워킹을 위한 정성어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HIAP은 본인들이 표방하고 있는 북유럽의 문화거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하나의 예술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다른 입주작가들은 영국, 호주, 스페인 등 비아시아권역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에 HIAP은 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시아의 예술가들과 발전적인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한국 출신의 예술가분들이 HIAP에서 자신의 작업세계를 확장하고자 하실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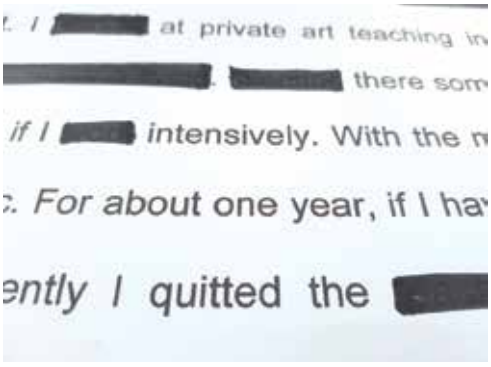











at private art teaching
there
intensively. With the
For about one year, if I
quitted the

Finland

CHAPTER 4

핀란드 HIAP

프로그램명	HIAP
국가	핀란드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8. 22 ~ 9. 20
작가명	성용희

레지던스 기관 소개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예술가연합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간 약 전세계 15-20명의 예술가들이 매년 참여하며, 헬싱키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협동작업과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HIAP은 수오멘리나 Suomenlinna라는 섬이자 헬싱키 역사적 유적지에 위치한 공간 (스튜디오, 전시장, 레지던시 오피스)와 옛 노키아 케이블과 전화기 공장을 개조한 문화 공간에 위치한 공간 (스튜디오) 이렇게 총 2개의 레지던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수오멘리나는 헬싱키 도심 마켓 스퀘어 앞 페리 선착장에서 약 15분이 걸리는 섬이고, 일반적으로 매 20분마다 페리가 운행중이다. 수오멘리나 페리 선착장에서 하차하여 HIAP 공간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가 더 걸린다.

케이블 팩토리는 헬싱키 도심의 서부쪽 Ruoholahti 에 위치하고 있다. 머물렀던 케이크블 팩토리에서 Ruoholahti 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헬싱키 메인 기차역 등의 주요한 장소까지 이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다. 참고로 헬싱키는 단 하나의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머물었던 곳은 노키아가 1940년부터 1980년대까지 케이블과 전화 장치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케이블 팩토리(Cable Factory)였다. HIAP의 메인 레지던시와 전시장이 시내에서 20분 떨어진 수오멘리나 Suomenlinna 라는 섬에 있는 것에 비해 케이블 팩토리는 시내에 있어 작가, 큐레이터를 만나는데 매우 용이했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케이블 팩토리에는 HIAP 스튜디오가 총 3개가 있다. (4층에 위치함) 면적은 각 60m2 이고 복층 구조이다. 3개의 책상과 약 6개의 의자 그리고 옷장과 쇼파가 비치되어 있고 조리가 가능한 부엌이 있다. 샤워실과 화장실 스튜디오 내부에 있다. 와이파이 역시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어 업무와 작업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 난방과 공조 등은 중앙에서 관리한다. 다만 세탁은 별도의 세탁실에서 해야한다. 세탁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5유로 내고 케이블 팩토리 운영관리팀으로부터 키를 빌려야한다.

Ruoholahti 역 주변에는 큰 마트가 두 개 있다. K-Citymarket Ruoholahti와 S-Market Gräsviken이다. 더불어 Ruoholahti 역에 핀란드 편의점인 R-Kioski 가 인접해 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Salmisaari 로 도보로 4분 정도 걸린다. 버스로 중심부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Kamppi Center 로도 이동이 용이하다. Kamppi Center 지하에는 헬싱키 버스 스테이션이 있다. 가까운 트램 정류장은 Länsisatamankatu 로서 도보로 4분 정도다. 8번 트램이 다니고 이 트램은 헬싱키 동북부인 Arabia까지 운행한다. 케이블 팩토리 1층에는 Hima & Sali 이란 카페, 레스토랑이 있어서 다른 아티스트, 큐레이터 등과 미팅하기 용이하다. Hima & Sali 은 8시30분에 오픈하기에 이른 미팅이나 식사를 하기에도 편리하다.

더불어 케이블 팩토리에는 핀란드 현대무용신을 보여주는 Zodiak – Center for New Dance 가 있다. 다양한 현대무용과 워크샵 등을 진행하기에 퍼포밍 아트나 다원예술 관련 리서치를 하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http://www.zodiak.fi/en/zodiak-info

비슷하게 케이블 팩토리 HIAP스튜디오와 같은 층에 핀란드 미디어아트를 아카이빙하는 AV-arkki | The Distribution Centre for Finnish Media Art라는 비영리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주로 핀란드와 핀란드에서 활동하는 비디오아티스트의 작업을 아카이빙과 배급하는데 한국과 여러 교류가 있어 교류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우호적이다. www.av-arkki.fi/

이렇듯 케이블 팩토리에는 현대미술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예술 기관이 입주해있다. 본인이 입주해있는 동안에도 생태 관련 심포지움이나 헬싱키 디자인 위크 (2017 Helsinki Design Week)의 몇몇 행사가 진행되는 등 활발한 문화활동의 장소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리서치 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일시 2017년 8월 31일, 장소 HIAP 로비)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관련된 주제를 HIAP큐레이터, 작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자리였고, 이를 토대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전해들었으며 다양한 작가를 소개받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헬싱키 레지던시에 대한 결과보고
(HIAP 오픈 스튜디오, 일시 2017년 8월 31일, 장소 HIAP 전시장)

HIAP 오픈 스튜디오로 참여 작가 큐레이터들의 작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헬싱키 등의 여러 예술 관련 사람들이 방문했고 전체소개, 개별 작업 소개, 스튜디오 방문 등이 진행되었고 본 리서치에 대해서 연결된 작업을 비디오로 선보였고 리서치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개별 미팅

핀란드 아티스트, 디자이너, 학자 등과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미팅을 수십 차례 가졌다.

워크샵 및 심포지움 참여 (일부)

Arts in the environment nordic symposium 2017
Helsinki Art Walk
Helsinki Design Week weaving kiosk
Solar DIY workshop

리서치 과정

본 리서치는 크게 세 개의 루트를 토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HIAP 큐레토리얼 팀을 통해서다. HIAP 큐레이터인 Jenni Nurmenniemi는 큐레이팅, 매니징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지만 기본적인 연구 토대는 사회학이었다. 그렇기에 본 리서치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했고 관련된 여러 제안을 해주었다. 특히나 최근 그녀의 관심은 환경에 대한 현대미술의 접근이었기에 공유할 내용이 많았다. 더불어 알토 대학과 헬싱키 대학 그리고 탐페레 대학에서 수학하여 여러 기관과 아티스트 등에 매우 훌륭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생태, 환경 그리고 사물에 대해 작업하는 핀란드 작가를 소개해줬다. 이 작가와 공간에 대한 실제적인 리스트업과 목록화는 Project&Communications Assistant인 Salla Lahtinen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다수의 핀란드 작가를 작업 키워드로 분류해줬고 웹사이트, 연락처를 전해줬으며 헬싱키와 주변 도시의 중요한 현대미술 공간을 소개해줬다.

두 번째는 본 리서치 즉 동물', '사물' 그리고 '행위자'와 관계에 대한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알토 대학의 교수진과 석·박사들이다. 그 중 한명은 Practice, Sustainable Consumption을 분야의 학장인 Jalas Mikko 교수였다. 알토 대학의 예술, 디자인 그리고 건축 대학은 상당히 수행적이고 급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대학으로, Mikko 가 가르치는 Creative Sustainability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지속가능성에 탈피하여,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Mikko와 논의했던 부분은 "문화적, 예술적 활동과 실천이 인간에 의해 구성된 환경과 생태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서의 포괄적 생태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가"였다. 그는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와 관계를 소개시켜줬고, 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었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행과 사유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었는데, 이를 연구하고 개척하는 알토 대학의 “정부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government”박사들도 큰 도움을 주었다. 주로 공공서비스와 디자인의 교차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작가, 디자이너 그리고 활동가 등을 소개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교류를 위한 핀란드 기금인 Frame Contemporary Art Finland 의 Head of Programm 인 Taru Elfving 이다. 그녀는 전반적인 핀란드 작가의 국제교류 기금에 대한 설명과 큐레이터 리서치 기금 등을 알려줬고 무엇보다도 최근 핀란드 작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분야를 매우 상세하게 정리해주었다. 또한 Frame Contemporary Art Finland는 베니스 비엔날레 핀란드 관 등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핀란드의 국제적 규모 행사를 참여하는 작가들도 소개, 연결해주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다른 북유럽이 그렇듯이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이 매우 비싸다. HIAP 레지던시는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부엌과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냄비, 식기 등을 제공하니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식자재를 사서 요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외식의 경우 한국 대비 헬싱키가 1.3배 비싸지만, 우유, 빵, 쌀, 소고기, 돼지고기, 바나나 등 대부분의 식자재는 헬싱키가 더 싸다. 각 도시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들 (숙박, 교통, 우유, 계란, 고기 등)의 물가를 비교하는 웹사이트가 있다. 출발전 이를 참고하면 생활 방식을 디자인하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HIAP에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체류기간 월별로 교통 카드를 충전하는 것이 이동이 잦은 큐레이터에게는 효율적이다. 물론 그럼에도 대중교통비는 무척 비싸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큐레이터는 체류 기간이 짧다보니 관련 작가 및 연구자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미팅 일정을 잡고 가는 것이 좋다. 헬싱키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행사가 많을 때에 방문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HIAP은 헬싱키와 HIAP 자체 행사 일정을 정리하여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선정이 된다면 미리 그 일정을 공유 받고 준비해서 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Finland

CHAPTER 4

핀란드 HIAP

프로그램명	HIAP
국가	핀란드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10. 3 ~ 10. 31
작가명	이은애

레지던스 기관 소개

HIAP(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

HIAP(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 이하 HIAP)은 1998년에 핀란드를 기반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주로 시각예술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외에도 퍼포먼스, 무용, 문학,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간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간 참여한다.

위치

HIAP은 핀란드의 대표 기업인 노키아(Nokia)가 사용했던 케이블 팩토리(Cable factory)와 1991년에 유네스코로 지정된 섬인 수오멘린나(Suomelinna) 두 곳에 위치하고 있다. 케이블 팩토리는 HIAP 외에도 뮤지움, 갤러리, 공연장, 예술학교, 디자인 스튜디오 등이 위치해있는 예술지구이며, 수오멘린나 역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작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예술가로서 작업 및 생활하기에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스튜디오를 배정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설

입주 예술가는 스튜디오 혹은 게스트룸을 배정받게 되는데, 스튜디오는 숙식과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며, 게스트룸은 숙식과 소규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오멘린나의 경우 작업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입주 예술가는 별도로 갤러리 어거스타(Gallery Augusta)를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전시, 퍼포먼스, 토크,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장비들은 HIAP 사무실에서

대여 가능하다. 또한, 조각 작업을 하는 예술가에게만 제공하는 스튜디오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는 수오멘린나의 스튜디오라 불리는 곳을 배정받았으며,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숙식하기에 충분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스튜디오는 복층 구조이며, 주로 아래층은 작업 공간, 위층은 숙식 공간으로 이용된다. 세탁실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사용 인원에 비해 세탁기가 1대뿐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웠다. 또한, 수오멘린나 섬 내에는 시와(SIWA)라는 편의점이 있으며, 이곳에서 대부분의 필수품 및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모든 시설에 대한 문의는 HIAP 스태프에게 이메일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이들 대부분은 입주 예술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평일을 기준으로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스태프

주요 실무자는 HIAP의 디렉터 유하 후스꼬넨(Juha Huuskonen), 큐레이터 마리나 노론하(Marina Valle Noronha)이다. 유하는 핀란드 내 HIAP의 전반적인 활동과 외부적으로는 추후 ARKO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대해 무척 관심이 있었다. 마리나는 핀란드 내에서 진행되는 예술 관련 행사에 스케쥴을 매주 업데이트 및 공유해주었고,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핀란드 예술 관련 주요 인사에게 입주 작가, 큐레이터들을 직접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 스테파니 로이코(Stephanie Roiko)와 테크니션 폴 플랜더스(Paul Flanders) 인턴 일링 우(Yiling Wu)와 주로 교류했다. 대부분의 스태프는 격일로 케이블 팩토리와 수오멘린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담당자의 근무 요일을 파악하고 있으면 편리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HIAP 브렉퍼스트 타임(HIAP Breakfast time)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프로젝트 스페이스(Project space)에서 모든 HIAP 스태프와 입주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때 스태프와 입주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때때로 외부 인사들도 방문하여 입주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HIAP 튜터링(HIAP Tutoring)

HIAP은 매달 마지막 주에 하루 동안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필자가 만났던 튜터는 미디어아티스트이자 교수인 일-아날라 카리(Yli-Annala Kari), HIAP의 입주 작가였던 민나 헨릭슨(Minna Henriksson), 독립큐레이터이자 HIAP의 입주 큐레이터였던 지오반나 유지프(Giovanna Esposito Yussif) 총 3명으로, 모두 핀란드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오픈 스튜디오를 위해 입주 예술가들은 이들과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아 미팅할 수 있다.

HIAP 오픈 스튜디오(HIAP Open studio)

국내 레지던시나 창작스튜디오의 입주 기간이 대개 1년인 것과 달리 HIAP의 입주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HIAP의 오픈 스튜디오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자주 진행된다. 주로 수오멘린나의 스튜디오와 케이블 팩토리 입주 예술가들의 경우 수오멘린나의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선보인다. HIAP 스태프는 오픈 스튜디오를 위해 핀란드 내 예술 관련 기관과 인사들에게 약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하며, 필자가 참여한 오픈 스튜디오의 경우 방문객은 핀란드 전체 지역보다는 헬싱키 내 그리고 수오멘린나 섬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오픈 스튜디오는 레지던시 기간이 거의 종료될 시점에 하루 동안 진행되었고, 덕분에 핀란드에서 한 달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큐레이터로서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하기 위해 필자는 작업의 완성된 형태보다는 연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 스튜디오에서만 머물기보다는 필자의 연구 주제인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작가, 큐레이터, 디렉터, 기관, 연구자와 최대한 많은 접촉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다양한 대안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켜 오픈 스튜디오를 위한 과정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작가, 큐레이터, 일반인 등 약 30명의 관람객이 HIAP 오픈스튜디오에 방문했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오픈스튜디오에서 보게 될 입주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입주 큐레이터는 어떤 작업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핀란드 미디어아트에 대한 기존의 기준과 방식과는 다르게 외국인의 시선에 들어온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10월, 흑야 현상

매년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ARKO)에서 지원하는 HIAP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 기간은 10-11월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흑야 현상으로 오후 3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다고 한다. 하지만 핀란드인에게 10월은 아직 늦여름이며, 오후 7시는 되어야 해가 지기 시작한다. 오후 5시-7시까지 진행되는 주요 오프닝파티에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날씨는 한국의 12월과 비슷하니 따뜻한 옷 등 준비가 필요하다.

브런치 뷔페(Brunch buffet)

핀란드의 물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함께 높은 수준에 속하는 동시에 현기증 나도록 맛있는 요리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하지만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대부분의 레스토랑, 카페가 대

략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는 브런치 뷔페를 통해 한 끼 식사로 충분히 든든하고 건강한 핀란드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사우나(Sauna)와 수영장(Outdoor pool)

사우나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문화이며, '1가구 1사우나'라 할 정도로 집집마다 크고 작은 사우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척 놀라게 한다. 그 중 추천하고 싶은 사우나는 건축가 부부가 디자인한 꿀뚜리(Kulttuurisauna)와 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우나와 더불어 야외 수영장을 겸비한 로올리(Löyly)다. 또한, 수오멘린나 섬에 HIAP 입주 예술가를 위한 2개의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으니, 수영복은 필수로 챙겨가기를 바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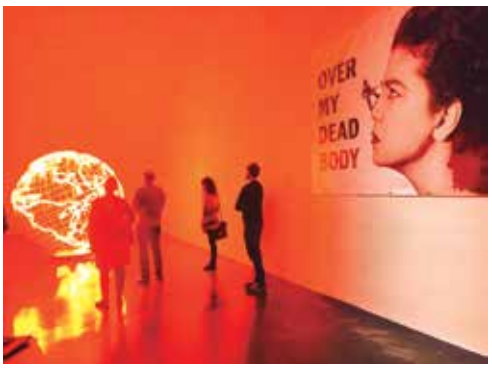
최근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해 입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은 것 같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작업/연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 높은 벽을 통과하기만 하면 저절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만약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한 달 뒤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인사들과의 사전 미팅과 연락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권한다.

연구와 관련된 사전 조사 및 이전 참여자와의 정보 교환

짧은 입주 기간 동안 어떤 입주 예술가는 다수의 워크숍, 토크, 전시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어떤 입주 예술가는 다른 입주 예술가의 활동에 관람자로 참여만 하다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현지 관련 인사들과의 미팅을 잡고,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기를 바란다. 또한, 이전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여자와의 미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다면 현지 관계자들과의 지속성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Finland

CHAPTER 4

핀란드 HIAP

프로그램명	HIAP
국가	핀란드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2014. 11. 1 ~ 11. 30
작가명	김성우

레지던스 기관 소개

HIAP은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국제 레지던시 기관으로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연구/ 활동 중인 작가 및 큐레이터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긴밀한 지역 및 국제 파트너쉽을 통해, 시각예술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포용하고, 개별 연구자들의 교차점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IAP의 레지던시는 헬싱키 시내의 옛 노키아 전선공장을 개조하여 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인 카펠리(Kaapeli)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수오멘린나(Suomenlinna) 요새가 위치한 섬 두 군데로 나누어져 위치해 있다. 필자는 수오멘린나 섬에 위치한 레지던시에 거주하였으며, 개인 스튜디오의 규모와 내부 설비는 큐레이터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부족하거나 넘침없이 적당하다.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엑스트라 침대와 미팅 진행이 가능한 공간의 넓이와 구조는 사람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위한 인상적인 배려였다. 그 외 생활 설비와 기타 편의시설은 국제 거주자를 배려하여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게 구비되어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려한 도심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을 제공하는 수오멘린나 섬의 스튜디오 안에서 개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예술행사가 개최되는 헬싱키의 시내를 왕래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교통편(정해진 시간에 섬을 왕복하는 배편을 이용해야만 한다)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다.

HIAP 의 큐레이터인 Jenni Nurmenniemi는 필자의 연구 주제나 이슈에 적합한 현지의 작가 및 인사, 기관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미팅을 주선했으며, 그가 제공하는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행사 소개는 지역

의 예술생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FRAME Visual Art Finland의 당시 프로그램 헤드였던 Taru Elfving은 현지에서 필자가 진행하였던 큐레이터토크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었으며, 지역의 미술 전문지 및 비평서적 관련 소개를 통해 핀란드 예술계의 주요 이슈와 동시대 미술로서 현재적 좌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했던 필자의 연구 진척을 위한 HIAP 측의 조력과 지원은 적절했다고 평하고 싶다. 핀란드 예술계가 당면한 지역적 이슈와 개인 연구주제의 교차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작가 및 큐레이터,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이 특히 돋보이기도 했다.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지역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연구에 관련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필자는 지역적 맥락을 기반으로 네러티브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형식(영상, 도큐멘테이션, 설치, 아카이브 등)을 리서치 하였다. 특히,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예술의 언어로 침투하여 공식적/거시적 역사와는 다른 차원의 대안적/미시적 역사를 제시하는 현대미술의 한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기억과 역사, 그리고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런던에서 진행했던 개인 연구주제를 심화시키는데 의의가 있었다. HIAP과 FRAME Visual Art Finland의 협조로 본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한 큐레이터 토크 <Meet The Curator>를 헬싱키 현지에서 진행하였으며, 토크 후 이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을 통해 동아시아적 맥락을 바탕으로 필자의 관점을 핀란드 작가 및 큐레이터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당 연구를 심화, 확장 및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 연구주제 관련과 더불어 필자의 전문 분야인 큐레이팅 관련 작가, 큐레이터, 콜렉티브 및 기관 리서치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미팅을 통해 북유럽 작가와 그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동시대 미술의 현재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해당 연구 주제와 다양한 큐레이토리얼 실천 리서치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핀란드의 대안공간 및 큐레이터, 작가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필자가 책임큐레이터로 재직하고 있는 공간뿐 아니라 다른 여타 기관과의 협력을 주선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필자는 작가 스튜디오 방문, 다양한 전시 및 지역의 예술행사 참가를 위해 접근성이 좋고 시간 관리가 용이한 Kappeli의 스튜디오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제한된 스튜디오의 숫자로 인해 수오멘린나 섬의 스튜디오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섬에서의 한 달,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수오멘린나 섬에서의 시간은 필자에게 주어진 한 달간의 레지던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었다. 수오멘린나 섬에서의 하루하루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기대어 공존하는 삶이며, 매일 밤 해가 진 후에는 완전한 고요와 어둠에 갇혀 세상에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들,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런던이나 서울의 일상과는 다르며, 밤이 되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뿜어내는 화려함에 취하는 대도시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필자는 그것을 일종의 초현실적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감히 추천해보건대, 작가에게는 상상력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고 절대적 고요의 한가운데에서 자아를 마주하고 성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란 생각이 들며, 큐레이터나 이론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머리로 자기의 연구와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느낀 북유럽, 특히 핀란드의 예술은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핀란드의 교육과 디자인이 집중적으로 알려지며, '북유럽 디자인'혹은 '북유럽식 교육'이라는 기이한 용어와 유행이 생겨났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 하에 트랜드를 위시한, 일종의 폭력적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예술이라는 큰 프레임 아래 핀란드의 디자인이나 순수미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은 모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인의 삶을 마주하는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삶속에서 환경을 거스르거나 억지로 규정하고 형태 짓지 않는 사유의 방식이 시지각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외부의 시선으로 핀란드의 디자인이나 건축, 순수예술의 장르적 특징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필요에 의해 분류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을 꿰뚫는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언제나 삶과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일상을 대하고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타지에서 외부인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특정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HIAP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 지역 미술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가능한 많은 지역의 주요 작가와 전시, 행사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현지 미술계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이슈와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과 자신의 연구를 결부 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므로 도착 전 HIAP의 큐레이터나 관계자에게 자신의 연구주제와 방향을 최대한 명료

하게 전달하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곧 이방인이 현지에서 느끼게 되는 물리적/심리적 간극을 최소화하고, 연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신체적 적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자신의 연구와 현지 이슈의 교차점을 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제 레지던시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각국에서 모인 작가들과의 의견 및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내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리를 먼저 제안함으로써 핀란드를 넘어 다양한 국제적 맥락과 층위에서의 관점을 살피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과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Argentina

CHAPTER 5

아르헨티나 프로젝토 에이스 피랄

프로그램명	프로젝토 에이스 피랄
국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10. 29 ~ 2018. 11. 23
작가명	전보경

레지던스 기관 소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시설로 구분된다. 하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스튜디오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 공간이다. 스튜디오 공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은 사용이 불가하다. 보통 1-2시까지 점심시간이며,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다. 채식주의자가 있는 경우, 모든 식단이 야채로 구성된다. 그 외 정수물, 커피, 차는 항시 준비되어 있다. 모든 작가들은 사전에 자신의 알레르기나 채식 선호 등 식단을 미리 적어낼 수 있다.

레지던시 스튜디오 공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사무실, 판화실, 그리고 스튜디오이다. 사무실은 일명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데, 거의 사무일이 진행되므로 책을 보고싶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야한다. 스튜디오는 총 2개이다. 그 중 한 개는 옥탑에 위치한다. 내가 있는 동안 Exploration residency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작가가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스튜디오는 큰 공간으로 사무실 맞은편에 위치한다. 그곳을 ARKO에서 파견된 두 한국 작가가 나눠서 쓰게 되었다. 두 작가 사이에 어떤 가벽도 설치 되어 있지 않아 개인 공간은 없었으며, 사무실 사람들이 노크 없이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해 작업에 집중을 하기 어려웠다. 개인공간이 중요한 작가라면 덧문을 꼭 닫고, 창문에 “노크하세요”란 종이를 붙이면 더 좋을 듯하다. 또한 외부 소음이 심하게 들려서 사운드 녹음 작업은 불가하다. 유럽인은 빛을 선호하지 않는 듯 스튜디오 공간의 빛의 조도가 어두운 편이다. 빛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해야한다. 이 공간의 장점은 아름다운 발코니와 창문이다. 벽은 콘크리트여서 구멍을 뚫기 어려우니, 설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판화실은 판화를 프린트 하는 곳과 암실로 나뉘어져 있다. sub 30 residency 프로그램에 참여한 캐나다 작가가 판화실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스터 프린터(master printer)가 있어서 프린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작가 외

에는 아무도 판화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나 역시 판화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해보고 싶었지만, 마스터 프린터가 사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였다. 만약 판화작업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면, 미리 지원서에 적어 내거나, 레지던시 시작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 작가는 1주일 기간의 짧은 레지던시여서, 그녀가 떠난 후 판화실은 디렉터의 판화 작업을 하는데 이용되었다.

공구나 목공시설이 없기에 조소나 조각을 하는 작가에게는 적당하지 않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또한 영상편집을 위한 컴퓨터나 조명, 기기 시설이 없기에 모든 것을 작가가 준비해야 한다. 조명 경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전문 조명기기 대여점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레지던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행되는 전시는 따로 전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청소하고 그곳을 전시장으로 쓴다. 그 외 복도와 2층의 계단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쓰기도 한다. 영상작업 경우 프로젝터가 1대이므로, 다채널 영상을 만들면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 설치하기 어렵다.

주거 공간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운타운에 가까운 곳으로 세탁기가 없고 스튜디오에서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문화행사나 미술관들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스튜디오에서 15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우범지대를 거치기에 멀리 돌아서 가야하는 단점이 있다. 장점은 세탁기가 있고, 도어맨이 있어서 거주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짐을 옮기는데도 수월하다. 주변에 상점이나 음식점들도 많은 편이라 필요한 식재료를 쉽게 구해서 생활할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5블럭 안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나 다운 타운으로 갈 때는 긴 이동을 요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현지 담당자는 총 6명이 있다. 디렉터, 코디네이터, 마스터 프린터, 어시스턴스,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설관리 및 청소 담당이 있다. 대부분 주 4일 근무이다. 자원봉사자 경우 일주일에 2번 참여한다.

레지던시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자기 작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소개가 있다. 디렉터 코디네이터, 마스터 프린터, 어시스턴스가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다. 작업이 시작되면 디렉터와 코디네이터가 옆에서 작업에 대해 조언 및 피드백이 시작된다. 만약 작가의 성향이 토론과 아이디어 공유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들과의 대화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좀 더 개인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싶은 작가라면 방해받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디렉터 경우, 영어가 유창하진 못하나 영어로 얼마정도 소통이 가능하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작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려주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었다. 말의 일관성이 부족한데, 나의 경우 조명 대여비를 레지던시에서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내가 지불해야했다. 이와 더불어 돈의 개념에 대해 민감한데, 다른 한국 작가에게 지불한 가격이 적다며 작은 방을 쓰라고 했고, 그 이유가 미국 작가보다 돈을 더 적게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후에 미국 작가에게 물어본 결과 그 작가가 우리보다 1000 달러 정도 적게 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어, 한국말을 해보라고 하거나, “한국인이서 ~ 하구나”란 편견을 내비춘다. 그게 호의로 보일수도 있으나, 잘못하면 이국화로 보일 수 도 있다. 반면 친절한 점도 있는데, 내가 생일인 것을 알고 꽃과 케익을 사주었고 레지던시의 모든 스태프와 작가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코디네이터 경우, 프로그램에서 영어가 가장 유창하다. 나의 경우 레지던시 시작 전부터 코디네이터와 연락을 시작했다. 짧은 레지던시 기간이기에 인터뷰 섭외에 필요한 사전 조사 및 리서치를 위해서였다. 작업이 시작되면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인터뷰 섭외를 통역 및 진행해 주었고, 모든 통-번역을 도와주었다. 또한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작가의 작업에 대한 해석과 작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비상상황에 연락하면 언제든 답을 주었다. (그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레지던시를 떠난다. 새로운 코디네이터를 뽑는 과정 중에 있다.)

마스터 프린터는 판화실에 거의 상주한다. 점심을 같이 먹는 동안 작업과정에 대해 묻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판화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와준다.

자원봉사자 경우도 거의 판화실에 상주한다. 점심을 같이 먹는 동안 작업과정에 대해 묻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판화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와준다.

어시스턴스는 사진 작가인데, 모든 이벤트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한다. 코디네이터가 바쁠 경우 통역을 도와주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점심을 같이 먹는 동안 작업과정에 대해 묻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

시설관리 및 청소 담당은 주 4일 동안 점심과 청소를 담당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작년에는 로컬 핸드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 올해 역시 계약 조건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받지 못했다. 인터넷을 밖에서 쓸 수 없기에 약속을 확인하거나, 저녁에 이동 하기 위해 우버를 부를 경우 난항을 겪었다.

세탁기 사용법 경우 일부가 영어로 번역된 사용서를 주었으나, 정작 필요한 내용은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

에이스 피랄 웹사이트에는 일주일 마다 청소를 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나 시행된 적은 없었다.

도착한 첫 주 금요일 저녁 9시경, 욕조에 물을 트니, 하수구에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디렉터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했으나, 월요일이나 되어야 고치는 사람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하수구 뚫는 액체를 사고 싶다고, 늦게까지 여는 슈퍼를 알려달고 했으나 소용없을 거라는 답만 왔다. 결국 우리는 거리를 해매며 열려있는 마트에서 하수구 뚫는 액체를 사서 넣었다. 다음날 하수구에 문제가 사라졌다. 다음날 디렉터와 남편이 와서 확인하였고, 월요일에 고치는 사람이 와서 다시 확인하긴 했다.

여성 둘이 쓰는 집에 미리 온다는 연락 없이 디렉터의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가 있었다. 개인 공간 침해로 느껴졌다.

택시를 예약할 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작가가 택시를 타고, 쓰지 않은 돈이 3번 청구가 되었다. 코디네이터와 한국 은행의 도움으로 다시 돈을 되받았으나, 현금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많은 미술관들과 문화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검색 후 가야한다. 레지던시 기관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 미술관 및 가보면 좋을 문화 공간의 위치를 알려주긴 하지만 전시일정을 알려주진 않는다. 미술관 경우 인터넷 공지 없이 닫기도 한다.

레지던시에서 제공되는 점심 식사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아침, 저녁을 알아서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월요일에 일주일 먹을 식량을 사두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 과일 경우 신선도가 떨어진다.

전시 오픈 당일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였다. 타인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보다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디렉터는 작가에게 작품에 대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였고, 자신이 오프닝에서 읽을 거라고 말했다. 스페인어를 못하는 우리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자신이 돋보기이기 위한 방법 같았다. 왜냐하면 디렉터는 작가의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이, 보내준 텍스트를 보고 스페인어로 말했을 뿐이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시라고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다. 프로젝터와 스피커는 성능이 좋지 않다.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지 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의도가 많다. 스피커의 위치는 어중간해서 영상의 목소리가 울렸고, 프로젝터의 위치는 눈높이보다 높아 보기에 어려웠다.

Exploration residency 작가에게는 개별 전시 엽서를 만들어 주었으나, 한국작가들에게는 만들어 주지 않았다. 선정된 작가는 사전에 Exploration residency와 자신의 레지던시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미리 잘 알아보고, 요구할 사항은 미리 해 두어야 한다.

전시라고 했지만, 당일 하루정도 이벤트로 끝나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작가의 영상작품들은 고작 3번 정도 상영했을 뿐이다. 만약 전시라는 이름으로 길게 진행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작업을 미리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마지막 주에 전시하는 것 보다는 그 전 주에 시작한다면 길게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작품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미리 디렉터와 어이스턴스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작가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사전 워밍업이 필요하다.

작품 기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기부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기부를 위해 작성하는 form역시 작품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어떤 보험의 여부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결되었다. 어떤 작업을 기부할지에 대해서도 작가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 피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다.

아르헨티나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국가이다. 하지만 조금 더 작가와 작품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금전 관리와 명확하게 지원사항이 명시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작가가 선정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Arko와 에이스 피랄에 모두 요청하길 바란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Argentina

CHAPTER 5

아르헨티나 프로젝토 에이스 피랄

프로그램명	프로젝토 에이스피랄
국가	아르헨티나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1. 12 ~ 2017. 12. 10
작가명	유영주

레지던스 기관 소개

프로젝토 에이스 레지던시는 리토그라피를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를 갖추고 그에 관한 여유로운 공간의 워크샵과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다양한 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사이즈의 갤러리의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 스튜디오는 위층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별도의 넓은 옥상 구역이 있어 작업하면서 드나들며 바람도 쐬고 하늘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튜디오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가정식의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개인 생활공간은 스튜디오와 기차로 세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으로 스튜디오 보다 시내 쪽에 위치해 있어 수퍼마켓, 아트샵, 파머시 (약국이나 기타 생필품도 함께 판매하는 곳), 빨래방, 24시간 편의점등 모든 편의 시설과 좋은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많은 유명 관광지에 접근이 용이하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도 많다. 다만 관광객이 많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레스토랑은 그리 싼 편은 아닌 듯하다.

레지던시 기간동안 리토그라피 관련 전시 및 토크 등 행사들이 3번 있었는데 에이스 다이렉터를 통해 여러 관련자들을 소개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전시 오프닝에도 함께 동행 하였다.

인터뷰 작업을 하는 나의 작업의 특성상 참여자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했는데 레지던시 기간이 짧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다이렉터 알리시아와 코디네이터 다니엘라의 도움으로 참여자들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곳 다이렉터와 코디네이터는 매우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머뭇머뭇할 기회 없이 정확히 결정 후 바로 수행해야 한다. 짧은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이다. 또한 이곳 코디네이터는 스페인어, 영어에 매우 능통하여 통역도 잘 수행해 주며 요청하지 않아도 작가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촬영해 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도착 후 한 주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면서 작업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Can you hear me?' 라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4년 동안 진행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나이지리아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모두 영어가 가능한 지역이었고 처음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2의 언어, 즉 바디 랭기지와 정규 언어 이외의 소리들, 즉 한숨 소리, 망설임의 소리, 무음에 담긴 감정의 의미 등에 주목하였었는데 이곳에서 그것을 실현해 보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통한 사운드 작업이 아닌, 비디오 작업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어쩌면 사운드와 비디오 동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디오로 인터뷰 참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편집과정에서 정규 언어는 모두 지운 채 내가 주목하고 있던 제2의 언어만 남겼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나이대의 6명을 인터뷰 하였고 미리 준비한 스페인어 질문에 모든 참여자들은 스페인어로 답하였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두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했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참여 자체를 즐거워했다. 한 참여자가 말하기를 이곳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반응은 각 참여자마다 달랐다.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지금 작업 중이고 그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하다. 나의 작업의 특성상 나의 네트워크 구축은 예술계의 사람들 보다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프렌드쉽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과는 페이스북 친구도 맺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작업의 과정을 볼 수 있고 또한 전시회 오프닝에도 올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영향으로 모든 건축 양식이 뒤 섞여 있고, 음식 또한 아르헨티나의 가장 유명한 음식인 고기 종류뿐만 아니라 이탈리안 음식인 피자, 파스타도 훌륭하다. 나 같은 커피 러버에게는 오래된 카페문화를 가진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매우 매혹적인 도시이다. 골목마다 카페가 있으며 밤늦게 까지 카페나 바,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서빙한다. 이곳의 에스프레소(이곳 명칭으로는 카페)와 카페 콘 레체는 이태리나 스페인에 뒤지지 않는다. 100년 이상

된 유명 카페는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줄 서서 들어가기도 한다. 카페의 바리스타들은 대체적으로 중년이상의 남성들이 담당을 하며 서빙은 헤어 칼라와 같은 화이트 셔츠를 입은 노년의 남성들이 맡는다. 가격도 서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다만 많은 곳들이 카드가 아닌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곳의 저녁식사 문화는 스페인과 같이 저녁 10시쯤에 하는데 숙소가 있는 시내 쪽에는 8시 정도에 가면 텅 비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보통 9시 정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간대 인 것 같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식사 시 보통 10% 정도의 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별도로 모든 상점에서 카드 결제 시 신분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매우 현대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것은 100년 이상 된 카페와 같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함께 빅토리안 스타일의 건축양식과 Brutalist의 건축양식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의자를 두고 거리에서 영업을 하는 구두 닦는 중년, 혹은 노년의 남자들과 함께 인상적인 것은 서점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레지던시 다이렉터 알리시아의 말에 의하면 문학은 이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만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대 도시 이지만 신문이 비치되어 있는 카페가 많으며 아침 시간에 가면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 아르헨티나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만큼 박물관에 소장품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MALBA라고 불리우는 라틴아메리카 아트 뮤지엄과 같은 곳이 있어서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또한 CCK 라고 하는 공간은 오래된 우체국을 전시 및 공연장으로 개조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간 활용의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리노베이션된 공간에 당시 사용하던 오래되어 반질반질한 나무 데스크를 둔 것은 인상적이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다. 거리에도 나무가 많지만 도시 곳곳의 크고 작은 공원들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들이 있다. 공원은 딱 필요한 만큼만 인공화 되어있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다. 주말에 가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 이곳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마테차를 마시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여타의 대도시처럼 홈리스들이 많다. 특히 숙소가 있는 곳은 시내라 홈리스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위협적이진 않다. 눈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면 아무 일 없다. 스튜디오에 갈 때 기차를 이용하는데 10분-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기차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곳은 거리 공연보다 기차나 지하철 공연이 더 흔한 것 같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람들은 이들이 공연을 하면 모두 박수를 쳐준다. 그 문화를 알기 전 생각 보다 실력자들이어서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었다. 물론 돈을 주는 사람들은 박수치는 사람들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공연이 끝나면 주머니를 들고 돌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낸 적이 몇 번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작가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관심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이다. 즉 어떤 분야의 작가이든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큰 도시이고 멀티 컬쳐의 도시이며 클래식부터 컨템퍼러리까지 모든 문화가 다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 가진 성격이 광범위한 반면 레지던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일 경우 세부적인 주제로 작업하거나 기존 작업의 연장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레지던시의 시설이 리토그라피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이렉터가 예술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Poland

CHAPTER 6

폴란드 타데우스 칸토르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명	타데우스 칸토르 파운데이션
국가	폴란드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17 ~ 2018. 9. 17
작가명	손선경

레지던스 기관 소개

타데우스 칸토르 하우스는 폴란드 화가, 연극 연출, 퍼포먼스로 유명한 폴란드 아티스트 타데우스 칸토르의 생가였던 곳을 아티스트 레지던스로 운영하는 곳이다. 예술가 레지던스로서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레지던스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자유롭게 작가의 작업 리서치와 작품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다. 폴라드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진 크라쿠프라는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약 한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Hucisko 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타데우스 칸토르가 생전에 직접 집의 디자인에 관여하여 폴란드 전통 산장 스타일을 유지한 가옥형태와 집 옆에는 타데우스 칸토르의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거대한 연극 의자 조형물이 있어 종종 방문객이 이 의자 조형물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는 달리 여러 작가가 공간을 나누기 보다는 기간을 나누어서 작가 한 사람에게 온전히 레지던스 공간이 제공된다. 공간 곳곳에 타데우스 칸토르의 페인팅과 드로잉 작업과 그의 아내 마리아 스탕그렛의 예술 작업이 걸려 있어 안과 밖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좋은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타데우스 칸토르 하우스는 숲으로 둘러싸인 인적이 드문 시골 환경으로 혼자 조용히 고립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적합한 곳이다. 예술가가 본인이 기존에 진행 해오던 프로젝트를 혼자 조용히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레지던스 담당 큐레이터에게 도착과 크라쿠프와 주요 공간이나 레지던스 공간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필요한 사항은 담당 큐레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상에서 이뤄지는 미디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하기 좋은 조건인 반면, 재료가 필요한 작업을 하거나 큰 작업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곳의 여건상(재료구입이 힘들고, 이동수단이 불편하고, 주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대부분 영어 불가), 작업장이 없다는 점) 예상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엿보였다. 작업 리서치나 미디어 작가들에게 좋은 조건이다. 그 외에 모든 문화 예술 활동이나 네트워킹 부분은 레지던스 자체에서 이뤄지긴 사실상 힘들고, 주로 크라쿠프 시내로 버스와 기차로 이동을 해야만 가능하다. 크라쿠프시에는 칸토르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는 크리코테카라는 칸토르 박물관과 공연장이 있어 그와 관련된 아카이브나 연극, 퍼포먼스, 워크샵에 참여 할 수 있다. 담당 큐레이터에게 부탁하면, 그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워크샵 참여가 가능하고, 타데우스 칸토르가 생전에 연극과 해프닝과 같은 퍼포먼스 기여한 바가 크므로, 실험적인 연극과 퍼포먼스 워크샵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점이었다. 칸토르 파운데이션 직원들이나 담당 큐레이터 모두 칸토르 레지던스에 참여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를 갖고 있어, 상당히 좋은 편의를 갖고 워크샵 참여가 이루어진 편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칸토르 하우스의 첫 느낌은 어두운 산속에 외딴 산장 같은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마치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 같이 무섭고 스산한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집안에 걸려있는 칸토르 부부의 작품들과 구석 곳곳에 있는 거미줄들이 앞으로 한달 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과 함께 무섭고 막막한 느낌이 더해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밝은 곳에서 다시 둘러보니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고, 공기 좋고, 상쾌한 평화로운 산속에 있는 별장 같은 곳이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칸토르 하우스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서 손쉽게 기본 물품이나 식품을 구입하기 힘들다. 적어도 버스타고 20분 정도 나가야 근처에 비에리치카 라는 소금광산이 있는 작은 관광도시에 가거나 크라쿠프시에 가야한다. 첫날 도착해서 담당 큐레이터와 쿠라쿠프시에서 만나 레지던스 들어오기 전에 큰 슈퍼에서 들러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들어오게 한다. 레지던스에 있으면서 크라쿠프시에 나올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크라쿠프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기본 필요한 것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는 거의 숲과 들판으로 둘러쌓여 있고, 드문드문 이웃집들이 있으나 이웃들과 마주 칠 일은 거의 없다. 종종 칸토르 하우스 옆에 거대한 조형물을 보기위해 방문객들이 오곤 하는데, 그 곳에 온 방문객과 대화하다가 이웃에 초대된 적이 있기도 하다.

버스타고 20분정도 나가면 비에리치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소금광산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문화생활은 크라쿠프에서 이뤄지는데, 비에리치카까지 버스타고 가서 다시 기차를 타고 다시 20분정도 나가야 한다. 크라쿠프에는 고대 카톨릭문화를 잘 유지하는 도시이고,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유럽의 고전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크라쿠프 현대미술관과 크리코테카, 유대인지구, 쉰들러리스트의 쉰들러 팩토리,그외의 미술관, 갤러리, 박물관 등등 폴란드의 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충분히 문화적으로 경함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실, 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기도 하다. 프로젝트 기반의 그룹 작가들과 그룹 리서치 기반의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라면 더욱 즐겁게 작업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른 아티스트들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달간 혼자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하기는 실제적으로 힘들지만, 혼자 집중해서 작업에 전념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한 달간 작업하고 전시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기간이 너무 짧고, 개인적으로는 새 작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시까지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다음해에 레지던스에서 한 작업으로 레지던스 공간이 아닌 크라쿠프에 있는 갤러리와 다른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타데우스 칸토르 작가가 실험적인 연극과 퍼포먼스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연극 연출에 관심있는 작가분들이나, 퍼포먼스의 기반의 작가들분들이 이 레지던스를 참여하면 좋은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Korea

CHAPTER 7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프로그램명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국가	대한민국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26 ~ 2018. 9. 21
작가명	김재원

레지던스 기관 소개

쇄빙선 아라온호는 2009년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한국 최초의 극지 탐사선이다. 지구의 남과 북, 양끝을 가로지르며 운항하는 이 연구선은 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며,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극지탐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라온호에 탑승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넘어서는 상상을 해야하는데, 짧게는 만년에서 길게는 십만년 이상의 시간대를 넘나드는 고대지구환경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 나선다. 고환경, 고해양, 고기후, 고지질 등의 연구를 위해 극지심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마테리얼 샘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수집된 고대의 지구마테리얼들은 시뮬레시션을 통해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 해주는 한편,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와 같은 오늘날 글로벌 테마와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 외에도 해양생물이나 미생물, 메탄얼음인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개발연구 및 자원특성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소수의 예술가는 아라온호에 탑승하게 된다. 작가는 자율적으로 관심분야의 현장상황이나 실험들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작품의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는 일반적인 예술창작 레지던스와는 다르게 과학자의 탐사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극지로 향하는 매번의 탐사는 몇 년을 이어가는 어떤 테마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본 작가가 승선한

북극탐험의 목적은 메탄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총 5년의 탐사기간 중 3년째에 해당하는 항해였다.) 멤버들이 구성을 이루어 탐사활동을 하는 것이 항해의 주된 목적이 된다. 대략 20여일간 짜여진 항해는 빡빡한 스케줄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오전 9시쯤에 열리는 사이언스미팅으로 시작한다. 미팅에서는 탐사진행상황이 모든 대원들과 외국탐사진들에게 공유되며 세세한 스케쥴이 조율된다. 오후에는 변화하는 현지의 상황과 기후조건에 맞추어 실험일정이 진행된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속에서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바람막이를 뒤집어쓰고 헬멧을 착용한 과학자들과 승조원들은 밤이 지새도록 실험을 진행한다. 예술가는 본인의 자원함에 따라 실험의 보조역할로 참여 할수 있다. 그외에 일상적으로는 극지와 관련된 본인의 관심사를 찾아다니거나 배에 마련된 도서관의 자료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복귀하는 항로에는, 쉐프급 박사님들의 연구관련 프리젠테이션이있으니 관심있는 작가라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총 기간동안 예술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창작활동 또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해외에 거주하기에 알래스카 현지의 승선지점까지 혼자 이동을 해야했다. 승선지는 미국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땅끝마을 배로우이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고약하기에 앵커리지에서 자주 비행기가 취소된다는 현지 불로거들의 글을 읽고 일찌감치 길을 나섰다. 비행기에 내려 배로우 공기를 마실 때부터 폐에서 스미는 한기가 북극을 실감나게 했다. 10년전 밟았던 호주땅의 40도 여름, 습하고 뜨거웠던 그 공기가 폐를 거쳐 온몸을 늘어지게 했던 몸의 기억이 절로 떠오르는 것은 무슨 요상한 이치인지, 아님 낯선땅에서 겪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인지… 일년 내내 마이너스의 온도와 해가 뜨지 않는 한달의 기간을 가진 배로우는 첫 인상부터 여타 관광지와는 다른 거친면모를 풍겼다. 이곳저곳 여행을 해보았다고 생각한 스스로이지만, 북극의 바닷바람과 익스트림한 날씨를 버티고 일궈낸 이곳 마을의 모습은 많이 낡고 닳아있어 꽤 생소하게 느껴졌다. 내가 여지껏 살았거나 살고있는 도시의 자연환경과는 매우 다른 곳이다. 도시속 즐비하게 서있는 빌딩숲 사이에 적절히 잘 꾸며진 공원들 같은 것들를 자연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극지의 마을은 드넓고 인간이 손델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한켠에 인간 공동체가 신세를 지고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배로우의 마을은 정돈되거나 예쁘게 꾸며지기 보단,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는 자연의 섭리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마을의 여기 저기에 널려있는 고래뼈나 사슴의 뿔과 같은 것들 못지않게, 바퀴가 없이 낡아 버려진 자동차, 오랫동안 풍화된 배의 잔재들, 집이나 마을의 닦여진 길바닥들도 단지 자연의 일부같다. 누구도 그런 풍경을 낯설어 하거나 특별하게 인지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이방인만이 이곳 마을을 여기저기 구석까지 누비면서, 이곳을 마치 영화셋트장이나 설치미술 한가운데에 있는것 마냥 희안한 느낌을 얻는다. 한참을 거닐다 발이 젖었다. 오렌지색 건물이 눈에띄어 피신한 오사카라는 조그만한 선술집을 들어갔다. 아시아풍의 인테리어에 천장에 걸려있는 초록의 일본우산 데코레이션, 한국인이냐며 인사를 건내는 사장님이 오랜만의 이방인을 반갑게 맞이한다. 나는 또다시 시공간을 넘어 서울 어디쯤 한가운데로 옮겨온 것 같다…. (중략)

배를 타기 전후 어느 곳에라도 있어보길 권한다. 극지를 체험하는 또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문화에 대해, 작업일지 중 발췌)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쇄빙선<아라온>호를 승선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었을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중에 한명이 일본인 친구, 쇼 하세가와(Sho Hasegawa)였다. 우리는 독일에서의 생활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베를린에 위치한 한 어학원에서 처음 만났다. 그토록 어설프고 더듬거리는 독일어를 주고 받으면서도 즐거웠고 친해질수 있었던 이유는, 두사람 모두 현대예술을 한다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쇄빙선을 타고 북극을 가본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였던지, 한껏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쇼에게 이메일을 썼다. "Lieber Sho,,,친애하는 쇼에게...." 속마음을 감출필요도 없는 친구이기에 한껏 자랑을 늘어 놓았고,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Hey Jaewon,,, 정말 축하해 북극에 가게 되다니… 한달이라고? 니가 정말 부럽구나, 그것도 쇄빙선을 타고 말이지… 근데 사실은, 지난 겨울에 난 남극을 다녀왔어"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왔고, 보란듯이 남극 어딘가에서 했던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친구는 지난해 남극지역에서 열렸던 첫번째 Antartic Biennale 에 참가를 했었던 것이다.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참 재빠른 녀석이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예술가들이 왜 극지에 가는 건지? 지구 물리학을 하는 과학자들이랑 만나서 뭘 하는데? 예술가들이 새로운 장소나 낯설은 타분야와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의 두 질문은, 소식을 전하고 주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사실 과거를 보면 정치, 과학, 예술, 문학, 음악, 시등의 여러 분야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단편적인 예를들어 보자면, 정신분석과학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를 예술형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한 초현실주의가 있다. 또 세계대전 시기를 겪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지식인들은 인류사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 태도를 취했고, 이것이 예술운동 다다(DADA)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예술사조들은 오늘날 현대문화에서도 여전히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으며 영상매체나 예술, 건축, 가구, 디자인, 패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걸쳐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예술은 언제나 타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러기에 나 또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다. 독일에 지내다보면 박사과정을 하거나 마친 한국인 연구자들을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적지않게 만나게 된다. 이론물리, 정신분석, 암세포연구, 인공위성개발, 수학자나, 언어학자 다양한 탐구자들과 교류하는것, 그들의 연구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에도 영감을 준다. 그들도 나에게서 영감을 얻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아는 유일한 예술가와 기꺼이 와인을 마셔준다.

아라온호에서의 생활이 며칠이면 막을 내린다. 어제밤에는 소주한잔을 얻어 마시고자 한 연구원의 방을 두들겼는데, 여기서도 같은 말을 듣는다. 인생에 처음 만난 예술가란다. 우리는 두루두루 잡담을 나눴다. 지난 20일간 이런식으로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나는 주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연구자들이 사는 세계를 짧은 시간에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지구물리상식부터 각자가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탐구주제와 방식, 기계장치들이 작동하는 원리와 역할, 지층탐사나 해수층 물성 측정, 생물과 해양환경이나 열이나 탄소의 순환 등의 처음 접하는 지식들이 많다. 배가 좌표를 찍고 채집한, 유난히도 검푸른 바다의 색을 닮은 퇴적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빙하기라는 엄청난 시간의 역행을 경험하는것 같다. 넓디 넓은 시커먼 허공에 오로라가 나타나 서쪽끝에서 동쪽끝을 가르는 그 다채로운 곡선들과 아름다운 볼륨감, 색감들이 하늘을 매우고 있을때는, 새찬 북극 바닷바람에 섞여 얼굴을 스치는 미세한 얼음 입자들이 꽤 날카로움에도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사진을 연신 찍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작가의 오감을 깨우는 추상이었다.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과 연구원들이 열성으로 해준 이야기들이 뇌속에서 좌우를 가로지르며 일종의 교환작용을 만들어 내는 듯하다. 서로 생소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들을 만들고 작업의 아이디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나 패턴을 찾아내는 추상적인 작업이 꽤 활발이 일어났다. 과거의 생활에서 연구자들을 만난 기억을 되새겨보면 유사한 경험들이 자주 있었는데, 아라온호에서의 시간이 다시 한번 그 경험을 강렬하게 확인시켜줬다.

과거에 Sediment를 주요테마로 진행했던 작업이 떠오른다. 당시에 바닷속을 떠도는 '미세한 플라스틱의 입자'대한 어떤 연구자의 글이 작업의 발단이 되었다. 깊은 해저에 차곡차곡 쌓인 미세한 퇴적물들과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상상하며 작업을 발전시켰다. 나는 작업을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세제들의 혼합물과 물을 정수하는 어떤 마테리얼들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한 하연색의 가루들를 만들었고,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간단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일련의 움직이는 조각 또는 풍경을 만들었다. 관련지식들을 습득하고 사회학적 물음들을 던져보고, 테마의 구체성을 찾되, 마테리얼 실험을 통해 시각적,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 와중에는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우연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종종 작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아라온호가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찍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탐사하듯, 예술가는 지식과 직감으로 지정한 목표점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자신의 예술적 언어를 찾아간다. 아마도 내가 참가한 이번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런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질적일 것 같은 두 분야를 한 공간에 섞어 놓으므로써, 언제나 새로움이 그랬듯이 전혀 하나로 묶일것 같지 않은 몇 가지의 경험이 우연히도 섞이면서, 우리를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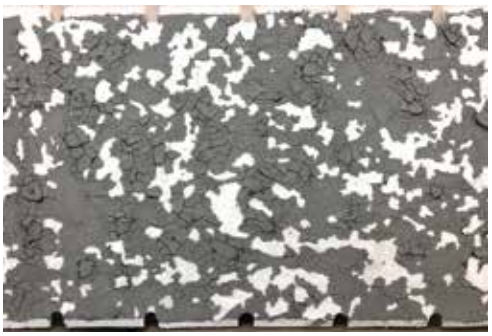
탐사를 마치며 새로운 작업의 실마리를 찾게되어 감사하고, 연구선 아라온호에서 이러한 새로움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작업일지에서 발췌)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Cuba

CHAPTER 8

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

프로그램명 호세마르띠문화원

국가 쿠바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2014. 7. 22 ~ 2014. 9. 27

작가명 이혁준

레지던스 기관 소개

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은 쿠바의 독립 영웅이자 문학가인 호세마르띠를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의 성격이 레지던스가 아닌 문화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는 없었습니다. 숙소와 작업 공간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작가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은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작가 개인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장점, 혹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작가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없다는 점은 자유롭게 자신의 작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작가에게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강제 조항이 없을 뿐 기관의 담당 직원을 포함한 모든 스텝들은 작업이나 생활의 측면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작품 활동

레지던스 기간 중 다음의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소유'라는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작업으로 현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리서치 작업이 있었고, 인간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신작 'Play Play'를 구상하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건축물과 자동차 문화에 대한 도큐멘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현지 민간단체인 한쿠바문화클럽의 광복절 행사와 한국문화원 개원식에 참가

현지 예술기관 및 예술가 미팅

Wifredo Lam Center of Contemporary Art, Fototeca de Cuba , Roberto Chille 등

워크숍

현지 체류기간의 마지막 주에는 문화원에서 쿠바에서의 작품 활동과 한국과 쿠바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간단한 워크숍을 진행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쿠바는 얼마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감,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일부 세대의 경우 직접 경험을 통해서, 또 대다수의 전후 세대는 교육 등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사회적 가치관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동안 경험한 쿠바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선입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았고, 경제적인 빈곤이 그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생존과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관광이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났고 소매치기나 호객행위 같은 부작용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세계적 관광 도시에 빗댄다면 그리 지나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동양인에게 호기심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 왔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쿠바인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약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청구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의료 서비스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공차원의 도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 등 개인 공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바나

수도인 하바나는 스페인인들이 쿠바 섬에서 여섯 번째로 정착한 도시로 17세기 들어 빠른 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열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하바나 만을 곁에 두고 있는 올드 하바나는 모로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항구 지역으로 역사적 건축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요 볼거리들이 자리한 이 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거의 모든 주요 시설들이 국가에 의해 운영됩니다.

올드 하바나의 서쪽에 위치한 센트로 하바나는 북쪽으로 말레콩 해변에 접해 있으며 까삐톨리오와 하바나 대극장, 차이나타운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업시설과 호텔들이 자리하고 있고, 식민지 풍의 오랜 건축물들은 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센트로 하바나의 서쪽지역은 독립이후 빠른 속도록 발달하여 혁명 직전까지 상업의 중심 지구였던 베다도입니다. 1958년 힐튼 호텔로 지어졌던 하바나 리브레 호텔과 1930년대 번성했던 관광 산업의 상징인 호텔 내쇼날이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건물들이 북미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하바나 대학과 쿠바인들의 명소인 코펠리아 공원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해변을 따라 다시 서쪽으로는 하바나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미라마르입니다. 외국인 기업과 대사관, 호텔들과 무역회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네 구역은 하바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바나에서의 체류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숙식 및 생활

하바나 뿐 아니라 쿠바에서의 생활이 편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응한다면 그리 힘들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쿠바는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건강과 음식에 주의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화원의 담당자나 숙소 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 기관

파크 센트럴에 인접한 국립미술관은 쿠바의 미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터네셔날과 쿠바노 두 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건물들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미술품들이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쿠바노 미술관의 맞은편에는 혁명에 관련된 사료들을 관리, 전시하는 혁명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성당 광장의 모퉁이에는 하바나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위프레도 램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올드 하바나 곳곳에는 다양한 목적의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베다도 지역에는 쿠바 현대 미술의 전위적 공간인 패브리카 데 아트와 하바나 갤러리, 댄스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매력과 가치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삶의 방식과 서구 근대사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여행지와 같이 역사적인 유적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현대 문명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공산이 큽니다. 유구한 역사를 논하기에는 그 시간이 짧고, 현대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오랜 시간 단절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가능성, 특히 지속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좀 더 면밀하고 다양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교적 관계나 체제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식의 단절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지리적으로도 쿠바는 한국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에게 여러 고민거리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소한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 어렴풋이 잡히지 않는, 부담스러운 무엇인가도 있을 것 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쿠바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생각하기에 따라 단점도 또 장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대한 도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느 다른 장소와도 차별되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환경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쿠바 입국 시 여행자보험은 필수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문학

CHAPTER 0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CHAPTER 11.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CHAPTER 12.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CHAPTER 13.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CHAPTER 14.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CHAPTER 15.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

CHAPTER 16.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CHAPTER 17. 스웨덴 주스웨덴한국대사관

CHAPTER 18.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

CHAPTER 19.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CHAPTER 20. 이란 주이란한국대사관

CHAPTER 21.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Germany

CHAPTER 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프로그램명 베를린자유대학교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5. 1 ~ 2018. 7. 31

작가명 김남일

레지던스 기관 소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귀국 후, 나는 어느 지면에 이렇게 썼다.

하필이면 봄, 눈부신 봄날이었네.

도착한 다다음날, 3개월간 내가 적을 둘 베를린자유대학을 주소만 적어든 채 혼자 지하철을 타고 찾아갔네. 어린 시절 수원에서 인천까지 오가던 협궤열차처럼 폭이 좁은 전철 안에서, 왠지 주눅이 들어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면서. 다렘도르프, 다렘도르프. 자유대학 이름을 단 역도 있는데 왜 다렘도르프에서 내리라고 했을까, 슬쩍 겁을 먹은 상태였지. 마침내 그 다렘도르프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지. 그리고 역사를 빠져나간 순간, 아, 내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네.
그러니까 '그런 풍경'이 실재했다는 말이지. 어린 시절 누나들의 방에 달려있던 한 장짜리 달력 속 풍경이 고스란히. 무슨 수사가 더 필요하겠나. 그저 그게 서양이었네.
내 서양, 아름다운!
토니오 크뢰거는 학교에서 만난 동급생의 이름을 이렇게 중얼거리지.
잉게, 금발의 잉게보르그-홀름.
난생 처음 아시아 대륙을 떠나 온 나 또한 하마터면 그렇게 중얼거릴 뻔했지. 그러나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내가 떠올린 건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속 한 장면이었다네. 물론 그 책 역시 이번에 나와 함께 일곱 시간의 시차

를 견뎌내야 했지.[1)]

베를린자유대학은 내가 머물던 베를린 시내 아파트에서 전철로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베를린자유대학 출신 김영수 조교를 만나 낯선 베를린 생활의 첫 관문을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었다.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는 다렘도르프 역에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길 길 모퉁이에 별도로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중에 근처에 새 건물을 지어 이사 갔다.) 나는 1층 학과 사무실 옆방을 여러 명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사용했다.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겠다 싶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작업은 숙소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오히려 독일의 젊은 학생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많았다. 한국학과의 펠스너 은정 선생님은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김영수 조교는 베를린자유대학 교내를 소개하면서 특히 도서관과 식당 사용법 등을 잘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막상 혼자 사용하려 하니 처음에는 겁이 나서 선뜻 발길을 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마침 방문학자로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외우 김창남 교수(성공회대)와 함께 '멘사'라고 불리는 식당을 이용해 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챙길 수 있었다. 괜히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알은 체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김영수 씨로부터 멘사 이용 카드 사용법(충전법 포함) 등을 확실히 익혀 두고 실습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음식도 아주 다양하고 값도 저렴하다.

도서관은 베를린자유대학이 자랑하는 공간이다. 2005년에 완공한 도서관 건물 외형은 인간의 뇌를 본 따 지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성한 나무숲에 가려서 그랬는지, 나는 한 번도 그 '뇌'를 한눈에 담지는 못했다. 물론 수시로 뇌 속에 들어가서 베를린자유대학의 젊은 학생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었다.

베를린자유대학 도서관에는 북한 관련 자료들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한국 관련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의 서고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그곳의 서고가 훨씬 풍부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는 독일 통일의 역사적 현장인 베를린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특히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기관 중 하나라고도 하겠다. 실제로 내가 만난 상당수 대학원생들도 남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연구 과제로 삼아 열심히 연구를 해나가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통일 관련 공무원들이며 연구자들이 수시로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한국학과를 이끄는 이은정 교수님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전수해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셨다.

---

1) 졸고, 「세 작가의 도쿄, 세 작가의 근대」, 『황해문화』 통권 100호(2018년 가을호).

다만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가 특히 통일문제를 포함해서 사회과학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내가 관심 있는 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았다. 이은정 교수님도 그 점을 인정하면서, 기회가 닿으면 보쿰대학 한국학과에도 가보기를 권했다. 보쿰대학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한국문학에 관한 한 가장 뛰어난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나는 아쉽게도 그런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베를린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학교에 나갔다. 연구실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고, 식당과 도서관을 주로 이용했다.

한국학과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독일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다. (현재 300여 명) 나는 그중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수업을 진행했다. 미리 준비해 간 PPT 자료를 통해 한번은 주로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소개했고, 다른 한번은 내 소설 창작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니만큼 가능하면 그림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을 성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사실 꽤 뛰어난 우리말 실력을 지닌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말 청취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브로흘로스 교수님이 수시로 보충 설명을 해주셨다.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서는 방문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가하는 콜로키엄을 매주 한 차례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발표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발표는 영어나 한국어로 진행되었는데, 독일인 참가자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지닌 학생들도 있었다. 마침 때가 때였던 만큼 한국의 미투 운동을 포함한 여성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들이 있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선생님도 방문학자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물론 학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와는 수준을 달리했다. 그날따라 참가자들도 꽤 많았고 다행히 좋은 반응도 얻었다. 나는 비슷한 주제로 베를린 주재 한국문화원에서도 다시 한 번 강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 출신의 권세훈 원장은 특히 베를린에 오는 한국 작가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계셨다.

베를린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팔레스타인 여성작가가 살고 있어서 처음 집을 구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통해 베를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작가 및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참가자들이 저마다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오는 조촐한 만찬이 교류의 주요 무대였다. 어느 때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베를린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소설가 프리야 바실과 예술사가이며 저널리스트인 그녀의 남편 마티를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프리야는 인도 출신으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자랐고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독일인 남편과 결혼하여 베를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많았다. 마티는 뤼벡 출신이지만 베를린에서 오래 산 경험을 바탕으로 기꺼이 베를린 역사적인 건축물들에 대한 소개를 자청했다. 나는 귀국 후 그 두 사람을 광주에서 열린 2018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에 초청할 수 있었다.

그들은 베를린 문학의 집이라든지 해마다 가을 개최하는 베를린문학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를린은 유럽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디서건 지하철 역사 안에는 이런저런 공연이나 전시 포스터들이 시선을 끌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광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옛 건물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사내 한복판 슈프레 강변에 자리 잡은 박물관 섬(Museumsinsel)은 베를린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세계 곳곳에서 부러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베를린은 특히 자랑스러운 것이든 불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든 역사적인 기억을 있는 그대로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되새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예컨대 내가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던 비텐베르크플라츠 역 입구에는 과거 나치 시절 독일이 운영한 강제수용소 이름들이 마치 이정표처럼 서 있었다. 훔볼트대학 앞 베벨광장은 과거 나치가 '반독일적'인 작가들의 책을 불사른 곳인데, 지금은 분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땅을 깊이 파서 책 한 권 없는 '텅 빈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다. 유대인 학살을 추념하는 기념관들이며 조형물들은 도시 도처에서 수시로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책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많은 작가나 예술가들의 흔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다. 조각가이자 판화가인 케테 콜비츠의 기념관도 압권이었지만, 누구보다 발터 벤야민의 발자취를 두 발로 직접 찾아다니며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세월이 까마득히 흘렀지만, 그래도 나는 1900년대 언저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 탁월한 미학자의 숨결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을 비록해서 베를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들의 목록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행복하다. G.W.F.헤겔, 피히테, 본회퍼, 하인리히 만, 안나 제거스, 마르쿠제, 브레히트 부부, 칼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 한나 아렌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떠나기 전

나는 2017년도에도 베를린자유대학의 레지던스에 참가하기를 원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다. 발표를 보고 제법 실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어느새 늙어버려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거라고 추단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울했다. 문득 나탈리 우드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초원의 빛>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달랬을지도 모른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서러워하지 말지니!"

주변에서는 '베를린'이 특히 경쟁이 심하다고들, 그러니 다른 지역에 지원해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위로 겸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베를린에 꼭 가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2018년, 나는 이미 한 살 더 늙어버린 몸과 영혼으로 다시 베를린에 지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베를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상 최고령자로서 선택을 받았다. 행복했다.

고마운 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체가 작가나 예술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가들을 위해 별도 예산으로 미리 작가키트를 만들어주었는데, 나처럼 외국어로 작품이 많이 번역, 소개되지 못한 작가들에게는 뜻밖의 선물과 마찬가지였다. 작가 소개와 주요 작품 한 편 정도로 소책자를 구성하는 것인데, 내 경우에는 단편 한 편과 장편(『천재토끼 차상문』)을 발췌해서 영어 번역문과 한국어 원문을 함께 실었다.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하는 게 좋았겠지만, 나는 나중에 더 많은 사용처를 염두에 두면서 영어로 번역하는 길을 택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독일어로 번역했으면 독일의 독자들과 훨씬 더 많이,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아쉬운 점

내게 배정된 예산은 액수만으로는 넉넉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이미 경험이 있던 다른 작가들로부터 들은 바대로 예산의 집행과 그 처리 방식에서 나 역시 약간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예산 중 이미

정해져 있던 현지 연구실 사용료와 조교 사례비 등을 제외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①항공료 ②숙박비, 단 두 가지뿐이었다. 이 점 때문에 나는 결국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적잖이 반납해야 했다. 미리 신청한 바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현지 소요 예산을 미리 꼼꼼히 따져 신청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항목 이외의 예산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가능한데, 사실 처리 항목이 단 두 가지라는 것은 이래저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예컨대 현지 식비라든지 교통비, 입장료, 도서 구입비 등이 아예 어떤 항목으로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라도 향후 꼭 좀 개선되었으면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남들 대신 좋은 기회를 얻은 주제에 턱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같아 생략하기로 한다. 나중에 제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내 경험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베를린에서 보낸 한 철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베를린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내게 더 없이 소중하고 행복했던 경험이었다. 여권을 몇 개나 갈아치우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아시아 대륙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봄의 그 독일행이 나로서는 난생처음 말 그대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 계기였던 셈이다. 오랜 꿈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꿈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이는 이미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유럽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많이 사윈 것 같아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 트랩에 오를 때까지도 그게 오히려 은근히 걱정될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행운아였다. 행장을 꾸릴 무렵 서울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최악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침에 창을 열어도 마치 밤인 듯 캄캄한 날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정부나 지방자치체에 대고 무슨 대책이든 만들어야 할 게 아니냐고 외칠 힘이며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거의 체념 상태에서 끔찍한 봄을 견뎌낼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확인하게 되는 바였지만, '서울의 봄'이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베를린의 봄'은 황홀했다. 나보다 먼저 베를린을 다녀온 작가들 중에는 변덕스러운 베를린의 날씨 때문에 적잖이 고생했다고 토로한 이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나는 한 번도 그런 날씨를 마주친 적이 없었다. 내가 머무는 동안 베를린은 그야말로 찬란한 봄을 내게 선보였다. 마침 러시아 월드컵이 열려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 대 독일 축구 시합을 관전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 좋은 봄날에, 68혁명 50주년 기념전시회며 망명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거처를 찾아간 일이라든지, 브레히트, 발터 벤야민, 토마스 만 등 내가 평소 좋아하던 작가들의 흔적을 좇아, 또 이런저런 박물관을 찾아서 티어가르텐 공원이며 슈프레 강변을 거닐던 때의 설렘도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다.

내게 이 모든 기회를 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를린자유대학 여러 선생님들에게 새삼 감사의 뜻을 전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Germany

CHAPTER 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프로그램명	베를린자유대학교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1 ~ 2018. 10. 29
작가명	이상우

레지던스 기관 소개

베를린 자유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유대학 한국학과의 연구실을 기점으로 하여 파견 작가의 의사에 따라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문학번역원 출신인 권세훈 베를린한국문화원 원장의 중개로 파견 작가는 본인의 작품 혹은 본인의 문학관을 갖고서 독일의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독일문학 전공자가 사회를 보며 독일어와 한국어 모두가 능통한 자유대학 소속의 통역사가 행사를 돕는다. 또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다른 학자들과 함께 콜로키움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세미나를 열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매주 들을 수 있어 관심사가 맞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상의 두 가지 이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자유대학 측에서 마련해주는 일이고 나머지의 일들은 파견 작가 본인이 만들고 찾아야 한다.

자유대학소속의 코디네이터는 휴대폰 문제, 집 문제, 미술관 예약 등의 베를린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책임져 준다. 왠만한 문제는 전부 코디네이터를 통해 해결가능하고, 그 이상의 문제들은 자유대학연구소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경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해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베를린한국문화원 측에서 마련해준 문학대담 행사를 했고,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콜로키움에 참여했다. 자유대학에 와있는 박사과정 학자 분들은 모두 각자 한 가지씩의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우고 들을 것이 많을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출판사들과 접선을 했고, 미팅도 가졌다. 독일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은 똥보다 못하다. 한국에서 만들어간 번역책자로 11월 중순에 있을 베를린 아트북페어에 참여예정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를린 비엔날레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미술관에 많이 갔고 건물축들을 구경하러 다녔다. 이후에는 매일 도서관에 다니며 작업했다. 대학 도서관 입장이 전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대학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 국립도서관 회원카드는 코디네이터에게 부탁하면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도서관 이용이 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됐다. 레스토랑 물가는 낮지 않지만 마트 물가는 싸서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수영장 시설 또한 깨끗하고 한국보다 싸서 자주 이용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좋은 기회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Germany

CHAPTER 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프로그램명 베를린자유대학교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4. 13 ~ 2017. 7. 11

작가명 이여진

레지던스 기관 소개

저는 베를린의 Mitte 지역에 숙소를 빌려 90일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극장과 갤러리가 밀집된 지역이라, 현지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원활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집 근처를 나가면 언제든 수월하게 현지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방 두 개에 부엌이 딸린 곳이라 공연팀과 대본 리딩 연습을 할 때 유용했고,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접촉도 그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해당 숙소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비서(임송이씨)와 함께 협력하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코디네이터가 정해지지 않았던 기간에 숙소를 계약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유대학의 비서분이 대신 일처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숙소 렌트 계약은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비서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력인사는 자유대 한국문화과의 이은정 교수님, 브로흘로스 교수님, 코디네이터인 김영수 선생님 등이 계셨습니다. 이은정교수님은 자유대와 독일 문화원에서 있을 작가의 강연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의 현지 창작 활동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 총체적으로 지원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브로홀로스 교수님 또한 자유대와 독일 문화원에서 이뤄진 저의 강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독일 문화원에서 이뤄진 강연에서는 자유대 학생들을 직접 데려와 제 작품을 낭독하도록 하는 등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디네이터인 김영수 선생님은 숙소 이전 과정, 생필품 구매 및 운송, 작품 번역본 검토, 집주인과의 까다롭고 지난한 협의 과정 등 희생 봉사에 가까운 도움들을 도맡아주셨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베를린 현지에 도착해 당시 서울에서 공연 중이었던 저의 창작극을 낭독본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낭독본을 바탕으로, 베를린 자유대에서의 강연과 독일 문화원에서의 강연에서 낭독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현지에서 아시아 아티스트 플랫폼으로 유명한 갤러리에서 낭독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의 배우 및 여러 아티스트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이 담고 있던 탈북자들의 이야기와 한국 사회의 여러 양상을 베를린의 일반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온 코끼리만보 극단의 김소영 연출님, 임호영 배우님과 함께 작업하며 앞으로의 작업도 약속할 수 있어서 더 없이 좋았습니다. 또한 베를린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대미술 작가(미디어아트), 최찬숙과의 만남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지에서 활동한 최찬숙 작가님의 도움으로 여러 현지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베를린에서 돌아온 직후, 최찬숙 작가님의 작업과 전시에 협력작가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창작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를린은 여름에 가더라도 사계절 옷을 다 가져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4월에 베를린에 도착해보니, 우박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날씨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7월까지도 더우면서도 동시에 몹시 추운날씨가 지속되어 코트와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따뜻한 옷들을 최대한 챙겨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감이 없어서 의식을 못했는데, 지내다보니 외식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밥을 직접 만들어먹으면 현지 생활물가가 저렴하기(외식비용 제외)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원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리 용품은 현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거래로 아주 싼 값에 구할 수 있습니다.

4월은 부활절 축제가 크게 있어서, 숙소를 직접 구해야한다면 상당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도착 한 달 전부터 숙소를 구했는데도, 부활절 축제로 인해 매물이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이나 1층은 피해서 숙소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에어비앤비는 현지에서 불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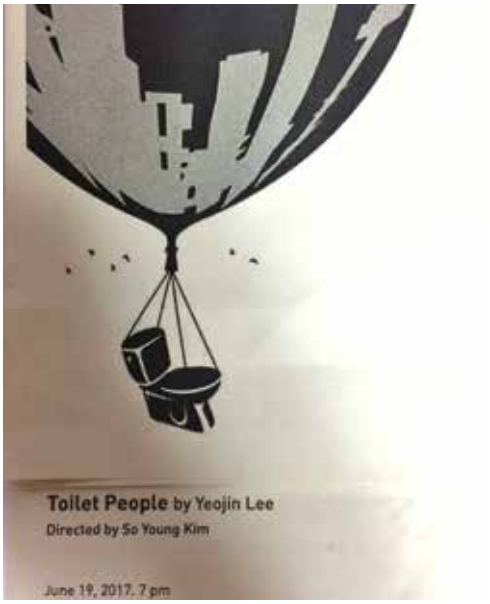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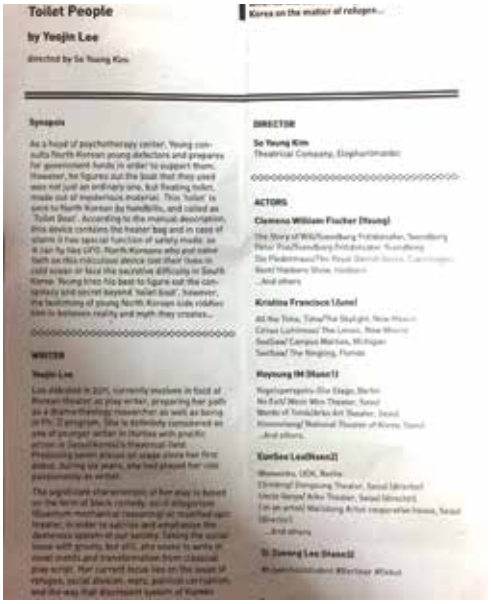
베를린은 광화문 같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거나 고요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미술관, 갤러리, 박물관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지 거점을 마련하고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좋은 곳입니다. 때문에 베를린 도착 이전에 현지의 여러 관심 예술가나 기관에 사전 연락을 적극적으로 하며 교류의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Germany

CHAPTER 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프로그램명	베를린자유대학교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7. 1 ~ 2016. 9. 26
작가명	한은형

레지던스 기관 소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레지던스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학연구소에 속하게 되는데, 한국학연구소는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의 부속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학과는 동아시아학부의 하나로 설립되어 있고, 한국학과에서는 주로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 대한 커리큘럼이 개설된다. 이은정 교수가 한국학과의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의 소장이다.

한국학연구소가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3층에는 소규모의 다락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작가가 파견될 시 3층의 다락방이 '작가방'으로 주어진다. 3층의 방은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집필과 구상을 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리고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책을 대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의 공간과 개가식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숙소는 정해진 곳이 없고 매번 달라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학과에서 몇 군데의 집을 렌트하우스 개념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어느 곳이 배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과에서 추천하는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은정 교수와 코디네이터였던 학생과 여러 번 식사와 만남을 가지면서 독일(과 베를린)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코디네이터에게는 주로 독일 신문 기사나 독일어로 된 자료 등의 해석, 문화 공간의 예약 등을 부탁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에 방문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두 번의 강의를 하게 된다. 본인의 재량에 따라 강의를 구성할 수 있고, 한국학과의 강의실에서 주로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홀머 브로홀로스의 수업 시간 중 두 시간을 할당받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대개 그 수강생들만 강의를 듣게 된다는 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었다. 강의에 대한 홍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강의와 강연회를 각각 한 번씩 더 했다. 한 번은 세종학당과 연결된 튀빙엔대학교에서, 한 번은 베를린한국문화원에서였다. 이 두 번의 강의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베를린 생활에 대한 산문집을 쓰고 있다. 베를린에 가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아마도 2017년 출간될 것 같다. 베를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장편 소설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를린자유대학교가 위치한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무엇보다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생각된다. 베를린자유대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베를린이라는 이색적인 도시를 삼 개월 동안 경험할수 있는 것이다. 크게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며, 그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문화와 거주민과 정서가 달라진다. 동네를 오가며 이런 미묘한 정서를 느끼는 재미가 있다.

한국학과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종류의 컨퍼런스가 열려 방문 작가의 관심 여부에 따라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전직 국회의원, 베를린으로 연수를 온 공무원, 정치학과 인류학과 사회학과 북한학을 하는연구자 들을 만날 수 있었다.

외식비는 싼 편이지만 매일같이 사 먹기에는 싸지 않다. 게다가 (음식과) 음료를 같이 시키고, 계산할 때는 팁을 주어야 하는 불문율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더 그렇다. 하지만 유제품과 소시지, 과일과 빵, 맥주 등의 음식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싼 가격으로 양질의 것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 가더라도 방한복이 있어야 하는 곳이 베를린이다. 베를린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대해 숙지한 나는 나름대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베를린에 도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옷이 없어 패딩 같은 방한복을 급히 구해야 했다. 7월인데도 그랬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단 와이파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베를린에 대해 하고 싶은 첫 마디다. 한국에서처럼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와이파이가 되길 바라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를린은 서울만큼 대도시가 아니다. 국제적인 도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화가 덜 진행되었다. 자본주의화의 지표로 삼곤 하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숫자로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곳은 ‘유럽’같지 않기도 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유럽이란, 지정학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라는 면에서의 유럽이다.) 그건 베를린이 파괴된 도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는 아방가르드 문화의 선두도시였던 그곳은 두 번의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되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베를린 전역에서 그런 파괴의 흔적, 상처, 방어심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파괴의 흔적을 그들은 보존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도 지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게 ‘기억’의 측면에서는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볼 때마다 고통을 상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런 베를린 사람들을 얼굴을 보는 게 힘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었다.

해외레지던스에 관심이 있거나 베를린에 관심이 있다면 베를린 레지던스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베를린이 덜 유럽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날 것의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Germany

CHAPTER 9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프로그램명 베를린자유대학교

국가 독일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7. 01 ~ 2015. 9. 28

작가명 김인숙

레지던스 기관 소개

독일 자유대학의 한국어학과와 협력 진행하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해당 작가는 3개월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각종 문화체험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업에 반영한다. 프로그램은 매우 자유로운 편이며, 한국어학과 담당자와 협의 하에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특강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내 경우, 한국어학과에서 연결해준 프로그램을 통해 3박4일간의 통일 교육 현장 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외에 한국어학과와 협력하는 프로그램들-강연, 음악회, 심포지움 등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작가의 선택에 따른다.

작가에게는 한국어학과의 단독 건물에 연구실이 주어지고, 작가의 전반적인 생활과 연구를 돕는 조교가 배당된다. 조교에게는 작가를 보조하는 일에 대해 따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교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조교는 작가가 도착하는 날 공항 픽업부터 숙소안내, 핸드폰 개통, 교통권 구매 등 생활에 관련한 모든 편의를 도와주며 만일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작업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유한다. 한국어학과의 사정에 따라 연구실 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내 경우는 옥탑방이었는데, 매우 독립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작가가 개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반드시 사용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없다. 본인이 집이나 다른 곳의 공간 이용을 더 선호한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숙소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어학과 담당자와 논의 하에 구하게 된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인을 통해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한국어학과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내 경우 역시 그랬다. 마침 자유대학의 은퇴 교수 한분이 해외 체류를 하는 동안 집이 비어 있게 되어서 나는 그분의 집을 임대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이 살던 집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 내가 따로 준비해야할 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전혀 없었다. 한국 식품점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필요한 식재료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한국어과의 담당교수와 조교수 연구원 조교, 모두 매우 우호적이며 적극적으로 작가를 돕는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체류기간 동안의 활동은 대부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할애된다. 내 경우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등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 팀과 통일교육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많이 남는다. 혼자서는 잘 계획할 수 없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적인 일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교포사회에서 진행되는 시민활동들도 있는데, 정보를 찾아보면 그들과 교류를 나눌 수도 있다. 강연을 가거나,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내 경우에는 위안부 관련 강연회에 갔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머물던 당시에 난민 유입이 폭발적이어서 그걸 취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레지던스 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은 정말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계획에 맞춰 얼마나 시간을 풍부하게 자유롭게 보내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참가자의 성향에 따라 오직 미술관만 다녀도 좋고, 오직 클럽만 다녀도 좋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베를린에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를 통해 제3국 젊은 예술가들을 많이 소개받았다. 그들에 대한 기억이 베를린과 많이 남는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베를린에서는 한국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식료품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굳이 한국식을 원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숙소는 경우에 따라 다를 테니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집주인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세입자로서의 불편은 전혀 없었다.

독일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언어의 불편은 피할 수 없었다. 베를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다. 마트에서나 식당에서 간혹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불편을 제외한다면, 영어로도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 작가 본인이 독어도 영어도 안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못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도와주는 조교가 있고, 친분을 맺을 수 있는 한국인과 교포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이다.

베를린의 문화를 이백퍼센트 즐기기를 원한다면 미리 공부를 하고, 소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만, 현지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자유롭게 지내고 오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잘 보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약간의 독일어 수업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회 일정, 공연 일정과 장소, 그것에 특화된 공연장이나 클럽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가서 부딪치면 된다. 부딪치는 것이 더 큰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가서 일정에 따라 움직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할 일이 너무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주어진 3개월의 완벽한 자유시간을 염두에 두고 본인만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비자 문제로 인해 3개월 이상 체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숙소의 위치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베를린도 달라질 것이다. 아주 쾌적하고 부유한 동네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어떤 완벽한 준비도 완벽한 여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불안해하지 말고, 부딪치면 된다. 다만 안전하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내 경우에는 그곳에서 병원을 이용해야 할 일이 꽤 여러번 있었다. 안 쓰는 핸드폰을 하나 가져가면, 유심을 끼워서 곧바로 개통이 가능하다. 매우 유용하다.

버스는 밤새도록 다닌다. 택시는 비싸지만, 급할 때마저도 못 탈 정도는 아니다. 밤새 놀러다닐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안전하게. 자유롭지만, 안전하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명 노리치 작가센터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23 ~ 2018. 11. 20

작가명 최정례

레지던스 기관 소개

노리치의 National Centre for writing에서 참가자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곳의 드래곤 홀에서는 각종 토론, 드래곤 살롱, 추리소설 페스티발 등이 열린다. 또한 노리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도시 혹은. 런던대학, 이스트앵글리아 대학 등에서는 계속해서 번역 행사, 문학 Festival이 열리고 각종 리딩이 있다. 이 리딩이나 토론, 발표들은 영국의 문학과 그 문학의 역사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지만 어디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은 코디네이터 Kate가 알려주고 참가하도록 돕는다. 참가자의 경우 케이트가 미리 기획하여 런던 대학 “National Poetry Day Translation Summit" 에서 리딩을 하도록 주선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노리치 시내에서 있는 카페라이터 리딩, 주변 도시들 Winchester, King's Lynn, Aldeburgh, South Norfork 등에서 열렸던 Poetry Festival에 참석하였으며 코디네이터가 전해주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그와 관련된 작가들을 만나고 관심 분야인 시 축제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8. 25~26 영국 시인 Mimi Khalvati 를 만나기 위해 노리치에서 버스 타고 런던 방문

8. 28 Mimi Khalvati 의 시 “노래” 번역

8. 31 Kate 집에 초대받아 그 지역 대표 시인 George Szirtes 와 화가 Clarissa와 만찬

9. 1 George Szirtes의 시 “중앙유럽 ” 번역
9. 7 Adam Warne 의 시 “‘말편자’ “고치기 위해” 번역
9. 11 Caroline Bird의 시 “그 순간” 번역
9. 13 참가자의 숙소로 드래곤 홀의 요원들 6인 초대 한국 음식 대접
9. 13~16 드래곤 홀에서 열리는 추리 범죄소설 Festival 3일 내내 참관
9. 18 드래곤 홀 Salon에서 참가자의 시 5편 발표하고 영어로 해설 발표
9. 21 시인 George Szirtes 집에 초대 받아 방문
9. 22 George Szirtes의 시 “상투성을 방어하며” 번역
9. 26 George Szirtes의 시 “Translators” 번역
9. 28 노리치 시내 카페 The Birdcage에서 열리는 시 리딩 참가
9. 29 Kate 부부와 Blickling Estate 방문 (Kate 차량 동승)
9. 30 King's Lynn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참가

10. 1 Tiffany Atkinson의 시 “찌르레기 자욱한 구름으로” 번역
Esther Morgan의 시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 번역
10. 2 한국동화작가 김성현의 학교방문 발표에서 통역 봉사
10. 3 코디네이터 Kate 부부와 불가리아 작가 Ivanka, 버마번역가 시인부부 KO KO 대담
10. 4 런던 National Poetry Translation Summit 에서 참가자의 시 낭독, 노리치센터에서 호텔비 교통비 지원)
10. 5~7 Winchester Poetry Festival 참가(숙소에어비앤비, 기차 교통비 본인 부담)
10. 7 시 페스티발 참가자 Nikola Madzirov의 시 “나는 모른다” 번역
10. 8 Cafe Writers 의 행사에서 참가자의 시 2편 발표
10. 10 George Szirtes부부를 숙소 cottage에 초대 한국음식 대접.
10. 10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글쓰기 M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발표 참관
10.13 George Szirtes의 시 “프라하의 날들” 번역
10. 16 뉴 캐슬에 있는 1825년에 지은 도서관 방문
10. 21 에딘버러에 있는 Scottish poetry library 방문, 시 리딩 참가
10.23 노리치 거주 시인 Anna 와 캠브리지 대학 방문하여 캠브리지 교수 Hanah 만나 한글의 기원과 한국인의 영어교육에 관한 대화
10. 25 드래곤 홀에서 열리는 환경에 관한 토론 " Sould We let nature take its course ?"에 참가
10. 26 런던 대학 SOAS에서 참가자의 시 8편 읽고, 번역에 관한 강의 영어로 발표
(런던 호텔비 한국문화원지원, 교통비 SOAS 지원)
10. 30 South Norfolk's Festival of Literature에서 George Szirtes의 시 리딩 참가
10. 31 George Szirtes의 시 “위로” 번역

11. 1 George Szirtes의 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번역.

11. 3 Aldeburgh poetry festival 참가(시인 George 차량 동승)

11. 6 National Centre for writing 매니저 Maggy, Sarah, Peggy 등과 함께 물개 보호 지역 Horsey 방문, 오후 영국식 티타임 참가

11. 8 시인 George와 참가자가 쓴 시 교환, 그림 선물 받음. 영국에서 참가자의 시집 출간 협조제의

11. 15 런던 타워 방문 , 찰스황태자 70회 생일 축포 템즈강에서 목격

11.16 런던 북서부 바닷가 Cromer 방문 헌책방 Bookwarms 에서 시집 구입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노리치 작가센터는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 버스로는 3시간 15분 거리에 있는 소도시이다. 깨끗하고 고색이 창연한 곳으로 중세 때의 성당과 교회가 30개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 중 1427년에 지은 중세의 상업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 개관한 드래곤 홀에는 작가가 머물 수 있는 작은 Cottage가 있다. 이층에 방 두 개 아래층에는 거실과 부엌, 욕실이 있다. 동시에 두 명의 작가가 머물기에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편한 구조이다. 커티지는 기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버스터미널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보통 다른 나라 레지던시와 다른 점은 다른 나라 작가가 함께 거주하는 레지던시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주 공간이었다. 잠깐 불가리아 작가가 2주간 다른 에어비앤비에서 머물 때 한번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근처에는 수퍼마켓 시장 등이 있어 쌀 동양음식 등의 식재료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쌀 김 미역 등을 사서 한식으로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전기밥솥 및 온갖 부엌도구, 세탁기(세탁건조기는 없음) 헤어드라이어 등 구비되어 있었고 매주 한번씩 호텔처럼 청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영어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문학 작품들을 읽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숙소 제공과 주변에 있는 문학행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곳의 시인이나 작가를 소개해 줄 뿐이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없거나 외국인과의 교류를 원치 않는 작가들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작가센터 안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발표 날에 한국어 통역자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의무 방어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지 않는 게 좋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명 노리치 작가센터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27 ~ 2018. 11. 24

작가명 전성현

레지던스 기관 소개

노리치 작가센터에서는 독자적으로 학생들과 예비 작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인단체, UEA와 연계하여 노리치 지역의 여러 문학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작가 레지던스 사업도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프로그램 디렉터와 담당 프로그램 매니저가 레지던스에 참여한 작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문인과의 교류, 문학축제, 학교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노리치 작가센터에서의 창작 활동은 숙소 작업실과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밀레니엄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노리치 작가센터의 외부 활동은 크게 문인과의 교류, 문학 프로그램 참여, 문학 관련 행사 참관과 도서 관련 장소 방문으로 나눌 수 있다.

문인과의 교류 활동으로 지역 동화작가, 시인, UEA 아동문학 교수 등의 문인을 만났는데, 통역이 참여한 일대일 미팅부터 식사 초대로 이루어진 미팅, 문학 페스티벌 리셉션 장소에서의 미팅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활동으로 <Wymondham high School> 방문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과, <Dragon Hall Salon>에서의 작품 리딩이 진행되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미리 준비해 간 번역 작품을 기반으로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학 관련 행사로는 <Noirwich crime Writing festival>, <Young Adult Lit day at the Southbank Centre> 에 참관하였으며, 도서 관련 장소로는 <Seven Stories-the National Centre for Children's Book>, <Blickling House 'The Word Defant'> 그리고 <'Lit & Phil' 도서관>과 <에든버러 도서관>, <영국 도서관> 등 영국 여러 지역 유명 서점과 도서관 등을 방문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노리치 작가센터에서는 시설 내 코티지를 수리해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 새로이 마련하였다. 일 층에는 공용 부엌과 화장실, 거실이 있고 이 층에는 침실 두 개가 있다. 밥솥을 비롯한 기본 취사도구들은 물론 세탁기와 식기건조기, 다리미와 빨래걸이 등 기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업체 직원이 다녀가 시설을 청결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프린트물이 필요할 때는 작가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이용했다.

하나의 숙소를 두 명의 작가가 이용하여야 했는데 방의 크기가 달라 작은 방을 쓰는 작가가 일 층의 독립 거실을 작업실로 사용하였다. 숙소 내에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부 생활의 제약이 있다. 성별이 다른 작가들은 이 숙소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불가할 듯하다.

숙소와 작가센터가 가까이 있다 보니 직원들과의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작가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 참여가 쉽다. 작가센터 바로 옆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 2019년까지는 소음과 통행 제한이 이어질 듯하다.

노리치 지역은 치안이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다. 숙소에서 기차역과 대형 마트, 영화관 등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고, 도서관과 백화점 등이 있는 시내도 1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을 하는 데는 매우 편리했다. 식료품과 관련 물가는 저렴한 편으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면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노리치 작가센터에서는 참여 작가가 원하는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어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문학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면 관광객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하고 유익한 문학 관련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명 노리치 작가센터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6. 29 ~ 2017. 9. 8

작가명 한유주

레지던스 기관 소개

노리치 작가 센터는 노리치역 인근 중세시대 교역장 건물을 본관으로 사용하여 많은 문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가 센터에서 안내한 숙소는 주방, 거실, 방, 화장실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로 노리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작가 레지던시인 만큼 책상이 구비되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식탁을 책상으로 이용하였다.) 전반적인 노리치 생활을 안내해준 조너선 몰리 씨, 케이트 그리핀 씨, 플로렌스 레이놀즈 씨는 본인과 연관된 행사를 주관, 진행하였고 생활에 있어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브래드포드 문학 페스티벌, 런던 프리워드 센터,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셰필드 틸티드 액시스 등에서 문학 관련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런던을 여러 번 오가며 문학적 교류를 시도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노리치에서 보낸 두 달

지난 여름, 나는 노리치에 있었다. 그전까지 내게 노리치라는 지명은 노리치 풋볼클럽, 그리고 W. G. 제발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레지던스 참가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책장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영국 여행안내서를 꺼내 노리치 항목을 찾아보았다. 이스트 앵글리아, 바다와 가까움, 노리치 대성당, 그리고 노리치 작가 센터. 페이지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인쇄된 지도만 봐도 작은 도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넉넉히 한 시간이면 시내 중심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인터넷을 통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화면 속 대성당의 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무엇보다도 하늘이 맑아 보였다. 노리치에서라면 정신없이 질주하던 서울의 시간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다. 남들보다 딱히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믹스커피 봉지를 찢을 시간도 없어 캔커피를 마시던 생활이 학기 내내 계속되고 있었다. 각종 원고가 체납고지서처럼 밀려 있었다. 노리치에서 밀린 원고를 쓰자. 다 쓰고 돌아오자.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노리치에 향했다. 런던 리버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두 시간 걸리는 여정이었다. 오후 두 시쯤 기차를 탔더니 차창 밖으로 하늘이 낮게 걸려 있었다. 풍경을 감상하다 잠시 졸았을까, 퍼뜩 깨어보니 기차는 매닝 트리역에 정차해 있었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책 생각이 났다. 누군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들고 다니던 책들이었다. 그중 하나에 '매닝 트리'라는 제목의 단편이 실려 있었다. 나보다 한두 해 전 노리치 작가 센터에 머물렀던 황정은 작가의 작품이었다. '매닝 트리'를 읽다보니 나는 어느덧 노리치역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월요일에 도착했을 것이다. 숙소에 짐을 대충 내려놓고 먹을 것을 사러 밖으로 나가보니 시내는 죽은 것처럼 고요했다. 오후 여섯 시쯤 되었을까, 아직 환한 시간이었으나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미로처럼 굽은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와중에 건물들의 아름다운 외벽을 수없이 보았다. 교회와 성당들이었다. 공기에서 풀 냄새가 났다. 폭이 좁은 강도 있었다. 산책로였다. 정처 없이 걷다 문을 연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다. 맥주 한 짝을 사려는데 주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여권을 내밀자 그는 내 사진과 나이를 확인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내게는 써야 할 원고가 있었다.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 이런저런 메일을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아주 게으른 손으로 원고를 쓰면서 두 시간쯤 보내고 나면 다시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오후 다섯 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걸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세 시 반쯤 서둘러 숙소를 나서고는 했다. 이런 일과가 반복되자 자연히 나는 날마다 다른 산책로를 고르게 되었다. 노리치에는 성당과 교회 건물들이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것처럼 보였다. 매 시각 대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레 시간을 헤아리게 되었을 무렵, 나는 이곳에 정이 들었으며 돌아가

기 싫다고 생각했다. 간혹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었다. 런던에 다녀올 일도 생겼다. 아름다운 강변에 위치한 작가 센터에 다녀올 일도 있었다. 옛 교역소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작가 센터 건물 역시 고풍스러웠다. 따스한 웃음들. 환대. 날마다 걷고 또 걷느라 생각보다 작업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못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았다는 편이 정확하다. 대신 걸으면서 많은 메모를 했다. 하루에 적어도 5km 이상을 걸으며 나는 서울의 시간을 가까스로 떨쳐버렸다고 생각했다.

귀국을 열흘 정도 남겨두고 나는 다시 런던에 다녀와야 했다. 런던에서 한국 시인의 낭독회가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리버풀역으로 향했지만 결국 타려고 했던 기차를 놓친 탓에 나는 한 시간쯤 기다려야 했다. 도시락을 파는 노점이 있어 먹을 것을 샀다. 역사 밖 벤치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취한 젊은이 서너 명이 내 옆으로 다가와 벤치에 앉았다. 그중 한 명이 내게 불쑥 포도주병을 들이밀었다. “마실래?”나는 사양했다. 그러자 그녀는 재차 “내가 산 거야, 이상한 거 아니고”라고 말하며 포도주를 권했다. 나는 웃으며 사양하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다시 포도주병을 내밀었다. 나는 이번에는 사양하지 않았다. 병째로 포도주를 들이키자 취한 젊은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중 한 명이 내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포도주를 삼키며 노리치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다른 한 명이 노리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글쎄… 동쪽?” 내 영어를 통해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린 무리는 내가 ‘진짜로’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글쎄… 동쪽?” 그리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두 달 동안 쓴 글보다 읽은 책이 더 많을 것이다. 사라 홀, 아오코 마츠다, 사이먼 크리츨리,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캐서린 메리데일, 발레리아 루이셀리, 베릴 마크햄, 제발트… 이 이름들은 저마다 노리치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그곳까지 들고 간 책,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추천한 책, 그곳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그곳 서점에서 열린 낭독회에서 발견한 책, 그곳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그 책과 만남과 시간 들을 가방에 넣어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것들은 여전히 내 책상에 놓여 있다. 다시 노리치로 돌아가 정다운 사람들을 반갑게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시 노리치로 돌아가 진을 마실 날을 기약하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현지 통역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어인 영어를 조금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명	노리치 작가센터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7. 2 ~ 2017. 9. 3
작가명	백가흠

레지던스 기관 소개

영국 노포크 지방의 노리치는 역사 깊은 도시다. 이스트앵갈리아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가 영국에서도 유명한데, 출신 작가가 꽤 많아서 그렇다. 재발트가 생전 교수로 있었고, 올해 노벨문학상수상자인 가즈오 이시구로, 이언 맥큐언 등이 이 학교 출신들이다. 시내 중심에는 예술대학이 있어 곳곳에 화랑과 미술관련 전시가 상시 전시되는 곳도 많다. 도시는 조용하고 고요하다. 큰 대학이 둘이나 되어서 도시 규모에 비해 젊고 활기 넘쳐나기도 한다.

체류하는 동안 'Sanmson and Hercules Apartment'라는 곳에 머물렀다. 작은 소규모 아파트 형태인데 집에는 편의적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깨끗하지만 시설은 좀 낡은 편이다. 노리치 작가센터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모두 이 플랫에 머문 것을 보면, 숙소를 렌탈해서 사용하는 듯 보였다. 플랫은 침실과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형태로 혼자 쓰기에는 넉넉한 편이다.

불편했던 점은 책상이 없어서 유리로 된 식탁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 의자가 낡고 오래 되어서 장기간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로 시내의 밀레니엄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다만 일찍 문을 닫아서 밤이나 새벽에 일을 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노리치작가 센터 오피셜들은 친절한 편이다. 그간 영국인들에 대한 선입견(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다는)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거나 볼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이해하

는 편이었다. 주로 첫 주에 숙소와 도시, 그리고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고, 체류비를 전달하기 위해 가끔 플랫에 들렀다.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떤 불편함과 불만이 있다면 그들의 시스템에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노리치는 레지던시의 개념보다 여행의 측면이 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작가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숙소를 렌탈해 주고, 한 두 번의 이벤트적인 어떤 문학 교류행사를 준비하는 게 전부여서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 측면에서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좋았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서였는지 잘 지냈던 것 같다. 한 번 예정되어 있던 런던의 낭독회가 무산되었는데, 그마저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노리치에 있는 동안 노리치를 떠나 런던을 포함 영국의 다른 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가 무산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또 몇 번의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영국의 파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매번 내겐 숙제 같은 일이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노리치에서 나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오전에는 영어아카데미에 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작업을 했다. 저녁을 먹고는 자전거를 탔다. 여름 해가 길어서 하루하루가 알찼다. 좋은 일상으로 남게 되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굴렀다. 자전거를 타고 삼십분을 가면 노즈넉하고 한적한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내 고향과 비슷한, 익숙하면서도 다른, 묘한 풍경에 빠져 살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노리치는 작은 도시이다. 물가는 런던보다 싼 편이지만 그래도 영국의 물가이다. 체류비로만으로는 원할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루에 45000원 정도의 체류비가 지급되는데, 맥도날드에서 가장 싼 셋트 메뉴 가격이 15000원이 넘는다. 그에 비에 식품 물가는 싼 편이다. 그러다 보니 매일, 혹은 매 끼니 밥을 집에서 해먹어야 하는데, 쌀을 먹는 우리는 어려움이 크다. 냄비밥의 달인이 되기 싫거나, 밥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작은 밥통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을 듯.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돈은 대부분 이런저런 명목으로 노리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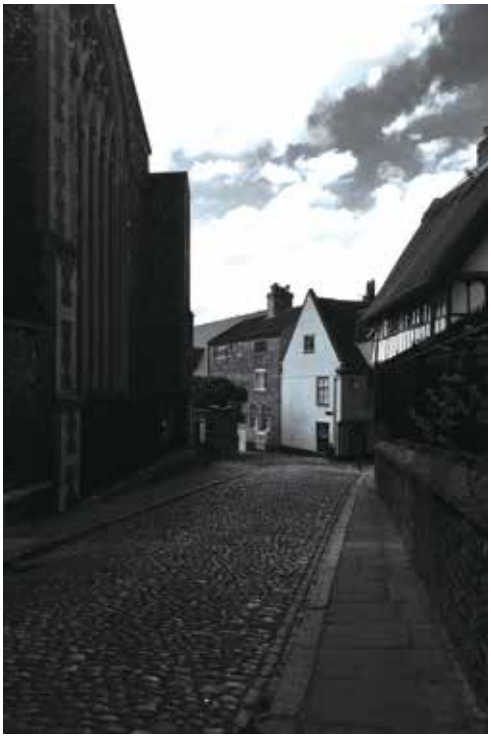
가센터에서 가져간다. 생활비 대비 운영비, 집세 등등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첫 주에 나는 영국자전거를 샀고, 영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체류비 전부를 탕진했다. 계획적인 체류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내에 자전거를 장기로 빌려주는 곳이 있다. 도시가 작아서 어디든 걸어갈 수 있지만 자전거로 다닌다면 풍경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레지던시는 없다. 간섭도 없고 얽매일 것도 없어서 여유롭고, 단조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명 노리치 작가센터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7. 31 ~ 2016. 10월 중순

작가명 오주영

레지던스 기관 소개

드래곤 홀이라는 노리치의 유서 깊은 건물에 노리치 작가센터가 있다. 1층에 사무실,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규모는 한국의 작은 동사무소보다 작다. 안에는 해를 즐길 수 있는 아담한 정원에 있다. 나는 이곳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Sanmson and Hercules Apartment'의 Flat 4에 머물렀다. 이곳은 세입자와 장단기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로, 노리치 작가센터에서는 필요한 때마다 방을 대여해 작가에게 제공한다. 플랫에는 이층 침대와 옷장이 있는 침실1, 일인용 침대와 서랍장이 있는 침실2, 거실과 부엌, 욕조가 딸린 화장실이 있다. 헤어 드라이가 구비되어 있다. 적어도 15평 이상의 공간이라 답답하지 않다.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부엌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인덕션 렌지와 세탁기 식탁이 있다. 그릇, 냄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밥통은 없다.

컴퓨터 책상은 따로 없다. 나는 평소 사람이 없는 고립된 장소에서 글을 써왔기에 식탁을 거실 쪽으로 빼놓고 일을 했다. 노리치 작가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컴퓨터 책상을 플랫 안에 놓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플랫마다 개별 와이파이가 있어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10분 이내 거리에 밀레니엄 도서관, 카페 코스타, 카페 네로 등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다만 이곳의 커피숍은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첫날 도착하면 직원이 기차역으로 마중 나와 택시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고, 편의시설을 안내해준다. 독립서점, 슈퍼마켓, 시장, 빵집, 레스토랑, 찻집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플랫의 열쇠는 특수 열쇠로 복제가 불가능하다. 열쇠가 없을 경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열쇠를 반드시 챙겨 다녀야 한다.

담당자

노리치 작가센터의 레지던스 담당자가 노리치의 숙소를 알려주고, 주변 편의 시설을 안내하고, 노리치의 전통적인 건물과 장소를 안내했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필요한 에세이를 청탁하고, 노리치 작가센터 웹사이트에 작가 소개와 작가 에세이를 올렸다. 그밖에 작가의 체재비를 지급하고 통·번역사를 구하는 등 전반적인 일을 맡아 했다.

인턴

노리치 작가센터의 인턴과 함께 캠브리지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통·번역사

레지던스 담당자를 통해 통역사를 만났다. 그녀가 회의 내용 통역, 초등학교 방문 통역 그리고 에세이 번역을 맡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워크숍

캠브리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 교사 및 학생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작활동

한국에서 쓰고 있던 저학년 장편동화 『수학의 왕 바코』를 노리치 체류기간 동안 완성해 넘기고 한국의 편집자와 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쳐 써 최종본을 확정했다. 이 작품은 내년 봄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쓰고 있던 저학년 동화의 '여름'편을 완성했고, '여름'편을 내년 봄 잡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될 것이다.

단편 「안녕」을 썼다. 계간지 『열린아동문학』에서 동화 청탁이 들어와 이 작품을 보냈다. 2016년 겨울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 밖에 몇 편의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내용이 아직 완전히 숙성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고쳐야 한다.

영국작가 로알드 달의 고향 그레이트 미센덴과 노리치 근방에 살았던 여성 작가 안나 스웰의 집을 방문하고 에세이를 써 노리치 작가센터에 보냈다. 알렉산더 밀른이 곰돌이 푸우를 창작한 하트필드와 베아트릭스 포터의 창작 산실 힐탑을 방문해 취재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교통

노리치는 작은 도시로, 대부분의 장소를 걸어 다닐 수 있다. 나는 노리치에서 한 번도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걸어서 15분 안팎이다.

기차 이용시 유의할 점이 있다. 이곳에서는 주말에 청소 정비 등을 이유로 몇 시간 동안 일정 구간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경우 기차 운행이 정지된 구간을 버스로 이동시켜 준다. 버스로 이동할 때에는 평상시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니 주의하자. 기차 예약은 'National Rail'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꽃과 차

영국에서 정원은 오랜 문화다. 많은 집들이 앞뜰에 꽃과 허브를 심고, 앞뜰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베란다에 식물을 키운다. 그래서인지 선물로 꽃이나 화분이 선호된다. 초콜릿도 좋은 선물이다. 영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해 커피나 홍차를 과자, 초콜릿 등과 함께 즐긴다.

가게

커피숍, 케이크 가게, 머핀 가게, 인도 식당, 피쉬 앤 칩스 식당, 펍 등과 슈퍼마켓이 5-10분 거리에 있다. 앞서 적었듯 커피숍은 6시면 문을 닫는다. 식당과 펍을 제외한 다른 가게들은 대부분 6시까지만 문을 연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른 장소에서 지금과 다른 시간을 보내는 낯선 경험은 정신을 깨우고 항진시킨다. 새로운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미뤄뒀던 휴식을 취하며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자유롭게 글을 쓰면 좋겠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10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프로그램명 노리치 작가센터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8. 15 ~ 2015. 11. 4

작가명 황선미

레지던스 기관 소개

노리치 작가 센터는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 도시인 노리치 소재의 문학 진흥 기관이다. 이번 참가는 노리치 작가 센터의 해외 작가 초청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체류 기간 동안 단독형 플랫에 머물며 집필, 생활,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 전자 제품(냉장고, 전자렌지)이 고장 나 다소 불편했고, 매 주 청소부가 다녀갔어도 청결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타지에서의 생활이 그 정도면 양호하다는 생각이었고,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인터넷이 원활치 못해 한국과 소통이 되지 못했던 건 문제였다. 근처 몰에 가서 급한 연락을 취하기도 했고, 집필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숙소를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선배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체류 기간 동안 노리치 작가 센터 주최로 노리치 소재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 상영 후 질의응답)와, 번역가들과의 대담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때마다 작가 센터에서 통역을 붙여주었고, 일상의 불편한 점은 김윤정(전 영국문화원 직원)씨를 통해 전달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8월 15일 출국하여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인 8월 16일, 런던 소호 거리의 <소호 호텔>에서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Talk & See> 라는 타이틀로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를 상영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민, 영화 관계자,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하였고, 2014년 런던 도서전 때 만난 언론인과의 인터뷰 시간이 있었다.

9월 30일에는 노리치의 6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Cinema City>에서 영화 상영 및, 질의응답, 사인회 시간을 가졌다. 노리치 작가 센터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 현장 판매도 진행하였으며, 9월 28일, 옥스퍼드의 블랙웰스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였다. 10월 4일에는 런던의 <Free Word>에서 Translation In The Margins으로 열린 포럼 중에 Author As Activism 입장의 발언을 하였다.

노리치 체류 중 완성한 '거기까지'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교보생명 웹진에 연재하였고, 이는 <틈새 보이스>라는 작품으로 2016년 9월에 문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푸른 개 장발>이 영국 리틀 브라운에서 2016년 7월에 <The Dog Who Dared To Dream>출간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울리는 곳간, 서울>이 <희망의 단지 DMZ>, <일곱 빛깔 독도 이야기>,<우리들의 보물섬 제주도>에 이은 시리즈 물로 조선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 봉황 그룹 계열인 장쑤 출판사의 협업 제안으로 한국(위즈덤 하우스 출판사) 중국(장쑤 소년 아동 출판사)에서 동시 출간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노리치 작가 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나는 이 기회를 일종의 여행처럼 생각했다. 낯선 곳에서의 장기 투숙. 마음 한 자락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주민들처럼 먹고 생활하고 문화를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내 인생의 한쪽이 채워지기를 바랐다. 나는 뭐든 늦게 익숙해지고 늦게 배우고 오래 겪어야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 며칠 동안의 여행은 언제나 쓸쓸하기만 해서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뭔가를 얻은 것 같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노리치에서의 생활은 내 인생의 한쪽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언젠가 다시 온다면 아침마다 운동하던 공원을 다시 거닐고, 어떤 골목을 찾아가고, 원고를 쓰던 도서관의 책상에도 앉아보고, 커피를 마시던 서점의 연두색 의자에 다시 한 번 앉아보고 싶어질 것 같다. 어느새 내 기억에 7주 동안의 선명한 지도 하나가 새겨진 것이다.

여행은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번 레지던시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원고 청탁 한 건을 무거운 숙제처럼 떠안고 온 것이다. 나는 원고를 먼저 쓰고 출판사를 고르는 편인데 이 원고

는 계약서부터 작성하고 시작하게 돼서 부담이 매우 컸고 잘 해낼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도 없었으니까. 믿는 것이라고는 몇 년 동안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 있는 에피소드의 파편들. 그것을 믿고 계약서부터 썼으니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셈이다.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소호 호텔에서 한인들과의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그것을 먼저 진행하고 노리치로 왔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집필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작업을 시작하니 스토리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쓰다가 지우는 일도 없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아마도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온 이야기라서 가능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야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껴보았고, 예정대로 마무리를 했다. 도서관에서 내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임시 패스를 주고, 마침 거기에 책상도 하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이었다.

원고를 끝내고, 나는 숙제를 잘 마무리한 것을 스스로 축하하고자 혼자서 물어물어서 기차를 타고 크로머로 나가 바다를 실컷 보았고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며 내 삶을 조용히 생각해 보기도 했다. 걸어서 기차역에 가고, 저렴한 비용으로 바다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노리치의 큰 매력이다.

마침 친구가 런던으로 출장을 와서 4박 5일 동안 런던의 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영국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원고만 쓰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노리치를 좀 벗어나고 싶은 때라서 별 고민도 없이 그녀의 제안에 승낙했는데, 좋은 음식만 골라먹는 일도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친구라서 새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온 출장이었기 때문에 온종일 온갖 음식을 찾아다니고 먹어봐야만 했던 것이다. 하루 만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전문가의 영역은 작가로서 겪어봐야 될 기회이기도 하여 끝까지 참아냈다.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도 영국의 다양한 공간, 여러 부류의 사람들, 거기에 음식까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언어 문제가 없으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이다.

이 사업에 대한 주최 측의 준비도 보다 세심했으면 좋겠다. 해당 지역의 문화 행사나 도서관과의 행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작가만 파견된 상태의 상황은 낭비라는 판단이다. 숙소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어 집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려면 도서관의 프리패스를 얻어야 했는데 도서관 직원이 다른 나라의 작가가 왜 그곳에 와서 머물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다. 내 영어 실력은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 형편없었다.

지원금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취재 여행도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체류를 통해 많은 걸 얻고자 한다면 개인 비상금도 충분해야 한다. 미루어 두고 읽지 못한 책도 너무나 귀한 자료가 되므로 많이 챙겨가기를. 적극적으로 현지 친구를 사귀는 게 체류에 도움이 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Russia

CHAPTER 11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프로그램명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국가	러시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9. 1 ~ 2018. 11. 29
작가명	허진원

레지던스 기관 소개

20세기 일본제국주의의 광기어린 전쟁은 결국 우리 한인을 사할린으로까지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시점, 즉 1945년 8월 전쟁의 종결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귀환의 기쁨으로 이어졌어야 했는데요. 비극의 씨앗은 참으로 어이없을 정도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한인들이 다시 사할린에 고립되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고국으로 귀환할 줄 알았던 우리 한인들에게 다시 억류라니요. 사할린 한인들은 그 후로도 냉전체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며 수십 년간을 아예 한국인도 일본인도 그렇다고 러시아인도 아닌 채 억류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체념을 해서 머물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억류의 삶이란 인간에게 처해진 가장 큰 비극의 하나였을 테니까요. 다행스럽게도 1992년부터 영주귀국이라는 이름으로 4천여 명의 사할린의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세대 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여의치 않자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2세대 역시 1945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에게 이 기회는 주어집니다. 이산의 슬픔은 이번에도 다시 이어지는데요. 노년이 된 2세 분들은 이제 다시 사할린을 등진 채,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과 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할 말이 많고, 듣고 싶은 말도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사업 해외레지던스 '사할린에서의 석달 취재기'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뼈대로 우리 인간의 희망, 비극, 디아스포라,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무엇'을 찾아 헤매며 고민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님, 사할린한국교육원의 김주환 원장님, 새고려신문사의 빅토리아 배 대표님, 우리말 방송국의 김춘자 국장님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저는 저 깊은 슬픔의 뒷편에 아득하게나마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로서만이 아닌 한 명의 인간 존재로써 실로 귀한 경험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었을 적 저는 프랑스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먼저 숙소를 구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숙소는 숙소이자 집필실이자 언제든 편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파티룸으로 변모할 수 있어야 했기에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가린 공원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를 빌렸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고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그간 메모하고 진행 중이었던 여러 망측스러울 수도 있는 제 신작의 깃든 독들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변치 않은 글을 쓰고 있지만, 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스를 마무리할 무렵에는 이제 정겨울 정도로 친해진 아티스트 분들을 초대해 꼬냑이며 보드카를 참 많이도 들이켰네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홀로 떠난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사할린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의 제 나름의 원칙을 몇 가지 정했었는데요. 먼저 현지 예술가들의 파티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점과, 오전에는 최대한 저만의 시간으로 오직 집필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전업 작가이다보니 한국에서도 이런 원칙 하에 일상의 틀을 잡아 내려 애를 써 왔는데요, 아무튼.

사할린에서 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전역에서 유명한 예술가들이죠. 주명수 화백의 회화 전시회나 양세르게이, 허로만, 장태호 작가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면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역시나 인상 깊었습니다. 회화가 가지고 있는 톤이며 그 그늘진 주름 이면의 입체적으로 덧씌워가며 사할린 한인의 어떤 표정을 잡아내기 위해 애를 썼던 예술가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은 달콤했습니다. 허로만 선생님은 어떻고요. 함께 '바르드 파티'에서도 우연히 만나 그 분의 작사, 작곡한 노래를 들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장태호 작가님은 위트가 철철 넘쳐 레지던스 끝 무렵에는 특히 자주 만나 이런 저런 '작당 모의'를 할 수 있어 좋았어요.

강연은 사할린한국교육원의 개강식 날 강당에서 초청 강연으로 한국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었는데요. 한류를 거론하며 BTS(방탄소년단)의 활약상을 전했더니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던 러시아 젊은이들이 떠오릅니다. 그 후 레지던스를 마무리할 무렵 저의 경우 제 사고의 흐름의 한 지점을 잡아,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그간 제가 사할린에서 보고 느낀 점을 '노자'의 '도덕경'을 두고 한국 문학의 특징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이나마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번은 미대 학과장인 한인 3세 조성용 화백이 자신의 제자들과 진행하는 초상화 수업에 모델로 참석해 줄

수 있냐고 제안을 했어요. 이에 저는 흔쾌히 승낙한 뒤, 며칠간 두 끼씩만 해결해 가며 팔굽혀펴기도 참 부지런히도 했었네요. 혹시라도 누드 모델 그런 건 줄 알고요. 걱정을 했던 건지 기대를 했던 건지, 나 원 참. 그런데 알고 보니, 역시나 초상화 수업이었습니다. 흐음,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 눈 코 입을 열심히 그리는 여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빨리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으면 싶어졌어요. 다시 젊어진다면 여기 미대로 유학을 와서 그림을 배워야겠다는 사심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왠지 조성용 교수님이 부러웠다는. 어쩐지 이 얘기는 이 즈음에서 줄여야겠네요. 아, 얘기가 왜 이런 쪽으로 흘러왔던 걸까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오호츠크해 바다까지는 차로 5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낚시왕으로 통하는 이춘봉 선생님과 김병화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바다 낚시 역시 참 많이도 다녔는데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커다란 연어(겟따)를 잡지를 않나, 아예 배를 타고 나가 괴물같이 큰 아귀며 돌가자미를 잡곤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두 먹을 수도 없으니, 숙소로 돌아오면 이웃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 싱싱한 생선들을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저는 이 분들과도 더 정이 깊어질 수 있었으니, '카오스 이론'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겠죠?

정식으로 이런 저런 생활상을 묻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다니며 이 두 분께 그리고 이 두 분의 지인들께 사할린에서의 이런 저런 생활상들을 참 많이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다 낚시는 젬병이라 구박도 참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정이 철철 넘치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에게만큼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보다 정겨운 마음에 "사부님, 싸부님" 이러면서 졸졸 쫓아다녔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도 귀한 인연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게 있어 레지던스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토지문화관>이나 <연희문학창작촌><글을 낳는 집> 등 이런 이름들의 나열입니다. 전업작가를 선언한 뒤, 그간 저는 부지런히 이런 레지던스를 이용했어요. 저 훌륭한 곳에서 참으로 괴상하고 발칙한 상상만을 끄적거리진 않았나 새삼 부끄럽습니다. 변변찮은 글을 쓰고 있노라면 제 자신이 참으로 한없이 가여워지곤 했는데요. 시와 소설, 운이 좋으면 선배나 동료 극작가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 좀 더 솔직한 고민을 주고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필실에서 글을 쓰다가 식사를 함께 하고, 산책을 하며 술을 마시는 그런 곳. 대한민국의 레지던스는 작가들에게 있어 '숲'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해외레지던스 '사할린에서의 석달 살이'는 홀로 유즈노 사할린스크 공항에 내릴 때의 그 황량했던 느낌처럼 굉장히 고독한 시공간 속으로 빠져든 느낌이었습니다. 흙먼지 이는 도로며, 잔뜩 인상을 찡그린 러시아인들의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얼굴에 멍자국이라도 하나 안 잡히고, 대사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한 통 없이 무사히 귀국만 하면 성공이겠거니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사할린 파견 작가는 '홀로' 그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밥을 사 먹든, 죽을 끓이든 홀로 장을 보고, 고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까짓 '고독'이 뭐 대수라고, 오히려 저는 간만에 한가하니 좋았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 동료 또는 선배 작가들이 근방에 없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레지던스'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와 고백하건데 저는 진심으로 그 곳의 흙먼지까지 좋아졌어요. 그 곳에는 이제 정든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성대한 식탁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초대해준 가가린 호텔의 권행자 사장님을 비롯, 제 정신 사나운 얘기들을 듣고도 참 멋드러지게 러시아 신문에 칼럼을 게재한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엘레나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과 16킬로 그램의 소금을 함께 먹어 봐야 알 수 있다(Что бы понять человека надо с ним пуд соли съест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할린에서의 기억을 떠나 이 속담만큼은 앞으로도 집필의 순간 순간, 자주 꺼내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작업에 임할 마음이에요. 쓰바 씨바, 발쇼예. 매우 고맙습니다. 따뜻한 포옹과 진심어린 경의를 담아, 예압!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Russia

CHAPTER 11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프로그램명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국가	러시아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6. 17 ~ 2017. 9. 9
작가명	강석경(강성애)

레지던스 기관 소개

사할린에 파견되는 작가는 한국교육원에서 거의 숙소를 주선해주었다. 몇 작가들이 머물렀던 이 아파트는 공원과 가깝고 스키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을 가진 곳이니 앞으로도 숙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경우 당시 그 집 사정으로 지인의 소개로 다른 아파트를 얻었지만 보다 넓고 럭셔리한 주거지라 대만족이었다.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아파트 지역은 한국처럼 수퍼마켓과 레스트랑, 제과점 등이 널려있으니 식생활엔 전혀 불편이 없다. 이만여명 가까운 한인들이 거주해서 수퍼마켓엔 빠짐없이 김치가 진열돼 있고 라면같은 한국식품 등도 수입돼 있다.

한국교육원은 나라마다 세계 각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할린의 한국교육원은 특히 한인 후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집중한다. 파견된 작가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지는 않지만 혹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거나 한인 2, 3세들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강사를 자청해 볼수도 있다.

나는 그곳의 유일한 한인 신문(러시아어와 병행하여 쓰지만)인 새고려신문사에서 정보를 얻어 사할린의 각 소수민족이 참여한 세미나도 방청하고 지역의 상황을 알고자 했다. 코디네이트는 이런 역할의 가교 노릇을 할 수 있으니 활동적인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된다. 자주 만나게 되면 식사는 당연하고 내 것과 함께 마켓에서 장도 봐주게 되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니 여행도 함께 갈수 있었다. 운이 좋다면 코디네이터를 통해 특별한 한인가족사를 들을 수도 있으니 말동무 삼아 동행하면 좋을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많은 레지던스 국가 중 사할린을 택한 이유대로 체홉을 돌아보고자 했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일제 때 가난과 강제모집으로 사할린에 온 한인 1세들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팔구십 세의 고령이다. 그 분들의 고난은 대중매체로 활자로 많이 알려졌기에 나는 한인 2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부모 밑에서 2세들은 어떻게 러시아에 적응해왔는지 알고싶었다. 2세는 언어로나 사고로나 완연한 러시아인인 3, 4세와는 달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리라 여겼지만 뜻밖에도 소통이 힘들었다. 2세의 3분의 2정도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한국어를 조금 한다해도 말을 절반밖에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뒤늦게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육칠년간 배웠다는 내 코디네이터는 “여기가 아니면 한국어 사용할 데가 없으니 오래 다녔다”고 했다. 사할린에서 사라져가는 부모들의 모국어. 60대 이하 한인들과의 소통에 언어와 의식의 벽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취재를 하긴 했으나 동공이 여기저기 보여 이 빈칸을 어떻게 메울지 작가의 숙제로 남아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사할린이란 단어에 혹독한 겨울이 떠오른다. 나는 겨울태생이라 겨울을 좋아하는데도 일단 겨울을 피하기로 하고 6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사할린에 머물렀다. 사할린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계절에 왔다고 말하듯이 아니바 해안에서 조개잡이를 구경하고 조개탕도 먹었다. 오오츠크 해의 신선한 대게도 맛보았고 강가에서 낚시로 잡은 연어로 연어탕도 시식하고, 바다낚시로 잡은 가자미 찜요리가 오른 식탁에 초대받았다.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가을 날씨 같은 사할린에서 한국의 찜통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가벼운 자켓을 가져갔지만 그것만으로 으스스한 공기를 막기에 부족해 두툼한 쟈켓을 빌렸다. 여름옷으로 가져간 나시는 입어보지도 않았다. 올여름이 유난히 서늘하다고는 하지만.

이 서늘한 여름에 먹는 러시아 아이스크림은 진미였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치즈조차 4, 5일이면 곰팡이가 생기는 러시아라 천연의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다. 미각으로는 아무 불만이 없지만 돌아갈 즈음 단풍이 살짝 물든 가가린 공원의 숲길을 걸으니 깊어가는 가을과 곧 다가올 겨울 풍경이 떠오르면서 사할린에선 역시 눈을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스에서 뜨거운 태양을 대면해야 하듯 추운나라에선 얼음바다를 걸어야한다고. 사할린다운 풍경을 보기위해서라면 다시 이곳을 찾아야할지도 모르겠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레지던스를 하려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유럽이나 특별한 볼거리를 가진 장소를 선호하고 택한다. 역사가 짧은 사할린에는 유적지나 관광객의 눈을 끄는 볼거리 같은 건 없다.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의미에서 도시이지 한이틀 보고나면 갈 데가 없는 문화불모지이다. 일본이 물러간 뒤 인수받은 건물에 만든 향토박물관 하나 볼만하고 체홉박물관은 문학관이 아니라 사할린기행에 나오는 죄수들의 방이 재현되어 전시된 그런 정도다. 나처럼 영화나 연극을 보러 부산으로 서울로 다니는 문화애호가에겐 심심하기 짝이 없는 장소이다. 또한 살 것조차 없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 이곳의 오래된 백화점도 이층만 보았지만 남대문 시장의 골목 가게가 낫지 않을까 싶었다. 한국인들도 여기 오면 그저 차가버섯같은 건강식품이나 말린 고사리, 초코렛 정도 챙기는 것 같다.

볼 것도 살 것도 없지만 사할린엔 인생이 널려있다. 나라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한인 선조들의 굴곡진 삶들이. 한나라가 나라의 힘을 쓰지 못할 국민들은 어떤 난관을 겪을까. 나를 포함한 다른 작가들은 그 삶의 흔적을 찾아 간다. 거기다 나는 버려진 땅의 이미지를 가진 사할린의 자연에 관심이 있었다. 러시아 본토에서는 1850년 이후부터 죄수들을 이곳으로 보내 형기를 마치면 살도록 했다. 도망 가봐야 사방이 바다라 죽음과 대면해야했다.

지금 러시아정부는 사할린 연금자들에게 2년에 한번씩 본토를 여행할 여비를 지급한다. 힘겨운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배려이다. 나는 사할린의 자연이 궁금해서 렌트카로 사흘 돌아다녔다. 여기저기보이는 건 오직 바다 뿐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횟집은 물론 커피숍 하나 없는 태고적 풍경 그대로인듯한 바다는 늘 감동이었다. 몽골 초원의 밤하늘이 그러하듯.

어디나 같지만 사할린의 자연이 펑화롭기만 한건 아니어서 위험이 있다. 곰이 출몰한다.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으니 곰이 다가와 차를 흔들며 타이어를 물어뜯는 동영상을 본일이 있다. 무시무시했다. 강가의 마을에도 곰이 출몰해 주민들은 사냥총을 비치하고 있다. 그러니 시골길에서 렌트카를 혼자 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반드시 현지기사가 딸려야한다. 무한대인 사할린바다를 바라보며 한인들은 왜 이곳까지 이끌려와서 삶의 둥지를 틀어야했을까 생각했다. 저 바다가 영감을 주면 소설을 쓸수 있지 않을까.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Russia

CHAPTER 11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프로그램명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국가 러시아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2014. 6. 20 ~ 2014. 9. 17

작가명 정태언

레지던스 기관 소개

2014년 기획형해외레지던스에 선정되어 활동한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은 사할린주(州)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하고 있다. 사할린 한국어교육원은 한인문화센터 건물 안에 자리한다. 특히 해외레지던스에 참가하는 작가들에게는 사할린 내의 교포들의 행사와 활동들을 늘 접할 수 있고, 또 한국어교육원 원장님과 현지 교포 직원들의 협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원은 사무실과 몇 개의 강의실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자료나 원고 인쇄 등의 도움이 용이하다. 참고로 2층으로 된 한인문화센터에는 여러 교포 단체들이 상주해있기에 그 만큼 사할린 한인들의 취재나 정보수집이 용이한 공간이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는 일본정부가 보상차원에서 지어준 건물이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원은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있는 상태였다.

내가 3개월 가량 머물던 공간은 한국어교육원에서 도보로 10여분 떨어진, 20평이 채 안 되는 아파트에 세를 얻어 주거와 집필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시내와 약간 떨어진 곳이라 쾌적했다. 물론 아파트에는 취사도구 등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사할린주의 주도이고,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에게 어두운 기억 속에 웅크려있는 사할린은 그 길이가 한반도와 비슷하고, 2차세계대전 일본 패망때까지 북쪽으로 절반은 소련의, 남쪽으로 절반은 일본의 영토였다. 그렇기에 모집이나 징용으로 끌려간 한인들은 거의 일본 영토였던 곳에 거주했다. 탄광이나 벌목, 어업 등이 기반이 된 소도시들에는 여전히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물론 그 숫자는 이전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 들었다. 그런 도시들에 한국어교육원 지부 형태가 아직 존속하고 있었고, 사할린한국어교육원 장원창원장님이 그런 도시들을 방문할 때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서 사할린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어 뜻 깊었다. 아마도 사할린 파견작가로서 가장 큰 도움이 이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의 장원창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여전하다. 또한 북쪽의 도시들을 혼자 방문할 때 그곳 한인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사할린 한인들의 현재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여러 활동에 도움을 주신 전 사할린대학교 한국어과 박승의 교수님 덕분에 피상적으로만 알던 현지 실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국가문서보존실 등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들을 접한 게 큰 소득이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2014년은 한인들이 러시아 땅으로 이주한 지 150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인지 많은 도시에서 이를 기념한 행사가 많았다. 사할린 한국어교육원의 장원창 원장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사할린출장소장님, 사할린대학교의 박승의 교수님 덕분에 이런 행사들에 참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른 도시들을 가기에는 교통편이 그리 녹록치 않았지만 이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오호츠크해를 끼고 자리한 여러 도시들에서 그곳 한인들과의 교류는 소중한 체험으로 남아 있다. 특히 한인 이주 150주년 행사에서 사할린에서 인구 대비 러시아인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는 한인들의 위상을 느꼈다. 그 분들과의 교류는 체류기간 내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그 분들이 작가인 내게 부탁하는 일관된 주문은 현재 사할린 한인들의 사정을 정확히 한국에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사할린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는 내가 한국에서 알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기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학술대회 일정이 끝난 뒤 이들과 함께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의 비극적 장소들,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는 가스전 등 현지에 갈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무엇보다 문학인이라는 공통점 아래 현지 작가들과의 교류는 소중한 것이었다. 특히 소련 시절부터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드르 강과의 교류와 그의 작품을 접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데 러시아어로 글을 쓰지만 소련 해체 후 자국어를 강화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 들었다. 같은 작가로서 글을 발표할 공간에 대해, 그리고 지금 한국문학과 러시아문학, 카자흐스탄 등의 고려인문학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내 작품과 알렉산드르 강의 작품을 나란히 유일한 현지 한인신문인 새고려신문에 연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만남 덕분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사할린에 대한, 또 고려인들에 대한 중편 하나를 써서 계간지에 발표했다. 사할린에서 레지던스 활동 중 내게 축적된 소중한 여러 자료와 기억들은 앞으로의 내 작품들 속에 녹아 들어갈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을 지나 바다를 건너면 도착하는 곳이 사할린이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짓눌린 한인 억류자들이 많이 사는 슬픔의 땅으로 알려진 곳. 또 러시아인들에게는 끔찍한 유형의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의 러시아 땅을 '대륙'이라 부른다. 여기 사는 한인들도 그곳을 '큰땅'이라 칭하며 유리되어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낸다. 이 같은 특징은 사할린 주민의 정체성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출발 전 짐을 꾸리며 여러 권의 책을 집어 들었다가 놓고 말았다. 그리고 달랑 안톤 체홉의 책 한 권만 챙겼다. 책 제목은 『사할린 섬』이었다. 그러나 몇 쪽 읽다가 나는 얼른 책을 덮고 말았다. 유형지로서의 사할린이 나를 다시 휘어잡았다. 비행기 안에서도 진정 자발적으로 사할린에 가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함께 비행하고 있었다. 사할린으로 가는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사할린에 대한 개요와 한인들의 사연을 조금 아는 정도였다. 마음 한 구석에는 늘 한번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자리 잡은 곳임에도 그랬다. 미지의 장소로 가며 설레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할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건 '강제'라는 힘이 작용해 낳은 결과물들이었다. '징용', '유형'따위의 단어들이 만들어 내는 어둡고 침침한 것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댔다. 그런 기분을 떨치려 나는 체홉의 책을 펴들었다. 나는 '대체 체홉이 이곳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은 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여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섭씨 7도 정도의 기온에 움츠러들며 공항 밖으로 나왔다. '사할린한국어교육원'에서 마중 나온 두 분의 교포직원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향한 곳이 한인문화센터였다. 거기서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어 나는 얼떨결에 영사관분들과 현지 여러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소곳이 앉아 진행을 지켜보았다. 나이 든 교포분들의 얼굴에 스민 세월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며 본 '사할린한인문화센터'입구의 위령탑과 추모비가 자꾸 눈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이 잔상은 사할린에 체류하는 동안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체홉이 있었다.

만약 체홉이 사할린에 오지 않았다면 사할린의 러시아인들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문학을 자국의 자긍심으로 내세우는 러시아에서 체홉의 흔적이나 그의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은 전국 곳곳에 있다. 하지만 사할린은 그의 삼개월의 체류 덕분에 '체홉'이라는 이름을 자기 것으로 당당히 내세운다. 거리 이름은 물론 그를 기념한 박물관 이름도 '체홉의 책 『사할린 섬』박물관'이다. 또 그 앞에 커다랗게 체홉극장이 자리한다. 그 둘레로는 공원과 조그마한 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체홉 작품들 속의 인물들을 세워놓은 조각물들이 공원 곳곳에 눈에 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뿐 아니라 사할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체홉의 위상은 제정러시아와 소련시절의 사할린 대표도시인 북쪽 알렉산드로프크-사할린스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레지던스 기간 동안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은 북쪽 지역이었다. 거기에는 실제 체홉의 흔적이 있었고, 사할린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간 주변 분들이 거의 없었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 시기 사할린의 중심도시인 알렉산드로프스크-사할린스키는 꼭 가보리라 기회를 보고 있었다. 우연히 폐광촌에 자리한 박물관을 지키는 러시아 할머니가 그곳 출신이라며 내가 그곳에 가는 정보를 주었다.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면 된다는 것이었다. 버스도 수시로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새벽에 도착한 기차에서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 대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반대로 기차역으로 나오는 버스도 저녁에 한 대 있는데 버스표를 파는 매표소가 자주 닫혀 있어 서너번 들른 다음에 이미 표가 다 팔렸다는 답을 들었다. 겨우 합승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나올 수 있었다. 명성만큼 크지 않은 알렉산드로프스크-사할린스키에서의 체험은 내내 내게 강하게 남았다. 그런 체험에는 편치 않은 교통편과 너무 비싸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조악한 숙박시설 등도 한 몫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그곳으로 가는 편도 기차표와 돌아오는 길에 다른 도시를 경유해야 하는 표 세 장을 한 번에 끊었다. 광대한 러시아는 표를 끊을 때 모스크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현지 시간과 모스크바 시간이 뒤섞여 표 한 장이 잘못되었나 보았다. 다음 날 타야한다는 차장의 안내를 받고 난감했던 기억도 새롭다. 사할린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사할린에서 도시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 많아 숙박 시설이 많지 않고 숙박 비용이 비싸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알리고 싶다. 물론 현지 한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분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기에 가장 든든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도 이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나는 체홉의 자취를 사할린 곳곳에서 만났다. 그리고 한인들의 역사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들을 고려인이라 부르는데 사할린 교포들은 이 범주에 자신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와는 다른 배경들. 나는 체홉의 흔적만큼 사할린 교포의 역사를 거리 곳곳에서, 그리고 폐광촌에서 만날 수 있었다.

레지던스 일정이 끝나가며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다. 무엇인가 더 할 일이 남은 것 같아 서둘러보지만 처음 이곳으로 올 때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 떠나오기 전 날 한국어교육원이 있는 한인문화센터에서 일제시기 징용으로 끌려온 분들의 유해 봉환식이 있었다. 추도식장의 검정 양복들이 내 눈을 침침하게 만들었다. 그 유해는 나보다 하루 먼저 한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직도 사할린에서의 많은 것들이 내 속에 묵직하게 남아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14년 사할린에서 레지던스에 참가한 뒤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이미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많기에 피상적으로 그곳 사정이 웬만큼 알려져 있기에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었던 것 같았다. 현지에서

만난 한인들의 위상은 대개 높았다. 또한 우리 민족 특유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몇 세대가 지나며 모스크바나 러시아의 큰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자꾸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 그들을 접하려 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내가 만난 분들 거의가 자존심도 강하고 자부심도 상당했다. 그렇기에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런 유대감을 통해야만 우리가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사연 너머로 다가갈 수 있었다. 이제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인천을 오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5-6회 되는 곳으로 그 만큼 교류도 많다. 그래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많은 창작 소재를 제공할 곳이리라 믿는다.

내가 참여한 레지던스 기간은 6-9월이었다.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 6월 하순이었지만 섭씨 7도 정도였고 추웠다. 내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꾸린 짐 내용물은 대부분 옷이었다. 여름옷에서부터 봄, 가을용, 그리고 초겨울에 입을 옷을 꾸려갔고 아주 유용했다. 또한 태풍이 오면 도시 대부분 며칠 간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내가 머물던 숙소가 8층이라 생수랑 생필품을 낑낑대며 계단을 올랐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러나 고생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강렬한 체험과 작가적 상상력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지리적인 특징 상 사할린은 러시아에서도 특수한 지역에 속한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기에 본토로부터 대다수의 물자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물가가 러시아 본토보다 비싸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 참고로 러시아 정부에서도 사할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료는 본토보다 1.5배 더 받는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직종의 사람들도 자연 본토보다 좀 더 많은 급료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게 사할린의 지리상의 특성 탓이리라 짐작했다. 그래서인지 예상했던 것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파트 월세는 비쌌다. 더불어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면 한국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사할린의 이런 특수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할린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 시 참고하셨으면 하는 점이다. 그래야 삼 개월의 체류 동안 코디네이터들의 도움, 차량 이용 등 좀 더 원활하게 작가들이 소재 발굴 등을 위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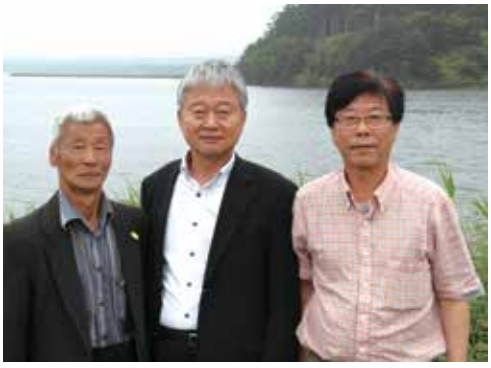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Poland

CHAPTER 12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프로그램명	바르샤바대학교
국가	폴란드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9. 2 ~ 2018. 11. 29
작가명	이성아

레지던스 기관 소개

바르샤바 대학교는 한 캠퍼스 안에 모든 단과대학이 모여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올드타운 근처에 있던 한국학과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시내 중심지 부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하게 되면, 코디네이터가 안내해줄 것입니다.) 자주 가던 대학도서관에 한국작품이 너무 적어서 의아했는데, 학과를 옮기면서 참고도서도 그쪽으로 대부분 옮겨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학과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합쳐 대략 1백 여 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샤바 대학 내 여러 전공 중 경쟁률이 높은 그룹에 속하며 학생들의 수준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두 번의 특강을 진행하면 됩니다. 9월은 방학기간이어서 강의는 11월에 진행했습니다. 학과장님은 한국에서 십년 동안 공부하신 분으로 말소리만 들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발음까지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셨습니다. 레지던스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신 바르샤바대학의 유스트나 교수(Justyna Naber-Millller)님 역시 한국에서 석박사를 하신 분으로 한국어가 능숙하였습니다. 덕분에 체류 초기에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레지던스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작가에게 부여된 임무는 두 번의 특강입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작가 개인의 관심과 작품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학과 대학원생들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편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르샤바에 와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저의 집필 작업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폴란드의 역사와 한국 역사에서 비슷하게 되풀이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바르샤바에서 본 연극과 뮤지엄 등에서 느낀 점들과 연결지어서, 가장 쉬운 한국말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인지라 한국인 작가로부터 한국말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워했습니다. 폴란드 청년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역사와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등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에 매료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가 몹시 진지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릴케는 파리에 처음 갔을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파리에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네.” 저는 이 말을 빌려와서, “나는 바르샤바에서 듣는 법을 배우고 있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훌륭한 여건의 음악도시들도 물론 많겠지만, 바르샤바는 음악을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필하모닉과 오페라극장에서는 콘서트,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까지 공연이 풍성하고, 싼 티켓으로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드타운 주변에 있는 성당들도 잘 눈여겨본다면 여느 공연장 못지않은 수준의 공연을 무료로 볼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바르샤바 대학 도서관은, 모든 작가들이 좋아할 만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광과 조명, 공기순환 등이 더없이 쾌적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약 5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등록을 하면 1년 동안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레지던스가 끝난 후 다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야외 정원은 도서관 옥상까지 이어져 비스와 강이 내려다보여서 머리를 식히며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카페테리아와 커피숍, 그리고 지하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특히 프린트와 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콘서트나 열차, 비행기 티켓 출력할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바르샤바는 2차 대전의 역사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발 딛는 곳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나치와 유대인의 아픈 역사가 아로새겨져있습니다. 마침 저의 집필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주로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역사박물관들이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대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아우슈비츠도 있고 유대인박물관도 있지만,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유대인극장>프로그램도 추천합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정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뮤지엄 팁

바르샤바의 다양한 뮤지엄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뮤지엄(Polin museum)에서는 유대인음식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봉기뮤지엄(Uprising museum) 에서는 2018년 독립 백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바르샤바 음악원에서도 학생들의 무료 공연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뮤지엄들이 특정 요일에 무료입장하는 날이 있으므로 관광책자를 잘 살펴보십시오.

카페 <Worek Kości>의 낭독회 / Bagatela 10, 00-585 Warszawa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한 달에 한번 문학청년이나 시민들의 시낭송대회가 열립니다. 프로, 아마추어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그날 카페에 모인 사람들의 심사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시를 얼마나 사랑하고 즐기는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지인의 권유로 시는 아니지만 영어로 번역된 저의 소설 몇 대목을 낭독했습니다. 브레이크타임에 제 소설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을 하는 등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그 외 생활 팁

수돗물의 석회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시내 중심가의 쇼핑몰에 있는 가전제품 매장 Saturn에서 브리타 정수기를 구입해서 3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교통카드는 사진 한 장과 여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3달치를 만들면 할인도 해줍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메트로, 트램, 버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쇼팽공항에 교통카드 만드는 곳이 있으므로 도착해서 바로 만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바르샤바는 단기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 에어비엔비에서 구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위치나 상태가 좋은 곳은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샤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3달을 한 곳에 예약하는 것보다는 위험분산도 할 겸 다양한 지역을 체험해보고자 한 달 단위로 예약을 했습니다. 와이파이는 원활했습니다. 세 곳 다 나쁘지 않았으나, 두 곳이 바로 옆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바람에 드릴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소음을 피하느라 덕분에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식당 팁

바르샤바에는 베지테리언을 위한 식당이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메뉴도 다양해서 서양식에 질렸을 때 좋았습니다. 구글 맵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은 10월 마지막 일요일, 섬머타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바르샤바는 오후 4시만 되면 어더워지고 곧 밤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레지던스 초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폴란드로 출발하기 전, 폴란드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서 챙겨보았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다양하지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문학작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에 와서 코디네이터와 이야기하는 중에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폴란드 문학번역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적지 않지만 현대문학에서도 꽤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한국에 소개된 것이 많지 않은 탓에, 문학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르사뱌는 작가들에게 더없이 영감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바르샤바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지하철 노선은 두 개이고 대부분의 역사문화 시설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작고 번잡스럽지 않으며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걷다보면 문득 촛불과 꽃, 추모비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작가라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저의 작업 역시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정서적으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바르샤바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바르샤바에 집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레지던스로서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자 하였습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차분하고 고즈넉한데다 시내 곳곳에 녹지와 숲이 많아서 사색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생활물가도 높지 않아서, 여행보다는 살기에 좋은 곳이며 날이 갈수록 정이 드는 도시입니다. 바쁘게 찾아다닐 곳이 많지 않아서, 작품을 집필하고 구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Poland

CHAPTER 12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프로그램명	바르샤바대학교
국가	폴란드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8. 15 ~ 2017. 11. 12
작가명	김애란

레지던스 기관 소개

폴란드는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가 겹겹이 쌓인 국가라 창작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럽의 아픈 역사를 품은 동시에 문학과 음악, 영화 등 예술이 발달한 나라라 동시대 작가들에게 여러모로 자극이 되는 장소이고요. 전쟁 중 도시의 80퍼센트 가량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바르샤바를 보며 무언가를 다시 해보는 힘, 내일을 믿는 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따로 지정된 숙소가 없기 때문에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국 전 현지 코디네이터와 상의해 진행하면 됩니다. 공항 픽업에서부터 숙소 안내까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강연과 행사 외에 시간은 모두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든 새로운 경험을 늘이든 모두 창작자의 자유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브로츠와프 국제 단편 축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브로츠와프 국제 단편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매회 하나의 주제 아래 무대 성격이 달라지는 행사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나의 적(敵)'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프로그램의 경우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네 명의 작가가 25분-30분 동안 자기 작품을 읽었습니다. 권투 경기장을 연상 시키는 무대에 올라 각자 원

하는 자세로, 마음에 드는 곳에서(누군가는 탁자 위에,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 단편을 낭독했습니다. 한국어 낭독 속도에 맞게 폴란드어 텍스트가 영상으로 제공됐습니다. 관객과의 대화가 따로 없는 대신 낭독 후 폴란드 비평가들의 짧은 감상평이 이어졌습니다. 무대와 조명 등 극장 분위기가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관객 집중력이 높은 행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한국어나 영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작가에게 숙소 및 교통편을 비롯해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주폴 한국문화원 낭독 행사

10월 25일 폴란드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작가와의 만남'행사를 가졌습니다. 세종학당 수강생, 현지 독서모임 회원, 한인 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편 소설 <입동> 전문을 읽고 독자와의 대화 및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단편 하나를 온전히 낭독하기로 해 처음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청중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에 몰입해주었습니다. 작품 성격상 한국 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폴란드 청중이 느끼는 슬픔의 결이 조금 다른 듯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나 주제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경험한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 강연

10월 24일과 27일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 건물에서 <한국소설 속 젊은이들의 공간>을 주제로 두 번 강연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걸 의식해 쉽고 단순한 어휘로 강연 원고를 꾸렸습니다. 수업 중에도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려 노력했고요. 제가 쓴 단편 중 한국 청년들이 머무르거나 지나가는 공간(원룸, 옥탑방, 반지하, 노량진, 재개발아파트 등)을 한두 문단 발췌해 연대기 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텍스트를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이어 읽었습니다.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낭독을 부탁했습니다. 폴란드어 번역은 유스트나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초급반의 경우 통역을 동행했고 중급 및 고급반은 학생들과 한국어로 직접 소통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 위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공부한 언어를 알아듣는 기쁨이 스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았던 건 통역이 없는 반이었습니다. 별다른 매개 없이 서로가 던진 공을 직접 받는 느낌이 대화에 리듬과 속도, 재미를 더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2차 세계대전 관련 공간 답사

오슈비엥침 및 비르케나우수용소, 그단스크 2차세계대전박물관, 바르샤바봉기 기념관, 게토 월, 바르샤바국립묘지, 프라하 유대인묘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예술 공간 답사

바르샤바 필하모닉, 바르샤바 국립 오페라하우스, 쇼팽 박물관, 프라하 카프카 박물관, 에곤 실레 박물관 등에 찾아갔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다른 작가의 실수할 기회 혹은 시행착오를 겪을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스럽지만 실용적인 정보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출발 전 준비사항

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환전

- 통장 개설 후 신용카드 발급까지 최대 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출국 날짜에 맞춰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지원금 정도의) 일정 금액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라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있을 경우 숙소 및 기차표, 공연 예매가 용이합니다.
- 바르샤바공항 환전 수수료가 무척 높으니 한국이나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세요.
- 공금 외에 개인 신용카드와 비상용 유로(환전용이)를 함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 슈퍼마켓에 갈 때도 카드가 갑자기 안 되거나 거부될 때를 대비해 소량의 현금을 지참하세요.
- 관광지에서 동양인들에게 갑자기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현금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및 기차표 예매

- 폴란드항공에 인천과 바르샤바를 바로 오가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이 항공 스케줄을 먼저 확인한 뒤 여행 일정을 잡으세요.
- 폴란드의 지방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가능한 한 여행 초반에(해가 길 때) 미리 다녀오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기차표 예매 시 홈페이지(http://rozklad-pkp.pl/en) 점검이 매일 23:00-1:00 사이에 이뤄지니 이 시간대를 피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열차로 이동할 경우 승무원이 여권 확인을 하니 지참하세요.
- 바르샤바는 오후 5시(평균 퇴근 시간)부터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약속 장소나 공항으로 이동할 때 참고하세요.
- 바르샤바를 한국식대로 '바르샤바'라 할 경우 폴란드인과 외국인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현지인과 대화할 때 바르샤바를 [wɔ̃:rsɔ:]로 발음해주세요.

의식주

의<衣>

폴란드의 가을은 무척 쌀쌀한 편이고 한국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부피가 큰 옷을 많이 챙길 수 없다면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세요.

식<食>

- 폴란드는 물가가 싼 편이고 특히 공산품보다 식료품 가격이 저렴합니다.
-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안이나 빨래는 괜찮지만 커피를 내리거나 요리할 땐 생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까르푸나 대형마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용언어를 '영어'로 변환한 뒤 생수 포함 식재료를 배달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 마트 비닐 봉투가 유료인데 질이 좋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큰 에코 백을 미리 준비해 시장바구니로 사용하면 편합니다.
- 시내 중심가에 인도,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에 한식당도 일곱 개가량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파는 도시락 초밥도 간단한 한 끼로 괜찮습니다.
-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몰 '즈워티 테라시(주소 : ul. Zlota 59, Warsaw 00-120, Poland)' 지하에 아시아마트가 있습니다. 쌀과 라면, 김, 인스턴트 미소국, 단무지 등을 비롯해 스낵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住>

- 어디든 와이파이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 폴란드에서는 쓰레기 배출 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폴란드에는 흡연자가 많고 아직 거리 흡연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기타

-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날이 흐릴 땐 초경량 우산을 휴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 화장실이 대부분 유로니 여분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세요.
- 낯선 장소로 이동할 때 구글맵이 무척 유용합니다. GPS 사용 시 배터리 소모가 매우 빨라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으니 항상 보조배터리나 휴대전화충전기를 휴대하세요. 휴대전화를 분실할 우려도 있으니 작은 수첩에 숙소 주소 및 주요 연락처 등을 적어놓고 다니세요.
- 텍스트 출력은 바르샤바대학 도서관이나 한국학과 사무실에서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복사전문점을 찾는 게 빠르고 편할 때가 있습니다. KSERO나 XERO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를 찾아보세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 나라 언어를 익히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간단한 회화를 외워 그 나라 방식대로, 그 나라 말로 말해보는 일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얼핏 바르샤바 사람들이 차갑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우리가 서로의 감정노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바르샤바의 표정은 여러 가지고 사람마다 또 세대마다 지역마다 그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고요.

바르샤바에 머물며 그 사회의 바깥에 서보는 것, 소수자가 돼보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곳의 변기 높이, 의자 크기가 몸에 맞지 않아 허리가 아플 때도 많았는데, 내 몸이 한국에서 얼마나 '평균'으로 대우 받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던 날 바르샤바 시내에서 대규모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백인의 것"(http://news.joins.com/article/22107636)이라는 슬로건 아래 6만 명이 모였고 유럽 최대 규모였습니다. 내년 또 후년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해서라면 한국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류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할지는 못할지라도 덜 미워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13. Opowiadania




raz kolejny dzieliła się tą samą refleksją:
– Yŏng-u jest teraz w lepszym świecie. Lepszym niż ten,
bo jest w nim nasz synek.
Zdarzyło się raz, że wyszła na zakupy z torbą na
kółkach i wróciła po dziesięciu minutach. Kiedy ją
spytałem, co się stało, powiedziała, że ludzie się na nią
, i chciała wiedzieć, czy na mnie również.

Poland

CHAPTER 12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프로그램명	바르샤바대학교
국가	폴란드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10. 20 ~ 2016. 1. 17
작가명	김다은

레지던스 기관 소개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레지던스'는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르샤바대학교(Uniwersytet Warszawski, http://en.uw.edu.pl/)는 1816년 11월 14일에 설립되어, 여러 분야의 우수한 학자들과 노벨상의 주역들을 배출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다. 2015년 필자가 갔을 때의 한국학과 건물은 바르샤바대학교의 신도서관 가까이 있었지만, 그 후에 중앙역 부근으로 옮겼다고 들었다. 새로 옮긴 한국학과 건물에 대해 큐레이터가 보내온 정보로는 "1921년에 건설되어 예전에는 물리학과가 사용하던 건물인데 아주 크고 재미난 곳(http://warszawa1939.pl/i.php?o=hoza_69)"이라고 하니, 차기 레지던스 작가는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바르샤바대학교는 1983년 공식적으로 일본·한국학과 내에 한국학 전공 과정을 개설했고, 1988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폴란드는 1889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남한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한국학과는 매우 전망 있는 전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학과에는 6명의 교수와 학부 3년제로 50여명의 학생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코디네이터는 한국학과의 유스티나 교수(Justyna Najbar-Miller)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바르샤바대학교에서 주목할 만한 장소는 신도서관이었는데, 바르샤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붕 위의 식물원에서부터 1헥타르에 달하는 아름다운 거대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신도서관에는 노벨문학 수상자인 체스와프 미워시와 역사학자 여아힘 렐레빌이 수기로 쓴 도서색인도 찾아볼 수 있었고, 심지어 누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만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곳이었다. 이에 대한 소개는 '도서관에서 누워서 공부하는 수재들'이라는 필자의 글(헤럴드 경제 2015.11.24)에서 읽어볼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한국학과 강의

레지던스 기간 동안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특강을 실시했다. 강의 언어는 영어로 요청받았는데(최소한 영어 1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말로만 할 경우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문학을 전공한 필자도 대학생 시절에 유창한 특강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반면에 한국 작가가 폴란드까지 가서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한국말의 아름다움을 전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가능하다면, 폴란드 학생들의 귀에 한국어가 쏙쏙 들어오는 기쁜 경험을 한번 쯤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1차 강의 후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2차는 영어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에서 제대로 이해하면 2차까지 한국말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하고 나니, 강의 준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화려하고 풍부한 작가식의 어휘들을 풀어놓기보다 학생들이 배웠을 최소한의 어휘들만 사용하는 좀 유별난 강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교재도 준비하였다. PPT에는 강연의 제목과 소제목들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폴란드어로 번역해서 같이 넣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나는 아무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상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Jestem nikim. Bo posiadam wyobraźnię.)”였다. 필자가 한국어로 제목을 읽고 나서 폴란드어를 발음할 줄 모르니 읽어달라고 하자, 학생들은 자신 있게 먼저 입을 열었다. 교수이고 작가인 필자도 폴란드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을 본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더구나 필자도 외국문학을 전공하느라고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고백하자, 학생들의 분위기는 더 자유로워졌다.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이 한국말로 ‘예’, ‘아니오’, ‘감사합니다’, ‘김치’, ‘김밥’ 등 간단한 표현으로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질문들을 자주 던졌다. 학생들은 점점 활발해졌고, 나중에는 저마다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할 정도로 특강에 적극 참여하였다.

무엇보다도 폴란드 학생들이 ‘어, 귀가 뚫린 것 같아! 한국말이 음악처럼 들리는 것 같아!“라는 체험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 감정은 외국어 전공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 문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후 학생들과 차를 마시며 한국말로 대화를 할 정도로 친해졌다. 작가 입장에서 강의 준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한국말과 한국문학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준비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강좌의 제목은 “나는 아무도 아니다. 바르샤바에 왔기 때문이다(Jestem nikim. Bo przyjechałam do Warszawy.)”였다. 결국 한국 작가는 두 강좌를 모두 한국말로 강의하는데 성공(!)했다.

폴란드 작가와의 대담

한편, 폴란드에서 두 명의 작가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폴란드 작가들의 사고방식과 작품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코디네이터에게 요청했다. 코디네이터가 작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서, 직접 연락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필자가 이메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표한 작품들을 소개하자, 곧바로 약속을 잡아주었다. 대담은 통역없이 진행되었다.

필자가 만났던 작가는 아가타 투진스카(Agata Tuszyńska)와 마렉 베니츠크(Marek Bieńczyk)다. 소설가 아가타 투진스카는 국내에 『상실연습』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여성잡지 『QUEEN』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2)에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소설가 마렉 베니츠크는 여러 권의 장편소설 및 6미터 50센티미터 길이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출간해서 여러 나라에 번역·출간한 작가이다. '폴란드 바르샤바 레지던시를 다녀와서'라는 홍보 동영상에 이들과의 대담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귀국 후에도 두 작가들과 계속 교류하고 있으며, 언젠가 한국에서도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작활동

레지던스 기간 동안 바르샤바에서만 쓸 수 있는 소설을 구상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바르샤바의 여러 장소와 자료를 많이 헤매고 다녔다. 폴란드에서 쓰기 시작한 소설을 귀국 후 완성하였고, 2016년 11월에 장편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 째 의자』를 출간했다. 다음은 장편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의 '작가의 말'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 "……처음에는 미미하게 감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는데, 잦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도 보지 못한 것이 그곳에서 자꾸만 포착되었다. 숱한 전쟁으로 여지없이 파괴된 도시들, 특히 85%까지 파괴되었던 바르샤바의 균열 하나까지도 재건해 놓은 풍경은 관광객들에게는 충분한 볼거리였다. 하지만 필자가 매료된 것은 그런 풍경 뒤에서 비쳐나는 묘한 빛이었다. 처음에는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고, 어느 순간부터 그 빛이 폴란드인들의 영혼의 뜰에서 퍼져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 그처럼 영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등걸이의 비밀이 무엇인지 작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
> 크리스마스이브에 필자는 좀 특별한 선택을 했다. 당시 머물고 있던 숙소의 주인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던 것이다. 공식적인 초대에는 더 화려하고 거창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폴란드의 평범한 가정의 크리스마스이브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바로 그 선택이 화두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주었던 것이다. 폴란드인들의 가정마다 크리스마스이브의 식탁에는 빈 접시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올 지도 모를 사람'을 위한 의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열한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었던 경험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폴란드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영혼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지 비밀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크쥐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의 작품으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 있다. 필자가 직접 접해본 폴란드는 그 역사나 정서가 한국과 너무나 유사해서, 두 나라가 베로니카처럼 ‘평행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다. 이 소설은 한 폴란드 할머니와 북한의 전쟁고아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역사적이고 정서적인 수수께끼 같은 관계를 추적한 작품(사진 첨부)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에 기숙사가 있긴 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코디네이터가 50여개의 아파트 웹 주소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숙소의 조건과 사진들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바르샤바대학교와 멀지 않으면서도 공원이 가까운 지역을 선택했다. 한국에서 미리 숙소 예약을 해야만 했기에 코디네이터의 도움없이 직접 카드로 절차를 밟았다. 인터넷 화면들을 따라가면서 약간 복잡한 단계를 거쳤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니 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2015년 당시에는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국제공항까지 직항이 없어서 환승을 해야만 했다. 2016년에 직항이 개설되었다고 하니, 차기 레지던스 작가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바르샤바국제공항에서 코디네이터를 처음 만났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간 사진을 가지고 공항에서 바르샤바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 폴란드 교통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어서, 공항에서 3개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복잡한 재발급을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짐이 많으면 공항에서 택시로 이동하면 된다(한국처럼 자가용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숙소 주인과의 첫 번째 만남은 코디네이터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동행해주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첫 인사나 열쇠 수령에만 그치지 않고, 숙소의 기계 사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사용법이 영어로 적혀있지 않아서, 대강 알아서 사용했다가는 기계를 상하게 하거나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작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예를 들면, 세탁기나 청소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즉각 집주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고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바르샤바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자료 조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이 좋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역에 가더라도 길게 줄이 이어져 있어서 발권이 늦어지거나 기차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예약이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코디네이터에게 부탁한다. 특히 기차를 탈 때는 기차표와 함께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해야하는데, 바르샤바 교통 카드를 보여줘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었다. 바르샤바 지역을 벗어나면 교통카드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파는 구역별 표를 사서 이동해야한다.

폴란드 특유의 문화로는 실내에서 외투를 입지 않는 것(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따로 벗어 놓고 들어가야 한다)이었지만, 여름에 가는 레지던시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해서 부담이 적고,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이 많아 비교적 풍요로운 기간을 보낼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16년도 해외기획형레지던스를 위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다. 매우 좋은 기획으로 2017년도 프로그램에 참가할 작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나 경험을 풀어놓고 싶지만 자칫, 변화된 환경의 이미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주게 되거나 작가적인 호기심을 미리 꺾어버릴 까봐 이쯤에서 삼가는 편이 좋겠다.

하지만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레지던스는 작가가 쓸 한 편의 픽션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새로 만들어진 시공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단기간 강렬한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 때문이다. 필자는 3개월 동안 새로 쓸 소설의 주인공처럼 살았던 느낌이다. 그곳에서의 생활 하나하나가 기록이었고, 사유의 대상이었고, 만들어져 나가는 문장들이었다.

폴란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는 '한국에서 보낸 한국 작가'라는 사실이다. 한국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때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가령, 필자가 가져간 선물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한 묶음에 천원 안팎인 '원고지'였다. 한국작가가 글을 쓰는 종이라고 하면 다들 신기해했고, 그 종이에 한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다. 원고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손쉽게 풀어놓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특히 한 폴란드 작가는 원고지를 보니 새로운 작품을 쓰고 싶을 정도로 영감이 온다고 말했다.

'레지던스'는 여행이 아니라 체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살아갈 때처럼 폴란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필자는 바르샤바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여행용 가방을 찾지 못한 웃지 못 할 경험도 했다. 물론 당시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이는 장편소설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체류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작가라면 기본적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리 이런저런 특별한 준비를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하나만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다른 작가가 받았을 수도 있는 혜택을 내가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lovenia

CHAPTER 13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프로그램명	류블랴나대학교
국가	슬로베니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10. 25 ~ 2019. 1. 22
작가명	백순원

레지던스 기관 소개

저는 4월~6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일정상의 문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류블랴나 대학의 아시아문화학과 강병융 교수님의 배려로 2018년 10월 중반에서 2019년 1월 중반으로 조정을 하여 참가하였습니다. 겨울은 굉장히 춥고 4시 30분이면 해가지기 때문에 원래의 4월~6월의 시기에 참여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슬로베니아를 방문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류블랴나 학생 위주로 하는 강의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학과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도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과 한국어 강의가 있는 학과라서 한국 문학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작가 최인훈 소개와 작품소개, 그리고 저의 희곡 작품을 소개로 두 가지 강의를 준비를 했으나 90분 강의와 문학 중심의 학과가 아니어서 그 특성상 첫 번째 강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정치적 시대상, 배경을 중심으로 희곡 <봄이 오면 산에 들에>작품을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작품 <서바이벌 파라다이스>는 1997년 IMF 시기의 배경으로 쓴 것이라서 명예퇴직과 온라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 전반적으로 IMF 기점으로 달라진 지금의 한국의 문화를 만들게 된 계기들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가 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아시아문화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크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체코 프라하지점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올 해 처음으로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항공할인권과 BTS

앨범을 부상으로 주는 것을 보고 이 대회의 크기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참가한 류블랴나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직접 경험해 보니 대회를 준비한 한국어 강의를 하시는 류현숙 선생님과 한국문학을 강의 하시는 강병융 선생님의 노고가 큼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처음 도착하여 강병융 선생님과 류현숙 선생님이 친절하게 픽업을 해주셨고 생활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슬로베니아에 오기 전에 슬로베니아 작품과 작가를 리서치하고 싶다는 것을 코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시아문화학과 선생님이신 나기사(Nagisa Moritok Skof) 선생님을 소개 받았습니다. 드라마극장과 MGL 극장, 오페라하우스 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소개 받고 슬로베니아 작품 중 고전과 현대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고전 작품은 서점에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작가들은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 중심으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 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1월 초까지 작품을 리서치를 하고 관계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기사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대체로 공연들이 일주일 이상 하지 않고 요일마다 레퍼토리식으로 해서 공연관람 스케줄을 짜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치카코 시게모리(Chikako Shigemori) 교수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강의할 내용과 저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치카코 선생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연락을 주라고 하셨을 정도로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기존에 쓰고 있는 희곡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새롭게 구상한 작품을 쓰기 위해 하루의 일과와 느낌들을 일기로 메모하고 있습니다. 류블랴나 시내에 있는 아파트 숙소에서 초반에는 작업을 하였으며 코디 선생님이 출입증을 빌려 주셔서 류블랴나의 대학교의 도서관도 활용하였습니다. 고풍스럽고 천장도 높으며 테이블 마다 갓등이 있어서 집중하는데 좋았습니다.

구시가지와 시내를 하루에 조금씩 산책을 하면서 곳곳을 안 본 곳이 없을 정도로 걸어 다녔습니다. 숙소가 원룸이라서 답답하면 15분 거리의 공원이나 류블랴나 성에 올라가 시내를 한 눈에 보는 것도 창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이 곳 선생님들도 학과일로 바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간을 갖기는 힘든 실정인거 같습

니다. 다만, 저는 나기사 선생님이 연극 공연 리허설 할 때 참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영화학교가 있어서 구경을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강도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수업에 대해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강의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출발하기 전에 숙소와 여행을 할 곳 등 구글 지도를 통해 류블랴나 지역을 익히고 슬로베니아 중심으로 인근 나라들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5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따뜻하고 좋을 때 여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리 한국에서 여행 루트를 정해 놓았습니다. 여행사의 동유럽 루트를 참고 하였습니다. 류블랴나에서 차를 빌렸는데 이 또한 한국에서 통신사 할인을 받아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로컬 렌트카 업체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글로벌 업체를 찾아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로베니아 북부의 오스트리아, 체코를 여행하고 슬로베니아로 돌아와서 하루 쉬고 남부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를 다녀왔습니다. 10일간 자동차로 여행하는 동안 류블랴나에 숙소가 있어서 하루 쉬고 다시 여행을 하는 일정이 좋았습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찾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용한 곳을 원해서 류블랴나에서 10분 정도 버스로 이동하는 거리를 3개월간 있는 것으로 알아보다가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머무는 동안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숙소로 옮기기로 정하고 처음 숙소는 류블랴나 시내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의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작년에 다녀가신 작가분도 사용한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그 곳을 선택한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무료주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근에 마트가 가까운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대부분 비어있기 때문에 저렴한 숙소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숙소는 버스와 기차와 가까운 시내입니다. 이 곳은 코디 선생님이 앰블란스 소리가 많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구시가지에서 숙소를 정하고 싶었으나 가격대비 두 번째 숙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구시가지는 같은 가격에 공간이 작습니다. 45일간 머물 공간을 정하는 것이라서 원룸이라 천장이 높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1950년대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오래된 아파트여서 조금은 걱정됐지만 들어가 보니 시원하게 트인 베란다 창문으로 류블랴나 성이 보이고 도시가 보여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공사로 7층을 계단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 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할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장기로 집을 빌리는게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에는 여행객이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숙소를 처음부터 나눠서 빌리다 보니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와 가까우면서 시내와 조금 떨어진 외곽의 집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구시가지, 시내보다 저렴합니다. 이 또한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찾고 구글 지도로 지역을 확인하고 정했습니다. 그 확인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로베니아의 일반 주택에서도 머물고 싶었고, 슬로베니아 사람들의 생활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주택은 마당과 담이 서로 트여 있어서 옆집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류블랴니카 강이 가까워서 산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은 1월 초에서 중반까지 체류하기 때문에 구시가지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에어비앤비로 보고 직접 그 동네를 찾아가서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은 여행객들이 많지 않아서 가격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래된 건물과 구시가지에서 슬로베니아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옮기면서 체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슬로베니아 구시가지의 숙소 한 곳을 정해서 지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 재래시장이 있고 류블랴나 성도 가깝고 구시가지라서 풍기는 정겨움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생각되면 처음 집은 한국에서 짧은 기간으로 빌리고 현지에 와서 둘러보고 주택 유형에 따라 옮기는 것도 방법인거 같습니다.

11월 10일경에 류블랴나 프레세렌 광장에서는 그 동안 담근 포도주를 오픈하는 날이 있습니다. 무심코 광장으로 산책을 갔는데 전통의상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며 와인을 잔으로 판매하는 가판대가 광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인 잔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마십니다. 다음에 또 하겠지 하고 구경만 했는데 알고 보니 1년간 숙성된 와인을 오픈하는 날이라서 그 날만 한다고 합니다. 매우 아쉬웠지만 이런 문화행사도 미리 알아보고 오면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간다면 1유로에 한 잔씩 다양한 맛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거 같습니다.

우유 자판기가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우유를 받아서 먹을 수 있으니 이것도 경험해 보면 재밌을 거 같습니다.

이곳은 마트가 잘 되어 있고, 아시아 음식 재료를 파는 곳도 있으며 김밥 등 분식을 파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늘 만나는 한국인 부부가 있는데 알고 보니 한인 식당을 최근에 류블랴나에 열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과 함께 인도카레, 중국식, 피자 등 다양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음식이 짠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광장 부근에 재래시장 파머가 오후 4시까지 열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고 치즈가게도 프레세렌 광장 주변에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주로 만들어서 먹고 싶다면 장류를 가지고 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마트도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개인이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가는 물과 과일, 채소류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물티슈와 같이 공산품은 그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할 때 여행자 세금이 있습니다. 최근 올라서 1일에 2.5유로를 더 내야 함을 숙지해야 합니다.

류블랴나 도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15분 반경에 다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외곽으로 갈 경우도 일반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디 선생님께 버스관련 사이트를

정보를 받아 활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번호별로 10분~15분 배차간격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외곽지역을 다녀오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류블랴나 시내는 일주일이면 다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번호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슬로베니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농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든 과일 잼과 꿀들이 좋습니다. 날짜를 직접 기입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프로그램은 기획형입니다. 슬로베니아에 와서 어떤 작업과 어떻게 체류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현지 코디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코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가늠해 봐야합니다. 류블랴나 대학교 선생님들도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면 일부러 일정이나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고 미리 한국에서 메일을 보내고 현지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생활은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플 경우 병원도 인근에 있으며 약국도 가까이 있습니다. 마트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여행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자동차 여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로 다녀오는 것은 버스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강의는 영어가 원활하면 영어 강의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나 한국어 강의를 하게 되면 슬로베니아어로 한국어를 잘 하는 학생이 통역을 하기 때문에 분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비용으로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코디 선생님과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류블랴나의 도시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함께 적응해 나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석회수다 보니 생활수를 만들어야 해서 휴대용 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식기와 재료 씻는 것은 생활수를 이용하지만 먹는 물은 생수를 하루에 하나씩 사러 다녀야 하기에 꼭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숙소에 온종일 작업을 하다가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꼭 생기게 되고 그러다보니 '생각의 쉼'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공연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거나 인근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게 되면 생활의 활력이 생깁니다.

나의 작품 구상을 위해 한 곳에 3개월간 체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곳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작품을 위해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일정이 어느 덧 1개월이 지납니다. 지원을 받아서 오다보니 무엇인가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신을 옭아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나의 작품을 쓰거나 구상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슬로베니아 희곡 작품을 한국에 정식으로 낭독공연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에 그에 대한 진행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구상을 하고 완성하기까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물이 바로 나와야하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지내면서 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하고 어느 곳을 탐방하거나 방문할 것인가, 여기서의 네트워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오면 좀 더 머무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lovenia

CHAPTER 13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프로그램명	류블랴나대학교
국가	슬로베니아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4. 30 ~ 2017. 7. 14
작가명	부희령

레지던스 기관 소개

저는 2017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두 달 반 동안 슬로베니아에 머물렀습니다. 날씨와 기타 여러 조건 상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5월에는 류블랴나 대학 아시아문화학과와 연계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을 두 번 가졌습니다. 학과의 특성 상, 문학이나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서 제 소설의 소재인 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와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청년들의 삶과 문화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대학에 재직하시는 강병융 교수님의 배려 덕택에 그 분이 주관하는 번역학 세미나에서 제 소설을 짧게 소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6월에 대학이 방학을 한 이후로는 대부분 집필과 슬로베니아 문화 자연 환경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고 조용하며 소박한 곳입니다. 물가도 다른 유럽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하여 글만 쓰면서 지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의 한 가운데 위치한 나라라서, 의욕과 활력만 따라주면 이틀이나 사흘의 일정으로, 무리하면 당일로도 이탈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까지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저는 5월에 류블랴나 대학에서 세미나 참석 1회, 특강 2회의 공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한 뒤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글을 쓰고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이나 공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류블랴나 대학의 아시아 문화학과 안드레이 베케슈 교수와 치카코 시게모리 교수께서 슬로베니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월에는 1주일 동안 자동차를 빌려서 슬로베니아의 지방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율리안 알프스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맥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인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기 지형의 산들과 산중턱에 있는 빙하로 이루어진 호수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농업과 목축업, 자동차 제조업 등 그 나라의 주요 산업 현장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흔히 한 쪽 발만 담글 수 있다는 농담을 하는 남서쪽 바닷가도 매우 좋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별장지대도 볼 수 있습니다.

7월에는 3박 4일로 베니스 여행을 했습니다. 베니스는 류블랴나에서 버스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막상 베니스에 가서는 오기를 잘 했다 싶었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고 물가도 비싸고 베니스 시민들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으나,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라는 반발심이 생길 정도로 아름답고 개성 있는 장소였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소를 구했고 두 달 반 동안 류블랴나 외곽의 서민 아파트에서 머물렀습니다. 류블랴나 시내 중심가는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관광지로 특화된 곳이라 외국인이 생활하고 움직이기에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물가도 서유럽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제 숙소가 있던 동네는 외국인 특히 동양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라 처음에는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것도 좀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동네 시장이나 카페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통의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숙소를 결정할 때 한 곳에만 있지 말고 시내 중심가와 외곽의 동네를 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동차를 빌려서 시골과 산악지대 스키장, 호수 등을 다녀봤는데, 슬로베니아에는 의외로 민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를 미리 2달 반 예약하고 돈을 지불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류블랴나 대학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시골에 가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슬로베니아를 여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버스가 지방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숙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승용차를 빌리면 어차피 류블랴나에서 2시간만 달리면 국경에 도착하게 되는 작은 나라라서 숙소를 따로 빌리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거의 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곳이라 도로폭이 좁고 경사와 커브가 심한 곳이 많기는 하지만,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자동차로 갈 수 없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빌릴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제 경험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하지 마시고 직접 렌터카 사무실로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코디와 함께 가야 합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렌터카 업자들은 영어 능통자라 할지라도 조금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냥 안전하게 차를 빌리는 게 낫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소심한 탓인지도 모르지만 처음에 홀로 외국에 머무르다 보니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지 않은 것, 현지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코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일과 생활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배려해 주시 않습니다. 레지던스 기간 중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lovenia

CHAPTER 13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프로그램명 류블랴나대학교

국가 슬로베니아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10. 27 ~ 2016. 1. 25

작가명 김향라 (필명: 김이듬)

레지던스 기관 소개

저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한국학과에 파견된 레지던스 작가로 2016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류블랴나 대학은 슬로베니아의 수도에 위치한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학교 시설과 면학 분위기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인근 국가인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지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학과'는 현재 개설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학부'소속의 수강과목으로 한국학(한국문학, 한국어학)이 존재합니다. 학교 내에는 한 연구실을 다수의 강사들이 사용하였고 한국에서 파견된 작가를 위한 작업 공간이(책상과 걸상 등) 따로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특강 준비를 하였고 대부분은 숙소에서 창작과 강의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개인생활공간, 즉 숙소의 경우는 학교 기숙사와 같은 공공건물이 제공되지 않아서 아시아학부 일본학과의 안드레이 베케시(Andrej Bekes) 교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꽤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분의 따님이 살다가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버스 정류소, 마트와 빵집, 카페 등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큰 불편은 없었으며 주민들은 친절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강병융 교수로서 제가 류블랴나 공항에 도착한 날에 픽업 서비스를 한 이후로 세세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일정 내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협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학부와의 유대도 원활하게 안내하였는데, 그로 인해 일본학과의 치카코 시게모리(Chikako Shigemori) 교수와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슬로베니아 음악 공연과 미술관 안내 등을 해주며 그곳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에 파견되는 예술가분들은 아시아 학부 내 여러 교수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층 폭넓게 그곳의 예술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저는 류블랴나 대학에서 2회에 걸친 특강을 하였습니다. 1차에는 영어로 강의하였고 2차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은 학생의 통역을 통해 참석자들이 슬로베니아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배려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시아학부 학생들과 교수, 학교 외부의 사람들이었는데 학교 웹 사이트와 SNS를 활용하여 공개강의를 공지하고, 교내외 벽면 포스터 등으로 알렸습니다. 한국문학, 특히 한국 현대시에 관하여 1920년대의 김소월, 한용운 시인부터 최근의 젊은 시인의 시까지 개괄적으로 망라하여 그 미학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크고 작은 낭독회, 세미나 등을 열어 한국문학 전반을 성실하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현지 도착 직후에 열린 류블랴나대학 아시아 학부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파견 작가로 오게 된 경위와 계획 등을 소개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호감 어린 태도로 저에게 슬로베니아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하순에 있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공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지 대학의 교수인 강병융 작가와 호흡을 맞추어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하였고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친근한 일상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들의 문화 예술 전반을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현지 경험을 고스란히 창작의 토대로 삼아 신작시를 써서 한국의 문예지에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틈틈이 도시를 산책하였고 슬로베니아 전 지역으로 짧은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와인 농가, 치즈 생산농가 체험이 인상적이었고 국가 전반적으로 때가 덜 묻은 풍광과 인심, 독특한 음악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전통적 시인과 아방가르드적인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일기와 산문 등으로 정리하였는데, 귀국 후에는 출판사 측의 제안으로 『디어 슬로베니아』라는 여행 산문집을 발간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칸의 작은 나라입니다. 국가 면적은 전라도 크기 정도라고 하며 인구도 2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1991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슬로베니아도 다른 연방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되었습니다. 10여년 전에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으며, 그 후 유로화를 도입하여 신생 발칸 국가 중 처음으로 유로화를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국민소득도 25,000 달러를 넘어, 동유럽과 발칸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류블랴나는 슬로베니아의 수도로 유럽 전체를 통틀어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저는 슬로베니아에서 늦가을과 겨울을 보냈는데, 그 계절에는 오후 4시면 어두워지고 안개가 종일 끼는 날이 많아서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춥고 음습하여 관광객들이 꺼리는 계절이어서 추후에 파견되어갈 예술가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을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섹시한 거리 악사들이 들려주는 음악 속에서 시린 발을 구르며, 나뭇잎 떨어진 성벽 길을 걸으며, 크리스마스 상점들의 불빛 아래서 데운 와인을 마시며, 인적이 드문 중세도시의 골목길에서 호숫가 숲에서 해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등굣길 빙판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지나고 보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으니 다른 계절은 얼마나 좋을까요? 대다수 여행객들의 예상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당신의 기대보다 모던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류블랴나에서 당신은 어리둥절해질 것입니다. 음식점과 가게, 슈퍼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여느 유럽보다 적게 들고 점원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동심과 인심을 잃어버렸던 저는 동화 같은 나라에서 인정스럽고 인간적이며 고마운 이들을 많이 만났다. 평화롭고 다정한 나라, 슬로베니아에서 예술의 초심을 찾으리라 사려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슬로베니아(Slovenia)의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프레세렌 광장(Preš eren Square)을 약속 장소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현지에 사는 친구나 학생을 만날 때도. 이 광장은 류블랴나 센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류블랴나 국제공항(Ljubljana Jože Pučnik)에서 탄 버스가 도착하는 버스 터미널이나 유럽 각지에서 온 기차가 서는 중앙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중앙역은 어슷하게 마주보고 있는데 두 건물 다 크거나 근사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의 도시와의 원활한 연결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파견 작가가 유럽의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고 싶다면 슬로베니아는 최적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슬로베니아가 좋아서 타국으로 여행을 갈 요량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보통 걸음으로 10분쯤 걸으면 수도의 센터라 할 수 있는 프레세렌 광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길을 찾지 못하겠으면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사람 대부분은 영어로 유창하게 말합니다. 파리나 베를린의 사람들처럼 먼저 미소 띠거나 친절해보이지는 않지만 당

신이 뭔가를 물어본다면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순박하고 수줍음이 많은 편이거든요.

슬로베니아의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발칸 음식과 세계적 음식 문화가 퓨전되어 있으므로 기호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꿀과 야생차, 소금 등의 질이 우수합니다. 대형마트와 약국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구하기 쉬우므로 한국에서 특별히 챙겨가야 할 물건은 없지만 여벌옷과 한국서적, 노트북 등 필요한 물품은 가지고 가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슬로베니아에 살고 있는 교민들과 교류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그곳의 현지 예술과들과 만나서 공동작업을 도모하거나 최소한의 작품 교류를 갖는 것도 유쾌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POSTOJNSKA
JAMA

Slovenia

CHAPTER 13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프로그램명	류블랴나대학교
국가	슬로베니아
참가연도	2014년 ~ 2015년
참가기간	2014. 12. 28 ~ 2015. 3. 27
작가명	김재욱

레지던스 기관 소개

제가 참여한 해외레지던스 문학 분야 프로그램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에 3개월간 체류하며 작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작업공간에서의 작업으로 문화적 영감을 얻고, 현지 한국학과 학생들 및 출판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시대 세계 맥락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조망해보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문학 분야 활동작가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라 숙소 외에는 별다른 스튜디오나 설비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소는 류블랴나 대학 고고학과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데, 완전히 독립된 넓은 공간에 주방과 화장실까지 딸려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운동장만한 방에 침대도 2개 있습니다.) 특히 창가 쪽에 폭이 2미터가 훨씬 넘는 기다란 책상이 있고 인터넷도 잘 돼서 자료들을 늘어놓고 글을 쓰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중앙에서 하도 세게 틀어서 공기가 좀 건조하기는 했지만 빨래를 돌려서 밤새 여기저기 널어놓으면 다음날 바짝 말라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파견작가의 코디네이터이자 류블랴나 대학의 한국학과 조교수이기도 하신 강병융 교수님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2013년부터 류블랴나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강병융 교수님은 2003년 등단 후 6권의 책을 펴낸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류블랴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저를 챙겨주셨고, 제가 필요한 것을 사야한다거나(제 경우에는 컴퓨터 모니터) 특별한 이벤트나 지역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보여주셨

습니다. 글 쓰는 사람의 고충을 아는 작가 선배님이라 어느 누구보다도 작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체류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류블랴나 대학교에서 한국문학에 관련된 두 번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해야합니다. 제 경우에 구체적인 강의 날짜는 류블랴나 도착 후에 대학교 학사일정과 저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하여 강병융 교수님과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제 소설과 관련해 한국의 역사와 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의가 되었고, 두 번째 강의는 한국학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 받고 답하는 형태로 좀 더 유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어서 요새 유럽 젊은 친구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 있는 벨레트리나라는 출판사에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에디터들과 각자 나라의 출판시장과 많은 작가들의 정보를 나누면서 동시대 각 나라에서 책이라는 미디어가 가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로 뭐 대단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거 같지는 않지만, 제 방문을 빌미로 강병융 교수님과 자리를 갖게 돼서 이후에도 그 출판사와 한국문학에 관련된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은 시인이 슬로베니아 시와 와인축제에 참가했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이때부터 그쪽 출판사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200만 밖에 안돼서 벨레트리나 출판사는 축제나 행사 관련 기획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숙소에서 작품을 쓰거나 슬로베니아 주변국가에 여행을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당시 쓰고 있던 장편소설 『고리』의 3분의 1정도를 집필할 수 있었고, 슬로베니아에 다녀와서 5개월 후에는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지리적으로 동유럽이나 서유럽 어디로든 접근이 용이하여 이곳저곳 여행하기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적마다 기차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같은 슬로베니아 주변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기차표도 얼마 안하고 심지어 센겐조약이 체결된 나라에서는 여행비자도 필요 없어서 저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에서 많은 양을 집필하고 한국에 돌아와 완성한 작품 『고리』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제 컴퓨터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작품으로 다양한 문학상에도 응모하고 여기저기 출판사에도 돌려봤는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대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부산의 고리원전 폭발을 다룬 『고리』의 초반부를 읽

으면 작가 개인적으로는 류블랴나의 겨울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어쨌거나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가진 이 훌륭한 작품이 출판되지 못했다는 건 21세기 한국문학의 3대 비극 중 하나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숙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배정된 류블랴나 대학교 고고학과 건물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합니다. 식은 숙소에 취사도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을 봐오면 집에서 해먹어도 되고 싫으면 나가서 사먹어도 됩니다. 1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커다란 마트가 하나 있어서 편하게 장을 봐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트 메인 주차장 말고 뒤쪽 주차장에 'Hood Burger'라는 수제 햄버거집이 있는데 거기가 트립어드바이저 류블랴나 1등 맛집입니다. 거기 브리치즈버거는 요새도 가끔 생각납니다.

생활은 영어로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웬만한 일들은 혼자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합니다. 선불 휴대폰에 가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하거나 게스트하우스 렌트비를 은행에 가서 지불하는 일도 영어만 하시면 별 무리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딱 한 분, 고고학과 건물의 경비 보시는 아저씨가 영어를 못 하셨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친해져서 바디랭귀지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는 한국하고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산이 많고 한국보다 조금 더 습해서 겨울에는 좀 더 춥고 눈이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만 지내봐서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계절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계절도 한국과 비슷할 겁니다.

슬로베니아는 유로화를 쓰는 나라 중 제일 꼴찌로 거기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어쨌든 유로화를 쓰는 다른 서유럽 나라들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다고 잘사는 서유럽 나라들처럼 물가가 엄청 높진 않았고, 숙소 렌트비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사먹는 식사가 비싼 걸 제외하면 한국하고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커피는 엄청나게 싸고 맛있어서 맨날 사먹었습니다.

숙소가 시내 중심가는 아니지만 류블랴나는 30분만 걸으면 시내의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작은 도시라 저녁에 술을 한 잔 해도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타도 워낙 금방 도착해서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치안도 좋아서 밤늦게 시내를 걸어 다녀도 위험한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인구밀도도 낮고 엄청나게 조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조용히 작품을 집필하시는 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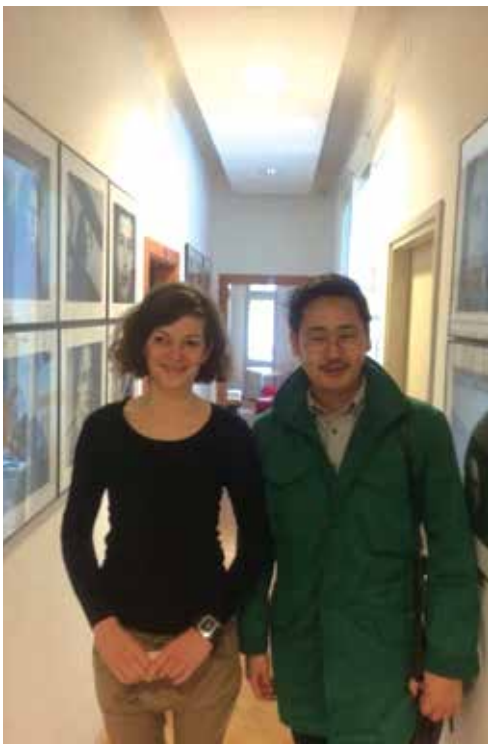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개인적인 예술적 경험을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내왔던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땡큐고 황홀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아주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막연하게 책으로만 알고 있던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이제는 더 생생하고 다양한 결이 살아있는 세계지도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체류했던 슬로베니아는 구유고연방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라 예전 연방에 해당한 옆 나라들과 비교해가며 도시를 둘러보니 슬라브 민족의 공통된 역사 속에서도 그곳만이 가진 독특한 지역적 특색 같은 것들이 더 강렬하고 섬세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나 미묘한 오감 같은 것들은 그곳에 직접 가지 않고 책에 묘사된 장면 몇 줄만 읽어서는 평생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나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직접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풍경들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그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예술가에게는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예술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에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좀 더 유연한 삶의 태도들을 가져다주겠지요.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깜냥도 안 되는데 그냥 겨울에 외국 몇 달 머물고 싶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 공지사항을 보고 급하게 지원하여 운 좋게 참여작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에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빅뱅 콘서트 티켓 사듯이 새로고침을 마구 하시면 왠지 참여작가로 선정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되셨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진 마세요. 인생은 타이밍이고 디스 이즈 컴퓌티션이니까요.)

운 좋게 한 번 갔다 온 주제에 염치없지만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지역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새로고침 중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Cuba

CHAPTER 14

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

프로그램명	호세마르띠문화원
국가	쿠바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6월 ~ 9월
작가명	정민

레지던스 기관 소개

쿠바 아바나에 위치한 '호세 마르띠 문화원'은 쿠바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쿠바의 시인이자 혁명가인 호세 마르띠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입니다.

참고로, 호세마르띠문화원에 한국학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쿠바 시민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약 3년에 걸쳐 배웁니다. 강좌 등록 경쟁률도 치열하고 주기별로 실시되는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하면 가차 없는 낙제가 이어집니다. 10-5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대학생, 공무원, 주부, 패션모델 등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마르띠문화원 한국학 교육과정은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파견된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학 교육과정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한국학 수강생 및 쿠바 한류문화 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문학 및 한국 드라마, 케이팝 등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작한 '작가 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호세 마르띠 문화원 학생들이 석 달여에 걸쳐 제작한 쿠바 홍보 영상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아바나 관광지 곳곳을 '한국말'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평생을 아바나에서만 거주한 아바나 시민의 관광지 소개 영상은 기존의 비슷한 관련 영상 보다는 훨씬 실감나고 유익해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쿠바의 인터넷 환경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편집 작업을 위해 이 짧은 영상을 전송하는데 밤새도록의 시간이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각각의 짧은 영상 한 편에는 수 백회의 시행착오와 재촬영 그리고 수천의 땀방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촬영하고 제작한 이 영상을 많은 한국 친구들이 접했으면 하는 것이 이곳 학생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바나에서 열린 '케이팝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또 한국한 수강생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바나의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김치를 직접 만들었고, 라면, 떡볶이 등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음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쿠바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자연스럽게 구상하는 시간이 있었고, 현재 '하바나 리브레'라는 제목으로 소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쿠바에 현지 코디네이터 분이 계십니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작가 분들에게 숙소 등을 소개해 주시고, 강연에서 통역을 맡아 주십니다. 코디네이터 분이 소개한 숙소에서 약 보름을 지냈고, 이후 직접 발품을 팔아 약 두 달 반을 지내게 되는 숙소를 직접 계약했습니다. 쿠바 아바나 대부분의 숙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또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한 숙소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숙소를 원하시는 작가 분들이 계신다면, 아바나 베다도의 중국 대사관 인근 숙소를 추천합니다. 중국,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등의 대사관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발레, 연극, 영화, 음악 등 쿠바의 문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아바나에서는 수준 높은 각종 공연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이 개최됩니다. 쿠바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입니다.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어 보다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이 영어입니다. 쿠바에 가기 전, 기초 스페인어(숫자, 계산, 날짜 등등)를 익히신다면 훨씬 유익한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2회 개인 스페인어 교습을 받았습니다. 레지던시 끝 무렵에서야 기초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의 음식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식재료, 향신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 일주일 동안 생수를 구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바나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 마트에서도 며칠 동안 쌀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장지, 세탁 세제도 막상 필요할 때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라면 김치 등 한국 음식은 그 어느 곳에서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초 생필품이 '눈에 보일 때' 무조건 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에 국한되어 덧붙이자면, 첫 달은 관광객처럼 살았고 둘째 달은 돈 좀 있는 현지인처럼 살았고 석달째부터는 지금은 한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즉, 처음엔 론리 플래닛 등 가이드북에 나오는 유명한 식당에서 먹었고 중간엔 관광객은 절대 오지 않는, 현지인 맛집과 길거리 음식을 먹었고 마지막에는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와장창 사와 만들어 먹었습니다. 현지 시장에 가시면, 신선한 과일과 야채 그리고 각종 고기, 달걀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쿠바에서 나는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쿠바인들이 건강을 유별나게 챙겨서 탄생한 유기농이 아니고, 비료, 농약, 사료 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생된 유기농 식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채들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벌레들도 기생하고 있고 크기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특별히 신선하고 식감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 중 개인적으로 쿠바 아보카도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가격도 놀랄만큼 저렴하고 한국에서 파는 아보카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쿠바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란 대단히 불편합니다. 2~3년 전만 해도 1시간 와이파이 사용 비용이 7~10달러(미국 달러 환산)였다는데, 지금은 1시간에 1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 와이파이 카드를 구입해야 하고,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선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지던스 기간 동안 아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레지던시 참여 작가의 경우에도,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1달짜리 관광 비자입니다. 에어 캐나다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권에 비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한국에서 직접 비자를 구입해야 합니다. 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쿠바 현지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가더라도 비자 연장에 하루 종일 걸립니다. 또 현지 은행에서 긴 줄을 서서 비자 연장에 필요한 우표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쿠바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이 있어도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콩나물 시루로 불리는 만원버스를 타야 합니다. "쿠바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낮의 시내버스를 타봐야 한다"는 말을 쿠바 현지인 분에게 들었습니다. 또 택시도 있지만, 짧은 거리라도 10불을 부릅니다. 쿠바 현지 물가를 생각한다면 매우 매우 비쌉니다. 또 스쿠터, 자전거도 쿠바 현지에서는 대단히 귀한 상품입니다. 한국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가신다면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음식 교통 인터넷 등 쿠바의 일상 생활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불편함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잊을 수 있는 쿠바, 쿠바인들의 매력 또한 넘쳐납니다. 2회의 강연 활동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시간은 오로지 참가 작가의 몫입니다.

음식을 가리시는 쪽이라면, 한국에서 기초 식량(젓갈, 액젓,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등)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업 음식을 해드신다면,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쿠바 출국 전, 기초 스페인어을 공부하시면 보다 알찬 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Cuba

CHAPTER 14

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

프로그램명	호세마르띠문화원
국가	쿠바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3. 23 ~ 2017. 6. 16
작가명	최은영

레지던스 기관 소개

호세마르띠문화원의 이름이 걸린 레지던스 프로그램이지만, 호세마르띠문화원 내에서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작가가 일정을 잡아서 자유롭게 활동하면 된다. 아바나에서 숙소를 잡고, 그곳에 머무르며 혼자 생활하고, 어려운 부분은 아바나에 살고 계신 문윤미 선생님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여쭤보고 도움을 받으면 된다. 3개월 내에 두 번, 현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독자 모임을 갖는데 보통 프로그램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하는 편이다. 작가 자신도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한 뒤에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문윤미 선생님께서는 여러모로 도와주시는데 숙소를 물어보면 구해주시기도 하고, 공항을 오고 갈 때 픽업해주시고, 독자 모임을 할 때도 통역해주시는 등 도움을 주신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체류기간 동안 계속 마감을 했다. 일을 많이 들고 가서 쿠바에 있었지만 따로 많이 놀지는 못하고 매일 글을 썼다.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주는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고, 밥 먹고 다시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말레콘을 산책했다. 아바나 대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조용하고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출입할 수 있고 노트북 사용이 가능해서 가서 작업하는 것도 추천한다. 작업하기 좋은 장소는 아바나 대학교 도서관, 프레지덴테 호텔 야외 까페, 몹시 더울 때는 아바나 리브레 일층 까페도 좋다. 호텔 내셔널의 정원에서 책을 보는 것도 좋다.

아바나에서 머무는 동안 여성중앙 5월호에 단편 소설 한 편, 월간 윤종신에 엽편 한 편, 쪽프레스 에세이 한 편, 문학과사회 여름호에 서평 한 편, 문학동네 여름호에 작가 김소진에 대한 에세이 한 편, 민음사 릿터에 에세이 한 편, 매일경제에 칼럼 두 편, 예술의전당 저작거리 행사에 쓰일 미술 에세이 한 편, 웹진 문학3에 중편 소설을 썼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한국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체류 초기에 혼란이 클 수 있다. 몇 가지,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부분에 대해서 써보겠다.

숙소

문윤미 선생님께서 잡아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숙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다. 한국에서 아바나 숙소는 '에어비엔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바나 현지에 도착해서는 에어비엔비를 이용할 수 없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고 첫 이틀만 보낼 숙소를 여행사에서 구해서 갔다가, 베다도 지역에서 발품을 팔며 다니며 구했다. 이틀 동안 그것만 했는데 힘들었고, 웬만하면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아바나의 웬만한 숙소는 유럽만큼 비싸다. 왜 중남미가 이렇게 비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쿠바는 화폐가 두 종류고 외국인들에게는 유럽 못지않은 비용을 요구한다. (호텔 같은 곳은 아바나 기준 하룻밤 30만원-1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괜히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햇빛도 안 드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싸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조용하고(중요하다) 편안한 곳에 묵는 것이 좋다. 문윤미 선생님이 추천해주실 숙소도 좋으니(가장 좋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당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장소와 숙소, 모든 것들이 좋음) 선생님과 미리 이메일로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터넷

아바나는 인터넷이 안 된다. 인터넷을 하려면 1) 인터넷 카드 구입이 필요. 보통 호텔 로비에서 파는데 비싸서 에텍사에 찾아가서 사는 것이 좋다. 에텍사에 인터넷 카드를 사러 가면 여권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그냥 돈을 쓰겠다, 하면 호텔 로비에 가서 사면 되고 그래도 돈이 아까우면 에텍사에 가야 하는데, 여러 번 가고 싶지 않다면 처음 갔을 때 5시간짜리 카드를 몇 장 사서 여유를 두고 지내는 것을 추천한다. 2) 공원으로 가야 함. 공원은 많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인터넷이 안 되기도 하고, 벼락이 치면 인터넷이 안 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속도도 느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프레지덴테 호텔은 에텍사 카드로 인터넷 가능하다.

전화, 카톡

사람마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카톡이 한 2주 정도 되다가 두 달은 카톡이 전혀 되지 않았고, 마지막 몇 주간은 또 됐다. 카톡이 될 때도 카카오 전화는 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중요한 imo라는 앱을 깔기를 추천한다. 쿠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 국제전화가 가능한 호텔 전화기로 전화를 한다고 한다면 1분 하지 않아도 18000원 정도 돈이 나온다. 본인의 로밍 핸드폰으로 해도 비싸니 절대로 다른 외국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imo를 이용하기 바란다. 문자는 수발신 오류가 자주 나서, 보냈는데 한국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온 문자가 안 오는 경우도 많다.

마트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는 없다. 예를 들어 양파, 파스타 소스, 파스타 면, 조리도구를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바나 시내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양파 따로 파스타 면 따로, 공산품은 공산품 따로 이런 식으로 사야 한다. 물 같은 경우는 아바나 리브레 1층에 있는 곳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좋은 숙소도 조리도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결국 그냥 다 사먹게 된다. 론리 플래닛에 나오는 추천 레스토랑을 가보면 좋다. 쿠바는 식자재 유통과 보관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리 방법이 단순하다.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미라마르 지역에 한국 음식점이 있으니 힘들 때는 가보는 것도 좋다.

교통

현지인들은 콜렉티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는 대부분 사람이 너무 많고, 콜렉티보도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표시가 금방 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쉽다. 택시 운전사가 올드시티에서 베다도까지 10쿡을 부를 수 있는데 보통 3쿡 정도가 맞다. (이것도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바가지이고) 동양인들은 바가지를 쉽게 당하는데, 하나하나 신경쓰다 보면 힘들어지니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낫다. 까사 주인에게 버스 노선에 대해 물어보면 보통 친절하게 알려주고 저렴하니 버스를 타고, 걸어다니는 법이 있다.

사람

친절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물으면 된다. 단지 여성 작가라면, 혼자 체류하게 된다면 길가에서 끊임없이 '치나'라고 부르는 말을 듣게 되는데 성가실 수는 있다. 붙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더 이상 붙지 않고,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여성에게까지 그런 것은 아니니 해가 지면 숙소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휴양

아바나에서 택시를 타고 20쿡을 내면 산타 마리아라는 해변에 갈 수 있다. 30분 정도 걸리고, 카리브 해변을 볼 수 있으니 처음에 숙소 잡고 어느 정도 적응되면 가서 수영도 하고 쉬는 것도 좋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 특히 한국의 도시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라면 외국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만큼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절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인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체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특히 체제가 전혀 다른 국가의 경우는 더 그럴 수 있다. 마음을 열고, 공부하려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쿠바는 기본적인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 스페인어라도 배워오는 것이 좋다. 언어를 알아야 사람들과 통하고, 그곳에 마음을 붙일 수가 있다. 나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아바나대학교 어학원에 등록해서 아주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배워서 생활했다. 유창하고 잘하는 스페인어가 아니더라도, 숫자나 기본적인 동사, 형용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출발하기 전, 아바나대학교 어학원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다. 내가 있을 때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레벨테스트를 봤고, 그 이후로는 학생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어학에 관심이 있다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 되기 전, 그 전 달에 아바나대학교 어학원을 방문해서 예약해야 한다.

편하고 즐겁기만 한 곳에서는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쿠바를 체류지로 택한 작가들이라면 모두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신을 조금 놓는 법, 다름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규칙적으로 지내야 하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너무 늦게 다니거나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Cuba

CHAPTER 14

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

프로그램명	호세마르띠문화원
국가	쿠바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2014. 9월 ~ 12월
작가명	이혜경

레지던스 기관 소개

쿠바에 있는 호세마르띠문화원의 초청으로 가게 되었다. 호세 마르띠 문화원은 쿠바 혁명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시인이자 작가인 호세 마르띠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문화원으로, 한국어 수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좌를 열고 있었다.

그곳에 가서야 나는 문학 강연을 할 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쿠바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사정이 열악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작성했다. 발표하기로 한 날, 문화원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용 대형 화면을 이용할 수 없었다. 다음 발표에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두 번 다, 나의 소형 노트북 화면을 통해 진행해야 했다.

숙소는 한국인 코디네이터인 문윤미 씨가 추천해준 곳으로 정했다. 시내도 가깝고, 스페인어 수업을 받는 아바나 대학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 편했다. 방이 두 개, 거실, 주방이 있는 편리한 곳이었다. 다만 큰길 옆이라서 소음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인터넷은 호텔에서 한 시간에 10불짜리 카드를 사서 이용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었다. 3년 전에 갔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쿠바는 물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숙소 근처에 커다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쌀이 없어서 나흘 동안 밥을 못 지어먹을 정도였다. 나중에, 시장에 가서 살 수 있었다. 슈퍼마켓에 생수가 있다가도 없고, 지난 번에 있었던 물건이 다음에 가면 없기 일쑤였다. 쿠바의 수돗물은 석회가 많아서, 물을 받아 끓이면 냄비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았다. 개인 위생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호세마르띠문화원에는 한인 4세인 코디네이터 Sergio 씨가 있는데,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 강연 날짜가 정해졌는데, 시간을 다시 정해서 연락을 주기로 하고선 전날까지 연락이 없었다. 한인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했더니, "세르히오가 연락드렸다고 하던데요?"하는 황당한 답변. 그날, 나는 연락을 기다리며 온종일 집에 머물렀는데, 집 전화가 울린 적은 없었다. 그런 황당함은 그 뒤에도 몇 번 더 겪었다. 나중엔 '이게 쿠바의 문화인가 보다'하고 넘기게 되었지만, 처음에 가면 많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호세마르띠문화원에서 두 번 문학 강연을 했다. 첫 번째는 일반인과 문학 관련자들을 위한 강연,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을 위한 강연이었다. 청중이 달라서 두 가지 주제로 강연 계획을 짰는데, 문화원 측에서 <한국의 소설가들> 한 가지로 두 번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정했다. 모니터에 한국의 작가들 사진을 띄우고, 그들의 작품 경향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코디네이터가 스페인어로 통역하고, 나중 질의응답 시간에도 통역이 수고해 주었다.

마지막 한 달은 아바나 시내가 아닌, 다른 지역을 여행했다. 아바나에서보다 쿠바의 현실을 좀 더 알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쿠바에 다녀온 경험은 창비사에서 나온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여행 산문집에 산문으로 실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그곳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스페인어 스터디를 6개월 동안 했다. 스터디 그룹에서는 제법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막상 쿠바에 가자 겨우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주 빠른 편이었다. 스페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가는 게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곳의 아바나 대학에서 하는 스페인어 수업을 들은 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

쿠바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단 말해 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습관이 있다. '언제 만나자'해서 준비하고 약속장소로 가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말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덜한 것 같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여럿 보았다. 이건 그냥 쿠바의 문화인가 보다, 하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 대신, 일상생활에서 매너는 좋은 편이다.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가 기울면 남자들이 여자의 몸을 붙들어 주는데, 처음엔 성추행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약자에 대한 배려였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 나라 사람들의 몸에 밴 듯하다. 버스에서 할머니가 내릴 때면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손을 잡아 주는 걸 자주 볼 수 있었다.

미국과 수교하며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물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지난 해에 여행 간 사람은 숙소에 화장지가 없어서 고생했다고 한다. 일단 생필품은 보일 때마다 확보해 두는 게 정신적·시간적 낭비를 줄이는 일일 듯하다.

쿠바의 치안이 안전하다는 건 널리 알려졌는데,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이 또한 나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 관광지에서 친절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단순한 친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의 장점이 자본주의에 밀리는 과정, 그 변혁기를 겪고 있는 쿠바, 그러나 머무르다 보면, 작가들에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고마운 곳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과 다른 문화 속에 머물면서 사회주의의 여파가 남은 쿠바인들의 삶을 보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행지인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지나다 교문이 열려 있고 현지인들이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갔다. 학교를 둘러보는데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것저것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다.

문학 강연에 온 청중들에게서, 말과 문화가 달라도 문학 또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비슷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강연 뒤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도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쿠바의 모기는 뎅기열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쿠바의 주택에는 대부분 방충망이 없어서 모기가 마음껏 드나든다. 모기를 대비한 물품을 챙기는 게 좋을 것이다. 낮에는 물론 덥지만 밤에는 공기가 선선하다. 추위를 타는 편이라면, 더운물을 넣을 수 있는 핫팩 같은 걸 챙겨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바나 시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머물던 지역에는 정전이 잦았다. 그래서인지, 갖고 간 외장하드가 고장 났다. 이전에 갔던 작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고장난 외장하드는 결국 한

국에 와서야 고칠 수 있었다. 외장하드보다는 대용량 USB에 자료를 담아가는 게 안전하다고, 컴퓨터 전문가에게 들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America

CHAPTER 15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 창작프로그램 (IWP)

프로그램명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
국가	미국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8. 19 ~ 2017. 11. 7
작가명	김도윤

레지던스 기관 소개

Iowa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이하, IWP)은 현존하는 국제 작가 프로그램 중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프로그램이다.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Iowa 대학의 English, Creative Writing Program MFA 과정의 높은 수준은 익히 알고 있었다. IWP 또는 Iowa 대학의 Creative Writing Program 출신들이 Pulitzer Prize, Nobel Prize를 수상하는 것은 문학계에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작업 공간 및 숙식 공간은 캠퍼스 내에 있는 호텔이다. 방 배정에 따라서 소음과 일조량 등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웃이 되는 작가의 생활 패턴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도 작가이기에 다른 작가들을 많이 배려한다. 방의 크기와 구조는 각각 다르다. 기본적으로 침대, 책상, 캡슐 커피머신,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ASMR 머신, 마이크로웨이브, 냉장고, 다리미, 욕실에는 욕조 및 헤어드라이어가 있다. 다른 방에는 리클라이너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전년도에 다녀간 작가들이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 나도 다음 해 참가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실내 운동 용품, 매트, 운동화, 실내화, 전기 주전자, 방한복, 욕실 용품, 백 팩 등을 두고 왔다.

IWP 스태프들은 다수가 현직 작가들이다. 스무 명 가량의 스태프들이 있는데 첫 주에 그들을 소개해 준다. 타 도시로 투어를 가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두 명에서 세 명의 스태프가 팀을 짜서 참가자들을 돕는다. 스태프 전원이 참가 작가들의 좋은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지지자들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리딩(낭독회)은 Shambaugh House라는 유서 깊은 장소와 Prairie Lights 라는 서점 두 곳에서 진행된다. 기존에 희곡 <The Land where Vandal falls>를 리딩하려 했으나 단편 소설 <Landing>을 리딩 했다.

ILT(International Literature Today)라는 워크숍에서 작가들은 최소 1회 강연을 해야 한다. 강연은 물론 영어로 진행된다. 강연 후에는 학생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강연 주제는 자유로우나 문학이나 자신의 집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강연 전부터 리브레토 쓰는 법, 오페라 제작 과정 등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제작에 참여한 오페라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창작 오페라 제작과정 및 오페라 대본을 쓰기 위해 작가가 알아야할 점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강연 후 내가 제작한 오페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다는 연락을 해당 강의 조교로부터 받았다. 유투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물을 업로드 했고 강연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 학생들과 작가들과 교류했다. 내 강연 자료 영상은 이번 학기 말까지 계속적으로 업로드 해두기로 했다.

뮤직 콜라보레이션, 음악 대학의 요청으로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했다. Iowa 대학의 음악 대학에서는 콰르텟 등의 연주자들을 초청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다. 올해 상주한 연주자들과 담당 교수가 내 Writing Sample을 읽은 후 본인들의 공연 컨셉트와 맞으니 합동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리브레토에 삽입 된 가사를 시화했고 음악적인 이론과 한국의 역사와 극중 인물들의 사랑을 적절히 배합하여 청중들이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다른 두 작가를 더 섭외하여 연주자들이 멘델스존과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번갈아가며 연주하고 작가들이 리딩을 하는 형식으로 공연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에 청중들이 눈물짓기도 했고 청중으로 참여한 교수들과 디렉터들 작가들로부터 ‘the greatest collaboration', 'the most beautiful poems'라는 찬사를 받았다.

댄스 콜라보레이션, 무용 대학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했다. 9월 중 하순 경 댄스 콜라보레이션에 사용할 글(poems or prose)을 모집한다. 작가 별로 여러 편의 산문 또는 운문을 제출하면 무용 대학의 교수, 안무가들, 대학원생들의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올해는 무용대학에서 네 작품을 올리기로 하고 네 명의 작가의 작품을 선발했다. 그런데 무용 대학에서 나의 작품을 두 작품 ' Hip Day', 'Craving' 선정했고 때문에 나를 포함한 세 명의 작가가 공연하게 되었다. 무용 비평 및 칼럼을 썼던 경험을 살려 클래식 발레 안무용으로 ‘From Solor to Nikiya' 'Le Spectre' 모던 댄스 용 'Hip Day' 'Craving' 군무 용 ’A Mermaid's Village' 를 써서 보냈다. 알고 보니 모던 댄스 공연이었고, 모던 댄스용으로 쓴 두 작품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리허설과정에 참여해 학생들, 무용대 교수와 논의하여 안무를 짜고 공연을 참관한다. 공연 후, 나의 글을 바탕으로 올려 진 무대가 최고였다는 평을 받았다. 음대 콜라보레이션 공연과 마찬가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공연’‘역대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라는 평을 받았다.

인터뷰, 작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다. 모든 작가들이 수행하지는 않으나 인터뷰도 성실히 수행했다.
(5Q Interview: Doyoon Kim 김도윤, 2017 IWP Resident | The Writing University
https://www.writinguniversity.org/blog/5q-interview-doyoon-kim-2017-iwp-resident)

창작활동, 참가자들이 가장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작업 공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작업 시간까지 확보되지는 않는다. IWP는 스케줄이 상당하다. 때문에 마감일이 급한 작가들은 주로 스케줄 후 밤에 작업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가해서 집필하기보다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귀국한다고 생각하면 좋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첫 주에 Iowa 주법에 대해 강의를 듣는다. 작은 캠퍼스 타운 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위험하거나 하지 않다. 날씨는 변화가 심하다. 반팔 셔츠를 여러 장 챙겨갈 것을 권한다. 8월에서 9월 사이 낮 동안 무척 덥다. 하지만 갑작스레 날이 추워져 겨울 외투가 필요해지는 일도 생긴다. 나는 출발 전 옷, 신발, 전기 주전자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 10월에는 살을 에는 추위가 온다. 두꺼운 외투를 꼭 준비해야한다.

캠퍼스 몰 안에 있는 CVS에는 저렴한 비타민류가 많다. 작은 몰 안에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가격은 높다. 하지만 양이 많아서 한 번 포장해 오면 두세 번에 나누어 먹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낭비는 아니다. 외부에도 식당이 많은데 잘 살펴보면 요일 별, 시간 별로 할인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화요일 오전에 단체로 장을 보러간다. 식료품을 사 와서 방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로 요리하거나 화요일 오후에 오픈하는 공공 주방에서 요리하면 된다. 몰 뒤 쪽으로 위치한 Public Library 앞에도 grocery가 있다. 가격과 상표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grocery를 이용하면 된다. 마트나 grocery내에는 포장되는 음식이 많아서 마이크로웨이브에 간편하게 데워먹기에 용이하다.

호텔 직원들도 프로그램 참가 작가들을 살뜰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할 일은 없다. 에어컨디셔너나 히터 등은 방 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로 조절이 가능하다. 여분의 이불도 2층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 신문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IWP는 글을 쓰거나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글 쓰는 법을 가르치거나 행사에 참가해서 본인의 역량을 선보이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IWP는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준다. 되도록 많은 글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낭독회나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IWP 측에서 몇 주 전부터 홍보를 하고 전단지 등이 곳곳에 붙는다. 국가를 대표해서 온 만큼, 본인의 작품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설명하거나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낭독회 후에는 청중들과 식음료를 동반한 대화 시간이 있다.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영어구사력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해야 하고 고도로 지적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토론 및 강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참가한 서른다섯 명의 작가들 중 세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인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다. 작가들 거의가 고학력자들로 박사 학위 소지자 및 대학 교수, 의사, 영화감독, 편집장, 재단 창업자, 정치가, 비주얼 아티스트, 뮤지션 등 집필 외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 나의 경우, 오페라 발레 등 클래식 공연 관련 일을 하고 공연 관련 저서를 출간했던 이력이나 그림을 그렸던 경험, 해당 분야 국제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즉석에서 영어로 시를 쓰거나 산문을 써서 낭송 낭독하고 서로에게 글을 헌정하거나 그림을 그려 교환하며 친분을 다지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영어로 쓴 시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 작가들과 나누기도 했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떠나기 전부터 건강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권한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몇 달의 시간을 한 곳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다시없을 축복이다. 평생 동안 알아온 친구보다도 가까운 친밀감이 형성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올해는 34개국에서 35명의 작가들이 모였다. 33개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나를 아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THE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AND DEPARTMENT OF DANCE PRESENT

Moving Words

dance artists and writers in collaboration

THURSDAY, OCTOBER 19 AT 7 PM

SPACE PLACE THEATER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a casual evening of collaboratively devised performance. These quick studies reflect on issues of "locating and dislocating dance," how choreographies embody both real and imagined spaces, both presence and absence, and how contemporary dance-making exists in a "global flow" a complex web of lineage and cultural influence. The authors' texts have inspired ways to understand these themes and have prompted ways to "locate" both the process and the resulting poetic spaces of the works.

Labors in Translation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Edward Gallardo, Christine Bonn, Calvin Winebrel

Music: Ella Fitzgerald & Louis Armstrong

Author: Emma Aghaeia, "The Book of Sleeping"

On Either Side of Nine and Five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Margo Kerr, Mary Macintosh, Meredith Stapleton

Sound Design: Meredith Stapleton

Author: Doreen Kim, "Hip Dip"

inside the narrowing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Darrow McAdam, Sarah Chien-Alley Picasso

Music: "Treading" by Another Harmonic Mischief

Author: Doreen Kim, "Craving"

RED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Jie Kamel Charles Scotsman

Collaborative Direction: Beatrice Bois

Music: Steve Reich

Author: Ubah Cristina Ali Farah, "Bones"












IOWA



America

CHAPTER 15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 창작프로그램 (IWP)

프로그램명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IWP)
국가	미국
참가연도	2013년
참가기간	2013. 8. 24 ~ 2013. 11. 30
작가명	김경욱

레지던스 기관 소개

아이오와 국제창작프로그램은 1967년 시작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학 분야 최고의 레시던시 프로그램입니다.

30여개국에서 온 작가들이 문학적 영감을 나누고 미국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문화교류의 장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작가들은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1인실 숙소에서 생활하며 도서관 등 제반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시는 아담한 대학도시여서 도시 곳곳에 있는 서점, 식당, 상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도보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강을 따라 조성된 오솔길에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숙련된 현지 스텝들이 참가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아이오와대학교 창작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이 있다면 낭독회 통역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세차례의 낭독회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 작가들, 현지 미국인들, 교민들에게 제 소설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개설한 <오늘의 세계문학>이라는 과목의 수업에 참여해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계 소설>이라는 토론에 참여해 한국문학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의 여러 일들이 우리 바깥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이후 묶어낸 창작집 <소년은 늙지 않는다>로 2015년 김승옥문학상을, 신작 단편소설로 2016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당시 구상한 장편소설 <개와 늑대의 시간>을 올해 출간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아이오와시는 유네스코가 문학도시로 지정할 만큼 문학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작고 조용한 도시여서 작품 구상과 창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제창작프로그램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낭독회 관람, 파티 개최, 작가 초청 등을 통해 참가 작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특히 현지 교민들의 관심과 응원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객지생활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한국식당과 한국식품점이 있어서 음식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주말에 도시 근교를 다녀오는 짧은 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디언 유적지 답사, 초기 정착민촌 방문, 로데오 대회 관람 등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중반 참가 작가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나 뉴올리언즈, 둘 중 한 곳을 선택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를 보고 느끼면서 다른 작가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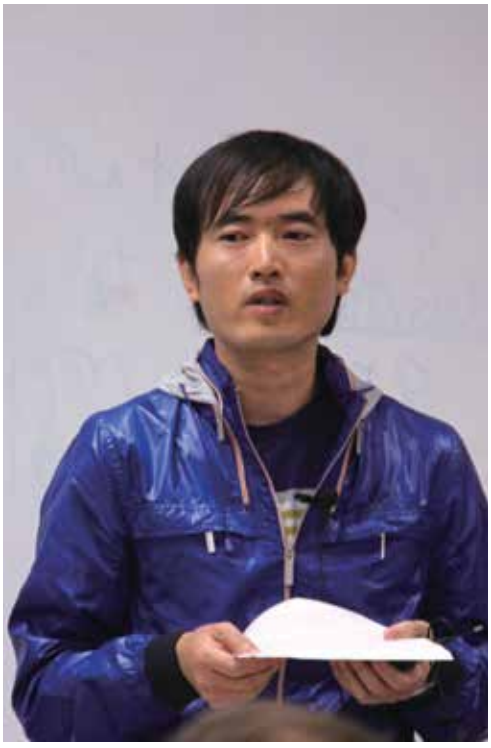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오와 국제창작프로그램에서의 여러 체험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얻을 수 없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삶이 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 그 이상을 줍니다.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온 작가들과의 교류는 여러분의 작품세계를 이 프로그램 참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할 만큼 멋진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작가들과의 심도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더 활발하게 소통할수록 더 강력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Mongol

CHAPTER 16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프로그램명	울란바타르대학교
국가	몽골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7. 17 ~ 2018. 9. 22
작가명	강훈구

레지던스 기관 소개

국제 울란바타르대학교의 직원기숙사에 머물며 약 3개월 간 자유롭게 집필, 취재가 가능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항공료 그리고 숙박비, 현지 가이드비,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되고 따로 식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숙소를 떠나 몽골 이곳저곳을 여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를 포함한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은 국제 울란바토르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저는 레지던시에 머물며 하반기에 공연할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하였습니다. 희곡을 쓰는 일 외에 공연 연출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인연이 되어 주몽골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주몽한인회가 주관하는 2018 한국주간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몽골 스탭들과 한국어학과 학생들 100여명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3~4학년 학생들과 함께 제가 그간 집필한 희곡을 낭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진행한다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어학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문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무엇보다도 출국 전에 직전에 참가한 작가인 저에게 꼭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의 대외협력처장 윤준호 교수님과 교직원 칭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길 건너편 건물에 대외협력처를 자주 방문하여 문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울란바토르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은데다 대외협력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현지 가이드비로 가이드를 고용하기보단 지방을 여행할 때 가이드비로 지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숙소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는 한국에서 설립한 학교라 학교에 기숙사는 낡았으나 쾌적한 편이라 혼자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전기포트와 전기밥솥을 구비하여 갔으나 기숙사에 구비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의 방마다 구비물품이 다르다고 하니 출국하기 전에 윤준호 교수님과 통화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호실에 따라 와이파이가 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심칩이 굉장히 저렴하니 이를 통해 핫스팟을 이용하거나 한 달에 한화로 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따로 인터넷을 설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숙사에는 12시 통금이 있으나 그 이후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식사

몽골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는 대체로 잘 맞지 않습니다. 주변에 마트가 많아 식료품 구비가 수월합니다. 조리가 가능하여 간단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혹은 숙소 주변에 있는 한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한식당은 다른 식당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니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치안

낮에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밤에는 혼자 다니는 것이 조금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밤 늦게 혼자서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환전

환전을 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화를 환전하는 곳이 많으니 달러를 바꿔가지 말고 원화를 뽑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비자카드를 사용해도 써도 무방합니다.

교통

울란바토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시내를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어느 도시보다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대중교통은 열악합니다. 이동하실 때는 택시를 추천합니다. 간

단한 지명과 구글맵만 있으면 저렴한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저렴합니다만 막힐 때가 많아서 저는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여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여행

여름의 몽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울란바토르 근교의 테를즈 뿐만 아니라 몽골 북부의 홉스굴 호수, 고비사막, 텡헤르 온천 등 곳곳이 잊을 수 없는 풍광을 선보입니다. 몽골 여행 카페 <러브몽골>에는 동행을 찾는 여행객들이 많으니 미리미리 일정을 맞추어 여행을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늦게 알아보면 투어 일정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기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를 여행하려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복수비자가 아닌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이칼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복수비자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승마를 추천합니다. 몽골에 왔으면 말을 타야죠.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체험 가능합니다. 한인회 사무총장인 최창규 선생님이 운영하는 노마드 투어를 검색하여 연락하면 합리적인 금액에 승마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

몽골의 여름은 한국의 초가을과 비슷합니다. 염두하시고 옷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옷은 현지에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하니 많이 챙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몽골 레지던시는 저의 첫번째 레지던시였습니다. 한국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바이칼 호수, 고비사막, 쳉헤르 등 몽골 곳곳을 여행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고, 별똥별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던 순간들은 창작에 큰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삶에도 큰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몽골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기에 몽골의 이곳저곳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무당굿을 보거나, 열악한 게르촌의 삶을 살펴보거나, 광산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울란바토르의 시내는 몽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이곳저곳 놀러 다니느라 생각보다 집필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레지던시에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작가님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작가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레지던시입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Mongol

CHAPTER 16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프로그램명	울란바타르대학교
국가	몽골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8. 14 ~ 2017. 11. 11
작가명	문부일

레지던스 기관 소개

울란바타르대학교는 한국 기독교학술원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몽골과 한국의 문화, 학술, 봉사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지자체, 대학,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많은 한국인이 찾는다. 특히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을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한국 교원을 비롯해 한국어에 능통한 몽골인이 근무해 언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학과,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학과 등 한국 관련 학과가 많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학생이 많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과 학생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다. 한국으로 교환학생, 대학원 진학을 희망해서 파견 작가와 소통하며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한국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작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숙소는 총장님, 교수님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다. 24시간 경비실에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와이파이가 잘 된다. 담당자가 컴퓨터실 이용을 도와줘서 교내에서 창작을 할 수 있었고,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만나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학 내, 한국에서 출간한 책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학 연구소다. 소장님과 인연이 닿으면 그 곳에서 독서 및 노트북으로 창작도 할 수 있다.

몽골에 만 3년 만에 작가 파견이라 학생, 교수님들이 레지던스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꾸준하게 작가를 파견해야 이 사업의 성과가 이어지고, 축적될 것이다. 참가자 또한 전년도 참여 작가로부터 몽골 현지 정보, 대학교 분위기를 미리 듣고 간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한국에 남아 있는 몽골의 흔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고려시대 몽골이 직접 관리했던 탐라총관부가 있던 제주도에 남아 있는 몽골어 지명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라산에 있는 사라오름은 몽골어로 '달 떠오르는 언덕'이고, 어승생은 '물 좋은'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수원지가 있다. 학과와 상관없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조어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마지막으로 70여명이 수업을 듣는 1학년 교양 수업 시간에 '글쓰기와 독서'를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교수님이 통역을 했고, 피피티 등 강의 자료도 번역해줘서 학생 호응이 높았다.

한국어학과장 강선화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어학과 4학년들과 꾸준하게 만났다. 다들 한국어에 능통해 대화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학생들이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줘 편하게 생활했고, 몽골 대학생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다. 갤러리에서 열린 몽골 현대미술 전시회, 몽골 전통 악기 모린호르(마두금)를 주제로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이 인상 깊었다. 공연을 또 보고 싶었지만 연일 매진이라 아쉬웠다.

번역 수업 과제를 함께 하면서, 대사관 주최 논문 발표대회 참가자들과 한국역사스터디를 하면서 학생들과 식사, 다과회를 자주 했고, 몽골 사회의 문제점,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여행지, 이마트, 대학교 근처만 맴돌았다면 절대로 볼 수 있는 몽골의 실제 모습을 많이 접했다.

한국어학과 개강 등산 참가, 학교 체육대회, 외솔 최현배 선생 장학금 수여식, 세종학당 창립 기념식, 한국대사관 주최 몽골 내 한국어학과 체육대회, 몽골 한인회 주최 한국인의 밤 등 학내외의 행사에 참가하며 학생,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번역한 작품 키트에 한국어본도 같이 게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어로도 읽고 싶다는 학생도 많았고, 번역 수업에 사용하고 싶다는 선생님도 있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원과 함께 한국어 자원봉사 센터를 둘러보았고, 울란바타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게르촌도 방문했다. 도심에 있는 게르촌을 방문해야 몽골의 현재 경제, 사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 게르에서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한국어가 가능한 몽골 고등학생과 기차 여행을 하면서 몽골 청소년 문화를 들었다. 한국 청소년들과 비교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 성적을 높이느라 학원에만 가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에 진학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을 얻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풍요로운 삶만이 행복을 보장할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였다. 청소년문학을 쓸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체류 기간에 작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귀국 직전 연작소설집 '턴'(뜨인돌)을 출간했다. 단편소설을 집필해서 2018년 3월, 7인 작가 엔솔러지 작품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몽골에서 만난 청년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모티프 삼아 장편동화를 완성해 출판사에 투고했고, 출간 검토 중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몽골 도심은 걸어서 세 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좁다. 길을 파악하고 주요 지점을 안다면 버스로 움직이기 편하다. 택시도 저렴해 편리하지만, 운전자가 영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 주요 지점을 몽골어로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심각하게 혼잡해 걷는 게 빠를 때도 있고, 택시 잡기도 어렵다. 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한국에 아주 우호적인 나라라서 한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다. 학교에서 도보로 20분 내 이마트가 있고, 학교 근처를 비롯해 도시 곳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 미용실, 식료품 가게 등이 많아 한국과 비슷한 생활이 가능하다. 김밥천국, 뚜레주르, 탐앤탐스, 본죽, 비비큐 등 한국 프렌차이즈 가게가 정말 많아 한국의 중소도시에 온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출국할 때 따로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다. 학교 옆에도 여러 마트, 시장이 있어서 생필품 구입이 쉽다.

일교차가 아주 커서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난방을 시작하는 10월부터 공기가 안 좋아져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숙소는 난방이 잘 되지만, 10월 중순부터 새벽에 기온이 떨어져서 수면 중 보온 대비가 필요하다. 1인용 전기장판을 구입해 가면 좋다. 몽골은 전기용품이 비싸고, 한국만큼 다양하지 않다.

숙소에서 취사를 한다면, 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모두 이마트에서 구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몽골 ATM으로 몽골화폐(투그릭) 출금이 쉽다. 현금을 많이 가져가서 환전할 필요는 없다. 소매치기가 있다고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울란바타르에서는 카드 결제가 거의 가능하지만 마스터카드는 안 되는 곳이 가끔 있어서 당황했다. 비자, 마스터 카드가 모두 있으면 좋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사이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머타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숙소가 정전이 될 때가 있다. 노트북 배터리가 꼭 있어야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몽골 숫자를 미리 익히고 가면 물건을 구입할 때 아주 편리하다.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발음도 한국 영어와 많이 다르다.

다양한 여행을 할 수 있다. 기차에서 잠을 자면서 러시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한다. 기차 운임이 저렴하다. 몽골 재입국할 때 비자 문제 때문에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인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레지던스 지원자가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몽골 지원을 망설였다.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 선입견 때문이다. 아마도 몽골 관련 영상이나 사진에서 초원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몽골에 체류하는 90일 동안, 첫 해외 레지던스로 울란바타르대학교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라서 한국 작가에게 먼저 다가오고, 이마트를 비롯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덕분에 한국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거의 없다. 생활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어의 장벽이 높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그것 또한 기우였다. 한국과의 역사적 접점이 많이 사회, 정치, 문화를 공부하기도 좋고, 자연이 잘 보존된 테를지, 스굴 등 여행지 또한 매력적이다.

레지던스 담당자인 윤준호 교수님을 비롯해 한국인 교원들도 친절하게 많이 도와줘서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충만한 시간이었다. 비자 만료만 아니었다면 더 머물고 싶었다. (기차로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면 비자를 90일 연장 가능하다!)

많은 작가들이 몽골 레지던스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몽골에 가서 적응하는 동안 국내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스와의 차이점을 생각했다.

왜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주제가 붙었는지 알 것 같았다. 몽골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는다면 석 달 동안 코디네이터와 여행을 하거나 혹은 고독하게 숙소에서 창작만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 같았다.

스스로 몽골인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학 관계자가 억지로 활동을 하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다. 관계자는 작가가 활동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먼저 계획을 짜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레지던스가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 90일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파견한 작가라는 타이틀 덕분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몽골인이 많았다. 자신이 한국에서 살 때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소설로 쓰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내가 여행자였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몽골인이 있었을까? 레지던스 체류는 여행과 확실히 다르다. 많은 장점을 얻고 싶다면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Mongol

CHAPTER 16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프로그램명 울란바타르대학교

국가 몽골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2014. 7. 28 ~ 2014. 10. 23

작가명 강석경

레지던스 기관 소개

몽골 레지던스는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울란바토르대학 맞은편에 위치한 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한다. 몽골에서 베이스캠프가 되는 곳인데 한국 대학교와 가까워서 행정상 일을 상의하든지 도움을 받기 편리하다. 환전할 은행도 있고 수퍼마켓도 가까이 서너 군데 있어서 생활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 은행에선 한국돈도 환전해주므로 굳이 한국에서 몽골 돈을 바꿔올 필요가 없다. 수퍼마켓에는 한국 라면을 비롯해 고추장, 김치, 김 등 많은 한국 식품들이 있어서 한국음식을 챙겨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굳이 가져가겠다면 밑반찬 정도는 좋다. 생수도 널려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주방 시설이 있는 작은 원룸도 있으나 넓은 거실이 딸린 6층의 환경이 좋다. 가방이나 생수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기본 식기는 갖춰져있는데 전기밥솥이 방마다 구비됐는지는 확실치 않으니 출국 전 울란바토르 대학교 관계자에게 메일로 미리 문의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난방은 잘되지만 추위를 탄다면 작은 전기방석 정도는 준비해도 좋다. 세탁기는 당연히 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어서 대중교통이 그나마 발달한 편이다. 처음엔 무조건 택시를 탔지만 혼자 시내에 나간다면 기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택시를 타기보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버스 노선을 알아두고 한가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면 좋다. 게스트하우스가 시내와 먼거리가 아니어서 산보 겸 구경 겸 일부러 걸어보면 괜찮은 빵집과 질좋은 수입품이 많은 수퍼마켓을 발견하고 갓볶은 원두커피도 살수 있다. 매연이 심할 수도 있다.

코디네이터는 대학에서 한국어과 학생으로 정해주어 의사소통에는 별 불편이 없다. 처음엔 길부터 안내받아야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코디의 울란바토르 시내 가이드는 별 필요치 않다. 몽골어를 배우려고 시도 해봤으나 그것이 꼭 코디 역할이 아니어서 지속되지 않았다.

내 생각에 코디는 시간제나 주당으로 도움 받고, 작품 취재 등을 위해 몽골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면 몽골어선생을 구해서 몽골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내 경우는 몽골여행 때 코디와 동행했으나 코디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몽골어를 안다면 굳이 코디와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레지던스 참가자는 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2번 강의하는 의무가 있는데 담당교수와 일정만 상의하면 된다. 혹시 코디와 문제가 있다면 상의해도 좋다. 한국어과 교수들은 당연히 한국어가 능통하니 몽골생활이나 여행 등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몽골에 대해 더 알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나의 관심사인 13,4세기 몽골제국 원나라는 현재의 몽골과 큰 격차가 있다. 몽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광활한 대초원에서 유목민의 기상을 느껴보려했다. 당장의 결실보다 그 강열한 대자연이 가슴속에서 에너지로 응축되기를 기다린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레지던스에 참가할 때 먼저 다녀온 작가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고 울란바토르 외엔 가이드북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별 정보 없이 막막한 상태로 갔다. 울란바토르에 일주일 정도 있으니 몽골에서는 도시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은 대부분이 초원이라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하다. 어떻게 여행을 하나. 코디는 어머니가 사는 한국 외엔 몽골도 여행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 아무 조언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학교 관계자에게 여행 방법을 물어 시내에 있는 배낭자 여행사의 그룹 투어에 참가했다.

고비사막을 다녀오니 몽골이 한발 다가섰다. 그 뒤 가이드북에 나온 '게르 투 게르' 여행기획사를 찾아갔다. '게르 투 게르'는 외국여행자와 몽골 유목민을 연결해서 홈스테이를 주선한다. 나는 몽골에 머무는 동안 일주일 코스의 홈스테이를 3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몽골 체험이었다. 카자흐족의 독수리축제 참가는 몽골 속의 소수민족 문화를 체험하여 중앙아시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런 홈스테이 경우 한국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음식일 것 같다. 잘 알다시피 유목민의 주식은 양고기와 유제품이다. 100% 자연산 유제

품은 반가우나 양고기와 몇 점의 감자만 넣어 찐 밥공기 하나만 내놓으면 난감하다. 반찬에 길들여진 한국인에게 양파 한조각 없이 찐밥을 먹기는 힘들다. 수퍼마켓에 널린 야채피클을 사가지 못한 것이 후회될 것이다. 초원엔 야채가 없다. 양고기가 주식이긴 하지만 홈스테이 때 양고기를 내놓은 적은 한번인가 밖에 없으니 양고기 식사를 겁낼 필요는 없다. 몽골서 먹는 양고기는 한국인이 생각하듯 냄새가 나지 않고 비프통조림 맛 비슷했다.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 걸리는 울기에 머물 땐 식사 때마다 거의 염소고기가 나왔는데 피클도 가져갔고 전에 먹어본 적이 있어서 거부감 없이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먹었다. 흑염소를 잡는 법도 지켜보았는데 음식은 그들 지역 문화인지라 야만이라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심하게 나타내면 실례이고 여행자로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유목민 사회에선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결례라고 들었다.

원나라 때 수도였던 하라호름은 코디와 함께 개인적으로 장거리버스를 타고 갔다. 몽골에선 장거리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대중교통의 불편이 몽골여행의 최대 단점이자 어려운 점인데 사람 발길에 때묻지 않은 오지인만큼 원하는 장소에 가면 만족도는 몇 배가 된다. 코디나 운전기사 같은 몽골인과 동행하면 허허벌판의 게르에서 자는 것도 섭외가 가능할 것이다. 하르호름같은 관광지에는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징기스칸 고향인 다달과 중부지방은 기사를 수소문해서 그의 차로 나흘간 여행했다. 한국인 여행그룹을 태우고 열흘간 몽골지역을 다닌 경험이 있는 기사였다. 이런 알음알이가 아니면 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빠른 방법일 듯 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작가는 흐르는 구름 한조각에서도 영감을 얻는 존재라 자신을 열고 넓은 세계를 접해야한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는 안정된 지원 아래 자유롭게 여행하며 인식을 확장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 준비로 우선 영어나 가고자하는 나라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신청한다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Sweden

CHAPTER 17

스웨덴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프로그램명	주스웨덴한국대사관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5. 11 ~ 2018. 8. 7
작가명	조용미

레지던스 기관 소개

숙소

스톡홀름 시내의 예르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해 한 숙소에서 계속 머물렀다.
침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독신자용 아파트. 침실에는 침대와 소파 탁자, 책상과 서랍장이 갖추어져 있었고 주방에는 간단한 주방기기와 냉장고, 전자렌지 등이 있었다.

협력기관 담당 교수

스톡홀름대 한국어과 소냐교수
특강에서 통역을 맡아 해주었으며 낭독에서 보충설명 및 한국문화 전반과 문학에 대한 질문을 해주었다.

협력기관 담장자

주스웨덴대사관 이영아 홍보관
현지 생활과 활동 및 대사관 행사 참여 요청, 강의 일자 조정 등 모든 일에 긴밀하게 협력해주었다

코디네이터

현지 거주인 임지영
현지에서 주거지의 편의 시설과 교통편을 숙지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룐넬스 서점에 리딩관련 요청 이메일을 스웨덴어로 작성해서 보내주었다. 그리고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도시로 함께 짧은 여행을 두 번 다녀왔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체류기간 동안 월간지 시와표현, 월간 현대문학과 계간지 발견, 자음과모음, 신생 등 문예지에 다수의 작품(12편)을 발표하였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과 스톡홀름 한국학교 간담회에 참석했다. 스톡홀름 한국학교 강의. 교민과 현지인들을 상대로 시 낭독 및 한국문학과 현대시, 시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주스웨덴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영화상영주간에 참석했다.

스톡홀름대학교 한국학과에서 9편의 시를 한국어로 먼저 낭독하고 다음 영어로 번역된 시를 학생이 낭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한국 현대시와 본인의 시세계에 대해 강의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스웨덴은 레지던스 시기가 중요한 것 같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낮이 짧아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본인이 머물렀던 여름은 특별히 더웠는데 숙소에 선풍기, 방충망 등의 시설이 전혀 없어서 힘들었다. 심한 일교차와 백야 현상 등 기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5월 중순부터 스톡홀름대학교는 학기말 시험과 논문 심사 등의 일정이 있어서 강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참가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자 발표시기를 앞당기면 좋겠다.

숙소는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구했다. 스톡홀름은 숙소 렌트비용이 무척 높아서 스톡홀름 시내에서 숙소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떨어진 외곽도 어떤 작가들에게는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물가도 비싼 편이어서 거의 모든 식사를 집에서 해결했다. 교통은 편리한 편인데 매달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스톡홀름 구역 내의 모든 전철, 버스 등을 횟수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톡홀름은 타도시에 비해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시청 근처에는 소매치기가 많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스웨덴은 스웨덴어와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가기 전에 적어도 기본적인 스웨덴어는 익히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스웨덴어로 말할 때와 영어로 말할 때의 친밀도와 자장이 다른 것을 느꼈다. 그 도시에서 적어도 3개월을 머무를 것이라면, 체류기간 동안 그 도시에서의 체험으로 적어도 문학적인 변화를 소망한다면 꼭 간단한 스웨덴어를 익혀가시기를 권한다. 그곳의 고유한 언어에서만 발생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스톡홀름은 자연도 아름답지만 곳곳에 미술관, 박물관이 많아 예술적인 감각을 고양 시키기에 알맞은 도시다. 문학적인 영감과 함께 새로운 예술적 체험으로 문학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기후와 날씨가 특별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준비만 철저하다면 보다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weden

CHAPTER 17

스웨덴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프로그램명	주스웨덴한국대사관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0. 23 ~ 2017. 1. 9
작가명	황선미

레지던스 기관 소개

스톡홀름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협력 기관은 주스웨덴한국대사관이다. 여러 업무로 분주한 상황에서도 대사관의 홍보관 및 담당 직원들은 친절하고 성실하게 작가의 행사를 지원했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미팅을 주선했다. 또한 대사관과 연결된 한국 문화 행사(스톡홀름 영화제, 한국 무용 공연)에도 초대하였다.

동절기의 특성상 일찍 어두워지는 현지 사정으로 활동 시간에 제한이 컸고, 한국과 다른 추위에 적응하느라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 규모에 맞추어 작은 아파트를 약 3개월 동안 렌트하여 조용하게 개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기류와 기본 생활용품이 거의 없어서 예상 밖의 초기 비용이 발생했고, 오래된 공간이라 난방이 부실했다. 그러나 센트럴 가까운 곳이라 활동에 지장이 없었고, 치안 문제도 거의 없어 안전하게 머물렀다.

스톡홀름 대학의 소냐 교수와 가브리엘 교수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의견으로 진행에 도움을 주었고, 이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대학에 필요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전 레지던스 경험자들의 애로 사항 중 첫 번째가 현지 코디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였다고 들어서 처음 코디를 만났을 때부터 수고비용 지출 방식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도움 받기 바라는 사안들을 정리하여 미리 밝혔고, 비용을 전하는 날에는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며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코디는 미팅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었고 취재에 동행하는 등 체류 기간에 도움이 되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동절기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추위에 대한 문제가 컸다. 동절기 특성상 항공편 짐 무게와 부피의 한계로 필요물품을 충분히 가져가기 어려웠고, 한국 학교에 기증할 책도 부담스러운 편이었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을 고르다 보니 숙소가 비용 대비 좁은 공간일 수밖에 없었는데 난방이나 외풍 문제는 경험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침대에서 벌레에 물려 고생을 좀 했는데, 숙소를 정할 때 호스트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주방 용품이 거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초기에 집기류를 구비하는 예상 밖의 비용이 발생했고, TV는 케이블 지원이 없어 뉴스도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비어 있는 숙소가 거의 없는 시기라서 옮기기는 어려웠다.

밤 12시가 다 되어 알란다 공항에 도착하는 게 난감한 문제였다. 예술위에서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차로 숙소까지 갈 수도 있다 하였으나, 출발할 때 미리 코디에게 택시 예약을 부탁해서 혼자 숙소까지 갔고 늦은 시간임에도 숙소에서 기다린 코디가 인터넷 연결이며 근처 정류장 및 마트를 알려주었다. 공항에서 스톡홀름 시내를 왕복하는 택시는 일정 요금이 정해져 있고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택시 승강장에는 택시를 가장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이 잘못 탔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공권력의 제재가 없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레지던스 기간에는 의무 강연 외에 개인적으로 취재와 집필, 출판사 미팅,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 계획이 있어서 대략적인 활동 스케줄을 잡고 시작하였다. 동절기의 특성 때문이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작품을 무대로 한 지역을 맨 먼저 취재했다.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기차를 갈아타고 8시간 거리의 린드그렌 마을을 찾아가느라 힘들었으나 동절기 폐쇄가 임박하여 도리가 없었다. 코디의 도움으로 교통편 예약이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초고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양인'과의 만남은 절실했는데, 예상 밖으로 여러 차례 그들과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다. 입양인 가정에 초대를 받기도 하였고, 화가로 활동 중인 입양인도 만나고, 한국학교 선생님이나 지인을 통해 그들에 대한 에피스드를 얻기도 하였다.

일상이 단조롭다 보니 청탁 원고를 마감보다 일찍 완성하게 되었다. 한·중 합작으로 진행하는 5권 중 세 번째 원고를 완성하였고, 귀국 즈음에 두 번째 작품이 출간되었다. 또한 일간지와 기관의 원고 청탁을 받기도 하였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휴식 시간을 가졌다.

여러 차례 스톡홀름 대학의 교수와 대사관 직원 및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만나며 친분을 쌓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프로그램이 대학을 거점으로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회를 전했다. 몇몇 선생님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소개하고 싶은 곳을 안내해주었고 덕분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역사가 100년 이상인 출판사(Norstedts 1823년 설립)의 초대로 출판사를 방문하고 최근 영국과 계약한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원서와 보도 자료를 전하고 N출판사의 최근 출간 작품을 선물 받았다. 시내 곳곳을 다닐 때마다 서점에 진열돼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나 『푸른 개 장발』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작가인 줄 모르고 서점 직원이 내 책에 대해 설명하는 일도 있었다.

먼 곳은 어려워도 스톡홀름 내 미술관은 다녀보자는 계획은 원고 부담을 덜어낸 뒤 실행하였다. 일찍 문을 닫거나 휴관에 들어간 곳이 많아서 헛걸음 한 적도 있으나 대체로 유익한 계획이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코디의 정보 제공이 큰 몫을 했다.

현지 학교 Sofia Skolan 방문은 2015년 스톡홀름 국제도서관 초청 때 만난 지인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2015년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현지 학교의 교사가 되어 마련된 행사인데, 애초에 작품 낭송 정도로 간단히 계획된 행사를 내가 거절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내 작품을 읽도록 방향을 바꾸어 보다 진지하고 바람직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너무 긴 시간을 한 곳에서 지내는 것도 낭비라서 가까운 곳으로 2박 3일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한 나절 정도 탈린의 구시가지를 훑어보는 정도의 여행이라 아쉽고 미련이 크게 남았다.

일정이 막바지로 가는 중에 지독한 목감기에 걸려서 고생이 심했다. 약값이 비싼데 잘 듣지도 않았고 마지막 일정을 포기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추위 때문에 보온용 옷을 사야 했고 막판에는 생필품마저 떨어져서 지출이 컸지만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기회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동절기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추위에 대한 문제가 컸다. 이 문제는 차후 시정될 것이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을 고르다 보니 비용 대비 좁은 공간일 수밖에 없었는데 난방이나 외풍 문제는 겪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도 레지던스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스웨덴 렌트 하우스에는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공동 세탁실을 예약하고 사용해야 한다. 주방 용품이 거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초기에 집기류를 구비하는 비용이 다소 발생했고, TV는 케이블 지원이 안 되어 뉴스도 보기 어려웠다. 다행히 인

터넷 상태가 좋았다. AirB&B로 숙박을 알아보는 편이 가장 저렴한데, 결정하기 전에 코디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고 호스트와 연락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 경우, 자다가 벌레에 물려 고생을 했는데 깨끗한 공간처럼 보여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니 사전에 호스트와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집기류 상태와 가전제품 및 인터넷 문제도 사전에 점검하면 좋을 것이다. 쉐어 형태의 숙박은 도난 문제가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치안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스톡홀름 대학이 이 프로그램의 거점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대학 측의 의견을 들었다. 대학은 “왜 작가들이 항상 하반기에 오는가”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였다. 가을은 1학기 시작이라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2학기가 되어야 한국문학이나, 번역 수업이 있으니 학과 수업과 연계가 되려면 봄 학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낭송 정도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한국 문학을 알리거나 보다 발전적인 양상을 도모하려면 스톡홀름 대학의 수업과 맥락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다.

대학 측과 연계프로그램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스웨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술위원회가 현지의 문화 프로그램 정보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 파견 작가가 참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레지던스 사업이 형식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작가에게는 경험의 기회, 기관에게는 질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지정된 학교에서의 문학 행사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지금껏 스톡홀름 대학과 한국학교 행사로 그치던 데서 한 발 나아간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이버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김성희)으로부터 이런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현지인처럼 지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현지의 한국인들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기본적으로 코디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사관이나 한인회와 연결되는 편이 좋다. 초기에 교통이나 사회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야 어려움이 적고 비용 낭비가 적다.

스웨덴에는 한국문화원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이 개인적인 활동에 머물거나 전문화되기 어려운 여건이라서 현지 국민들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쪽에서도 뭔가 제공할 수 있다면 관계가 더 나을 것이다.

현지에서 현지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언어 문제도 극복하고 예상 밖의 정보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스웨디시는 체격이 크고 인상도 차가운 편이지만 일단 친해지면 낯선 문화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인상을 받았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weden

CHAPTER 17

스웨덴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프로그램명 주스웨덴한국대사관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10. 1 ~ 2015. 12. 29

작가명 이경혜

레지던스 기관 소개

시설 관련

스웨덴 한국대사관은 한국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레지던시의 협력기관이었다. 대학교가 아닌 대사관 협력 레지던스라 작가가 머무를 공간이 정해진 시설로 있지는 않았다. 이 점은 작가들이 직접 머무를 공간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도 생각된다. 필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공간을 택하여 스웨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취재와 집필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역할 관련

대사관 협력 레지던스였던 만큼 대사관의 홍보관 역할이 가장 컸다. 처음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부터 대학의 강연 주선, 스웨덴 작가와의 합동 세미나, 스웨덴 작가 노조 방문, 한인 행사의 초대 등의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필요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큰 도움이 되었다. 도착하기 전부터 숙소 결정에 자문을 해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친절한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한인학교에서의 낭독회도 주선해주었고, 스웨덴 가정의 크리스마스 풍습 등 필자가 궁금해 하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스톡홀름 대학 한국어학과의 교수도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 큰 감사를 느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강연, 낭독회, 작가 세미나

스톡홀름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웨덴 아동문학 작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를 하였으며, 그 외 한인학교에서 그림책 낭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학교에서는 교포들의 어린 자녀들부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어른들까지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그림책들을 나누어 낭독회를 열었다. 모두들 귀를 기울여 집중해주어서 종일 낭독회를 했지만 힘든 줄도 몰랐다.

스톡홀름대학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웨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내게는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영어로 작품을 낭독해본 경험도, 외국인 독자에게 질문을 받고, 사인을 해준 일도 나로선 처음이었지만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소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스웨덴의 아동문학 작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그곳 작가들과의 만남이 좋았다. 작가 조합의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초대되어 그 나라 아동 문학가들의 한 풍경을 본 것도 인상 깊었다.

취재와 집필

스웨덴 레지던스의 가장 큰 목적은 해양소설과 관련된 취재였다. 그래서 스웨덴과 그 주변 국가의 해양, 신화 관련 박물관, 수족관, 항구 탐방을 하였고, 실제 승선과 항해 경험으로 수상버스, 유람선, 페리 등 가능한 모든 선박 탑승을 통하며 작품 관련 필요 사항을 취재하였다.

스톡홀름 외에도 바이킹 유적지인 웁살라, 바이킹 시대의 주요 항구들이었던 헬싱키, 탈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코펜하겐의 바이킹 박물관, 해양박물관 등 30여 곳의 박물관을 탐방, 취재했다.

그 중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은 16세기 영국을 능가하는 해양강국이었던 네덜란드의 무역항으로 운하와 국립해양역사박물관이 중요하여 방문했고, 거기에 더불어 '안네의 일기'의 작자 안네 프랑크 박물관도 탐방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역시 중세의 중요한 항구 도시고 운하 또한 유명하며, 이곳의 국립박물관에는 바이킹 유물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여 탐방했다. 또한 안데르센의 출생지인 오덴세도 찾아가 취재했다.

스웨덴 체류기간 중 한국에서 초고를 써간 <북구 신화>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이 책은 현재 삽화 작업 중이며 곧 출간될 예정이다. 해양 청소년 소설은 스웨덴에서 큰 틀의 구상을 하였으며, 현재 집필 중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필자는 정해진 장소가 없다는, 스웨덴 레지던스의 특징이 오히려 좋았다.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3개월의 체류 기간 중 절반 정도는 'Air B&B'라는 사이트를 통해 실제 주민들이 사는 여러 군데의 집에 단기간의 숙박을 정해서 '살아'보았다. 스톡홀름 중심가, 변두리, 문화 밀집 지역 등 다양한 구역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짧은 체류기간으로 돌아다녔다. 숙소는 스웨덴에 가기 전 한국에서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곳을 몇 곳 고른 다음 현지의 코디에게 자문을 구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숙박업소가 아닌 다양한 주민의 집에서 생활해 본 이 경험은 스웨덴 체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경험이라 적극 추천한다. 나머지 기간은 강연과 집필, 취재에 할애하기 위하여 한인 주민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집이었고, 그곳에서 한인 주민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매우 비싸고, 특히 외식은 엄청나게 비싸 현지인들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해먹으면 크게 비싸지 않게 식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 숙소에서 따로 비용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떠돌 동안은 거의 직접 사다 해먹었다. 그렇다고 요리를 하느라 시간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호밀빵, 미트볼, 과일, 연어, 치즈 등을 상용하였다. 스웨덴에서도 치즈나 연어 등은 한국보다 오히려 싸고, 해먹기도 좋으니까 대단히 자주 먹었다. 스웨덴의 대표음식인 미트볼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먹으면 기름에 볶아 먹는 것보다 자주 섭취하기 좋은 음식이었다.

스웨덴은 독특하게도 술을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없고, 정해진 곳에서만 판다. 값도 비싼 편이니 유의하는 게 좋다.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주의를 요한다. 대신 마트에서 아주 소량의 알콜이 든 무알콜 주류를 파는데 맥주는 물론이고, 와인도 있다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스톡홀름에는 매우 편리한 카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교통카드이고, 하나는 스톡홀름카드라는 유명한 박물관 카드이다. 교통카드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고, 많이 돌아다닐수록 이득이다. 섬으로 이루어진 스톡홀름에서는 수상버스라는 배까지 이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험해보기 바란다.

또 하나 스톡홀름 카드도 일정 기간 동안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카드인데 매우 유용하다. 필자의 경우는 주요 관광지나 박물관 등을 일정 마지막에 남겨 놓았다. 처음에는 숙소를 중심으로 그곳 주민들처럼 평범한 동네를 돌아다니고, 동네 문화센터, 동네 극장, 동네 공원과 박물관을 탐방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일

하며 지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 시기 동안 여러 가지 관습도 익히고 교통수단 이용, 지리 감각 등을 익힌 다음에 후반부에 집중하여 가장 긴 스톡홀름 카드인 5일 권을 사서 22군데 박물관을 집중 탐방하였다.

그 외 지하철역에서 나올 때 표를 체크하지 않는다든가, 자전거 도로 통행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보행자가 알아서 잘 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점, '헤이'라는 말이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온갖 군데에서 쓰이는 인사라는 점, 오가는 버스정류장이 건너편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람들은 미국인들과 달리 수줍고, 말이 없다는 점 등을 미리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알려드린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북유럽은 한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만큼 신비할뿐더러 우리에게 덜 알려진 문학적 자산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아동문학이란 면에서는 서유럽에 못지않게 우리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작가나 작품들이 있는 곳이다. 특히 스웨덴은 '닐스의 모험'을 쓴 라게를뢰프를 비롯하여 린드그렌, 안데르센까지 있는 곳이니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반드시 가야할 성지 같은 곳이라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라게를뢰프와 린드르렌은 스웨덴의 작가다. 스웨덴의 곳곳에 그들과 그들의 작품과 관련된 장소들이 많고, 그들에게 열광하는 아이들도 만날 수 있다. 안네의 일기의 작가인 안네 프랑크나 안데르센도 바로 옆의 나라인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있다. 이들의 자취를 살펴보고, 작품의 배경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아동문학 작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극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해양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혹시 비슷한 목적이 있는 작가라면 스웨덴을 비롯한 이쪽 주변 국가들은 천혜의 장소이다. 역사적인 면에서도, 문화적인 면에서도, 많은 유적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적극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준비 사항은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작가에 관한 조사와 그 작가의 작품을 미리 다 읽고 가기를 권한다. 또한 취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가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에 대한 것이지만 스웨덴 문자 알파벳의 읽는 법이라도 알고 가면 초기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못하고 가면 스웨덴에 가서 코디네이터에게 배우더라도 영어 알파벳과 다른 몇 가지 발음 문자를 익혀두는 게 아주 유용하다. 북구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영어가 안 통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인지 간판이나 이정표 등 글씨를 쓰는 곳에 스웨덴어로만 적혀 있는 곳

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되긴 하지만 매우 불편하다. 영어가 거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지는 체험해 보면 안다. 발음이나 뜻이 전혀 다른 철자가 많아서 괜히 지레짐작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제대로 알아 가면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Russia

CHAPTER 18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

프로그램명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학교
국가	러시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10. 14 ~ 2018. 12. 10
작가명	유재영

레지던스 기관 소개

러시아는 지역 간 시차가 총 11시간에 이르는 세계 최대 영토 보유국입니다. 또한 고리키와 체호프, 도스토옙스키 등 대문호 보유국이기도 하죠.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는 1804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어학과는 1991년, 통번역학부 내 개설되었습니다. 학교는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습니다. 한국어학과 재학생은 80명 내외이고 전임 교수는 7명입니다. 3학년 학생은 6개월간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다녀오기 때문에 4, 5학년 학생들과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출국 이전과 첫 만남까지는 한국 문학을 전공한 '마리아 솔다토바'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이후에는 '알료사 츄브'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레지던스 기관과 정해진 프로그램은 두 차례 강연으로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의 학사 일정은 무척 빠듯한 편입니다. 특히 1학기(9월-12월)는 더 짧기 때문에 해당 기간 참가하는 경우 출국 이전과 첫 만남 때 강연과 행사 관련 사안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연

모스크바 도착 사흘 뒤 '예카테리나 포홀코바' 통번역학부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진과 1학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곳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2018년이 첫 해였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월 25일과 12월 1일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 본관 강의실에서 각각 <한국 소설과 한국 사회>, <발견으로서의 소설>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두 차례 강연 모두 주로 1학년 학생이 참석하였기에 5학년 학생이 한-러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통역을 위해 강연일 닷새 전에 강연 스크립트를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2000년대 이후 출간한 한국 소설을 소개하고 해당 소설에서 보이는 한국 사회의 문제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문학보다는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높아서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적절히 배치하였고 자칫 낯설어 지루할 수 있는 강연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콘셉트는 독자 발굴이었습니다. '소설'의 효용과 재미를 통번역학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이 향후 다양한 소설을 접한다면 한국 작품이 해외로 소개, 번역되는 일이 늘어나리라는 야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작가 키트에 포함된 단편 소설을 비롯하여 네 작품을 텍스트 삼았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였다면, 두 번째 강연은 '작가와 (예비)독자'의 만남이길 바랐습니다. 두 차례 강연 모두 30명 내외 학생들과 여러 교수님이 참석하여 높은 집중도로 한국어 강연을 경청하였습니다.

모스크바 명소 답사

첫 번째 강연을 마치고 이튿날, 학생들과 함께 베데엔하(VDNKh)를 방문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학생들이 직접 명소 몇 군데를 소개한 문서를 만들어 보내왔고, 고심 끝에 선정한 곳이 베데엔하였습니다. 4학년 학생과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우주박물관을 둘러보고 식사와 산책을 했습니다.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문화, 러시아의 '산책'문화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명소 답사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레차코프미술관, 푸시킨 미술관, 붉은 광장, 크렘린 궁전, 고리키 공원, 볼쇼이 극장, 짜리찌노 공원, 도스토옙스끼 박물관,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 노보데비치 수도원 등을 방문했고 주말을 이용해 세르기예프 포사드, 카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인접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창작 활동

모스크바는 대도시이지만, 무언가에 골몰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곳곳에 카페가 있고 겨울이 길고, 밤이 일찍 찾아옵니다. 저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날이 저물면 책상 앞에 앉았다가 다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간 장편의 도입부, 단편 소설 초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출간 예정인 SF영화 관련 에세이를 고쳐 썼으며, 일기를 남겼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문화

러시아에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거주지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등록증은 숙소 주인에게 문의하여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호스트와 함께 관공서에 방문하여 여권 전면을 복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공서 출입부터 등록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일련의 과정은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입니다.

검문이 많습니다. 서점, 미술관, 쇼핑몰 등 곳곳에 경비원 혹은 경찰이 있습니다. 대학교 건물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대학교 역시 본관 앞 작은 공원을 제외하면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검문은 러시아의 역사, 특히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테러와 유관하며 이러한 까닭에 모든 지하철 역사에도 경찰이 상주합니다.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 표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유명 관광지 매표소와 주변 상점을 제외하면 영어로 의사를 전달하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키릴 문자와 간단한 러시아어 표현을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만큼 차갑고 건조해 보이는 러시아인의 따뜻함과 선의를 확인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예술을 사랑합니다. 트레차코프 미술관, 볼쇼이 극장 등 전시 및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예매와 방문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술관, 박물관, 각종 공연장에서 클락룸(cloakroom)을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이곳에 외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숙소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에어비앤비를 활용했습니다. 체류 기간은 두 달, 두 곳을 한 달씩 빌렸습니다. 시내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아파트 형태의 거주지로 부엌과 침실, 작업실을 별도로 사용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으며 난방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건조합니다.

음식

채소와 과일, 육류가 무척 저렴합니다. 그밖에도 식료품이 대체로 저렴합니다. 외식 물가 또한 서울과 비교하면 절반에서 2/3 수준입니다. 곳곳에 마트가 있어 식자재 구매가 쉽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마트에서 주류를 살 수 없으며 낮이라도 거리 음주는 불법입니다.

이동

모스크바 대중 교통은 편리하고 혼잡합니다. '트로이카'라 불리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면 지하철(미뜨로), 트램, 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할 때 카드를 태그하고 하차 시에는 태그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환승은 14호선 일부역을 제외하곤 무료이나 트램과 버스는 환승 시 요금이 차감되니 미리 차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내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지하철은 '미뜨로 투어'가 필수 관광 코스로 불릴 만큼 이채롭고 아름다운 역사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시내 이동 시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택시를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드는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시장이나 작은 매장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약간의 현금(루블)을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카드는 이동 통신사(MTC, 메가폰, 비라인 등)매장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일, 30일 단위로 '밸런스'를 충전하여 사용하며, 곳곳에 '밸런스' 충전을 위한 기계가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레지던스'는 체류라는 뜻이지만,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여행자의 태도를 버리기 힘들었습니다. '삶은 여행'의 실전편이라고 할까요. 그리하여, 여행자의 자세로 낯선 도시에 체류하는 경험은 무척 소중했습니다. 모든 길이 산책로였고 잠깐의 인연도 마음을 열어 반겼습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는 날에도 내 것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 남았습니다. 모스크바여야만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모스크바이기 때문에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밤길을 걸으면서, 공원을 비추는 조명등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대비하는 모스크비치의 모습을 보며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교와 연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받을 일도 있고, 묻고 싶은 것도 잔뜩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도 언어를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그 모습에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맘이 들 테니까요.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India

CHAPTER 19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프로그램명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국가	인도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2. 20 ~ 2018. 1. 20
작가명	이지홍

레지던스 기관 소개

상암하우스는 벵가루루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Nrityagram은 인도에서 유명한 전통 댄스 오디시(Odissi) 댄스 스쿨이 있는 마을 공동체이다. 이곳은 20년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레지던스 기간 중 오디시 댄스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암하우스의 숙소는 이 댄스 스쿨이 있는 지역 마을 내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쿨라(Kula)라고 불린다. 상암하우스에 참여하는 모든 작가들은 이 쿨라에 묵게 된다. 쿨라는 작가들이 머물 수 있는 8개의 방이 있고, 공동 주방이 있다.

인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독특한 디자인 양식의 작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여 오디시 전용 공연장이 있다. 이 공연장에서는 정기적인 오디시 공연이 펼쳐지는데,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마을 공동체 밖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바나나 밭과 공동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간혹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마을로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상암하우스 뒤 편 국립공원의 붉은 길은, 작가들 사이에서 '사하라 사막'이라 불리며, 좋은 산책길이 된다. 단, 혼자서는 절대 산책해서는 안 된다. 작가들과 무리지어 붉은 흙을 밟으며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큰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작가들이 머무르는 공간은 '쿨라'라고 불린다. '쿨라'는 여러 작가가 함께 머무르고 있지만 각자 개인 쿨라에 머무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공동 주방은 모든 식기류가 갖추어져 있고, 냉장고에는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다이닝 룸은 때론 개별적인 독서 공간이 되었다가 저녁 시간에는 파티 공간이 된다. 작가들은 다이닝 룸 뿐만 아니라 쿨라의 앞 뜰과 뒤 뜰, 오디시 공연장 곳곳에서 독서하고 사색하며 창작에 집중할 수 있다.

작가가 머무는 쿨라는 휴식과 작업에 최적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더블 침대와 책상, 깨끗한 욕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무엇보다 상암하우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인테리어도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고 로컬 주민들이 상주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부탁하면 된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벵가루루로 가거나, 다른 도시로 간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는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택시를 예약해 준다. 택시비용은 많이 비싼 편이다. 인근 마을에 갈 때는 오토릭샤나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한다.

내가 상암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영국인 작가 출신 Giles와 프랑스 음악가 Pascal 두 명의 매니저가 함께 상암하우스에 머무르며 작가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체류 기간 상반기에는 Giles과 하반기에는 Pascal과 지냈다. 아쉽게도 상암하우스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Arisha Sattar, DW Gibson, Rahul Soni는 만나보지 못 했다. 이들은 벵갈루루에서 진행되는 워크샵이나 리딩 프로그램,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Giles과 Pascal의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두 매니저는, 각각 독특한 면을 지녔다. 내게 Giles은 따뜻하고 섬세한 엄마 같았고, Pascal은 부드럽지만 원칙을 중요시하는 면을 지닌 아빠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 주었다. 그들은 상암하우스에 온 작가들이 빨리 그곳에 적응하고, 다른 작가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워크샵, 리딩 프로그램, 기타 생필품 구입 및 생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충으로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인도 상암하우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작가들의 개인 집필활동에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 혹은 내부 행사조차도 작가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었다. 작가들에게 허용된 외부활동 시간은 4일 밤(외박 가능)이었으며, 작가들에게 집필활동에 집중하기를 격려하였다.

내가 머물던 기간 동안에는 외부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있어서 우리가 머물던 Nrityagram에서는 오디시 공연이 큰 규모로 열렸고, 세계 각지의 유명인사들과 인도 현지인들이 이곳을 방문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나는 공연이 있기까지 10일 동안 내 숙소 옆 공연장에서 매일 저녁 오디시 공연 연습을 관람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 파티, 새해 파티 등이 준비되어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이곳에 머무는 작가들의 체류기간은 서로 상이하였다. 내가 머무는 한 달 동안 12명의 작가들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 번의 낭독회를 가졌고, 나는 준비해 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나의

오페라를 소개할 수 있었다. 외국 작가들은 클래식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있는, 가벼우면서도 신화적인 내용의 나의 오페라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나는 나의 산문을 한국어로 낭독하였다. 영어로 짧게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 뒤 한국어로 읽어주었다. 외국작가들은 눈을 감고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감을 즐길 수 있었고, 우리는 다양한 언어가 연주하는 음악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다른 언어 음악을 나누는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공식적인 행사 외에, 나는 새로운 오페라 초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37쪽에 달하는 무거운 내용의 오페라 대본을 집중적으로 작업하였다. 더불어 나는 2개의 짧은 치료적 공연 대본을 완성하였다. 이 대본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그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성격을 지닌 공연 대본이었고, 2018년도 2월에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작은 무대에서 공연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치료의 일환으로 진행된 비공개 공연이었지만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그 외에도 나는 미리 준비해 간 인도 힌두 신화에 관련한 책을 읽고, 함피와 마이소루를 취재하면서 사원과 인도 고전과 현대 예술 작품 속에 깃든 힌두 신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현지인의 가이드로 인도인들의 삶 곳곳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일상 곳곳에 흡수되어 있는 영성의 세계에 큰 매력을 느꼈다. 신전으로 이어진 500개가 넘는 좁은 계단을 오르며, 인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외치는 주문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끄는 큰 힘이 되어줌을 알 수 있었다. 가끔 작가들과 힌두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다. 언어의 한계로 깊은 대화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맥락 속에서 힌두 신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신성-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존재를 하나가 아닌 다양한 분화된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의 생사가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서로 관계하는 신화 구조는 매우 고대적이면서 매우 현대적이었다. 예술의 치유성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 여러 힌두 신화 속 이야기들을 속에서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상암하우스에서의 생활은 매우 쾌적하다. 내가 머물던 12월~1월은 인도의 겨울로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를 생각하면 된다. 오전과 저녁에는 매우 쌀쌀해서 얇은 패딩을 준비하면 좋다. 하지만 낮에는 햇빛이 뜨겁지만 바람은 선선하다. 주로 긴팔과 긴바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작가들이나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긴 숄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편도, 오토릭샤로 10분, 자전거로 20분)에 가면 현지인이 입는 평상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 옷을 가져갈 수 없다면 여름 옷 몇 가지는 그곳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또 마을에는 큰 슈퍼가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두꺼운 옷 등 본격적인 쇼핑은 벵갈루루 도심에서 할 수 있다. 단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함과 택시 비용이 꽤 비싸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밤에는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모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모기약 등 모든 것이 상암하우스에 준비되어 있다.

인도의 전력은 220V로 한국 것과 동일하다. 다양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면 멀티탭을 가져가거나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 사용을 위한 로컬심은 공항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대신 인근 마을이나 벵갈루루 시내에 있는 통신사 airtel에 들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위치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암하우스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불통이 되는 경우가 몇 번 발생했다. 그럴 경우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매니저의 핸드폰 핫스팟을 이용해 급한 업무를 볼 수 있다. 프린터 출력은 상주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전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보기, 쇼핑, 공연 관람 등 생활의 모든 것을 그곳 상주 매니저와 상의할 수 있으며, 매우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

식사의 경우, 점심과 저녁은 상암하우스에서 제공된다. 점심은 오디시 무용수들이 머무는 숙소에 있는 다이닝 룸에서 하게 된다. 음식은 매우 깔끔하고 싱싱하고 다채롭다. 인도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상암하우스에서의 인도음식은 매우 잘 먹었으나, 외부로 나가 인도 음식을 먹게 되면 맞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저녁은 다이닝룸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쿨라로 배달되어 작가들끼리 식사를 한다. 매일 밤 작가들은 준비된 식사와 간단한 차나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아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식당에는 빵과 우유, 과일, 다양한 식재료들이 마련되어 있다.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나는 주로 마트나 마을에 가서 과일을 사다 먹었다. 이곳 음식은 모두 채식이기 때문에 육식을 원할 경우 별도로 마을에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에서 고기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체로 닭을 먹게 되는데, 마을에서는 생닭을 잡아야 해서 닭을 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 외에도 작가들은 각자가 준비해 온 향신료와 자국의 식재료를 갖고 요리를 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외국 작가들이 김치를 많이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벵가루루에 있는 한국 식당 해금강에서 김치와 깍두기를 사서 작가들과 오랫동안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지나고 보니 고추장을 이용해서 김치볶음이라도 해볼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한 끼 정도 외국 작가들을 위한 특별식 재료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벵갈루루에 한인타운이 있다. 나는 처음에는 몰랐고 인도를 떠날 즈음에 알아서 직접 가보지는 못 했다.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이 두 군데, 한국 음식점은 세 곳이 있다. 체류 말미에 오아시스 호텔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미리 알았다면 외국작가들에게 퓨전 한국요리가 아닌 전통 한국요리를 먹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컸다. 그리고 외국에 머무는 한국인들에 대한 현지 취재도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이 컸다. 어쨌든 현지 한국인 한두 명을 알아둔다면 벵갈루루에서의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의 경우 사업 선정이 늦게 되면서 본격적인 준비 기간이 많이 부족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생활 문화권의 작가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다. 그래도 매일 영어 공부도 하고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좀 더 여유롭게 준비했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않나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집중적인 창작 활동이 메인 활동이라 오히려 언어의 한계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에 의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 레지던스를 준비하는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오랜 시간 영어 실력을 쌓는데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 많은 작가들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고 있다. 언어가 부족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고, 레지던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작가들과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지던스 기간에 큰 해외교류에 대한 큰 성과를 내기보다 레지던스를 통해 해외교류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나의 경우 해외 레지던스 경험을 통해 오히려 본격적인 해외교류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언어 학습과 함께 해외 워크숍이나 콘퍼런스 참여에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부족하다고 움츠리기 보다는 부족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도전한다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막상 레지던스에 참여하고 보니, 다른 작가들에 비해 한국 작가들은 정부의 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한국 작가들에게 큰 자긍심이기도 하다. 국고를 통한 지원으로 값진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다만, 체류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 제약들이 있어서 체류비 사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좀 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적극적 지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외 레지던스는 보다 많은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작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취재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작가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창작의 바탕이 되며 그곳에서 창작의 씨앗이 자란다.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취재보다는 폭넓게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기관에서의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을 경우 그곳 거주 한국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생필품을 구입하는 문제뿐 아니라 해외 거주할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언어소통이 원활한 현지 한국인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뒤늦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능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 식당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등 현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나는 해외 레지던스가 집중적 창작 작업과 해외 작가와의 교류, 그리고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회적인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외국 작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 레지던스가 끝난 후 끊임없는 교류를 제안하고 싶다. 왓츠앱과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추천한다.

인도 상암하우스는 작가가 집중적인 창작을 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작가는 집필에 집중할 수 있다. 집중적인 집필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암하우스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다만, 작가들마다 체류기간이 다르다 보니 많은 외국작가들이 들고 난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작가들과 인사하고 교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토론 시간은 작가 성향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는 오전 오후에 작업에 집중하고 저녁은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여러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하였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JAI SHRI HANUMA

India

CHAPTER 19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프로그램명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국가	인도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1개월
작가명	박진희

레지던스 기관 소개

인도 상암 하우스(Sangam House)에서 진행된 기획형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인도의 인코 센터(InKo Center)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류사업의 일환이다. 상암 하우스는 인코센터를 통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문화 단체이면서 매년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3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상암하우스는 뱅갈루루에서 약 3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Nrityagram 내에 있다. Nrityagram은 인도에서 유명한 전통 댄스 오디시(Odissi) 댄스 스쿨이 있는 마을 공동체이다. 이곳은 20년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레지던스 기간 중 오디시 댄스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암하우스의 숙소는 이 댄스 스쿨이 있는 지역 마을 내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쿨라(Kula)라고 불린다. 상암하우스에서 참여하는 모든 작가들은 이 Kula에 묵게 된다. 쿨라는 작가들이 머무를 수 있는 9개의 방이 있고, 공동 주방이 있다. 오디시 댄스 스쿨이 있는 Nrityagram은 기본적으로 모든 곳이 공연장 혹은 연습장이고, 모든 곳이 잔디밭이자, 울창한 나무로 둘러쌓인 공간이다. 마을 공동체 밖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바나나 밭과, 공동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작가들이 머무르는 쿨라의 자연 환경은 흡사 요새에 둘러 쌓인 느낌이다. 여러 작가가 함께 머무르고 있지만 각자 개인 쿨라에 머무르기 때문에 개인생활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확실하다. 공동 주방은 모든 식기류가 갖추어져 있고, 냉장고에는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다이닝 룸은 때론 개별적인 독서 공간이 되었다가 저녁 시간에는 파티 공간이 된다.

작가가 머무르는 쿨라는 휴식과 작업에 최적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더블 침대와 책상, 깨끗한 욕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또한 도우미의 역할을 해주는 로컬 주민들이 상주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부

탁하면 된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뱅갈루루로 가거나, 기타 다른 도시로 간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물가를 생각한다면 교통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택시를 이용해 뱅갈루루로 가는 편도 비용은 대략 한화 8,9만원 선이다. 여행자라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하지만 처음 상암하우스에 들어갈 때와 레지던스를 끝내고 나갈 때는 기관에서 전용 택시를 이용해 뱅갈루루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함께 워크샵에 가거나,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 역시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상암하우스에 간다면 Arshia Sattar, DW Gibson, Rahul Soni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상암하우스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Arshia와 DW는 레지던스 참여 작가들에게 대모의 역할을 해준다. 뱅갈루루에서 진행되는 워크샵이나 리딩 프로그램,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그리고 Rahul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프로그램 담당자이다. Rahul은 3개월간 진행되는 상암하우스의 레지던스 기간 중 작가들과 함께 쿨라에 머물면서 실무를 담당한다. 또 처음 상암하우스에 온 작가들이 빨리 그곳에 적응하고, 다른 작가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워크샵, 리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충으로 힘들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인도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처음 상암하우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리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낯선 환경과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까닭에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Rahul이 진행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의문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 그 덕분에 즐겁에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인도 상암하우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작가들의 개인적인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거기에서 3개월간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작가가 머무르는 시기에 맞추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관심있는 프로그램에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참석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2016년도 1월에 상암하우스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기간은 뱅갈루루에서 'Lekhana'라고 하는 리딩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던 시기이다. Lekhana는 '읽기'라는 인도 지역 언어이다. 올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번역'이 주된 키워드가 되었다. 영화, 소설, 동화책 작가들이 모여 번역 문학의 한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 내가 참석한 것은 그 중 인도의 신인 작가들을 초대해 발간되었거나 혹은 준비 중인 작품을 작가가 낭독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와 함께 레지던스 기간 중에 머물렀던 젊은 작가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도 함께 참석해서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으로 지역 작가들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거나 Arshia Sattar가 주최한 리딩 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이러한 행사 외에도 상암하우스에 머물게 되면 매일 밤이 낭독회가 된다. 또한 매일 점심 시간은 각 나라별로 문학의 특이성에 관해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상암하우스는 함께 머무르는 작가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참석 외에도 단편 소설을 쓰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희곡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썼던 경험에서 좀 더 확장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 상암하우스이다. 내가 머무르고 있었을 당시에는 인도, 영국, 코펜하겐, 미국 작가가 머무르고 있었다. Rahul의 주도아래 저녁 시간 후, 함께 작업하고 있는 작품에 관해 각자 소개를 하거나, 자신이 작업했던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나는 미리 번역해 간 희곡을 작가들과 함께 배역을 나누어 낭독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내가 시나리오를 썼던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가들끼리의 네트워킹이 가능했던 거 같다. 이곳에서는 아침과 오후는 철저히 개별적인 작업시간이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지 않다면 모든 작가들이 자신의 방에서 작업을 한다. 누군가는 작업을, 누군가는 마당에서 독서를 하거나, 누군가는 오디시 댄스를 관람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가들은 자신의 패턴에 맞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나는 그곳에서 만난 인도 작가 Saskya jain과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후를 즐겼다. 우리는 점심 시간 후에 항상 함께 산책을 했다. 공동체 마을 주변을 걸으면서 수많은 질문을 서로에게 던졌다. 소설쓰기가 처음인 나에게 Saskya는 실력 있는 신인 작가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Saskya jain이 한국과 인도의 교류 사업을 통해 토지문학관에 왔을 때 가이드를 자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상암하우스에서는 모든 것이 자율적이다. 워크샵 참석, 저녁 식사 후 함께 보내는 시간, 개별적인 작업 시간 등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작가의 의지에 일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원하는 작업 방향을 실천하기에 좋은 레지던스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새로운 작품에 대한 도전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 세계의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레지던스에 참석하였고 상암하우스는 그러한 목표를 실천하기에 최적화 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상암하우스는 오디시 댄스 스쿨이 있는 공동체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해놓은 생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정해진 규칙은 식사 시간, 댄스 수업 시간을 참관할 때의 에티켓, 금연 등이다. 크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들은 아니다. 개인이 머무르는 쿨라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공동주방의 사용은 아침 시간과 매주 월요일이다. 점심시간은 오디시 댄스 스쿨의 선생님, 학생들, 외부 관람객들과 함께 한다. 인도에서는 '그루'라고 불리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경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오디시 댄스 스쿨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친절하고, 새로운 작가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파티를 하거나, 함께 낭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저녁은 댄스 스쿨 스태프들이 미리 준비해 둔 음식을 상암하우스에서 작가들끼리 먹게 된다. 점심과 저녁은 상암하우스의 모든 작가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먹어야 한다. 하지만 아침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각자 아침을 준비해서 공동 주방에서 식사를 한다. 공동 주방의 냉장고에는 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가득하다. 그리고 청소와 빨래, 주방 일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아침 시간에 작가들을 도와준다. 그들과 잘 지낸다면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프렌치 토스트와 맛있는 짜이를 얻어 먹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이곳의 모든 스태프가 쉬는 날이다. 따라서 세 끼니를 작가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원하는 식재료를 냉장고에 준비해 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장을 보아야 한다. 또 작가들끼리 돌아가면서 음식을 서로에게 대접하기도 한다. 월요일은 대체적으로 각자 나라에서 준비해온 식재료나, 자신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가 된다. 한국의 라면도 그곳에서는 멋진 요리가 될 수 있다.

인도의 문화에 익숙지 않거나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곳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오디시 댄스를 연구하거나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 다녀가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스텝들 모두 외국인에게 익숙하고 친절하다. 또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도의 상암하우스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짧지만 많은 작가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개인적인 집필 활동이 주가 되는 레지던스과 비교하자면 인도의 상암하우스는 집필활동과 네트워킹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거기에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한몫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많은 만큼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성취감이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상암하우스는 공동체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주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의무감을 느끼는 저녁 토론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물론 참석하는 것은 작가의 자유이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어울려서 영화를 보거나 낭독을 듣거나, 각 나라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작가에게 큰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좀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준비했다면 더 큰 성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름 인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고, 워크샵에 대해서는 내 것을 준비하기에 바빴던 탓에 상암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 레지던스가 시작되기 전에 상암하우스에서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작가들의 소개와 개인 연락처를 공유한다. 또 참여 작가에서 지금은 봉사자로써 스태프 역할을 하는 작가들이 친절히 안내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전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본다면 상암하우스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작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작품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 작가들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쭈뼛거리기 마련이다. 또 우리는 영어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준비해준 작가 키트 외에도 대표적인 작품들을 갈무리한 것을 번역해서 가거나, 내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작가가 참여하는 레지던스는 1개월이지만 상암하우스에서는 총 3개월 간 레지던스가 진행된다. 미리 정보를 체크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워크샵이나 낭독회가 있다면 사전에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참석할 수 있다. 또 레지던스 기간 중에는 뱅갈루루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문학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에 좀 더 부지런히 프로그램을 찾아본다면 레지던스 전, 후에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THE SOUND



India

CHAPTER 19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프로그램명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국가	인도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1개월
작가명	서성란

레지던스 기관 소개

인도 뱅갈로르 느리타그람에 위치한 레지던시 하우스는 십여 개의 작가 작업실(침대와 책상, 욕실이 있음)이 있고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할 당시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작가와 1개월 체류하는 작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느리타그람 주민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으며 소규모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뱅갈로르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없으며 시내에 가려면 오토릭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비용 발생)

레지던지 프로그램 매니저인 인도 시인이 참여 작가들의 일정을 체크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레카나 축제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1월 중순에 레카나 축제가 열렸고 레지던스 참여 작가들은 낭독회와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영역된 제 소설을 낭독하고 작품의 배경과 주제 등에 대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규모 낭독회를 열었고 일상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 함께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작가들과 배낭여행을 했으며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장편소설 『풍년식당 레시피』(이리 출판사), 2015년 5월에 창작집 『침대 없는 여자』(실천문학사), 2016년 11월에 장편소설 『쓰엉』(산지니 출판사)을 출간하였으며 2016년에 서라벌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도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배낭여행을 하면서 구상한 소설을 내년에 출간할 계획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행사가 없는 날에는 작가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이 없고 인도는 날씨가 따듯하기 때문에 작품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식사는 자유롭게 개인이 주방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토스트와 과일 등) 점심식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먹습니다. 저녁식사는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먹습니다. 재료는 갖추어져 있지만 모두 현지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나 시장이 멀어서 쇼핑은 쉽지 않습니다.

인도 음식은 향이 강하지만 밥과 카레 등은 한국인에게도 익숙해서 식생활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레지던스 하우스에는 인도 작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 등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세계 각 나라의 작가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 영국, 덴마크, 독일, 미국, 인도 작가들에게 예술위에서 영역해준 저의 소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과 매니저, 숙소 도우미, 인근 주민 등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Iran

CHAPTER 20

이란 주이란 한국대사관

프로그램명	주이란한국대사관
국가	이란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9. 4 ~ 2017. 12. 2
작가명	최창근

레지던스 기관 소개

이란은 한국에게 낯선 나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그 나라의 대학과 연계되어 레지던스가 진행되는데 이란은 아직 테헤란대학이나 여타의 대학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현지에 있는 한국대사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레지던스가 마련되고 있다.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중에서 스웨덴과 이란이 유일하게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참가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가령 숙소를 구하는 문제나 현지에서 하게 되어있는 한국 강연행사를 두 번 섭외하는 문제들을 작가가 알아서 다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물론 강연 같은 경우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과 그와 연계돼 있는 세종학당에서 하면 되는데 다양한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대사관과 세종학당 외에도 참가자가 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생겼으면 좋겠다. 본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테헤란대학교 동양외국어문학부의 최인화 교수와 접촉을 시도해서 그곳에서 한 번의 강연을 더 진행했는데 앞으로 참가하는 작가들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본다. 테헤란대학교의 경우 동양외국어문학부에 중국문학부와 일본문학부는 있지만 한국문학부는 없다. 다행히 동양외국어문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 최인화 선생님 덕분에 그나마 이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란의 교민사회가 궁금해서 테헤란 한인회를 통해 소개받은 분들과 세종학당에 파견 나온 선생님들을 통해 현지 체류를 위한 생활정보나 창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작품을 쓰기 위한 자료수집과 현지 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코디네이터를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명 두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엔 따로 가이드를 두어 그 가이드들을 코디네이터로 활용했다.

실제로 지방이나 시골 같은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품 취재를 위한 장소 이동방법이나 해당 장소의 안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문 가이드들이 필요했고 그러한 가이드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다. 한마디로 이래저래 발품을 많이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이란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옛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신화가 던지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관심이 갔다. 그러던 차에 2014년 겨울에 동료 연극인들과 이란 테헤란에서 열렸던 파지르 국제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하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란이 시의 나라, 문학의 나라임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희곡을 써오다가 최근에는 시를 병행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 한국을 연결하는 시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희곡 한 편을 구상하게 됐다. 그것이 <석류의 계절>이다. 이 희곡은 현지 자료조사와 취재를 같이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란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레지던스 기간을 잘 활용해서 작품 창작에 필요한 글감들을 최대한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완성했다.

체류기간 동안 이란의 옛 유적지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파한이나 쉬라즈, 가즈빈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고향 야즈드, 전통 페르시안 가옥이 유명한 카샨, 세계적인 바자르가 있는 타브리즈, 엘람왕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사와 슈시타르, 역대 왕조의 여름 수도였던 하마단 같은 곳을 부지런히 답사했다.

그리고 테헤란 안에 있는 각종 왕궁들과 박물관, 사원,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희곡 창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리서치 하는 일련의 작업을 시도했다. 이란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과 연계해서 이란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해보는 일을 알아보았고 국제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와 이란의 연극 교류에 대해서도 협의해보았다.

이란에서는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연극 공연을 만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도움을 줬던 시인들과 이란의 대학생들 그리고 현지의 연극배우들과 공연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최대한 활용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더 컸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들은 가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국과 이란

의 문화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세종학당과 한국대사관, 테헤란 대학교에서 마련했던 세 번의 강연 외에도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힘이 닿는 한 교류하고 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

테헤란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가던 곳은 <예술가의 집(Artist's Forum)>이었다. 그곳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과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이 있고 미술과 사진 관련 전시회가 수시로 열린다. 그 모든 행사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전시회 오프닝에도 여러 번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났던 이란의 열정적인 예술가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동안 한국문학번역원 담당자들이 김선우, 문태준 시인과 함께 이슬람문화예술원(Hozh Honari)을 방문해서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테헤란대학교에서 열렸던 낭독회에도 같이 참여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양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들의 시들이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다.

문학 분야의 교류가 막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란은 호텔이나 거리, 지하철역 등에 유명한 시인들의 이름을 갖다 붙일 만큼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의 나라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중세 시인들의 시가 실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시들을 암송할 만큼 열렬한 독자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유명 시인들의 무덤은 관광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시가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국가이다. 시인들에게는 축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하기에 문학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많은 셈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이란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치안도 잘 되어 있고 이동하기도 편하게 교통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물가도 싸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테헤란의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졌다. 특히 먹는 음식보다는 괜찮은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현지 교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은 하루 숙박비가 한화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여서 엄두를 못 냈고 그나마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일반적인 모텔이나 여관 수준의 호텔들도 5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 했으면 식비를 아껴서 숙박비에 보태야 할 정도로 좋은 숙소를 구하는 게 어려웠다. 하물며 작품을 쓸 만한 조용한 환경을 갖춘 저렴한 호텔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 역시 발품을 많이 팔아야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숙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혹시 몰라 개인적으로 가져간 비상금이 유용하게 쓰였다.

이란은 요즘 한국사회에서 주로 회자되는 애도와 환대의 문화의 본산지이다. 이란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개념과 다르다. 나는 서양의 달력 시간으로 9월 초에 테헤란에 도착했는데 이란력으로는 아마 6월 중순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은 2017년이었지만 이란은 1396년이었다. 날이 더워서 테헤란에 일주일간

있다가 곧바로 이란의 북쪽인 카스피 해 연안으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순교 주간인 모하람 기간을 맞았다.

처음 순교자들의 순교를 추모하는 아슈라를 경험한 것은 바위산의 동굴집 마을인 칸도반이었다. 그 후로 타브리즈와 테헤란, 이스파한과 야즈드, 슈스타르 등지에서 슬픔의 축제를 목격했고 그 성스러운 추모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모하람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란의 영혼의 수도인 마샤드와 꼼의 모스크에서 이맘 레자의 순교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평소에 쓰고 있는 희곡에도 슬픔의 정서가 묻어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란인들이 품고 있는 슬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온 인류의 가슴을 젖게 하는 이 오래된 슬픔의 기원은 무엇일까.

한국은 예로부터 '한(恨)'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되어 왔다. 아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 지독한 슬픔의 정서는 한국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는 극진한 감정이다. 비록 지금은 '신명'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인이 품고 있는 상반된 감정인 '흥'이 더 자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정화시켜주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란은 여러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낯선 이국의 생활에 지칠 때마다 나를 자주 울컥하게 만든 또 하나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였다. 실제로 이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호텔보다는 홈스테이를 선택해서 지내는 날들이 많았고 현지인들의 집에서 묵기도 했다. 덕분에 아르다빌과 카라지, 쉬라즈, 케심 섬에서는 이란 사람들의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길을 물어도 그냥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꼭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착하고 선한 마음씨에 감동받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늘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천사 같은 아름다움에 위로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면 동네 사람 전부를 불러서 음식을 나눠먹고 심지어 길 가던 나그네도 불러서 먹이고 재워주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가까운 이웃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훈훈한 미덕이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난 후유증 탓인지 그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이란엔 아직까지 그러한 미풍양속이 남아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문학과 연극을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예술인들은 국적과 인종, 언어와 종교를 초월해서 한 식구와 같다. 세계의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서 투쟁한다. 그것이 바로 신의 이름으로 올리

는 간절한 기도이자 온 인류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거대한 몸짓이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는 우주의 합창이다. 또한 피 흘리지 않는 화해의 혁명이다.

진흙의 도시 야즈드에서는 돌라터버드 정원(Dowlatabad Garden)에서 세히드 연극 그룹(Shid theatre group)이 올렸던 페르도시(Ferdosi)의 대서사시 [샤흐나메 Shahnameh]의 한 부분인 <시아바쉬 Siavash>를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페르도시는 하페즈와 사디, 몰라비(루미) 그리고 오마르 하이얌들과 함께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시인들이다. 그런가하면 모하람(Moharram) 기간 동안 이맘 후세인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을 동네의 공원이나 사원 안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연극이 생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호흡하고 같이 숨을 쉬는 경우였다.

나의 경우 평소부터 신화에 관심이 많았고 가족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주로 써 왔지만 현재 이란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삼십대와 사십대의 젊은 극작가들과 연출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아주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뛰어난 작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여전히 검열이 존재해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란의 문화 수준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통할 만큼 높다고 해야겠다. 3년 전 겨울 파지르 국제공연예술축제에 참가했을 때 보름 동안의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한국의 대학로에 해당하는 테헤란대학 근처의 발리아스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시립극장 야외무대에서는 거리공연들이 날마다 열렸던 것을 기억한다. 시내에 흩어져있는 극장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2세>나 <맥베스>, 몰리에르의 <강요된 결혼>,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 로르까의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과 <예르마>, 까뮈의 <깔리큘라>, 브레히트의 <억척어멈> 같은 고전들과 마틴 맥도나의 <필로우맨> 같은 수준 높은 공연들이 올라갔었다. 그리고 근처 국립극장 안에서 열렸던 폐막식은 거기에 참가했던 문화예술인들과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손님을 지극하게 맞이하는 이란인의 뜨거운 환대와 사랑을 받고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기리는 아슈라(Ashura)의 슬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어느새 이란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란은 한국과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이라크와의 전쟁도 겪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애도와 환대의 문화를 갖고 있다. 옛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관용과 포용의 문화에 이슬람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이 더해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역사와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온 지혜로운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란은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나라다. 현지인들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불가능하다. 카드 사용 자체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처음부터 지원금을 전부 미국 달러로 바꿔가서 현지에서 다시 이란 화폐인 리알로 환전해야 한다. 돈 간수를 잘 해야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이란인들이 믿음이 깊고 순박해서 도난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또 하나 영수증 발급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비를 하루하루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점은 특별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책 마련을 시급히 세워주기를 바란다.

Iran

CHAPTER 20

이란 주이란 한국대사관

프로그램명	주이란한국대사관
국가	이란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10. 31 ~ 2016. 1. 29
작가명	윤순례

레지던스 기관 소개

테헤란 시내에 있는 한국대사관(No. 2, West Daneshvar St, Sheikhbahai Ave, Vanak Sq, Tehran, Iran (11155-3581))과 세종학당 강의실에서 세 차례의 한국문학 강연을 했습니다.

주이란한국대사관에는 이백 여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시청각 홀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글학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한국대사관 문화홍보부장인 오성호 선생님 (이메일: shoh15@mofa.go.kr, T: 0912-435-9158)과 세종학당장인 최연숙 선생님께서 한국대사관에서의 강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한국문학강연 행사 안내장 발송 및 행사에 필요한 시설(PPT 자료) 준비 등등.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1. 이란의 고대 역사 도시 탐방 및 취재
2. 한국문학 강연
3. 이란의 소설가 인터뷰 및 이스파한에 거주하는 소설가 모임 탐방 및 취재

한국문학 강연

1,2차 : 2015년 11월 15일. 2015년 11월 16일.

강연제목 : 영원한 디아스포라, 전지구적 자본주의 현실에서 낙원은 어디인가?

이란어로 번역된 윤순례 단편소설 <공중 그늘 집>을 중심으로

장소 : 테헤란 세종학당

대상 : 테헤란 세종학당 학생들.

3차 : 2015년 11월 18일

제목 : 세계화에 따른 디아스포라 시대, 개인의 불안과 불안정성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윤순례 단편소설<북화의 백한 번째 생일을 위하여>를 중심으로

장소 : 주이란한국대사관

대상 : 한국의 문화와 한글에 관심이 많은 이란 세종학당 학생들과 테헤란에 거주하는 주재원 가족 및 한국 교민들.

이란의 소설가 인터뷰 및 소설가 모임 현장 탐방 및 취재

1. 2015년 12월 30일, 파라바 바피 인터뷰, 테헤란 샤리아티 북시티
2. 2016년 1월 16일, 나힛 타밧타바이 인터뷰, 테헤란 샤리아티 북서점
3. 2016년 1월 18일, 이스파한에 거주하는 소설가들의 문학 모임 탐방 및 취재. 이스파한 자얀데루드 잡지사

이란 해외 레지던스 사업 수행 후 한국문학 강연 자료였던 두 작품(단편 소설<북화의 백한 번째 생일을 위하여>와 <공중 그늘 집>)을 수록한창작집 <<공중 그늘 집>>을 2015년 6월 중순 경에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출간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테헤란에는 약 2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재원과 가족들, 유학생, 사업자, 이란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과 자녀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란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한국 여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테헤란에 서너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인 남편을 둔 한국 여성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갔다가 그들을 만나 얻은 정보입니다. 파견작가가 숙박할 경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 값은 국내 장급 여관 두 배가 넘었습니다. (장기숙박의 경우 할인해 줄 수 있다고 들었지요.)

이름난 6대 도시(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카산, 마쉬아드, 타브리즈) 등을 제외하면 외국 여행자는 극히 드

물어서, 이란에서는 현지인의 호기심과 환대가 극진합니다. 또한 이란에는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길가다 만난 이도 집으로 초대해서 조건 없이 잠자리를 마련해주지요. 사람들도 퍽 친절합니다. 지나친 호기심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질상 여행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리샤푸르에서는 바자르에 산책을 나온 니샤푸르 대학교 생태학 교수(21살 짜리 큰딸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과 고학년인 딸, 우즈베키스탄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를 우연히 만나 그의 집에서 2박 3일을 머물렀지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이틀 간 리샤푸르 곳곳을 여행했고, 근방에 사는 그의 노모집에도 초대되었습니다. 라쉬트, 타브리즈, 이스파한, 슈슈 등지에서도 현지인의 집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이란은 산유국이기에 시외버스 비용이 저렴합니다. 열 시간 넘게 달리는 VIP버스는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밤에 잠도 잘 수 있는 슬리핑 버스인 셈이지요. 취침시에는 좌석을 침대로 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리는 버스 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창 밖으로 낯선 여행지의 풍광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휴게소마다 기도실이 있어 이란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차로 돌아옵니다. 이슬람교인이 아닌 저는 휴게소를 돌며 홍차를 (이란의 홍차는 정말로 맛이 좋고 우리돈 천 원 정도입니다) 사 마시며 느긋하게 놀다가 차 안으로 들어오지요. 이란 어디에서든 여성은 히잡을 착용해야 하고, 상의는 반드시 엉덩이를 덮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종아리를 내놓아도 안 되고요.

5성급 정도의 호텔 가격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야즈드와 카산의 올드시티 내의 호텔의(예전 실크로드 상인들이 묵었던 정원이 있는 멋스러운 형태의 숙박 시설) 하루 방 값은 30달러입니다. 야즈드의 '실크로드'는 해외 여행자가 많이 찾는 호텔로 유명합니다. 지하에 6달러 정도인 도미토리도 있어 늦은밤에 찾아드는 가난한 여행자도 있습니다. 아침은 무료(뷔페식인데 알차고 훌륭합니다)이고, 저녁이면 낯선 여행자들끼리 정원의 평상이나 레스토랑에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는 이곳에서 6일을 머물며 테헤란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고, 역사 장편소설 집필을 위해 필요한 실크로드 도시들에 대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국내 장급 수준의 모텔은 우리 돈으로 4,5만 원 정도인데, 평일에는 값을 깎을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가서 빈방이 많으면 (또한 삼사 일 넘게 투숙하는 조건으로) 많은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스파한은 세계적인 여행지라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맘광장 주변으로 화려한 바자르와, 페르시아식 실내 정원을 가진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넘쳐납니다. 물줄기가 솟구치는 정중앙의 분수를 중심으로 빙 둘려가며 놓여진 탁자에 앉아 양갈비 케밥과 차를 마시며 물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섞여 놀다 보면 시간은 물처럼, 연기처럼 흘러갑니다.(이스파한에도 물담배 피우는 카페에 여자는 출입금지인 곳이 많습니다. 걸리면 벌금을 문다고 아내는 통에 몇 모금 빨지도 못한 복숭아향 물담배를 두고나온 적도 있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맞댄 타브리즈는 눈이 많이 오고 유독 추웠습니다. 테헤란에서 버스를 타고 열 시간 가까이 달려갈 때는 낮이었는데, 차창 밖 양옆으로 황홀할 만큼 기이한 바위들이 펼쳐져 있는 사막 속이었습니다. 타브리즈의 나이든 사람들은 파르시(이란 말)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심한 사투리라 어린 손자들은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타브리즈 역시 카펫이 유명하고 오래되고 유명한 바자르가 많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히잡이 벗겨지면 운전기사가 히잡을 제대로 쓰라는 제스처를 해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뒷자리에 앉은 나를 돌아보며 히집이 흘러내렸다고, 경찰이 보면 잡아간다고 말한 적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밖에 종교 경찰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초가잔빌을 함께 다녀온, 수사 역사 박물관 직원의 말로는 종교 경찰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로 위에 숨듯이 서서 차 안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란은 옛 페르시아 제국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지요. 문화와 예술과 역사가 깊고 찬란하며, 한반도 7배인 면적 곳곳에 기원적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징기스칸에 의해 폐허가 된 리샤푸르의 지하도시에 가면 그 시절 사용했던 도자기의 파편들이 여전히 뒹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에서는 몽고족의 지배기간 동안 문학이 융성해져, 루미와 사디, 하페즈 등의 국민시인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하페즈는 아랍 점령기에 시를 통해 페르시아어의 부활을 도모한 페르도시와 더불어 시의 거장으로 추앙되고 있지요.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브리즈,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케르만샤, 아프카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리샤푸르, 카리브해 등지의 라쉬트,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야즈드, 선사시대 엘람 왕국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아와즈 등등은, 같고도 다른 각각의 고유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일일이 헤아리기에는 손가락이 모자를 만큼 많은 이란 향신료들의 색감과 냄새와 맛의 다양성과 같다고나 할까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시외버스에 올라 몇몇 시간 사막을 달려가 맛보는 풍경들은 백문이불여일견!

2014년도에 한민족문학회 교수님들과 터키 이스탄불대학 학술대회에 참여했을 때 한국외국어대학 이란어과 교수님에게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이란의 보고(寶庫)에 대해 들었습니다. 막연히 동경과 열망을 키우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에서 '이란 해외 레지던스'파견 작가를 뽑는 공고를 보았지요.

막막함과 설레임으로, 이란을 알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했습니다. 하페즈의 시집과 <<천일야화>>를 비롯하여, 이란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아는 데 도움받은 도서와 영화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도서

1.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 살림/ 유흥태
2. 아랍 단편 소설선/글누림/압둘 아지즈 가르몰 외
3. 천국 혹은 낙원의 길/휴먼 앤 북스/조용호 외
4. 오! 이런, 이란/휴머니스트/최승아
5. 알렉산더의 연인/샨샤 장편소설/ 현대문학
6. 이란의 검열과 사랑 이야기/ 샤리아르 만다니 푸르 장편소설/민음사
7. 눈먼 부엉이/ 샤데크 헤라이트 장편소설/ 문학과지성사
8. 이스파한에서의 하룻 저녁/세스 노티봄/문학세계사
9. 쿠쉬나메/이희수 엮음/청아출판사
10.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포루그 파로흐자드/문학의 숲
11. stay/아미르 하싼 채헬란 외/겔리온
12. 테헤란에서 롤리타를 읽다/ 아자르 나피시/한숲 출판사

영화

1. 씨만과 나데르의 별거/ 아쉬가르 파르하디
2. 클로즈업/얍바스 키아로스타미
3. 코뿔소의 계절/바흐만 고바디
4. 천국의 아이들/마지드 마지디
5.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얍바스 키아로스타미
6. 참새들의 합창/마지드 마지디
7. 조메/핫산 엑타파나
8. 텐/얍바스 키아로스타미
9. 천국의 미소/마지드 마지디
10. 올리브 나무 사이로/얍바스 키아로스타미
11. 체리향기/얍바스 키아로스타미
12. 오프 사이드/자파르 파나히
13.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바흐만 고바디
14. 거북이도 난다/바흐만 고바디
1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얍바스 키아로스타미
16. 거울/자파르 파나히
17. 페르세 폴리스/빈센트 파로노드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Iran

CHAPTER 20

이란 주이란 한국대사관

프로그램명	주이란한국대사관
국가	이란
참가연도	2015년
참가기간	2015. 3. 1 ~ 2015. 5. 31
작가명	박찬순

레지던스 기관 소개

초청 주체와 협력 기관 - 주 이란 한국 대사관

송웅엽 대사와 조태익 공사, 김중식 홍보관은 작가의 신변 안전을 비롯,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 특히 김 홍보관은 그 자신이 시인이므로 레지던스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깊어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 바로 전 해에 김 홍보관의 주도로 한국과 이란 시인협회 사이에 MOU 협정이 맺어진 덕분에 자연스럽게 시인협회 모임에 참가할 수 있었음.

코디네이터 – 송은희 씨

처음 실시되는 테헤란 레지던스인 데다 오랫동안 서방과 교류가 없었던 국가인 관계로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들어갔으나 오랜 기간 테헤란에서 거주해온 교민이자 코디네이터인 송은희 씨 댁에 숙소를 정하면서 현지 생활을 안정감 있게 시작할 수 있었음. 특히 그의 해박한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안목, 폭넓은 인맥은 이란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거주 공간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 조금의 불편함은 있었으나 이란인과 결혼한 가정이어서 다양한 현지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

거주 공간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 한 개, 옷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욕실과 거실은 공유하였음

도움 받은 인사들

테헤란대 외국어대학 최인화 교수는 테헤란대에서 필자가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한국문화 퀴즈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음.

그밖에 테헤란대학교 행정처의 마리암 파르스타바르 행정관, 국제협력처의 압돌마지드 에스칸다리 처장은 식목일, 오마르 하이얌 축제 등 학내 행사와 문학축제에 참여하도록 배려해 주어 다른 학내 인사들을 만날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특히 페르시아 문학과의 무스타파 무사비 교수는 세 명의 이란 현역 작가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었고 테헤란대학 문화센터 아르데쉬르 만수리 교수는 시인 사디 축제에 참관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문학 강의에 필자를 초대해 페르시아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 또한 테헤란대 행정처의 하디제 학사르, 자리 오베이시 행정관 등도 필자의 테헤란에서의 활동과 이란 사회의 문화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준 인사들임.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한국문학 강연

한글을 배우는 테헤란 세종학당 학생들에게 한국 소설에 관한 강연을 실시. '작가와 함께 떠나는 한국소설 여행.' 대사관에서 열린 이 강의에는 7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음. 피피티로 한국 소설을 시대별로 소개한 뒤 한국어를 2-3년간 배운 학생들에게 소설 한 문단씩 낭독하게 하여 한국소설의 글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

테헤란 대 강의

테헤란대 외국어대학 강의에서는 한국문학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뒤 한국의 유명 시 몇 편을 학생들이 한글로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음.(피피티로는 페르시아 어 번역본을 낭송자의 호흡에 맞춰 띄웠음) 높은 호응도로 보아 한국어 교육과정에 있는 테헤란대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예상외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테헤란에만 시 창작 모임인 이란 시인의 사회가 150여개나 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중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어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내왔음.

시인들과의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이란 시인의 사회에 참가해 중고등 학생들에서부터 기성시인들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인들에게 한국의 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음. 사이드 바게리 회장은 필자의 소설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를 자신이 페르시아어로 낭송해 소개하는 등,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음. 세대를 아우르는 이 폭발하는 시 창작 열기를 보면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역경을 마치 시로서 극복해 가려는 듯한 몸부림이 느껴졌다.

소설가들과의 만남

파리바 바피, 무스타파 마스투르, 마흐무드 돌라타바디, 등 현재 이란 작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이란 문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엄격한 검열이 있는 사회에서도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가고 있는 작가들의 고뇌를 들을 수 있었음.

시인 샤피에 교수와의 만남

마수메 아미리한루 교수의 주선으로 현대 최고의 이란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샤피에 카드카니 교수의 강의를 참관하고 면담. 한국과 이란문학의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그 이후 국내 출판된 페르시아 현대시집에 샤피에 교수의 시가 포함되었음.(최인화 번역 '백년의 시간, 천개의 꽃송이.')

대학 내 인사와의 교류

교직원 식목 행사에 참가했다가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매력이 엿보이는 여성 교직원을 만남.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꾼 한국의 식목문화 얘기를 해주다가 친하게 되었음.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란이어서인지 매우 진지하게 들었음. 나중에 알고 보니 경영대 학생처장 소헬리어 아스가리. 아스가리 처장 덕에 물이 매우 깨끗한 교직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 학생처가 운영하는 대학 구내식당을 매일같이 꼼꼼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경영대 구내식당은 덕분에 테헤란 대학 내에서도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했음.(테헤란 대학은 캠퍼스가 단과대 별로 분산돼 있음) 양고기 쿠비데(우리 떡갈비 같은) 맛이 어느 구내식당보다 좋았음.

문화계 인사와의 만남

북시티 회장 모함마드 카니 면담

카니 회장은 마스투르와의 면담 때 참관하여 보편적인 문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양국 문학 교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음. 일간지에 필자와 마스투르 작가와의 대담 소식을 기사로 소개함.

문예지 편집장과의 대담

이슬람 아자드 대학의 페르시아 문학과 마수메 아미리한루 교수의 소개로 전통 있는 이란 문예지 '부하라'편집장 알리 데흐바시 면담. 한국에 소개된 이란 현대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원고를 청탁받고 작성, 번역해 넘김

문학사학자와의 면담

문학사학자 하산 미라베디니와 만나 현대 페르시아 문학 경향과 여성작가들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이란 단편소설 80년사를 써서 서방에 이란 문학을 알린 평론가 겸 문학사학자. 베흐나즈 가스카리 여성 작가가 배석.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교민회의 도움

처음 가보는 이슬람 국가여서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출발하였으나 비교적 적응이 순조로웠던 것은 그곳에 교민회(이란 한국부인회, 회장 최정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자주 그들과 만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됨.

남녀유별의 문화

개방적인 우리 사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함. 예를 들어 이성과의 악수도 성적인 접촉으로 여겨지므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음식문화

양고기와 닭고기가 주 요리로 나오므로 채소가 부족할 수 있음. 평소에 청과물 상회에서 오이와 당근, 시금치, 토마토, 셀러리 등과 과일을 사서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음. 육식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목축이 발달돼 있어 유제품 값이 비교적 저렴함. 또한 석류를 발효시킨 석류청을 구매해 올리브에다 잘게 갈은 호두와 함께 버무려 먹으면 이란 음식의 풍미를 느낄 수 있음.

테헤란 대학과의 MOU 체결

이제는 이란에 대한 여러 경제적인 금지조치들이 해제되었으므로 숙소를 자유롭게 정해 현지인과의 접촉을 보다 폭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학교 주위에서 대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숙소를 대학 행정처에 부탁해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해 봄직함. 테헤란 대학과 예술위와의 MOU가 체결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협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지인의 가정을 방문해 풍습과 문화를 체험하기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가정에 초대도 받게 되었다. 음식문화, 거주문화를 알 수 있었고 대학원생의 고향이 있는 카스피해 부근 라히잔을 방문했을 때는 지방에는 아직도 어른을 존중하는 대가족제도가 건재한 것을 엿볼 수 있었고 지방의 결혼식 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카페트 위에 접시를 올리고 대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식사도중 시를 읊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출발 전 마음의 준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떠난다면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별 준비 없이 갔을 경우에도 낯설음에서 오는 놀라움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충격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준비가 불충분했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평소 다른 문화에 대한 애정과 예리한 시각만 벼려 놓았다면 별 준비 없이 가도 그 문화를 맛보고 즐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테헤란 레지던스라니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 이슬람 문화권이면서도 이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국가적으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술위원회에서 작가들에게 테헤란 레지던스의 문을 연 것은 대단한 발상이고 서로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었다고 생각됨. 다만 좀 더 작가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기본적으로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점에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란인들은 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이방인에 대한 배려와 환대라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상대의 태도에 따라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현재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 것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으로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만을 보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함.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등으로 이미 글로벌한 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방과 교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문화 수준도 높으므로 현재의 상태 그대로 그들을 재단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됨.

소통을 위한 언어 준비

이란 대학생들은 비교적 영어 실력이 좋음.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다 어릴 때부터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면서(어느 학생의 농담 섞인 해석) 부모가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덕분이라고 함. 이공계 학생들과 만나서도 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어까지는 준비가 되기 힘들겠지만 영어는 준비돼 있는 편이 편리하겠음. 그러나 만약에 영어가 여의치 않다 해도 평소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작가들이니 다소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얻을 것은 많을 것으로 생각됨. 영어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임. 현재 이란에는 우리가 세운 세종학당이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해서 사설 학원들도 난립할 정도이므로 아주 능숙하진 않다 해도 페 – 한 통역을 해줄 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음. 강의를 위해 통역이 필요할 때는 대사관에 부탁하면 한국어를 상당히 잘 하는 통역사를 구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아마도 비용을 본인

이 부담해야 할 듯. 실제로 어느 작가를 만나러 갔을 때 한-폐 통역사에게 두 시간 통역료를 지불했고 퍽 만족스러운 통역이었음.

우리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들

K-드라마나 K-팝으로 해서 이란 젊은이들은 우리 보다 더 국내 문화에 대해 해박할 수 있다. 필자도 이란 가정에 걸린 10대의 방에서 벽에 걸린 아이돌 그룹 엑소의 포스터를 발견하고 나의 무지함에 놀란 적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 아는 만큼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익히고 가는 것이 대화를 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란에는 페르시아 시대의 유명한 시인도 많고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과 이미 12-13세기부터 세계를 선도하던 과학자, 의학자, 철학자 들이 많다. 비즈니스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페르시아의 시를 인용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우리가 페르시아 문화를 거론하면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라며 반색을 한다. 현대에 들어 이슬람 문화를 강조하는 교육 탓에 자기 조상 문화를 얘기해 주는 외국인이 신기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한 젊은이들과 대화를 틀 때면 축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화젯거리다. 6대 0으로 자기들이 한국을 이긴 경기를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란 젊은이들은 단지 승부 보다는 알리 다에이 선수 같은 축구 영웅들이 자선사업에 열성인 점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듯함.

몸으로 부딪쳐야만 열리는 문

대사관의 도움도 많았지만 테헤란대학교 출입증을 받아내고 강의 기회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음. 그동안의 폐쇄적인 분위기 탓에 주위에서도 대학 안에 들어가 활동할 생각은 포기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직접 행정처를 방문해 교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행정관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음.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주선하는 학내 활동에 자주 참여하면서 학생처장, 페르시아 문학과 교수 등을 사귀어 점차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전화나 메일만 하고 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됨. 젊은 행정관 들이나 교수 등 만나는 인사들 모두 문화적인 교류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3개월의 체류로 큰 것을 바랄 수는 없으나 앞으로 테헤란 레지던스에 참여했던 작가들과 이란 문화에 관심있는 문화계 인사들과 페르시아 문학회를 만들어 서로 의견도 나누고 공부도 하면서 이란 작가들과의 교류를 도모해 보는 것은 어떨지 감히 제안해 보고 싶다.

신변 안전을 위해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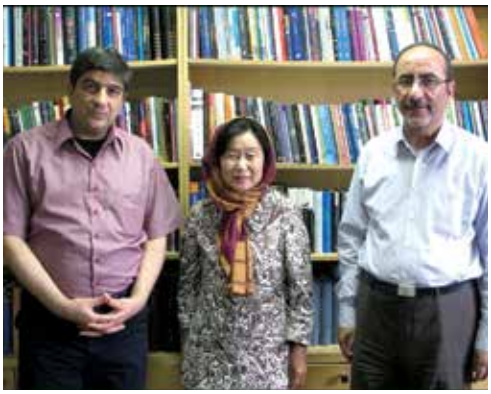
1. 이란 사회의 기본 질서 (여성의 경우 머리에 스카프 쓰기.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기)를 준수할 것
2. 금주의 국가이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삼갈 것
3. 경치 사진을 찍을 경우 표지판이나 공공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필 것. 외국 기자들이 종종 스파이로 오인되는 것은 사소한 사진 등 현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이라고 함.

4. 치안은 좋은 편이지만 어느 나라든 생계를 위한 좀도둑과 날치기는 있으므로 고가의 휴대폰을 자랑하듯 손에 들고 다니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음.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Korea

CHAPTER 21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프로그램명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국가 한국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8. 23 ~ 2017. 9. 20

작가명 오주영

레지던스 기관 소개

참가 레지던스의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소개

쇄빙선 아라온호의 규모는 전체 무게 7487t, 길이 109.5m, 너비 19m 최대 승선 인원 선원 포함 100명 이내입니다.

개인 생활 공간으로 선실이 제공됩니다. 저는 해외 과학자들과의 협업으로 선실이 꽉 차 다른 과학자와 2인실 공동 사용을 요청받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선실 안에서 작업하는 제 방식 때문에 2인실은 맞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선실 안에서 편히 쉬지 못했고, 나도 같은 방을 쓰는 과학자를 위해 하루의 절반 정도 외부 장소로 옮겨 다니며 글을 썼습니다. 작가와 과학자가 한 방에 묵으면 서로의 일과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양측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실을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동 생활 공간 중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콘퍼런스 룸, 도서관, 식당 등에서 조용한 시간에 글을 쓰면 좋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력인사가 수행했던 역할 등

이지영 홍보 팀장: 진영근 수석과학자와 김수관 총무 소개, 극지연구소 소개.

진영근 수석과학자: 책임자로의 역할.

김수관 총무: 항공편, 숙소, 이동, 스케줄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연락을 주고 작가의 문의 사항에 답을 주는 실질적 역할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창작 활동 및 에세이 쓰기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숙소

2인실 이층침대를 사용합니다. 파도가 치면 1층보다 2층이 더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 연장자가 아래층에서 잔다고 합니다. 나도 침대 1층을 썼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겸 샤워실이 딸려 있습니다. 옷장 둘, 착상 하나, 소파 하나가 있습니다. 따로 세탁실이 있으며, 세탁기에는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수건이 두 장 지급되고 화장실에는 샴푸, 비누, 휴지가 비치됩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사 및 간식

정해진 시간에 세 끼 식사가 지급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면 야식까지 나옵니다. 언제든지 과자를 꺼내 먹을 수 있는 간식 장이 식당에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습니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커피머신과 티 종류도 늘 떨어지지 않습니다. 3분 컵라면도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가 훌륭합니다.

해당 지역 유의점

배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므로 즐길 거리를 충분히 가져가면 좋습니다. 안에서는 대부분 반소매로 돌아다니므로 반소매 티셔츠를 몇 장 준비해가면 편리합니다. 그 위에 얇은 폴라폴리스 점퍼나 얇은 패딩 조끼 하나 걸쳐주면 배 안에서 생활하기 충분합니다. 갑판 위로 나갈 때는 두툼한 파카를 입고 미끄러짐에 대비해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안에 있는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멀미약을 준비해가도 좋습니다.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면 선내에 병원이 있어 멀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라온호는 과학자들이 극지방을 연구하기 위해 운항하는 배입니다. 극지방을 항해하는 짧은 기간 동안 모은 시료가 각 연구소가 향후 몇 년 동안 연구를 해나가는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아라온호를 운항하는 승조원들도 과학자만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과학자와 승조원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느라 바쁘게 움직일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때때로 이분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배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러닝머신, 자전거 등 체력단련기구와 탁구대가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면 아라온호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험

배는 몇 주 동안 쉼 없이 북극해를 항해합니다. 눈앞에는 바다뿐이고,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장소에 있지만 가장 좁은 장소에 갇혀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또 다른 감정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북극해의 바다색은 날씨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아침이 밝으면 반짝이는 바다 위로 낮게 무리 지어 날고 있는 바다제비를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주홍빛 노을이 오래도록 하늘에 번져 있고, 새벽녘에는 때때로 초록빛 오로라가 리본처럼 검은 하늘에 드리웁니다. 운이 좋으면 해빙 위에 누워있는 북극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새로운 경험은 우리 자신의 지평을 넓혀 창작의 자양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위해 준비할 세 가지

B1/B2 비자 발급

적어도 출발 한 달 전에는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해 통과해야 합니다. 총무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적힌 대로 작성해 신청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 인터뷰 날짜를 잡았고, 별문제 없이 바로 비자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극지연구소의 Travel Order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종합검진

지정병원(KMI 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수가는 25만 원입니다. 극지연구소 측에서 지정병원에 명단을 올린 뒤 확인되면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가 연락을 줍니다.

기초 안전 교육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한 수업입니다. 나는 부산 용담 캠퍼스에서 기초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숙소가 있어 예약할 수 있고, 용담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지 않고 인천에서 하는 기초 안전 교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극지에 가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치른다고 합니다. 기초 안전 교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총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교육을 받든 인천에서 교육을 받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인원만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출발 두 달 전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Korea

CHAPTER 21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프로그램명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국가	한국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8. 20 ~ 2016. 9. 23
작가명	김남중

레지던스 기관 소개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체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파견작가 1명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북극해 탐사에 동행하여 극지 체험,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승조원들의 선박운항, 각종 인터뷰 등을 취재하며 작품 창작에 필요한 경험과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진수한 아라온호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쇄빙연구선으로 길이 111미터, 배수량 7,487톤의 선체에 총인원 85명(연구원 60여명, 승조원 25명)이 탑승하여 1미터 두께의 해빙(海氷)을 시속 3노트로 연속 쇄빙할 수 있는 배입니다. 분야별 첨단 연구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거주 공간에는 도서관, 체육관, 사우나, 병원,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남북극의 악천후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아라온호의 북극해 탐사 기간 중에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7월에 출항한 아라온 호는 보름 정도를 항해하여 북극해에 들어갑니다. 항공편으로 이동한 1항차 연구원들은 베링해협에 있는 알래스카의 작은 도시 놈 (Nome), 혹은 북미대륙 최북단 마을 배로우(Barrow)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라온호에 탑승해 북극해를 탐사하며 분야별 연구를 하게 됩니다. 2~3주간의 탐사를 마치고 1항차 연구원들이 항공편으로 귀국하면 대기하고 있던 2항차 연구원들이 승선하여 2~3주간 또 다른 연구 활동을 합니다. 1,2항차의 탐사가 끝나고 연구원들이 모두 하선하여 항공편으로 귀국하면 아라온호는 한국을 향해 복귀 항로에 오릅니다.

파견작가는 일반적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2016년에는 2항차 연구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항공편으로 2박 3일 동안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경유해 알라스카 최북단 배로우(Barrow)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아라온호에 승선했습니다. 하선시에는 놈(Nome)에서 연구원들이 하선했는데 미리 신청한다면 연구원들과 헤어져 승조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라온호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극지에서 장기간 연구 활동을 하는 배이기 때문에 거주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견작가는 2인 1실의 선실을 혼자 사용했는데 욕실 겸 화장실, 이층 침대와 책상, 옷장, 텔레비전과 소파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가 제공되고 일반 상선보다 두세 배 정도의 식비가 책정되었다고 전해들은 말대로 메뉴의 구성과 양 모두 훌륭합니다. 킹크랩과 참스테이크, 등갈비, 연어회, 감자탕 등 메뉴가 생각납니다. 연구기간에는 심야에 야식이 제공되고 식사시간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식당에는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과 과일 등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음주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가끔 삼겹살이나 바비큐 파티에 1인당 맥주 한두 캔 정도가 제공됩니다.

승선 기간 동안 선내의 좁은 공간에서 운동부족이 되기 쉽기 때문에 탁구장과 러닝머신이 설치된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의 고정된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는 경험도 독특합니다.

도서관에는 최근의 베스트 셀러등이 갖춰져 있는데 한정된 공간 때문에 장서가 많지 않습니다. 장서 가운데 예전에 아라온호에 승선했던 작가들이 남겨둔 작품을 찾아서 읽는 재미도 있으니 파견작가라면 자기 작품을 준비했다가 몇 권 남겨 두고 와도 좋겠습니다.

바쁜 연구원, 승조원들이지만 파견작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파견작가를 위해 선내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전담 인원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다면 스스로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면 담당분야의 인력들이 기꺼이 도와줍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아라온호의 승선 일정은 두세 가지로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작가가 시간이 많고 선상체험을 오래 하고 싶다면 아라온호 출국, 항공편 귀국, 또는 항공편 출국, 아라온호 귀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국에서 귀국까지 40여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라온 호로 출국하여 귀국까지 하고 싶다면 일정이 두 달 정도로 늘어나는데 아라온호를 이용해 편도 또는 왕복으로 입출국을 하고 싶다면 극지연구소 측과 미리 일정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공편으로 출국하여 북극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라온호에 승선하고 항공편으로 귀국하는데

20여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공편 입출국 시에는 하와이와 앵커리지에서 각 1박씩을 하며 항공편이 오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하루씩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1일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주만의 전쟁기념관을 둘러보았고 앵커리지에서는 시티 투어와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북극해에 도착해 아라온호에 승선하면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일 년을 준비한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샘플도 채취해야 하기에 여러 분야의 실험 일정이 날짜별로, 혹은 시간별로 잡혀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소속도 다양해서 극지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국내외 각 대학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등 삼십 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각자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 일정이 시작되면 연구원들을 총괄하는 수석 과학자가 아라온호의 북극해 운항 항로를 계획하여 선장에게 요청합니다.

아라온호가 본격적으로 북극해로 출항하면 아침마다 연구원 전원이 참석하는 일일회의가 열려서 현재까지 연구 경과, 향후 계획, 점검 및 전달사항 등을 나눕니다. 다른 연구원들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야씩 자기 연구 분야와 실험과정을 소개하는 주제발표도 있습니다. 파견작가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짧게 문학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해 기간 내내 아라온호의 곳곳에 있는 연구실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각종 장비들이 순서대로 바다 속으로 투하됩니다. 해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미생물이나 어류를 채집하고, 풍선을 띄워 대기 변화를 관측하고, 에어건을 터뜨려 탄성파를 통해 해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성상의 해빙 분포와 실제 해빙분포를 분석하고, 해빙에 상륙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바다속에 설치했던 측정장비를 회수하여 지난 1년간의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분야별로 숨가쁜 일정이 진행됩니다. 승조원들은 연구원들에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걸음조차 조심스레 걸어 다닙니다.

긴장하고 바쁜 연구원들 사이에서 파견작가는 시간 많고 할 일이 딱히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연구원도 아니면서 매일 아침 아홉시에 열리는 일일회의에 참여하고 연구실마다 찾아다니며 현재 진행하는 실험과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승조원들을 만나고 브릿지나 기관실처럼 일반인이 좀처럼 찾아가기 힘든 곳도 들어가 봅니다.

북극해의 여름은 낮이 길기 때문에 9월초에는 새벽 네 시쯤 완전히 어두워지고 아침 여덟시쯤 창밖이 밝습니다. 그래도 자정이 지나면 몇몇 연구원들과 야간 당직 승조원들 말고는 모두 잠이 듭니다. 야간 작업을 좋아하는 작가라면 텅 빈 회의실이나 도서관 등을 찾아 글을 쓰기 좋은 시간입니다.

선내생활에 익숙해지면 선실 밖 북극해에도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2016년 아라온호는 러시아쪽 북극해역을 탐사했습니다. 북극해의 풍경은 다양해서 장판처럼 매끄러운 안개바다, 파도가 하얗게 뒤집어 지는 거친 바다, 부스러기 얼음이 떠있는 바다, 하얀 해빙이 끝없이 펼쳐진 설원 같은 바다 등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방한복을 단단히 차려입고 뱃머리에서 바다 구경만 해도 한두 시간이 쉽게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해빙지역 기상정보를 위성으로 받아보며 운항계획을 세우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러시아인 얼음 도선사(Ice Pilot) 두 명이 교대로 밤낮없이 근무하며 해빙지역의 운항을 이끕니다. 단단한 뱃머리에 거대한 얼음덩이가 부딪칠 때마다 선체가 쿵! 쿵! 울려대는데 그 소리를 밤낮없이 듣다보면 얼음소리를 듣고도 바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커다란 얼음덩이와 부딪칠 때는 배가 갸우뚱 흔들릴 때도 있어 놀라게 되지만 이 역시 곧 익숙해져서 얼음장 깨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북극해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해빙과 더불어 북극곰과 오로라를 들 수 있습니다. 야생의 북극곰, 육지가 아닌 해빙위의 북극곰을 보고 싶었는데 2016년의 1항차의 연구원들은 아쉽게도 북극곰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극지에서 북극곰과 조우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서 배 밖에서 연구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무장한 북극곰 감시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작가가 함께한 2항차에서는 운이 좋아서 북극곰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장소는 뜻밖에 얼음 하나 없는 푸른 바다였습니다. 육지에서 500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바다까지 먹잇감을 찾아 나온 북극곰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라온호가 북극곰 옆에 정선한 채 서로를 바라보던 30여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미터까지 북극곰에게 접근해 본 경험은 아라온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북극곰을 만나고 며칠 뒤에는 넓은 바다를 뒤덮은 고래 떼를 만났습니다. 넓게 퍼져 있는 고래 떼여서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눈 돌리는 곳마다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와 검은 등, 바다속으로 사라지는 꼬리와 솟구치는 상반신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원은 지금 나타난 고래가 동해상에서는 멸종된 귀신고래(Gray Whale)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래 떼는 아라온 호의 항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유영하면서 수평선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서너 시간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극해의 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새벽 늦게 잠이 들었는데 선내방송을 통해 '오로라 출현'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더니 하늘에서 커튼처럼 일렁이는 형광색 오로라가 한창이었습니다. 너무 그림 같아서 진짜 오로라를 보고 있는 건지, 컴퓨터 그래픽을 보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극곰과 오로라, 고래 떼와 해빙, 해무, 바다 무지개 등은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미지 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수십 년 간 배를 타온 선원들과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오십 대 선원의 추억담, 알래스카에서 어떻게 장을 봐야 한국 선원들 입맛을 맞춰 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주방장과의 장보기, 아라온호의 건조에서 운항까지의 산 증인이며 남북극을 여러 차례 다녀온 배테랑 장비 담당의 뒷이야기, 작가가 되고 싶다며 밤에 선실을 찾아온 젊은 선원과 나누었던 대화 등등,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문학작품 같았습니다.

북극해 탐사가 끝나고 알래스카 항구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는 연구원과 승조원간 탁구 대회가 열립니다. 넓은 헬리콥터 격납고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알래스카의

항구에서 내려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을 하고, 그 틈을 타 파견작가는 서너 시간 정도 놈(Nome)에 상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4인기준 왕복 1회에 $1,000이나 하는 통선 요금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네 명만 상륙할 수 있는 기회라서 상륙하고 싶은 승조원들이 많았을 텐데 파견작가에게 기회를 준 아라온호 측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20세기 초 알라스카 사금 열풍의 중심지인 놈에는 당시의 흔적을 증언하는 조형물들이 남아 있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개썰매 대회인 Iditarod의 결승문과 냉전시대를 증언하는 미군 방공기지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하선하면 아라온호는 채집한 샘플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귀항길에 오릅니다. 북태평양의 쿠릴 열도를 따라 남하하는 항로는 색다른 볼거리가 없어서 미뤄두었던 작업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선내 곳곳에 비치된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보며 하루하루 한국과 가까워지는 거리를 계산하다보면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큰 지구의 남북단을 일 년에 한 번씩 왕복하는 아라온호의 노고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는 다른 해외 체류형 레지던스와 성격이 상당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승선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극지연구소 지정 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아라온호 안에 병원이 있고 선의가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극지에서 돌발의료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이송이 지연되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검진이 필요합니다. 종합건강검진과 치과건강검진 결과, 자가 검진 설문지를 기술지원팀에 제출하여 통과되면 극지기초안전교육과 Basic Sea Survival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이론 중심의 일반교육을 하루 동안 받고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기 위주의 안전 교육을 2박3일간 받습니다. 안전교육은 인공호흡, 심장제세동기 사용, 화재진화, 극지 네비게이션 훈련, 조난시 생존훈련, 비상탈출, 해상구명 훈련 등입니다.

규정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라온호에 승선할 수 없는데 특히 해양수산연수원의 안전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훈련인원제한이 20명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해서 두세 달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도 필수입니다. 항공편으로 입출국하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ESTA)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아라온호가 알래스카에서 연구원들을 싣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출입국의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어 B1/B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영문 지원확인서와 극지연구소에서 발행해주는 Travel Order를 요청하여 첨부하면 비자 인터뷰시 도움이 됩니다.

항공편 예약은 극지연구소 소속 연구원들과 일정을 맞추면 편합니다. 같은 비행기, 호텔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름 항공수요 성수기임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미리 항공권을 예매하면 됩니다. 항공권은 극지연구소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면 편하고 호텔은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이 이용하는 지정호텔을 개인적으로 예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안전교육, 비자, 항공권등은 극지연구소쪽 담당인력이 파견작가에게 사전에 연락을 줍니다. 다만 연락을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일정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극지연구소쪽 담당자와 소통하여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출국시 편도 2박3일이 걸리는 일정인데 하와이와 앵커리지 연결 항공편이 오전 도착, 다음날 오후 출발이어서 통째로 하루씩을 현지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와이나 앵커리지의 1일 투어 계획도 미리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아라온호는 한국배이고 승조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식사가 한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해외 장기 체류시 준비하는 컵라면이나 김, 고추장, 햇반등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뱃멀미약도 선내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데 혹시 선호하는 약이 있다면 따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아라온호가 엔진 발전, 모터 구동방식의 배여서 기름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진동도 약한 편이이라 한 달 넘게 배를 타면서 씹어 먹는 멀미약 (가장 약한 멀미약) 십여 알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편강이나 생강차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층일수록 전망이 좋지만 파도와 너울에 흔들림도 심합니다. 멀미에 약하다면 고층 선실을 배정 받았을 때 저층 선실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실에 여유가 있다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흡연은 실외 지정구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안전사항과 관련되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담배나 주류 등 면세품 구입은 극지연구소 측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알라스카 최북단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날씨가 하루하루 바뀝니다. 겨울용 우모자켓과 내복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선내는 따뜻하지만 배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방풍, 방한 의류, 고글, 장갑이 필요합니다. 아라온호 운항 일정을 문의해서 해빙에 상륙해서 연구하는 Ice Camping이 있다면 특히 방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극지연구소에서 방한복을 제공하므로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라온호가 북위 70도 이상 올라가면 위성 연결 사정상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내에 전용 위성전화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신청을 해야 하고 시간이 제한되는 등 불편한 편입니다. 따라서 급한 연락 사항은 아라온호가 알래스카 부근에 정박하고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북극해로 출항하면 개인적인 통신은 모두 두절된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스마트폰의 카톡은 가끔 연결되기도 합니다.

선실 내에 텔레비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시청이 어렵습니다. 대신 선내 인트라넷을 통하면 영화나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는 일정 대부분 기간 동안 북극해를 항해하며 파도에 흔들리는 역동성과 더불어 선내에서 머물며 육체적인 활동이 제한되는 정적인 부분이 공존합니다. 과학자 그룹과 승조원 그룹(선원) 사이에서 단 한 명 뿐인 작가는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외롭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개인 선실과 도서관, 텅 빈 심야의 회의실, 뱃머리의 갑판 등 얼마든지 공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는 여타의 해외 레지던스와 확연히 구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극지체험 자체도 드문 기회지만 레지던스 기간 동안 선실 문만 열고 나가면 넘실대는 북극해와 조우하게 되는 경험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배만 타고 돌아다니는 지루한 일정일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극지의 바다를 꿈꿔온 사람에게는 그 한 달이 꿈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인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레지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리나 쿠바, 미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비해 북극해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바깥 환경이 생존에 직접 연관되리만큼 거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안하거나 매력적인 레지던스는 아닙니다. 탐사중이라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극지의 황량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작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고 작품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작가라면 원양을 항해하는 아라온호의 승선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의 파견작가인 저는 어릴 적부터 북극곰이 방황하는 북극해를 동경했습니다. 극지만큼 세상의 끝이라는 이미지에 부합되는 곳은 없을 겁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각박한 현실에 부딪혀 상상력마저 축소된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공간감을 확대시켜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작품에 투영시키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이야기를 세 작품 정도 쓰고 싶었는데 17세기의 대양을 담은 『나는 바람이다』, 동해바다가 배경인 『수평선학교』 등을 이미 출간했고 세 번째 작품으로 극지의 바다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에 참여하면 작품 창작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기존에 출간된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향후 창작 계획을 밝히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한 결과 파견작가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35일간의 레지던스를 통해 북극해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진과 인터뷰 자료들을 확보했

으며 창작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레지던스 후에도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필요한 깊이 있는 후속취재의 발판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35일 정도의 북극해 탐사는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막연히 구상했던 시놉시스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제약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마저도 현장에서 발견한 또 다른 답일 수 있습니다.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를 눈여겨 보고 있는 작가가 있다면 분명 극지 체험에 관심이 있는 분이리라 생각합니다. 색다른 체험을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준비된 관심과 열정만큼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여행입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Korea

CHAPTER 21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프로그램명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국가	한국
참가연도	2014년
참가기간	2014. 8. 27~9. 19
작가명	이나미

레지던스 기관 소개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에 승선해 1항차에는 한 달 동안 척치해에서 연구 탐사를 마치고 알래스카의 최북단 작은 항구인 배로우에 도착하면 1항차 연구원들은 하선하고 2항차 연구원들이 승선해 캐나다 북극의 보퍼트 해에서 지구 물리 탐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레지던스에 선발된 작가는 1,2항차 모두 참가하게 돼있다. 비행기로 시애틀을 거쳐 앵커리지, 놈 항구까지 이동하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B1/ B2비자를 받아야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데 본인의 경우 비자가 하루 늦게 나온 까닭에 부득이 1항차를 포기하고 8월 하순 2항차에 합류했다.

8월 26일 배로우 항구에서 헬기를 타고 아라온 호 헬기 데크에 착륙하자 비로소 북극권에 도착했다는 안도와 함께 실감이 났다. 자연과학의 실험실이자 지구 환경 변화 연구의 최적지며 거대한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북극에 발 디뎠다는 감격과 설렘이랄까. 비행시간은 총 18여 시간이지만, 거리가 멀고 공항 대기 시간이 긴데다 제 때 비행기가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2박 3일 동안 비행기만 네 번 갈아타는 여정이라 막상 아라온 호에 승선하자 감회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2009년 11월 건조된 쇄빙 연구선 아라온 호는 7487톤에 승선 인원 85명으로 컴퓨터실, 무정전장치실, 음향 및 지구물리 연구실, 해양 장비실, 기상자료 처리실, 전자 계측 작업실, 중력계실과 헬기 데크, 바지선을 갖춘 최첨단 연구선이다.

2010년 7월 1일 북극을 향한 첫 항해를 시작으로 해양조사, 해빙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플랑크톤의 다양성 분포 조사 및 북극 항로 조사를 수행하고, 10월에는 남극 세종과학 기지에 보급품 운송 및 연구대원을 투입하고 철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현장의 자재 운송 및 남극 중앙 해령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아라온 호가 건조되기 전까지는 주로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의 쇄빙 연구선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승선했었다니, 아라온 호야말로 우리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극지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아라온 호에 승선해 한 달 동안 캐나다 보퍼트해의 지구 물리 탐사에 동행한다니 어찌 설레지 않겠는가.

북극은 지난 50여년 동안 지구상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해빙(海氷)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세계 여러 해양과학자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보퍼트해의 대륙붕에서 해저 지층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방출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7배나 강력한 온실가스로, 메탄 때문에 북극의 영구 동토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방출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보퍼트해에서 국제 공동 연구 탐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어쨌거나 2014년, 2항차 승선자는 모두 25명으로 극지연구소의 국내 연구자들과 미국, 독일 소속 해양 과학자, 캐나다의 해양포유류 감시원 등이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각자 연구 목적과 향후 연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팀에서는 수석 연구원인 진영근 박사와 지구 물리팀 홍종국 박사, 바이오팀 임정한 박사가 각 팀별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구 물리 탐사에 문외한인 나는 짧으면 사흘, 길면 닷새에 한 번씩 진영근 수석 연구원과 홍종국 부장님이 탐사 내용과 진행과정,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비공식 소식지 <뉴스레터>를 작성해 선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분주하게 진행되는 탐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긴 여러 가지 궁금증에 성의껏 설명해주신 두 분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출항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리면서 거대한 아라온 호가 서서히 배로우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캐나다 영해 보퍼트해를 향해 미끄러지듯 대양으로 나간 아라온 호는 검푸르게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전진했다. 백야로 해가 지지 않아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데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바다와 하늘 뿐,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드넓은 북극해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다.

출항한지 사흘 만에 8월 29일 자정, 캐나다 보퍼트해의 연구 지역 경계지점에 도착하자 해저 지형과 해저 환경을 탐지하는 다중빔 해저측심기, 천부영상탄성파 담지기, 수중음향 측심기등 첨단 장비들이 가동되면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배가 느린 속도로 전진하는 동안 연구원들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각

자 분야의 탐사에 열중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는 연구원들의 숨 가쁜 교신과 표정, 그들을 도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승조원 여러분들을 보며 북극해저 탐사에 동행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다.

나는 종일 각종 장비를 해저(海底)로 내리고 올리는 작업으로 분주한 선미(船尾)와 선체의 조종실인 선교(船橋), 지구물리 연구실, 해양장비실, 컴퓨터실을 기웃거리며 분주하게 탐사 준비를 하는 연구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찰하고 틈틈이 노트에 기록하는 게 주된 일과였다.

2항차에서는 대륙붕 해저 지층과 해저 지형의 상태를 탐지하는 지구물리 탐사와, 메탄가스 방출 현상을 연구하는 해양물리탐사, 해양과 대기 사이의 메탄 이동 현상을 연구하는 해양- 대기 측정, 그리고 해양 퇴적물을 채취해 오랜 세월 동안 퇴적층의 변화를 연구하는 시추 코아 탐사가 주된 과제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로 대형 음파 발생기인 에어건 8발을 시차를 두고 발파하는 것인데, 이때 1Km 근방에 고래가 출현할 경우 발파를 중지해야만 한다. 고래가 놀라 건강에 해를 입을까, 해양생물 보호 차원에서 캐나다 여성 생물학자와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두 명등 총 3명의 MMO 감시원이 24시간 쌍안경으로 고래 출현 여부를 감시하면서 그들의 허가가 떨어져야 발파를 할 수 있다.

에어건의 충격파가 워낙 커서 깊은 수심에서 터져도 배 안에서 터지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발파음이 해저에 반사되는 탐사 측선이 컴퓨터 모니터에 그려지면 해저 지층 구조를 볼 수 있는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는 장소를 옮겨가며 며칠 동안 계속됐다. 100Km 옮긴 지점에서 다시 에어건을 발사하던 중 갑자기 발파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아라온 호 선수 우현 바로 아래 고래가 등장한 것이었다. 마침 선교(5층 조종실)에서 사방을 둘러보던 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고래를 내려다보는 행운을 누렸다. 햇빛에 반사돼 짙은 브라운 톤의 등을 드러낸 고래는 거대한 잠수함 같았는데 MMO 여성 생물학자 말로 2살쯤 된 아기고래란다. 다 자란 어미는 무게가 무려 100톤, 몸길이 18-19m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됐다. 발파를 중단한 채 한 시간 동안 주변을 관찰했지만 에어건 한 방에 놀란 아기 고래가 죽을힘을 다해 헤엄쳐 갔는지 MMO의 쌍안경에서 사라지자 다시 발파 허가가 떨어졌고 탐사는 계속 진행됐다.

그 즈음 폭풍과 악천후 예보가 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흘 동안 4미터를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선체를 때렸고 최대 풍속 40Knots를 넘는 비바람으로 정점 작업과 탄성파 탐사는 중단됐지만 그 와중에도 해저 지형도를 그리는 멀티 빔과 천부 영상 자료를 구하기 위한 탐사는 계속됐다.

배는 롤링과 피칭을 반복하며 심하게 기우뚱거려 복도를 걸을 수도 없고 침대에 누우면 바닥에 떨어지기 일쑤였으며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내용물이 굴러다녔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니 실내에서

이동시 주의하라는 선내 방송이 나왔다. 멀미가 심한 연구원들은 식사도 못하고 누렇게 뜬 얼굴로 폭풍이 가라앉기만 기다렸다. 다행히 멀미를 안 하는 나는 누워서 바이킹 타는 느낌으로 그 상황을 느긋이 즐겼다.

그리고 수시로 선미에 나가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 다가왔다가 아슬아슬하게 뱃전에서 부서지는 파도와 물보라를 보며 북극해의 위력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그리고 엄청난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전진하는 아라온 호의 의연함에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정을 다 기록할 순 없지만 한 가지 큰 의미 있는 성과라면 정점 탐사 도중에 수심 740m 진흙화산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를 채취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연구팀이 여러 차례 퇴적물 시추 작업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우리나라 팀이 처음으로 채취했다는 사실에 전 연구원과 승조원은 물론 선장님을 비롯해 식당에서 매 끼니 정성스럽고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주었던 주방 식구들까지 달려와 큰 관심을 보였다.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데, 그날 채취한 시료는 덩어리가 워낙 작아 불이 붙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최초로 발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탐사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 3개국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우리 국적의 쇄빙선 아라온 호를 타고 캐나다 보퍼트 해역에서 해양지질학, 지구물리학, 해양학을 관찰하면서 지질학적 작용으로 머잖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질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는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탐사였다. 비록 해양학이나 지구 물리학에 문외한이지만 아라온 호 승선 레지던스에 참가함으로서 지구 온난화로 곧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의 심각성과 병들어가는 북극의 실태를 깨달은 좋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남, 북극 극지의 실상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병 들어가는 지구의 신음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면적이 무려 한반도 100배라는 얼음왕국, 지구상 마지막 청정지역, 세계지도의 정 중앙, 지구상 꼭짓점에 널찍이 펼쳐진 북극권. 북극곰과 거대한 해빙(海氷), 해양 포유동물들과 순록, 사향소, 북극 여우, 늑대들이 먹이사슬을 이루며 살고 있고 극야(極夜)때면 오로라가 출현, 하늘에 거대한 빛의 주렴이 드리워진다는 북극..... 시애틀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저 막연히 북극에 대해 상상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한 달간 체험하면서 얼음왕국이 더 이상 낭만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만 더했다.

1항차에선 주로 쇄빙선으로 얼음을 깨면서 다년빙(多年氷) 지역을 찾아가 해빙 정박을 하고 실제로 얼음 위에 장비를 내리고 연구원들도 하선해 얼음을 뚫고 시료를 채취해 연구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거대한 빙벽과 빙산, 유빙끼리 충돌하는 지역에는 물개가 있고 먹이사슬에 의해 북극곰도 산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하선해 작업을 할 때는 총을 들고 사방을 경계하며 북극곰의 출몰을 감시하는 감시원까지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위성의 관측 결과 북극의 해빙(海氷)이 빠른 속도로 얇아지고, 넓은 면적의 해빙이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에 따라 북극곰도 먹이를 찾아 아직 단단한 얼음이 남아있는 북쪽으로 항진하다 보니 북극곰을 어쩌다 한 마리,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해빙 연구 활동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얼음을 밟을 수도 있으며 북극곰과 물개, 거대한 빙벽과 켜켜이 에메랄드빛의 다년빙을 보는 게 1항차의 큰 매력이다.

그렇다면 2항차는 단연 오로라와 백야에서 흑야로 서서히 바뀌는 하늘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얼음을 피해 대양(大洋)에서 해저 탐사를 하다 보니 북극 고래와 수많은 해양식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보퍼트 해역에 들어서서 탐사를 시작한지 이틀째 밤, 하늘에 거대한 주렴이 걸린 듯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오로라를 보면서 모든 연구원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10년 동안 북극 탐사해도 오로라를 한 번도 못 본 해양과학자도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내심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내 방송이 나왔다.

“지금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선교로 올라와 주십시오.”

순식간에 이 방 저 방 문이 열리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모든 연구원들이 뛰어 올라갔다. 나도 5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아, 정말 하늘에 장밋빛과 연두빛, 병아리빛 거대한 커튼이 늘어지는가 싶더니 하늘을 가로 세로로 뛰어다니거나 횃불처럼 춤을 추는데 현란하다 못해 눈이 부시고 가슴이 뛰어 진정하기 어려웠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갈수록 선명해진 빛의 축체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저마다 성능 좋은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기념사진을 찍었고, 나는 눈으로 찍어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려는 듯 뒷목 아픈 줄도 모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오늘 오로라는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선명하고 시간도 오래 끈 편입니다. 낮에 햇볕이 워낙 좋고 해질 무렵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서 오로라가 출현하기 딱 좋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가님은 큰 행운을 누린 겁니다.”

선내 방송을 했던 장본인 3등 항해사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귀한 체험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출항한지 닷새 만에 엉겁결에 받은 선물이라 미처 몰랐지만 하선할 때 까지 다신 오로라를 보지 못해 아쉬운 한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선창(船窓)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망망대해와 색색으로 변하는 하늘에 뜬 갖가지 모양의 구름이 슬슬 지루해질 즈음 맞닥뜨린 북극고래는 내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 깊고 푸른 물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가. 엄청난 동, 식물 플랑크톤과 물고기, 해양 포유동물들..... 검푸른 물빛에 늘 사납게 뒤채는 성난 바다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유빙(流氷)에 깃들여진 에메랄드빛 청록빛 물색은 지금까지 마주했던 어느 바닷물보다 청정하고 신비로웠다.

그러나 지금 북극은 병들어 신음 중이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세계 해양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경고한다. 북극해는 지구의 열과 이산화탄소의 중요한 저장고라서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기후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이자 에어컨이다. 1항차 수석연구원 강성호 박사는 북극을 지구를 위한 카나리아에 비유했다. 광부들이 갱도에서 산소 부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척도로 카나리아 새를 이용한데서 비롯된 뜻일 게다.

우리는 매년 폭설과 한파, 폭염 등 이상 기후로 고생하면서도 방관만 하다가 미래 후손들이 어떤 재앙을 겪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이제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지구온실화 방지를 위해 가장 쉬운 것, 나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를테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푸른 숲을 꾸준히 조성하는 것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제 북극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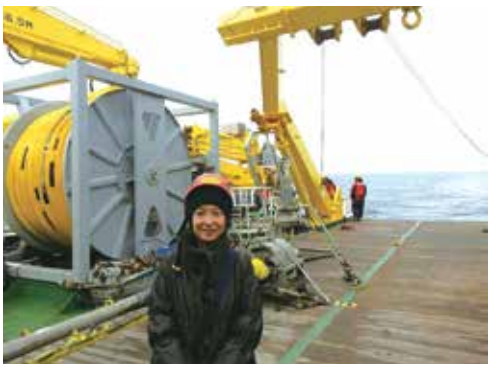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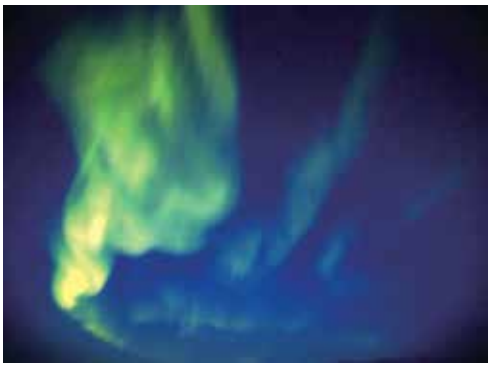
아라온 호 승선 레지던스는 쇄빙선을 타고 두 달 가까이 바다에 떠서 생활하면서 선내에서 해양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이라 자칫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다. 또 배 멀미를 심하게 하는 경우 견디기 어려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신 북극 현지 체험을 통해 극지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북극과 남극의 현재 실정을 깨닫고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자신의 예술적 기량과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아라온 호 레지던스는 창작 영역을 확장하는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운 극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가장 우선시되며, 남북극의 현실을 아프게 인식하는 애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라온 호 레지던스 승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1, 2항차 다 참여해 보다 폭 넓고 다양하게 북극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공연예술



CHAPTER 22. **이탈리아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CHAPTER 23.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CHAPTER 24. **덴마크 오딘씨어터**

CHAPTER 25. **오스트리아 댄스웹**

CHAPTER 26. **영국 더플레이스 CHOREODROME**

CHAPTER 27.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CHAPTER 28.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

Italy

CHAPTER 22

이탈리아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프로그램명	예지그로토프스키-토마스리차드 워크센터
국가	이탈리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6. 25 ~ 2018. 7. 6
작가명	김시연

레지던스 기관 소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폰테데라라는 곳에 위치한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챠드 워크센터 (이하 워크센터)는 예지 그로토프스키가 사망(1999)하기 전까지 수단으로서의 예술(Art as Vehicle)론 – 이 이름은 그의 작업을 보고 피터 브룩이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을 연구하던 곳이다. 그의 마지막 연구 작업에 함께 한 두 제자가 그의 사후,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토마스 리챠드가 이끄는 '수단으로서의 집중팀'과 마리오 비아기니가 이끄는 '오픈 프로그램팀'이 각각 업스테어와 다운스테어로 나뉘어져 작업을 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는 겨울에 있는 4주간의 마스터 과정과 여름에 있는 2주간의 인텐시브 과정이 있다. 이번 여름 인텐시브 과정 프로그램은 크게 노래세션, 모션, 텍스트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노래 배우기나 모션과 같은 세부 시간이 워크센터 멤버들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대다수의 시간은 각자의 작업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워크센터의 멤버들이 1:1로 도움을 주고, 멤버들은 수장인 토마스와 참가자들의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텍스트가 완성된 후에는 멘토 역할을 하는 워크센터 멤버들이 연기와 연출을 돕는데, 멤버들 간에도 자신이 맡은 참가자들 외의 다른 참가자들의 작업을 공유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워크샵 시간이나, 이후 시간을 이용해 두 팀의 공연 작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2주간의 레지던스 기간 동안 총 5회의 공연 관람이 있었고, 워크센터 내에서의 공연 3회, 피렌체에서 1회, 폰테데라 시내에서 1회의 공연 관람 기회가 주어졌다.

토마스 팀과 마리오 팀의 작업 색깔은 언뜻 크게 달라 보이지만, 그들이 컨퍼런스에서 말한 것처럼 본질은 다르지 않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첫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참가자들을 두 팀으로 나눈다. 기준은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한 번 토마스팀과 만났기에, 의례 토마스팀과 작업이 이뤄질 거라 예상은 했다. 다른 해외 참가자들 중에는 이미 자국에서 열린 장,단기 워크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레지던스 기간 중 이 두 팀은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노래세션의 경우, 업스테어에 있던 참가자들이 다운스테어로, 다운스테어에 있던 참가자들은 업스테어로 이동해, 다른 팀의 노래세션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두 팀의 노래의 느낌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른 면이 있지만, 공간에 대한 즉흥적인 이해와 노래를 통한 존재에 대한 탐구는 다르지 않아 보였다. SNS에도 공개되지 않는 토마스팀의 엄격한 작업과는 다르게 마리오가 이끄는 오픈 프로그램의 경우 SNS 활동도 하며, 조금은 열려진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가웠다. 공간과 관계에 대한 즉흥이 필요했고, 오픈 콰이어처럼 워크센터 이외의 공간에서 열린 공연의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레지던스 기간 동안 점심시간 전의 일정을 마치면 워크센터 내부 공간에서 자유롭게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메인 공간 안쪽으로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한 곳은 주로 가구나 소품이 놓여져 있고, 제일 안쪽은 빈 공간으로, 아늑하게 집중하기 좋은 곳이었다. 메인 공간 바깥 쪽으로는 통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의상실이었는데, 이곳은 주로 여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고, 빈 시간에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다른 한쪽은 부엌, 화장실, 남자분들의 탈의실로 공간이 나눠져있다. 다운스테어로 연결되는 계단에 앉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입구에서 주로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곤 했다. 점심 식사도 부엌이나 계단 혹은 워크센터 주변 풀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변이 거의 다 자연 경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프로그램 하루 전에 같은 숙소에 머무는 영국 멘체스터 출신 Patrick, 인도 뭄바이 출신 Parashar,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Alicia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어가 능통하지는 않은 편이라, 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작업자들이기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딘지 나이와 경험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숙소를 배정한 워크센터의 배려가 느껴졌다. 세 사람 다 모두 대학에서 연기, 움직임, 노래, 극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왜 여기 있지?”라고 웃으며 반문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워크센터팀의 워크샵 참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기에 이들과 함께 숙소배정이 된 거 같았다. Parashar(이하 Paro)를 제외한 세 사람이 자국에 방문한 워크센터 팀의 프로그램에 참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바빠질 일정을 위해, 이들과 주변 산책도 하고, 시내에서 이탈리아 본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또 어떤 참가자들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첫날을 맞았다. 나름 한국적인 것을 생각하며, 나의 새로운 작업과 어울릴 만한 옷을 사서 갔다. 첫날 있을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빨간 개량 한복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갔

는데, 평범한 복장의 다른 참가자들 속에서, 또 아시아인은 오로지 나 하나였던지라 빨리 옷을 갈아입고 싶어졌다. 두 팀을 나눠지고, 토마스 팀으로 불려진 참가자들은 업스테어로 올라가 노래 세션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보통 배우들이 입는 연습복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평소 잘 입지 않는 치마나, 드레스를 한국에서, 또 밀라노에 도착해서 여러 벌 마련해갔다. 시작 전 업스테어 문 앞에서 대기를 하였다. Guilherme이 문을 열어주자, 내부에 놓여진 테이블, 벤치, 의자가 놓여져 있었고, 토마스와 멤버들은 아주 조용하고, 기민한 움직임으로 공간에 서거나 앉았다. 노래세션 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참가자들이 많았기에, 영어를 못하는 참가자가 있는지 토마스가 확인했고, 내 영어상태를 알렸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 후로도 다른 방안들을 제시해주었다. Jessica가 중앙에 앉았고,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멤버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들에 낯설어하며, 그들의 무언의 안내들을 따라 공간을 이동했다. 알지도 못하는 노래의 반복되는 구음들을 따라가며, 휘둥그레한 눈으로 참여하는 다른 참가들과 달리, 끊임없이 이 모든 공간의 공기와 움직임을 흐르게 하는 센터 멤버들의 따뜻한 눈의 인도가 교차되었다. 리드하는 멤버의 노래는 토마스의 디렉팅으로 정리되고, 그 노래의 마무리 지점에서 존재를 깨우고, 감각과 순수 감정들을 깨우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또 그 끝에 또 다른 멤버의 노래가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렇게 1시간 반, 두 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모든 울림이 잦아들고, 그제서야 토마스가 설명을 해주었다. 각자의 고대 노래를 통한 각자의 에션셜한 부분들을 만나가는 시간이 될 것임을 기대하게 되었다.

각자 숙소에서 마련해온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또 각국의 노래로 진행되는 이 시간이 무척 흥미로웠다. 2년전 에든버러에서 워크샵을 참석했던 Patrick은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시간 정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하였다. 모든 발표가 마치고, 워크센터의 팀의 회의가 진행된 후, 전반적인 코멘트의 시간이 있었다. 토마스는 분류를 지어서, 혹은 한 개인의 작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코멘트들을 해주었다. 지난 겨울 마스터과정에도 참가했던 프랑스 파리 출신의 Melane의 작업이 프로페셔널한 작업에 가까웠다고 하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작업과 달리, 구성과 연기력이 잘 정돈되었고, 완성된 형태로 보여졌던 프리젠테이션이었다. 특히 액팅에 대한 디테일과 인물과 인물의 전환이 연상에 의해 이뤄지고, 몸과 소리의 전환에 있어서 템포와 리듬이 살아있다는 평을 받았다. Dila의 경우, 리얼리즘의 연기는 아니었지만, 믿어졌고,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반에 미국 출신 참가자들의 리얼리즘은 무게만 잡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적인 습관들에 대한 지적과 피지컬 연극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긴장과 과장을 주는 형태의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런 연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소위, 펌핑, 쇼잉에 대한 경계해야하는 지점에 무척 공감됐다.

흥미로운 것 중에, 이미 이 워크샵을 경험한 참가자가 워크센터의 작업을 모방하듯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이 경우 작업을 단순화시킨 좋지 않은 사례로 강하게 경계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앎이라는 무덤에 갇히고,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과 권위를 느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가 보다. 살아있는 Human being의 논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깨워내야 하는 것이 배우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주로 창작을 처음 시작하는 배우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백 같은 글을 쓰기 쉽기 때문

에, 내가 무엇을, 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 템포&리듬, contact, address, compositon, meaning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한국 단기 워크샵에서 나를 전담해주었던 워크센터 메인 멤버, 제시카가 이번에도 내 멘토가 되었다.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받을 때 영어가 문제가 될까봐, 통번역 어플을 사용하고, 녹음을 하는 방법을 허락해주었다. 제시카는 이번 여름 워크샵에 가져온 <Beyond>라는 작업 대신, GB팀과 올해 2월에 창작과 과정이라는 사업에서 발표한 <Scapula>를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다. 2015년에 함께 했던 작업이다. 내심 그 이전 작업보다 새로운 작업에 대해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일단 토마스와 제시카의 제안대로, 2월에 한 <Scapula>를 둘째 날 다시 프리젠테이션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 의상이나 필요한 소품들은 워크센터 바로 위에 살고 있는 제시카가 자신의 방에서 직접 소품을 고르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워크센터 제일 안쪽 방에서 토마스, 제시카만을 관객으로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토마스는 이 둘의 작업을 믹싱해보는 것을 제안했고, 이 둘의 작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원했다. 공통점을 찾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성경의 야곱의 사다리를 예를 들어주며, 한 인물이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되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고대 신화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드라마투르를 제안했다. <Beyond>는 선과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Scapular>는 집의 무너지는 이미지를 통해 한 여자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었다. <Beyond>는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던 시기라 그 경계선에 대한 이미지로 시작하여 어린 시절의 고무줄 놀이와 연계해서 시도한 작업이었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단순하다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아 섞어보는 작업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첫날 노래의 퀄리티를 살려, 드라마투르기에 맞는 좀 더 강한 느낌의 노래를 찾고,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을 도울 이미지를 찾는 것과 한국의 신화 리서치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는 10월, 워크센터의 토마스 팀이 한국에서 2주간의 워크샵과 오픈리허설을 하는 아르코국제레지던스 사업이 확정된 상태여서 인지, 토마스는 나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와 한을 다루던 백현주님의 작업을 연계해보면서 한국 작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이틀 뒤 미팅에서는 제시카가 내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어느 정도 작업과 관련한 정보가 있어서 인지, 내가 왜 선(line)을 다루고 싶은지, 그것의 나의 어떤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지 한국에서 작업을 해간 상태여서, 제시카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종교, 이해관계, 성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면서, 제시카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 나도 제시카에게 영감을 받으면서, 시와 노래, 신화 등 많은 것들을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다. 때로는 제시카를 통해 얻어진 한국적 정보들이 더욱 강력하게 전해지기도 했다. 난 2014년 협업으로 한 <곰곰>이라는 신체극을 떠올리며, 단군신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제시카가 찾은 <창세가>라는 신화가 내가 <beyond>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과 매칭이 잘 되었다. 제시카는 <단군신화>도 염두해두었지만, 우리는 <창세가>를 택하는데 마음이 일치했다. 노래에 대한 부분도 그랬다. 내가 첫날 발표한 <홀로 아리랑>에 대한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scapula>에 나온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는 좀 더 고대의 노래로 리서치해야 한다고 제안해주었다. 이들이 고대 노래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국 전통노래를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로 간지라, 민요나 판소리를 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럽기도 했다. 더군다나 집이 무너지는 순간의 강력함을 표현할 고대 노래를 찾는 것

이 쉽지 않았다. 리서치한 노래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내가 알고 있던 <도라지>, <밀양아리랑> 정도에서 서로 의견이 모아졌다. 리서치 중 제시카가 한국의 <만가>가 너무 아름답다며 들려주기도 했다. 전통노래에 관련하여 내가 참 관심이 없었구나 싶으면서 역으로, 한국의 좋은 소리들을 재발견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제시카가 어디선가 들었었는지, 이야기하는 방식의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다. 판소리를 뜻하는 것 같아, 판소리를 배워본 적이라고는 단가 중 <사철가>의 앞소절 뿐이라, 그것을 들려주었더니, 이것이 맘에 든다며 이 노래를 텍스트에 넣어보자고 하였다. 첫 주의 마지막 작업 날은 이렇게 정해진 노래들을 가지고 제시카와 긴밀히 작업하였다. 손 끝에 흐르는 에너지, 몸의 감각, 그 몸을 관통하는 소리를 찾고, 울림을 찾고, 자유롭게 흐르는 몸의 위치와 감각들을 탐험해갔다.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땅에 엎드렸다 기어가기도 하며, 앉아서 적당한 다리의 간격과 척추의 정렬,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깨워 가며 소리를 만나갔다. 내가 전통노래의 울림을 실현할 기술을 갖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것보다 지금의 나를 울려내는 것에 집중하자,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소리도 만나지고, 손끝을 따라 소리가 흘러가는 지점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머리로 알았다 하면, 금새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 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가라고 서포트 해준 제시카의 말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둘이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소리를 쏟아내며, 심장에서 샘솟는 말로 할 수 없는 살아있음들을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 아마 삼 일째 본 <Living Room>에서 받은 감동과 한 주간 진행된 노래세션, 부엌에서 틈나면 이뤄지던 토마스의 참가자들과의 교류- 이건 말이 없는 그저 무언의 에너지 흐름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시간들이 축적되어 이뤄진 성과였다. 이틀 간의 휴식 동안에도 노래연습과 텍스트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쓰고,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2주차가 되었고, 노래세션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다운스테어와 업스테어를 오가며 노래세션이 있었고, 그 작업이 배우의 존재를 깨우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몸으로 느끼고, 공연을 통해 그 울림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 의식 같은 시간이 신비롭기만 하였다. 이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이 공간과 시간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히 감동인 시간이라는 것을 느낀 한 주였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온 2주차 노래세션에서 토마스가 나에게 조용히 침투하듯 다가와 노래 리드를 시켰다. Guilherme에게 배운 노래 소절을 한국의 메기고, 받기처럼 토마스의 지시에 따라 이어갔다. 처음엔 제시카와 할 때처럼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노래가 어느 정도 다다랐을 때, 몸의 형태와 위치를 변화시켜주었다. 그 때 내 안의 코어와 순수체가 만나지면서 아무런 이유 없는 웃음이 퍼져나왔다. 그리고 그 에너지 흐름은 내 주변의 토마스, 워크센터 멤버, 참가자들에게 조용히 퍼지고 있음을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행하던 걸 보아온 것처럼 어떤 황홀경같은 기분은 아니었다. 오히려 침잠하고, 고요해지는 존재의 만남이었다. 운이 좋게, 레지던스의 마지막 노래세션에서도 리드의 기회가 왔고, 토마스는 나에게 좀 더 많은 시도들을 하게 해주었다.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지고, 더 살아있는 모습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감사한 기회와 경험이었다.

다운스테어에 있을 때에도 마리오가 혹여 내가 다 못 알아 들을까봐 나에게 따로 다가와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있다. “여기에 빈 의자가 놓여졌지만, 이 곳엔 사람이 앉을 거니까, 가려선 안 되고, 벽이 있지만, 벽과도 관계해야 한다”는 그 말이 나에게 특별히 다가왔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 너머의 세계

를 상상하고 바라보며 작업하는 것, 끊임없이 공간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던 마리오팀의 작업도 인상적이었다. 토마스팀의 작업보다 좀더 캐주얼한 곡들도 있고, 멤버들의 의상도 그랬다. 브라질, 이란, 미국, 폴란드, 프랑스, 아프리카 등 좀 더 다양한 국가의 배우들과 작업하고 있었다. 마리오 팀에서도 리드의 기회를 얻은 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살아있음 속에서도 상체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받았다. <Living Room>관람 후에 마리오와 같은 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가 한국의 전통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하며, 한국 배우들과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 멤버들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랍권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시아의 배우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공감이 되었다. 올해는 아르코국제레지던스 사업에 토마스팀이 한국에 오지만, 기회가 된다면 마리오팀도 함께 초청해 그로토프스키의 두 제자가 어떻게 작업을 계승해오고 있는지 한국에 소개되면 좋을 거 같다.

2주차 화요일이 되어서야 텍스트의 첫 부분이 나왔다. 나도 그렇지만, 제시카 역시 두 텍스트의 공통점을 찾아 믹스시키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 더군다나 오는 10월 아시아 투어 준비를 위해 기획일까지 하고 있는 제시카가 바쁜 모양인지, 텍스트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해서,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다. 이 상태로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기도 했고, 많은 부분 욕심이 내려지는 부분도 생겼다. 텍스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상이나 소품 등의 구성, 연출을 시도하는 제시카의 작업이 못내 아쉽기도, 앞으로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내심 속이 타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창작작업에서는 일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순서랄 것이 없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내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주어진 만큼 연습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래도 마지막 텍스트가 프리젠테이션 전날 저녁에 나온 것은 나에게 무리수였다. 이쯤 되자, 그동안 웃으며 넘기던 일들이 웃지 못할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참가자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Patrick이 말해주니, 이 또한 프로그램 안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번역과 텍스트를 짧은 시간에 익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제시카와 이야기를 나누자,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피곤함으로 액팅이 단선화되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마지막 날 새벽 4시가 되어 집에 귀가하였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당일 아침 8시 30분까지 다시 워크센터로 돌아가 텍스트와 스코어를 체크하였다. 참고로 버스 배차도 없는 아침 시간이라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걸어 이동했다. 점심 이후, 순서라 간단히 요기를 하고, 쉬는 시간까지 활용해 제시카와 스코어를 체크하던 중 두려움이 엄습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 번역투로 덜컥거리는 대사 걱정으로, 살아있던 감각들이 단순화되자, 제시카는 노래를 부르게 했고, 이후 난 나의 두려움도 솔직히 나누자 다시 감각이 회복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가 잘해왔고, 즉흥을 해도 좋으니, 멈추지 말고, 무대에서 살아있으라고 힘을 주었다.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 때,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2시간도 못 잔 상태로 텍스트는 정돈이 안 되고, 하기 싫다. 안 해도 괜찮다. 난 이 정도 과정만으로도 만족한다 등의 생각들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한 것들을 믿고, 알 수 없는 시간에 나를 던져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 대사부터 틀렸지만, 당시 내가 깨워낼 수 있는 에너지들을 동원해 준비된 극을 죽죽 이어나갔다.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나, 난 분명히 살아냈고, 살아있었다. 템포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 그것이 준비된 것들을 끝까지 해내게 한 힘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은 한 사람당 그 자리에서 바로 코멘트를 해주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참가자들의 발표는 그 자리에서 끊고, 멘토가 티칭을 하게 한다거나 토마스가 직접 개입해 개선되도록 하였다.

나의 경우, 아무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나 역시 완벽하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나의 연기에 그들이 웃고 반응하는 힘이 신기하다고 토마스가 말하였다. 나 역시도 그들이 신기했다. 단가라는 새로운 형식의 노래 소스도 그에게 인상적이었던 거 같다. "Excellent"라고 한 그의 말에 어리둥절하기도 하며, 십 수년 만에 온전히 깨어있는 감각을 체험한 거처럼 프로그램을 마치고나니 이틀은 탈진에 가까운 상태로 보내게 됐다. 프리젠테이션 후, 쉬는 시간에 참가자들이 다가와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주었다. 2주 간의 프로그램 동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레지던스 멤버까지 와서 말이다. Melane은 와서 영어 대본을 더 보고 싶다며, 메일 주소를 건네받기도 했다. Dila, Paro, Alicia, Patrick, Nathali 등 메일이나 SNS를 주고 받았다.

Benoit가 이끄는 MOTION 시간도 유용했다. 한국에서 단기 워크샵 때 기대했던 신체훈련이 없었던 지라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도 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그로토프스키 식의 훈련이 이 후에 많이 정제되고, 정리되어진 듯 했다. 알고 있던 거친 방식의 훈련은 아니었고, 팀이 하나로 이뤄질 수 있을 만큼의 집중과 하모니가 중요시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동양 사상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로토프스키였고, 요가를 이용한 훈련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을 알고 있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임했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기보다는 정신과 감각의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었다. 사냥하기 직전의 동물의 상태처럼,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프라이멀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었다. 이후 스트레칭과 충동 반응에 대한 훈련도 있었으나 심도 있는 훈련 시간이 좀 더 할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몸을 다루는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들이 적용된 MOTION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해온 요가수련, 타말파, 알렉산더 테크닉, 발성 등이 도움이 되었고, 몸을 이해하는 연결 고리들이 내 안에서 찾아졌다. 늘 발소리를 내지 않고, 온 몸의 감각을 살려 걸어다니던 멤버들의 모습들이 많은 자극제가 되었다. 안토냉이 한 시간 정도 신체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숨이 차게 뛰어 다니면서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간의 관계를 맺고, 눈을 마주치는 엑서사이즈였는데, 확실히 몸이 무겁고, 머리로 예측하려는 습성이 드러났다. 한국에 돌아가면, 개인 신체 훈련과 전통 노래 배우기, 영어, 폭넓은 독서 등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싶었다.

매주 금요일, 프로그램 동안 총 2번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금요일은 워크센터 내의 대청소 시간이어서 하루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모든 멤버들이 청소를 한다. 참가자들도 힘을 모아 한 주 동안 사용한 공간을 청소하는 시간도 참 의미있었다. 첫 주는 구석구석 거미줄 제거, 둘째 주는 바닥 청소기밀기를 했는데, 20년 그 이전부터, 그로토프스키가 마지막 작업을 했던 이 공간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런 일처럼 느껴졌다. 한켠 이런 프로그램 일련의 과정 안에서 워크센터 멤버들의 역할이 보여지고, 일상 생활의 질서가 보여지면서, 여느 극단과 비슷하면서도 또 굉장히 체계적인 분담이 이뤄지고 있어 보여 보기 좋았다.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념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따뜻한 포옹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 다른 나라, 말, 언제 어디서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 곳에서 뜨겁게 나눈 시간이 가슴에 오래 머물 거 같다. 프로그램 동안 마음에 어떤 작용이 와서인지 종일 울기만 하던 Erika가 참 예쁘고 짠해서 전신마사지도 해주고, 마시지용으로 테니스공을 선물했다. 긴장될 때 근육을 풀어주면

좋으니 말이다.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집에 가기 싫다고 울먹이던 터키 출신의 이쁜 Dila에게도 아마 이 시간이 너무 생생하고, 뜨거웠을 거다.

워크센터 멤버들에게는 이번 10월에 모두들 한국에 오는지 물었다. 중국 공연 여부는 확실히 알아도, 한국 워크샵 참가여부는 아직 멤버들에게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다. <Under Ground> 출연진은 거의 다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Tara는 베스트 프렌드가 10월 결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홍콩 공연을 마치고 같이 합류하게 될 거 같다. 몇 년 전 워크센터 내에 한국 멤버가 있었는지, Benoit와 Guilherme은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치 찾고, 비빔밥에 누룽지까지 아는 이 친구들에게 숙소에서 남은 볶음고추장, 쌈장, 라면, 누룽지, 믹스 커피 등을 다 주고 왔다. 이번 10월에 한국에 방문하면 이 친구들 갈 수 있는 맛집을 좀 찾아놔야겠다. 김을 좋아한다는 나의 동력자, Jessica에게는 김 10봉지를 주었다. 토마스와는 곧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이전 한국 레지던스 참가자의 멘토였던 Cecil은 GB멤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했다. 현주님과 같은 기간에 마스터 과정을 마친 후, 레지던스 멤버로 활동 중인 Maria와 현주님의 교신 역할도 하였다. 윤경님이 작년 여름에 두고 온 작업 노트도 Maria에게 받아 전달해 드렸다.

이후 뒷풀이 자리가 있었는데, 숙소를 같이 쓰던 Alicia가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기차를 타야 해서, Patrick과 셋이 오붓하게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시작 전 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즐기며, 이런저런 추억담에서부터 프로그램 소견들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알파카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워크센터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머물렀고, 매일 아침 부지런히 나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정이 들었다. 버스 시간에 맞춰 가야한다는 생각에 내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던 사건과 혼자 메일링을 받지 못해 이른 새벽에 홀로 깨있었던 에피소드는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내내 웃음거리가 되어주었다. 작업에 욕심과 열정이 있던 Alicia가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에서 첫날보다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많이 아쉬워했고, 그녀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Patrick의 말처럼 정답은 없는 거다. 워크센터가 답인 것도 아니다. 멤버들이라고 어떤 매너리즘이 없는 것도 아닐 거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도 아닌 거다. 하나의 문과 경험을 한 것이다. 또 다음은 다른 것이니까. 앞으로 나의 작업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이 시작과 함께 얻은 것들을 동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도 고민해가야 할 것 같다.

이미 이탈리아 워크센터 레지던스를 다녀온 GB팀원들, 그리고 10월 다시 한국에 방문할 워크센터 멤버들 또 그 중간 시점에서 나에게 참으로 좋은 시기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아르코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프로그램에 지원 선정이 된 이후, 5월 초부터 워크센터와의 메일을 주고 받게 된다. 참가비 안내, 이탈리아 지원서 등에서부터 프로그램 준비사항, 숙소 및 도착과 출발 일정 등에 대해서 각각을 담당하고 있는 워크센터 멤버들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워크센터 측에서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 하루 전날에 도착하는 것을 권했고, 사전에 폰테데라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워크센터에 전달한 상태였다. 폰테데라역은 아주 작은 기차역이었기에, 기차역에 앉아서 운송 담당인 David를 기다리는 동안, 기차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함께 하게 될 참가자인지 예측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다 맞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고장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Rio, 프리젠테이션의 소품처럼 보이는 사다리를 안고,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던 Patrick, 이 친구는 나의 룸메가 되었다. 또 한 명의 미국에서 온 어린 친구는 이름을 잊었지만, 레지던스 참가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친구는 마리오 팀에 배정됐다.

이렇게 피사에서 한 정거장, 피렌체에서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폰테데라 기차역에서 만나 “파노라마“라는 대형 마트에 방문했다. 숙소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1주일치의 식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마트의 식재료들은 무척 저렴하고, 신선했다. 10만 원 정도의 장을 봤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햇반이나 반찬들이 있어서였는지, 처음 본 장만으로 2주 동안 먹고도 남아, 며칠을 싸들고 다녔고, 몇 개는 버리기도 했다. 점심은 싸들고 다녔는데, 파스타를 만들어서 싸오는 친구들도 있고, 야채나 샐러드, 과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햇반과 통조림으로 점심 도시락을 해결하고, 아침 저녁은 장 봐온 콘프레이크나 파스타, 과일 등으로 해결했다.

숙소는 워크센터 근방으로 참가자 수나 가능한 숙소에 따라 센터 측에서 미리 구해준다. 대부분은 워크센터가 있는 발리첼리에서 더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알파카에 머물렀고, 나의 경우는 시내 쪽에 가까운 편이어서, 대형마트인 파노라마도 걸어서 10분, 폰테데라 역도 2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숙소가 있었다. 하지만, 워크센터까지는 거리가 좀 되어서,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마지막 날은 콜타임에 맞는 버스가 없어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다.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그것도 자주 없는 시간대도 있고, 몇 분 정도의 오차도 있어서 아침엔 8:26분 La rotta 행 버스를 타기 위해 숙소에서 8;05에 출발했다. 정류장도 숙소나 워크센터에서 떨어져 있어 도착하믄 9:00즘이었다. 우리 숙소에 머물던 친구들은 항상 1시간 전에 도착했고, 나중에는 적응되고, 여유도 생겨서, 정거장에 내려 식료품을 구매하고, 사진도 찍으며 걸어가도 같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숙소 위치에 따라 그룹을 지어 센터 내 차량과 멤버들 개인 차량들을 이용해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

숙소 도착했을 때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되었다. 워크샵 시작 날도 문제가 되어 첫째 날은 일정을 마치고 Paro와 인근 와이파이되는 곳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다행히 시내에 숙소가 있던 우리는 커피숍을 찾아서, 그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이었나 와이파이가 작동이 돼서 숙소에서의 작업은 무리가 없

었다. 워크센터에 와이파이가 안된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보면 리서치를 위해 인터넷을 쓰게 될 일이 있어서, USIM이나 LTE 데이터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나도 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다. 여행 때에는 USIM을 쓰는 편인데, 외딴 곳이라고 들어서 혹시나 속도에 문제가 생길까봐 LTE를 충전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훅훅 닳아서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다음 참가자에게는 USIM을 권하고 싶다.

오프날엔 밀린 빨래와 짐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Paro와 함께 찾았던 커피숍에 가서 필요한 리서치를 했다. 주변이 익숙해지니 집 근처에 생각보다 편의시설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 보였다. 파노라마 보다는 규모는 작았지만, 일반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마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Lidl이라는 대형마트도 있었다. 폰테데라는 노인이나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처럼 보였다. 숙소 주변은 주택가여서, 작은 식료품 가게나 약국, 책방 정도가 있었다.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는 나름 번화가가 있어서, 식당이나 옷가게, 극장까지도 있었다. 밀라노, 피렌체 같은 대도시나 인근 관광지에 비해 물가도 저렴했다. 특히 식당에서 와인 1잔에 2유로, 1/2 병에 4유로였고, 맛도 너무 좋았다. 시간이 되면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좋았다. 레지던스에 있던 6월말~7월초는 28~31도 정도의 기온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워크센터에서 주로 낮에는 밖에 나와 작업할 일이 없지만, 이따금 나와있으면 볕이 뜨거웠다. 하지만 한국 와보니 이탈리아 날씨는 천국이었다고 느껴질 만큼 무척 그리워졌다. 숙소에서도 낮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팬으로만 바람을 쐬도 덥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모기는 좀 많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연극론을 접할 때, 스타니슬라브스키를 구약성서, 그로토프스키를 신약성서라고 할 만큼 그로토프스키의 연극론은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가난한 연극>으로 알려진 그의 초기 작업을 기억하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제의적이다. 원초적이다. 성스럽다. 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강력한 신체훈련에 대한 이미지까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로토프스키는 신체연극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했다기보다 존재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으로, 동서양을 막론한 다방면의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연극연출가이다. 때론 그의 작업을 오히려 인류학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그의 후기 작업의 제자였던 토마스 리챠드가 <수단으로서의 예술>을 이어 받아 이탈리아 폰테데라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2015년 한국에서의 단기 워크샵으로 그들의 작업을 경험했을 때에도, 이미 나의 예상과 다른 작업 형태를 띄고 있었고, 이번 2018 워크센터의 여름 프로그램도 그 맥락의 확장판이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 본다. 예술가로서, 혹은 연극에 종사하는 배우, 연출, 작가 혹은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1인 창작자 누구든 이 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만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얻은 것이 아닐까 싶다.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깨어내고,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면의 것들을 깨워가고, 질문하는 시간 말이다. 고대 노래, 모션, 텍스트, 즉흥, 드라마투르기 등 기술적인 배움보다 이것들을 통해 이 작업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닐까 싶다. 경력이 오래되었

든, 지금 막 시작하였든, 자신의 작업에 대해, 혹은 스스로에 대해 무언가 더 찾고 싶은 것이 있는 작업자들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어딘지 막혀있고, 초심을 잃었다면, 숱한 형식들에 지쳤다면, 한번은 깊이 나를 만나고 싶다면,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챠드 워크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길 권하고 싶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다. 늘 깨어있어야 하고, 소위 멘붕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살아있는 몸과 정신을 워크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 3년 전 단기 워크샵과 이미 레지던스 경험이 있던 두 분과의 <Heart of Practice> 스터디가 이번 레지던스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과거 그로토프스키 식 훈련을 했던 극단 경험과 함께, 그동안 해오던 요가, 타말파, 알렉산더 테크닉, 발성 수업도 좋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지속하고, 꾸준히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도 더 생겼다.

그로토프스키 연극론에 대한 예찬과 워크센터 팀의 작업에 대한 열중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인지, 작업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다만, 창작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것과 영어가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 둘 중에서도 더 큰 걸림돌을 고르라면 언어였다. 해외의 우수한 많은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어도 항상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 영어였다. 대입 입시 이후 영어와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아왔고, 몇 번 공부를 시도했지만, 아니다 싶어 '영포자'로 살았다. 해외여행 정도에서 간단히 쓸 정도의 실력이라 영어로 작업한다는 것은 두려움, 거의 공포 수준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지원서를 쓸 때도 고민이었지만, 후보에 있을 때에도 다음에 가도 된다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 이미 선정이 되었을 때는 나에게 잘 못 온 기회는 아닐까 의구심도 들었다.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기에 급하게 영어책을 꺼내고, 학원도 끊었지만, 언어라는 것이 그리 쉽게 터득되는 것은 아니지 싶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서, 오히려 최악의 경우들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대단한 변화와 큰 성과를 얻는다는 욕심부터 내려놓았고, 그동안 해온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소통 때문에 상대가 괴로워하고, 내가 외로워지는 시간이 생기더라도, 의기소침해지기보다 소통할 다른 방법들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통번역 어플도 깔고, 메모지도 두둑히 준비하고, 못 알아 들은 건 다시 되물을 수 있는 용기도 준비하는 식으로 말이다. 주변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길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막상 내가 영어가 힘들다는 것을 밝히자, 오히려 그들이 소통할 다른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배려해주는 면들도 생겼다. 통번역 어플이 있냐고 먼저 물어줬고, 코멘트를 줄 때 녹음을 하도록 권해주었다. 물론 언어가 수월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소통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라고 작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자유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영어가 유창하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안 될 것은 없었다. 내가 하고자 한다면 길이 열려지고, 워크센터 팀의 열정과 지혜가 더해져,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작업한다면 최악은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는 가기 전엔 생각도 못했다. 떠나기 전에 동료들에게도 그랬다. 내가 잘 마치고 돌아오면 많은 '영포자' 작업자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거라고 말이다. 그렇다고 영어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고, 문자에 익숙한 외국어에서 소통 가능한 외국어를 익힐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꼈으니까.

해외레지던스에 대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챠드 워크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이전의 깊은 인간의 살아있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뿌리, 전통에 대해서도,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Italy

CHAPTER 22

이탈리아 예지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프로그램명	예지그로토프스키-토마스리차드 워크센터
국가	이탈리아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6. 7 ~ 2017. 6. 19
작가명	홍윤경

레지던스 기관 소개

여름집중과정은 총 12일 중에 중간 off-days를 빼고 10일간 (5 work days- 2 off days – 2 work days) 진행됐다. Vallicelle 라고 불리는 워크센터 건물은 Pontedera 기차역에서 차로 약 10~15분 정도 소요 되는데 워크센터 멤버들이 직접 pick up 서비스 차 나와 주고 특히 Vallicelle 주변에는 어떤 시설도 없기 때문에 방문 첫날과 중간 off-days 중 첫날에 Pontedera 근처의 Panorama라는 커다란 쇼핑에서 한꺼번에 쇼핑을 하는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워크센터에서 제공하는 apartment 형식의 lodging 숙소중 하나가 바로 근처에 있다.

워크센터 건물은 2층 건물로 각 층마다 화장실과 주방 겸 부엌이 있으며 1층은 따로 탈의실이 있지 않지만 2층은 남녀 각각 탈의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메인 홀 뒤편에 중간 복도식의 공간과 그 공간 너머 또 다른 독립된 공간이 있었다. 중간 복도식의 공간에는 소품이나 공연에 필요한 가구를 배치해 놓는 공연 대기실과 같은 공간이었고 지하수를 직접 먹어도 될 만큼 양질의 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방에서 자유롭게 수도꼭지를 틀어 안심하고 수분을 보충해도 된다.

센터 내부 메인 홀들은 대부분 둥근 돔 형식으로 특히 2층 내부의 천장은 한국의 전통가옥을 연상하는 나무 빗장이 눈에 띈다. 메인 홀에 들어갈 때는 가장 정숙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절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안 된다. 작업장에서 느껴지는 신성함을 말하기라도 하듯 하얀색 내부에는 불필요한 장치하나 보이지 않는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이번 여름 집중과정은 Open Program을 이끄는 Mario Biagini팀과 Research team을 이끄는 Thomas 팀 모두를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주로 함께하는 팀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본인은 Thomas팀과 주로 활동했다.) 오전 노래세션에는 하루씩 번갈아가며 분위기나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디렉터의 디렉션에 맞춰 노래세션에 참여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보통 오전 시간에는 dressed up 한 상태로 워크센터 멤버들 각자가 리드하는 노래에 맞춰서 함께하는 sing session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sing session이 끝나면 워크샵 첫날에는 미리 공지했던 개인 presentation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날에는 bathing suit(비키니형식의 수영복)를 착용한 채 워크샵 멤버 중 한명의 리드로 motions 훈련이 진행된다. 본인이 있었던 그룹은 Jessica와 Benoit가 번갈아 가면서 motions 동작을 리드했는데, Jessica의 훈련은 exercise나 play에 가까운 내용으로 아래층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윗층에 있는 우리들(참가자들)은 발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로 놀이를 시작한다. 고양이 자세로 시작해서 숲속에서 다른 동물을 만나 반응하는 partnership이 있는 놀이까지 숨소리 발소리를 최대한 자제해가며 살아있는 동작을 연출해야 한다. 보통 숨이 차면 동작이 골반 위에서만 활성화 되고 골반 아래쪽은 비활성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숨의 저항과 몸의 저항을 이겨가는 동시에 즐기고 있는 자신을 만나려고 끊임없는 self-check가 필요하다. Benoit가 이끄는 motions는 몸의 중심축을 잃지 않고 stretching하는 형식으로 일정 패턴과 순서가 있고 배우들의 position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각 routine을 네 명의 배우들이 리드하게 되는데 각 배우들의 동작이 끝나면 다른 배우들의 움직임과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제자리에서 서서히 시계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자신의 시선 안과 밖을 모두 볼 수 있는 눈과 내 주변의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서 마치 한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시간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motions 훈련이 끝나면 bathing suit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데 마른 걸레와 대 걸레 등으로 main hall 바닥을 함께 청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이 숙소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서 오곤 하는데 센터 내 주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샐러드와 드레싱을 나눠서 함께 나누기도 한다. 도시락 팩을 따로 숙소에 비치하고 있지 않으니 재활용 팩을 잘 세척해 놓았다가 도시락 통으로 재활용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시락 먹는 장소는 1층이나 2층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먹기도 하지만 보통 참가자들은 워크센터 야외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를 즐기고 오전에 있었던 집중된 훈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꿀 맛 같은 휴식인 셈이다.

오후에는 첫날 presentation 시연에 대한 feedback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날 오후 스케줄은 자신의 작품(piece) 에 대한 수정과 보완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보통 참가자 한 명당 워크센터 멤버 한명의 멘토가 지정되는데 한명의 멘토가 여러명의 참가자를 담당하기도 한다. 본인은 cecile이라는 멤버와 1대 1로

멘토-멘티가 되어 작업을 했다. 토마스가 피드백한 내용을 토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dramaturgy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자신이 쓴 내용을 어떻게 무대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score)가 진행된다. 대략 5분~10분가량의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진 자신의 이야기와 노래를 하는 배우들은 보통 첫날 presentation 했을 때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 마치 그간의 작업 집중도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모든 배우들의 모습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이렇게 보통 워크숍 하루일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중간 점심시간 이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워크샵 막바지에 가까울수록 6시 일정 후에서 센터에 남아 개인 작업을 하는 배우들과 멘토 들도 곧잘 있다. 본인은 마지막 presentation 발표 전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일이 있어서 일찍 숙소로 들어간다고 간 시간이 저녁 10시 경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새벽 4시까지 작업 후 오전 9시에 다시 센터로 돌아와야 했다고 한다.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살아있는 모습으로 무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도 마지막 presentation을 무사히 행복하게 마쳤던 기억이 있다. 살아있는 관객과 살아있는 무대 살아있는 나를 만나는 소중한 작업들. sing session을 하면서 토마스가 나에게 내밀어주던 손의 느낌 표정 그리고 노래와 나의 숨이 만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생기, 그리고 마리오 팀과 대화하듯 노래세션에 참여하면서 눈을 마주칠 때 느꼈던 온 감각이 지금의 내가 되어 숨 쉬고 있다. 집중도가 천문학적이라 자칫 감성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감성에 빠지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바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작업, 상대배우와의 아주 긴밀한 교감에서 느껴지는 섬세함 그리고 기다림. 연극이라는 작업만이 얘기할 수 있는 배우 자신으로서의 '나'그리고 배우간의 교감, 배우과 공간과의 만남, 살아있는 소리로의 초대 등등 이 모든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은 그로토프스키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길 적극 권하고 싶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워크센터 바로 옆에 있는 숙소부터 시작해서 Sodole, Othello, Alphaca까지 모두 네 곳으로 나뉘어 배정되었다. 본인은 Alphaca라는 숙소에서 묵었는데 워크센터에서 보통 걸어서 30분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근처에 몬테까를로(Montecarello) 라는 clock tower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인상적인 곳이다. Alphaca 숙소는 크게 네 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 2층에 두 곳 1층에 두 곳으로 나뉘며 본인은 1층 정 중앙에서 두명의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Alphaca 중 Ciliere라 불리는 그곳은 4개의 싱글 침대가 있고 주방과 조금 분리된 다이닝 룸과 욕실이 있다. 세탁기는 ciliere에는 없어서 다른 곳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세탁기를 사용한 후 빨랫대에 널어 세탁을 했고 작은 빨래는 가져간 빨래 비누로 손빨래를 해야 했고 건조기는 없어서 자연바람에 말렸다. 숙소에서 가까운 주변 음식점이나 supermarket은 없는데 Montecarello 시계탑 쪽을 지나 '알파끼노'라는 음식점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가도 될 정도였다고 들었던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숙소 안내장에 분리배출일이 있다는 얘기만 언급해 놓고 언제 무엇을 내놓아야 할지 적혀 있지 않았었다. 그리고 음식물 배출 용기가 따로 숙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검정색 봉지만 제공이 되어서 재활용쓰레기만 supermarket에서 장볼 때 받은 비닐봉지에 따로 분리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나중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했다. 장 볼 때나 음식점을 갈 때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반 음식점에서는 물을 기본 제공해 주지 않고 꼭 사먹어야 하는데 보통 컵으로 팔지 않고 유리병의 형식으로 2~2.5 유로만큼의 고가의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에비앙 물을 사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 훈련받을 때 이외 다른 지역에서 오픈 프로그램 참여 차 이동하게 되면 개인 병에 물을 챙겨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로토프스키라고 하면 보통은 신체훈련에 집중한 훈련을 떠오르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로토프스키 후기 작업이 정착된 이곳 Vallicelle 워크센터의 'Art as a Vehicle'운반수단으로서의 예술 작업은 비단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motions 라는 훈련 파트가 있지만 그것에 집중되었다기보다 배우 본질을 보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탐구하고 자신에서부터 출발한 예술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치밀하게 무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워크샵 첫날 3분가량의 presentation을 준비해 오라는 공지를 먼저 받게 될 텐데 자신의 작품과 어울릴만한 의상은 최대한 챙겨 가는 게 좋다. 화려하고 현란한 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에 꼭 필요한 의상이나 소도구까지 생각해 가면 좋고 그렇지만 presentation을 마친 첫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토마스 혹은 마리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 되어 질 것이다. 자신이 준비해 간 presentation의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작품의 의도를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배우자신이 구현해 내고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신이 알고 있던 '나'라는 틀을 깨기 위한 무한 open mind가 필요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한 없이 포용할 수 있도록 bathing suit (비키니) 의상을 받아들일 만한 몸과 마음자세도 자신과의 또 다른 만남이 될 것이다. 특히 노래세션을 할 때와 Mario와 함께 Pontedera 혹은 Florence 내 성당에서 진행되는 open program에 동참할 기회를 대비한 suit(남자배우의 경우) dress(여자배우의 경우)를 최대한 넉넉히 가져가보는 게 좋다. 비단, 의상으로 남녀를 차별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수 있겠지만 그런 맥락이 아닌 자신을 가장 돋보일만한 예의를 갖춘 의상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자유로울수 있겠다. 연극작업은 나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상보다 더 진지하고 진실된 태도로 연극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준비라고 생각해보자.

온전한 '나'로서의 준비..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outh Africa

CHAPTER 23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프로그램명 2018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3. 23 ~ 2018. 3. 29

작가명 박현지

레지던스 기관 소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 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는 2006년 독일 괴를리츠(Gorlitz)에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uropean Festival Association, 이하 EFA) 주관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매년 2회 개최되며, “축제의 역할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감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는 가치 아래 7일간 전 세계에서 온 45인의 젊은 축제기획자들이 축제 프로그래밍과 축제 기획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축제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예술적비전, 정치사회적 책임, 세계화, 네트워킹, 갱신과 지속가능성 등 축제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강연, 일대일 및 그룹 토의, 워크숍,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여러 형식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한다.

아뜰리에는 2006년 독일 괴를리츠에서 시작되어, 불가리아 바르나(2009), 싱가포르(2011), 터키 이즈미르(2011), 슬로베니아 루블루야나(2012), 레바논 베이루트(2013), 스코틀랜드 에든버러(2014), 폴란드 포즈난(2014), 레바논 베이루트(2015), 대한민국 광주(2015), 헝가리 부다페스트(2016), 태국 치앙마이(2016), 중국 상해(2017)와 이탈리아 메라노(2017)에서 개최되었고 박현지는 남아프리가 공화국 요하네스버그(2018)에서 개최되는 아뜰리에에 참가하게 되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첫 날, 오후 12시에 호텔 로비에서 간단하게 등록을 했다. 이름이 써져있는 명찰과 27명의 참가자들의 소개가 들어있는 책자 한 부,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이 상세히 적혀있는 가이드 북을 배부 받았다. 호텔의 식당에 모여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뒤, 첫 번 째 프로그램인 Constitutional Hill 가이드 투어를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브람피셔,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혁명가들이 투옥되었던 요하네스버그 형무소자리에 자리잡은 남아공 헌법재판소가 바로 투어 장소였다. 과거 형무소 건물을 그대로 보존 한 채, 1995년 그 형무소 터 위에 자리잡은 헌법재판소는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과거 형무소 벽돌을 이용하여 지어졌다. 투어는 '그 사회의 단면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는 철학 아래, 과거 형무소를 그대로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보여주며백인, 흑인, 유색인종을 차별대우했던 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형무소 투어를 마친 뒤 방문한 헌법재판소의 가장 인상깊은 것은 창문으로 밖을 볼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만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설계된 점이다. 이는, 사람들의 발만 보고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날 저녁, Wits University 에서는 오프닝 세레모니가 열렸다. 혼성 재즈그룹의 노래, 간단한 안주들과 와인, 샴페인과 함께하는 개회식에는 벨기에 대사관의 Hubert Cooreman 대사, 위츠 대학교의 예술학부 교수인 Brett Pyper, EFA의 매니징 감독 Inge, 마켓 씨어터 감독 Ismail 의 축하 연설이 이어졌고, 그 뒤에는 '오픈 마이크'시간이 펼쳐졌다. 첫 날 저녁인만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들 위주로 프리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이었다. 노래, 시 낭송 등등 자유로운 무대였다. 필자도 퍼포먼스 아티스트출신답게 한국의 전통노래와 연기를 섞어 짧게 무대에 섰다. 모두들 축제기획자이지만 아티스트의 면모를 가진 참가자들이었다. 퍼실리테이터 Mike는 숙소로 돌아가기 전 조심스레 내일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공식일정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 호텔에 도착했다.

둘째 날, 각자 조식을 마친 뒤 아침 8:45부터 공식 일정은 시작되었다. 주된 토론 일정을 소화하게 될 마켓씨어터(옛날 시장건물을 최초로 인종차별없는 극장으로 바꾼 역사적인 곳- 현재 가장 활발히 문화예술이 생산되는 곳)에서 퍼실리에이터 Mike가 대략적인 일주일간 우리가 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아웃라인을 잡아주었고 간단한 티타임 후 오전 11시 바로 토론으로 이어졌다. Diversity에 관한 내용이 주된 토론 주제였고, 토론 패널은 Mike 가 전날 밤 미리 지목했던 5명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도 그 중 한 명이었다. 5명의 패널에게 '다양성'과 관련된 각각의 조금씩 다른 질문이 주어지고 약 3분~5분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의견 혹은 보충의견 혹은 질문을 하면서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형식이다.

점심식사는 1시에 진행되었는데 사전 조사했던 분야대로 식사 테이블이 나뉘어져있었다. : 영화축제 테이블/ 문학 및 음악축제 테이블/ 시각예술축제 테이블/ 다원예술 테이블/ 유청소년 테이블 등.

식사를 마치고 2시 30분부터는 조를 나눠서 저녁시간 전까지 PESTEL기법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은 6시에 Windybrow Arts Centre 로 이동하여 짧은 공연을 보며 아프리카 전통 음식을 먹었고, 9시에 숙소행 버스에 모두 올랐다.

셋째 날, 오전 9시부터 어제와 비슷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퍼실리테이터 Mike가 회의실을 크게 4등분하여, Strongly Agree/ Agree/ Not Agree/ Strongly not agree 구획을 만들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 제시되는 질문들에 따라 구역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그는 참가자들에게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굉장히 까다로웠고, 하나로 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저럴 수 있는 질문들이라서 참가자들은 점점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는 토론들이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토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같았다.

티타임 이후에는, 멘토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었다. 칠레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 페스티벌의 기획자 Carmen, 네덜란드 예술축제 기획자 Annet,, 국제 Hay 페스티벌의 기획자 Cristina, Chale Wote 거리 예술 축제 기획자 Mantse 가 각자의 페스티벌을 간단히 소개했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하나같이 처음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축제 시작단계를 회고했다. 특히 Carmen이 "축제기획자는 직업이 아니라 mission"이라고 말해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 그만큼 축제기획은 힘든 일이며,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임을 명쾌하게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오후 일정을 위해 Apartheid Museum으로 향했다. 인종차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Apartheid Museum은 입장 때부터 랜덤으로 유색인종과 백인으로 차별된 티켓을 나누어준다. 가이드의 설명을 따라서 진행되는 박물관 투어는 담고있는 내용이 너무나 무거워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종차별이 갑작스레 법으로 생겨나고, 그 비상식에 맞추어 싸운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박물관 투어는 과거에 비추어 우리의 현재 삶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숭고한 시간을 제공했다. 박물관 투어를 마친 뒤 Soweto라는 마을로 향했다. 그 곳에서 로컬 아티스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우리는 거의 11시가 다 돼어 숙소에 도착했다. 하루에 많은 것을 소화하는 일정이 절대 녹록치 않았다.

넷째 날, 연속된 빡빡한 일정 탓에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던 일정. 이 날은 1시간 정도,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 어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프로그램은 너무 알차고 좋으나, 너무 빡쎄고, 긴장을 풀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 날부터는 참가자들 각자가 자신의 드림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3분. 참가자 6명씩 자신의 꿈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차례로 소개를 하면, 멘토들이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하는 식이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른 패널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이 날, Siphiwe라는 패널이 '마보냉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 필자가 생각하는 드림 페스티벌과 맥이 닿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보냉은 아프리카어로 '빛'이라는 뜻을 가진다. 소외된 지역에 예술가들이 들어가, 그 곳에 거주하면서 빈민층 거주민들의 집도 수리해주고, 꾸미면서 그들의 집을 개방하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획기적인 프로젝트였다. 패널들의 프로젝트 소개와 질의응답이 끝난 뒤 간단한 티타임을 갖고 우리는 다시 그룹작업을 시작했다. 둘째날 정해줬던 "지속가능한 페스티벌"에 관한 분석을 다다음날 조별 발표를 해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룹작업 후에는 마켓스퀘어로 이동을 해서 저녁을 먹었고, 그 곳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멘토들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시간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멘토 Carole 로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축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유용한 피드백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아프리카에서도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던 예술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다. 저녁 9시 30분, 우리는 호텔로 향했다. 이 날 저녁, 호텔로 오는 길에 마보냉 프로젝트의 기획자 Sipiwe 와 아시테지 축제 기획자 Yvette와 함께 맥주를 한 잔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아시테지 축제 기획자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두 사람은 열린 마음과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커다란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Sipiwe 는 자신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 Yvette 라고 말했다. 어린시절 연극동아리의 선생님이었다고. 10년 정도 후에 서로 각자의 길에서 커리어를 쌓고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너무나 반가워하며 서로를 대견해했다. 그 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Sipiwe는 필자의 프로젝트를 듣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었으며, 한국에서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되면 꼭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네트워킹 나이트란 무엇인가 절절히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다.

다섯번째 날, 이 날은 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좀 더 일찍 아침 8시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Global exchange'에 대한 주제로 아침 토론 1시간 30분을 벌였고,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에는 그룹 작업을 할 자유시간을 주었다. 12시에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인류의 요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동굴이 펼쳐졌다. 참가자들 모두 주황색 안전모를 쓰고 동굴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아이처럼 신나하고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토론과 분석, 발표 등으로 약간 지쳐있던 우리들은 체험활동을 만끽했다. 뙤약볕을 오래 걷고 난 후 그늘체험을 하는 거라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었지만 즐거웠다. 그 이후, 저녁에 원래는 연극을 보기로 했었는데, 이동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시간에 맞춰 공연을 볼 수 있을까 많이 걱정되었는데, 참가자 전원의 도움으로 겨우 시간에 맞춰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모두들 언제나 변수가 생기고, 돌발상황이 생기는 축제 현장속에서 일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이 정도의 돌발상황에는 개의치 않고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삼 이곳에 모두 훌륭한 축제기획자들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극관람 후 10시가 넘어서 숙소로 돌아왔다. 오늘고 꽉 찬 하루였다.

6번째 날, 드디어 그 동안 공들였던 우리들의 그룹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1등한 팀의 참가자는 다음 예텐보리 아뜰리에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룹 프리젠테이션 이후 투표를 통해 1팀을 뽑게 되었고, 그 중 발표자 한 명이 예텐보리에 가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경쟁적 구조였지만 모두들 서로를 응원하며 즐겁게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 후 마모냉 지역에 있는 “Less good idea”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William Kentridge가 사비를 털어 만든 이 센터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질의응답 중에서 약간은 얼굴이 붉혀질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경비가 상엄하냐는 참가자 중 한 명의 질문으로 아직 이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의 성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기에 제기될 수 있었던 의문이었다.

공식일정은 9시 30분에 종료되었고, 각자 마보냉지역에서 자유롭게 즐기다가 집으로 귀가하라고 했다. 아쉬운대로 참가자들은 몇몇이 그룹을 나누어 뒷풀이를 했다.

마지막 일곱번째 날.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토론 주제들을 다시한 번 복습, 상기하면서 각자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참가자들 한명 한명 아뜰리에에서 주관하는 인터뷰도 가졌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자유시간을 갖고 7시에 폐회식에서 만나기로 했다.

폐회식은 위츠대학교의 대강당에서 이루어졌고, Ismail, Brett, Darko, Mike, Inge의 폐회 연설과 수료증 증정으로 막을 내렸다. 저녁식사와 함께 마지막 밤 파티가 이루어졌다. 서로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응원하고 소식을 전하자고 다짐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던 필자에게는 사실 ‘아프리카’라는 막연한 환상적 이미지가 있었다. 초원이 펼쳐지고, 야생의 문화가 넘치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혀 환상과는 거리가 먼, 어찌보면 좀 평범한, 특히 요하네스버그는 여느 대도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서울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일단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서, 밤이 되면 여행객은 혼자서 밖을 다닐 수가 없다. 호텔에서 회의실이 있는 마켓시어터까지는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리조차도 혼자 걸을 수 없고, 호텔 가드나 마켓시어터의 프라이빗 가드가 옆에 붙어서 경호한다. 로컬 주민들도 이동할 때는 항상 우버를 이용한다. 필자가 어떻게 산책조차 할 수 없냐 너무하다는 식으로 불평하니, 모르는 소리라며, 이 곳은 굉장히 위험한 도시라고 연신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안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차별, 빈부격차, 빈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보니 그것이 화로 발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물가는 서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잠은 호텔에서만 잤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것은 없다. 식사에 있어서는, 조금 할 말이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음식은 ‘고기’다. 정확히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 소고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양념범벅으로 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갈비같은 느낌인데 누린내가 상당히 심하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것중에 우리나라 음식과 비슷한 내장요리들이 있다. 조리법은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누린내가 심해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먹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육포는 buton이라고 부르는데 많이 유명하고 맛있다. 여전히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 밥이랑 고기소스를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섞어 입으로 넣는 모습은 처음에는 낯설어서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다. Soweto에서 로컬 아티스트들과 밥을 먹을 때, 로컬 아티스트드가 그렇게 손으로 밥을 먹기에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느라 진땀 빼기도 했었다. 식당에서는 10~15% 의 팁문화가 있고, 친구들끼리는 더치페이를 꽤나 섬세하게 한다. 내가 먹은 한 잔 한 잔을 계산해서 나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계산을 하는데 10분씩 걸리기도 한다. 한국인처럼 계산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아뜰리에 경험은 굉장히 강렬했다. 무엇보다도 man power 에 가장 놀랐다. 특히 아뜰리에에 참가한 대부분의 젊은 기획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아프리카'에 대한 공통된 소명의식 같은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다같이 잘 살 수 있을지, 함께 예술을 통해 문화를 나눌 수 있을지, 삶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brother', 'sister'가 쉽게 되며, '가족'으로 엮인다. 그 공동체의식은 필자를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게 하기도 했는데,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우리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를 더 고민하지 않나. 또한, 그들은 만델라를 우상으로 섬기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세상을 바꾼다'는 혁명의식이 뿌리깊다. 내가 그들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혁명가'라고 말하고 싶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이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다. 그리고 마음을 쉽게 열고 친구가 되기 쉽다. 물론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긴 하다. 아프리카는 결혼을 일찍 한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모두 가정을 꾸려 아이아버지, 아이어머니였다. '가족'이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재미있었던 것 중 하나는 '폴리가미'라는 법인데 이는 아프리카 특유의 전통법으로 남자가 아내를 네 명 까지 둘 수 있는 법이다. 현대에는 많이 시행되지 않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직도 아내를 여럿 둔다고 한다. 대신, 첫 번째 아내의 허락없이는 두 번째, 세번째, 네번째 부인을 둘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첫째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을 지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은 무조건 아내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아뜰리에에 모였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인이었다. 그 중 짐바브웨 출신, 가나 출신, 콩고 출신 등등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정치와 법이 너무나 다른 것이 충격적이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에서는 하루아침에 학교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한단다. 그래서 참가자는 석사학위 공부 중이었는데 중간에 학교가 문을 닫아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정치 현상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분노 섞인 푸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케이프타운 출신의 친구는 건축공부를 했는데, 부모님은 자신이 건축학도로서 성공가도를 걷기를 바랬지만, 자신은 재즈가 좋아하서 현재는 재즈페스티벌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다보면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너무나 심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China

CHAPTER 23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프로그램명 2017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국가 중국(상해)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0. 17 ~ 2017. 10. 23

작가명 김신우

레지던스 기관 소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소개

2006년 독일의 괴를리츠(Gorlitz)에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uropean Festival Association, 이하 EFA) 주관으로 처음 개최됨.

매년 2회 개최되며, “축제의 역할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감행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라는 가치 아래 7일간 전 세계에서 온 45인의 젊은 축제기획자들이 축제 프로그래밍과 축제 기획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축제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7. 10 상해 아뜰리에 소개

상해국제예술제와 병행하여 열린 상해 아뜰리에는 20인의 중국 현지 참가자와 24인의 국제 참가자로 구성되었음.

상해대극장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적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멘토링, 참가자들의 발표 및 토론, 피칭 세션 참가, 공연 관람 등의 활동이 진행됨.

다음 멘토들은 각자 특별 분야에 대해 강연을 했고,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 로빈 아처: 호주 Th Light in Winter Melbourne 예술감독
- 마크 볼: 영국 LIFT 예술감독
- 버나드 파브르 다르시에: 프랑스 Lyon Biennial 예술감독, Avignon Festival 전예술감독
- 넬레 허틀링: 독일 HAU 극장 전 감독
- 캐서린 왕: 상해국제공연예술제 감독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멘토 주제 발표

캐서린 왕: 상해국제공연예술제 감독

상해국제공연예술제의 비전과 현황, 프로그래밍 방식, 프로그램 구성, 올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

특히 젊은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off 프로그램의 기획이 인상적이었음. 이렇게 발굴된 작가 중가 다음 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한다고 함. 축제 기간 중 350개 이상의 공연, 문화행사가 열릴만큼 거대한 규모의 축제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마크 볼: 영국 LIFT 감독 / 맨체스터 축제 신임 공동감독

축제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음 7가지 항목을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강연함.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소개하여 향후 축제기획자로서 마주하게 될 각종 난관을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인상이 들었음.

1)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라
2) 구체적인 숫자와 예산을 근거로 현실적인 계획을 도출하라
3)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4) 시각 디자인을 중요시하라 (브랜딩, 로고 디자인 등)
5) 젊은 관객을 확보하라 (음악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
6) 축제의 관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설문조사, 후속 리서치, 디지털 팔로어 등 진행)
7) 사람에 투자하라 (예술감독 혼자만의 독단적인 비전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직원 생일파티 등)

티안 게빙 (페이퍼타이거스튜디오 대표)

중국의 독립 예술씬에 대한 자세한 소개. 프로듀서의 역할, 제작비 조성 방식,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 방식, 극장 외 공간에서 공연하는 방식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
- 중국 예술계에 현존하는 정부의 검열 행위 소개

- 현재 중국 공연예술계 동향 소개

넬레 하틀링 (독일 HAU 극장 전 감독)
축제가 다른 예술행사와 차별되는 이유와 그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탐구 할 수 있는 발표. 축제야말로 가장 압축적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음.

요즘과 같이 축제가 난무하는 시대에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며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로빈 아처 (호주 Th Light in Winter Melbourne 예술감독)
아뜰리에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다양한 질문과 담론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던 발표로, 특히 축제기획자가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묘사.

축제는 모든 것의 합,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다양한 요소를 한데 모아 역동을 만들어내는, 배열의 미학. 예술감독과 운영감독의 존중과 균형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함. 모든 예술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은 예술은 엔터테인먼트. 가장 위험한 대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장이 바로 예술.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장. 이분법적이지 않은 회색의 공간. 공동체에 대한 존중. 모든 확실한 것들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의심.

참가자 발표

각각의 참가자들은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혹은 미래에 기획하고자 하는 예술 행사에 대해 발표를 함. 워낙 인원이 많아서 각자 발표 시간이 2~3분 내외로 제한되었다는 점, 따라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참가자들의(특히 중국 참가자들의) 배경과 관심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발표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웠음. 클래식, 상업, 컨템포러리, 음악, 문학 등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 같음.

멘토링

오늘날 예술 기획자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고민거리, 주제들에 대해 약 2~3시간 가량 토론하고 멘토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4~5차례 정도 주어졌음. 젠더, 기술처럼 포괄적인 주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실패한 경험담, 축제 예산 펀딩 방식, 프로그래밍 방법 등 멘토들의 노하우를 소규모 단위로 배우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유의미했음.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소그룹이 형성되었음.
1) 기술
2) 젠더 정체성
3) 지역 축제
4) 새로운 축제의 형식

5) 예술가가 기획하는 축제
6) 제작, 창작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축제
7) 국제주의
8) 언어와 문화 다양성
9) 실패의 경험담
10) 프로그래밍 노하우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중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역동하고 있는 예술 동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됨. 젊은 예술가들의 대담하고 실험적인 공연, 전시 등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편. 프로그램 일정이 워낙 촘촘했지만 틈틈이 미술관, 공연장, 예술거리 등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음.

호텔은 주요 행사장인 대극장까지 걸어서 15~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 편리했음. 점심식사는 대체로 대극장 내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저녁 식사는 중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매번 음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대부분 남겨야 했음. 중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함. 대극장 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대절버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음. 대기질이 나빠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축제 기획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법, 예산을 짜는 법,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법, 홍보를 하고 관객을 개발하는 법 등 아주 구체적인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특히 아뜰리에가 진행되는 현지 국가의 예술 동향을(이 경우 중국, 상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리서치 기회이기도 함. 체류 기간 동안 아뜰리에 프로그램 종료 후 남는 저녁 시간에 각종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것이 이러한 리서치에 큰 도움이 되었음.

그만큼 값진 것은 44명의 참가자 중 만나게 될 미래의 잠재적인 동료, 협력 파트너, 그리고 네트워크. 이번에는 각 참가자의 관심 분야나 예술적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지막 2~3일 안에 모든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이 좀 더 행사 초반에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협업까지도 성사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이자 장기적인 미래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음. 먼저 다가가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Hungary

CHAPTER 23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프로그램명 2016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국가 헝가리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6. 2 ~ 2016. 6. 8

작가명 김민제

레지던스 기관 소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은 2006년 독일 괴를리츠에서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Atelier for Young Festival Managers)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2013년에는 페스티벌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벨기에 브뤼셀 카이 극장의 창립자이자 전 디렉터인 휴고 드 그리프를 필두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로그래머 조나단 밀스, 아비뇽 페스티벌 전 디렉터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 트랜스아메리카 페스티벌 창립자 마리-엘렌 팔콘 등 내로라하는 공연예술축제 기획자 및 디렉터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아틀리에와 비슷한 기간에 해당 도시에서 주최되는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뽑은 45명의 젊은 축제 기획자들에 워크샵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페스티벌 아카데미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페스티벌을 만들어나가는 젊은 주체들을 대상으로 페스티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구축하고 차세대 기획자들에게 새롭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멘토 소개

휴고 드 그리프 (Hugo De greef): 페스티벌 아카데미 총괄 책임자,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 전 사무총장, 벨기에 브뤼셀 카이 극장 창립자이자 전 디렉터

로즈 펜톤 (Rose Fenton): 런던국제연극제(LIFT) 공동창립자이자 전 디렉터

조나단 밀스 (Jonathan Mills): 에든버러 페스티벌 예술감독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호텔에 도착하면 7박 8일간 머무르게 될 방을 체크인하고 참가자 등록을 한다. 짐을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정장으로 갈아입고 버스에 올라타 개회식 장소로 이동한다.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의 개회식은 무파 부다페스트(Müpa Budapest 혹은 Palace of Arts)에서 열렸다.

무파 부다페스트는 2005년에 개관한 문화예술공간들의 복합체로 2015년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영화 <마션>에서 중국의 국가항천국(中國國家航天局)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헝가리 문화예술의 본거지이자 허브를 표방하며 클래식부터 현대음악, 재즈, 월드뮤직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의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또한 젊은 아티스트들의 교류와 양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온 독보적인 공간으로서 무파 부다페스트는 아틀리에의 개회식이 열리기에 충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광각 렌즈 없이는 한 프레임에 담아내기 힘든 규모에 기획 당시 20세기 헝가리 건축에 전례 없는 시도였던 이 모던한 건축물의 파사드는 밤이 되자 변화하는 LED 조명에 의해 다양한 색의 빛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개회식은 여느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연사들의 환영사와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EFA 협회장(President) 다르코 브릭(Darko Briek)을 비롯한 페스티벌 아카데미 관계자들의 환영사가 줄을 이었고 아틀리에의 멘토들 중 한 명인 조나단 밀스 기조 연설이 있었다. 이후 라이브 음악 공연과 함께 리셉션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공식적인 첫 네트워킹을 가졌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페스티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기에 개회식 드레스코드인 정장이 사뭇 어색해보이기도 했지만,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많은 기획자들답게 금세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9시 즈음에 호텔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첫 날의 일정은 끝이 난다.

둘 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6일 간의 세션은 크게 아틀리에 멘토들과 프레젠터(페스티벌 기획자 및 디렉터)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식 대담, 참가자들의 페이퍼 발표(페이퍼의 내용을 토대로 짧은 시간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력하는 것으로 피칭의 형태는 아니다), 페스티벌에 관한 화두들(Topics of Atelier), 주제별 토의와 사례 공유(Working Session), 호스트 페스티벌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부다페스트 아틀리에는 아멜 오페라 페스티벌의 주요 배역 오디션 및 워크샵 참관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룹별 주요 문화예술공간(극장, 레지던스, 스튜디오 등) 방문으로 나뉜다. 그 외 미술관 및 공연장 투어와 공연 관람 등 오로지 부다페스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2일째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던 그룹 세션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로 최대한 많은 의견과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끔 주제 선정부터 그룹을 나누는 것까지 매번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연예술뿐 아니라 디자인부터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비전을 가진 참가자들만큼 현재 멘토들의 구성은 좋았으나(런던의 문학 작가 지원센터 Free Word의 디렉터를 역임한 런던국제연극제 창립자 로즈 펜톤 등) 참가자들

의 토론을 주로 이끌었던 조나단 밀스 에든버러 페스티벌 디렉터의 조언들이 다소 공연예술을 비롯한 특정 장르에 치중되어 특히 인디뮤직 페스티벌이나 실내악 위주의 클래식 페스티벌 등에서는 크게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든 점도 더러 있었다.

이 중에서도 아틀리에가 행해지는 목적인 동시에 아틀리에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세션은 단연 '페스티벌에 관한 화두들(Topics of Atelier)'일 것이다. 처음에 주어지는 10여 개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번 멤버 구성이 다른) 세 그룹으로 나뉘어 어떤 것을 더하고 뺄 지 토론하는 것이 사실상 아틀리에의 큰 맥락이며 아틀리에가 끝날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좀 더 나은 일련의 항목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그룹별로 추려낸 것들을 총회의 형식으로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후에도 멘토들과 함께 혹은 참가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끊임없이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아틀리에에서 완성된 버전은 다음 아틀리에에서 또다시 새로운 참가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다.

폐회식은 헝가리국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연사들의 폐회사에 이어 두 명의 참가자가 대표로 이번 아틀리에에 대한 소감과 성취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멘토들이 한 명씩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폐회식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아비뇽 페스티벌의 전 디렉터(예술감독)인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Bernard Faivre d'Arcier) 경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비록 비공식 참가였지만 작년에 울산의 전통연희단체인 동해누리의 코디네이터로서 다녀온—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후 해외진출 총괄프로듀서로 일하게 되었던—헤외 페스티벌이 바로 아비뇽 페스티벌이었기에 그 감회는 오래 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참가자들과 멘토들은 헝가리국립미술관에서 그림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만찬을 즐겼고 테라스에서 와인과 함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틀리에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을 경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과 그룹 세션이 이루어졌던 부다페스트 뮤직 센터는 모던한 양식의 건물로 도심과 조금 떨어져 비교적 한적한 곳에 위치한다. 1층의 콘서트홀 뿐 아니라 워크샵과 같은 부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도서실 등 활용도가 뛰어나다. 실제로 아틀리에 프로그램 뿐 아니라 아멜 오페라 페스티벌 세미파이널 오디션과 5개 협력 극장의 배역 워크샵이 센터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콘서트홀은 클래식 및 오페라 전용 공연장답게 최상의 어쿠스틱 사운드를 위한 잔향 설계가 돋보인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틀리에 지원은 보통 8개월 전에 페스티벌 아카데미 공식 사이트의 News를 통해 공지된다. 아틀리에가 개최되는 도시의 사진과 행사에 대한 개요와 일정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정보가 함께 게재되고, 프로그램 세부사항(Program Details) 하단에 지원서 양식(application form)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참가자 선정을 위한 구글 독스 설문조사 양식의 지원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틀리에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므로 문항과 그에 대한 답변 일체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서 양식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으로 시작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태어난 도시와 국적을 적는 사이에 자신이 속한 대륙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아틀리에 초기에는 주최측인 EFA의 지역적 특성상 유럽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매회 타 대륙에서의 참가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는 페스티벌 아카데미 측에서 늘 눈여겨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번 부다페스트 아틀리에만 해도 호주와 미국에서 역대 최다 참가자들을 유치했고 아틀리에의 총괄 책임자인 휴고 드 그리프 역시 이를 강조했다. 자신이 소속된 혹은 대표하는 단체 정보까지 입력하고 나면 프로필 단이 끝난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관식 및 서술형 문항들이 나온다. 페스티벌 현장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경험, 교육적 배경(학력)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맡고 있는 직무를 자유롭게 기입하고 나면 아틀리에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이전 아틀리에 지원 여부, 아틀리에를 처음 접한 계기, 아틀리에에서 대표할 지원자의 단체 그리고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있는지와 지원 단체 및 기관명, 지원 범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사업의 일환으로 매 아틀리에마다 1명의 참가자에게 참가비와 왕복 항공료가 공식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참가자 선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동기서(Motivation Letter)를 작성한다. 페스티벌의 측면에서 혹은 페스티벌 자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예술적 견해를 서술하면 된다. 선정위원회가 참가자를 뽑는 가장 큰 기준 두 가지가 프로필에서 답변한 문화예술관련 경력과 이 동기서라고 보면 된다. 또한 이 동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틀리에에서의 토의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동기서가 7일간의 아틀리에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언급되지는 않고, 실제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쓰게 될 페이퍼는 아틀리에 합격 후 별도로 작성하게 된다. 후술.)

EFA 회원 여부를 선택하고 (회원과 비회원은 참가비가 다름) 제출(Submit)을 누르면 아틀리에 참가를 위한 지원 과정의 첫 단계가 완료된다. 제출 기한은 처음 공지되었을 때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혹시 마감을 놓쳤더라도 지원서는 내보는 것이 좋다.

준비하기

약 한 달 후 합격 여부 통지가 페스티벌 아카데미 측에서 메일로 온다. 합격한 경우 귀하의 지원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말과 함께 아틀리에 선정에 대한 공식 문서와 1차, 2차 참가비 지불 요청서가 첨부되어 발송된다. 이 때 참가 확정을 위해 몇 주 내로 선금 €300(유로)를 해외 송금해야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페스티벌 아카데미와 파트너쉽을 통해 공식적으로 참가자를 지원하는 관계로 페스티벌 아카데미는 문예위 국제교류부에 합격자 명단을 전달하기 때문에, 메일을 받고 며칠 내로 문예위 국제교류부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페스티벌 아카데미와 협의되는 바에 따라 문예위 국제교류부에서 참가비 일체를 페스티벌 아카데미로 한 번에 송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예위 지원 사업의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면 이 때 선금을 직접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아틀리에에 참가 선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간혹 다른 모듈을 추천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은 필자와 함께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에 지원했다가 필자보다 앞서 불합격 통지와 함께 아틀리에 대한 페스티벌 아카데미에서 최근 론칭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페스티벌 프로덕션 매니지먼트'과정을 권유받았고 해당 과정에 다시 지원해 합격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틀리에보다 앞선 1월에 벨기에 앤트워프(안트베르펜)에서 첫 번째 모듈이 진행되었고 아틀리에 한 참가자는 페스티벌 프로덕션 매니저 과정과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에 모두 합격하여 둘 다 참가하기도 했었다. 두 참가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아틀리에보다 입문자를 위한 과정이라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20년의 경력을 지닌 참가자도 있었다고 하니 아틀리에와 타겟팅을 달리 한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

문예위 국제교류부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거나 합격자가 국내에서 본인 1명 뿐인 경우 이 시점부터 참가 직전까지 약 7개월 간 사업보조금을 수령을 위해 문예위 국제교류부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학교 재학 및 직장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하 NCAS, www.ncas.or.kr)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전에 문예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보조금 주관기관 사업 공모에 지원한 적이 있다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NCA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아틀리에 참가비 지원 또한 크게 '지원신청', '교부신청'그리고 사업(아틀리에 참가)이 종료된 후 '정산 및 결과보고'로 나뉜다.

지급받은 사업교부금 범위에 맞게 왕복 항공료를 직접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까지가 아틀리에 직전까지의 과정이다. 지원신청서는 참가 동기와 활동 계획 그리고 기대 성과를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아틀리에 합격자가 여럿일 경우 지원신청서에 차별화된 자신만의 비전이 드러날수록 사업 수혜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같은 해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최우수 활동가로도 선정되어 부다페스트 아틀리에가 끝난 직후 루마니아로 넘어가 2016 시비우 국제연극제 자원활동가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문예위 국제교류부에서 항공료를 지원한다, 2015년 선정자 기준) 시비우 국제연극제의 오리엔테이션(사전 교육) 기간과 아틀리에가 완벽하게 겹친 탓에 시비우 국제연극제에서 일할 기회를 아쉽게 양도해야 했었다. 대신 아틀리에 참가 전 독일 칼스루에 소재 미디어아트센터인 ZKM에 들러 기획하고 있던 칼럼을 위해 실무자와 인터뷰를 하고 왔었다. 유럽으로의 왕복 항공료를 제외한 아틀리에 전후의 개인 일정에 대한 경비 일체는 본인 부담이다.

문예위 국제교류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지원금 교부를 준비하는 동안 페스티벌 아카데미로부터도 꾸준히 메일을 받게 된다. 항공 예약을 비롯한 여행 준비에 앞서 페스티벌 아카데미에서 메일로 참가자 등록 시간대와 보험 유무, 날씨나 환율 같은 도시에 대한 정보 등을 공지한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공식 서류도 페스티벌 아카데미 측에 요청할 수 있고 행사 기간 전후로 추가 숙박 예약(참가자 부담)과 참가자 개인의 종교나 식단 및 건강 상태와 관련한 통지도 이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위에서 언급했던 페이퍼를 영어로 제출하게 된다. 이는 지원서에서 작성했던 동기서와 별개로 새로 써내야하며 분량은 최대 2,000자로 역시 구글 독스를 통해 주어진 데드라인까지 제출한다.

참가자들 각자가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간략히 설명하되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페스티벌의 구성을 기술하거나 기성 페스티벌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도 된다. 프로젝트의 지리적 특성이나 목표로 하는 관객, 페스티벌 개최 빈도 등의 맥락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혹은 기존의 페스티벌에 반영하여 변화시키거나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페스티벌 자체에 대해 무엇이든 쓰라고 한다. 아틀리에에서 각자의 페이퍼를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토대로 참가자들 사이에 실제로 많은 교류가 발생하므로 메일로 사전에 배부되는 다른 참가자들의 페이퍼 역시 참가 전까지 미리 읽어가는 것이 좋다.

아틀리에가 다가오면 항공 스케쥴(도착 예정 시간)과 아틀리에 가이드에 실릴 증명사진을 송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일정과 참가자 명단 등을 미리 PDF로 받아보게 되는데 지원서 제출 당시의 소속과 달라졌거나 틀리게 기재되어있다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틀리에 참가를 목전에 두고 주어지는 마지막 미션이 있는데, 바로 아틀리에가 시작될 때 단 몇 분 간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활용할 어떤 물건을 준비해가는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거나 스스로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동기부여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며, 자신의 직업 생활 및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첫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보기를 권한다.

끝맺으며

무파 부다페스트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필자는 엄청난 인파 속에서 일행들을 놓쳤었다. 워낙 규모가 큰 공간인데다 출발 장소도 따로 공지되지 않아 홀로 우왕좌왕하던 중 다행히 나와 마찬가지로 길을 잃은 멘토 두 분과 다른 참가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나머지 일행들을 기다리던 중 런던국제연극제(London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LIFT)의 공동창립자이자 아틀리에 내내 참가자들과 함께 했던 멘토인 (그리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동경하는) 로즈 펜톤 여사로부터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 전 아비뇽 페스티벌 디렉터 그리고 아틀리에의 A부터 Z를 모두 책임지고 관장한 휴고 드 그리프 경 세 사람의 첫 만남에 얽힌 사연부터 로즈 펜톤 여사가 처음 페스티벌을 만들던 초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래 내용을 공개적인 칼럼으로 쓰는 것에 대하여 로즈 펜톤 여사의 동의를 얻었음을 미리 알린다.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기술함.)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제외하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전무했던 당시, 좀 더 실험적인 성격의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었던 로즈는 스물세 살의 나이에 친구 루씨 닐과 함께 페스티벌을 만들기로 한다. 두 사람 모두 갓 대학교를 졸업한 신분으로 밤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 어렵게 해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갈수록 도와주는 이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어느 귀인의 도움으로 공짜로 얻게 된 아파트를 사무공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페스티벌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과 확실한 공동의 비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로즈는 페스티벌 기획자로서 폴란드의 어느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폴란드 대사관에 직접 문을 두드렸다. 폴란드 대사관에서는 영국문화원과 연계하여 두 사람을 적극 지원해주었고 두 사람은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가게 된 페스티벌에서 한 날은 카페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로즈 여사보다 4년 정도 앞서 페스티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휴고였다. 그리고 이후 무일푼으로 아비뇽 캠핑장에 갔던 로즈와 루씨 닐에 티켓을 제공해준 사람이 아비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었던 베르나르였고, 휴고는 그 해 처음 아비뇽 페스티벌과 콜라보레이션으로 극을 기획한다. 그렇게 35년 전에 시작된 세 사람의 인연이 지금의 아틀리에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한편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운을 뗀 건 사실 베르나르 경이었다. 요즘이야 인터넷을 위시한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만, 아비뇽 페스티벌 역시 맨 처음에는 전화기 한 대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소통은 손편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무실에 타자기가 들어온 건 시간이 좀 더 흘러서였고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마친 로즈 여사는 말했다. '페스티벌 기획자'는 누가 명명하는 게 아닌 자신 스스로 말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두 멘토의 말을 정리하자면 결국 시작하고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젊은 축제 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했고 우리 참가자들은 과연 몇 년 혹은 몇 십 년 뒤에 어떤 관계가 되어있을지 궁금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의 중요한 멘토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조나단 밀스 예술감독은 페스티벌이 온 감각기관을 동원해 느끼는 하나의 체험이라고 말했다. 아틀리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틀리에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큰 그림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참가자마다 경험도 인상도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젊은 축제 기획자들이 페스티벌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논의'와 '교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관계를 지속

해나간다는 점에서 필자는 한국에서도 현장의 많은 기획자들이 참가하여 아틀리에의 동문(Alumni)으로서 이 발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아시아의 입지를 다져나갔으면 한다.

지금부터는 아틀리에 외에도 페스티벌 아카데미가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보고자 한다. 페스티벌 아카데미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페스티벌을 만들어나가는 젊은 주체들을 대상으로 페스티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구축하고 차세대 기획자들에게 새롭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페스티벌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과정의 경우 페스티벌 등에서 활동하는 프로덕션 매니저를 타겟으로 하며, 페스티벌의 미션을 실현하고 예술감독의 입장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는 것에 입각한다. 입문과 페스티벌 현장에서의 실습 그리고 마무리 워크샵까지 3가지 모듈을 최소 1년 이상 수행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 2017년 1월에도 벨기에 앤트워프(안트베르펜)에서 첫 번째 모듈이 시작된다. 내년도 과정에 대한 지원은 올해 9월 중순까지 모집했었다. '페스티벌 읽기(The Festival Readings, 의역)'는 3일 간의 행사로 페스티벌 현장에서 내로라하는 연사들이 모여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페스티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본 과정은 페스티벌 기간 내 개최되며 페스티벌에 참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먼저 제안해오는 페스티벌의 축조위와 페스티벌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기획한다.

이상 두 과정은 유럽 밖의 타 대륙 참가자의 비중이 아직 현저히 낮다. 앞으로 아틀리에 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도 늘어나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과 같은) 오직 페스티벌을 주제로 한 협의체와 논의의 장이 생겨나기를 바라본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Denmark

CHAPTER 24

덴마크 오딘씨어터

프로그램명	오딘씨어터(Odin Theatret)
국가	덴마크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14 ~ 2018. 8. 23
작가명	배요섭

레지던스 기관 소개

덴마크 홀스테브로라는 작은 도시(인구 3만)의 외곽에 위치한 극단이다. 옛날 축사를 개조하고 증축하여 50년 넘는 기간동안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블랙룸, 레드룸, 화이트 룸, 블루룸 네개의 스튜디오겸 공연공간이 있고 여기서는 여러가지 워크숍과 공연등이 벌어진다. 3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공간도 있다. 개인실, 2인실 다인실 등 여러 종류의 방들이 있고, 욕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책임으로 여러 공간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관련된 라이브러리, 오딘극단의 50여년 작업에 대하 아카이브가 잘 정리되어있다. 몇개의 부엌공간에서는 각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식당과 큰 수퍼마켓이 있고 주변에는 주택가들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이 레지던스는 오딘극단의 전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도착하는 날 오딘 극단의 최근작품을 관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딘 극단의 전통방식의 훈련들이 소개 된다. 기본적인 움직임, 소리, 노래, 춤 등과 관련된 훈련들을 짧지만 강도높게 체험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창작된 작품들중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여러 레파토리들이 매일 두개씩 공연된다. 극단의 배우들 전체가 출연하는 앙상블 공연에서부터 혼자하는 솔로 공연들까지 다양한 형식의 공연들은 참여자들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다. 그 사이사이에는 극단의 주요 배우들이 창작이 방식을 보여주는 워크 데몬스트

레이션이 열린다. 이것은 일종의 렉쳐 퍼포먼스 같은 형식인데 배우들 각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공연형식으로 소개해준다. 매일 오후에는 유제니오 바르바와 미팅이 있고, 뮤지션들, 오피스멤버들, 아카이브 운영팀과의 미팅을 통해 극단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50여명이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는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공간을 청소하고, 바터퍼포먼스(물물교환)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열흘동안의 프로그램동안 모든 식사와 숙박은 극단 측에서 제공된다. 지역 커뮤니티센터와 협력을 통해 점심과 저녁은 부페식으로 나오고, 아침에는 지역 빵집에서 신선한 빵이 배달되고 주어진 우유, 치즈, 씨리얼등을 참여자들이 준비해서 먹는 방식이다. 채식주의자들의 메뉴를 따로 준비해준다. 숙박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인실에서부터 다인실까지 주최측 임의로 배분된다. 주변 주택가의 비엔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쉴 틈없이 꽉 짜여져 있어서 다운타운에가서 여유를 즐길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프로그램 안에서 근처 바닷가에 가서 잠시 바람을 쐬고오는 시간을 배려해주는 정도가 다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딘 극단은 주류 연극계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연극의 본질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극단의 정신의 힘을 믿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체계와 훈련의 방식, 창작의 방식들을 오랜 시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그로토프스키와 함께 유럽 아방가르드 연극의 매우 중요한 유산이라는 점에서도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Austria

CHAPTER 25

오스트리아 댄스웹

프로그램명	댄스웹
국가	오스트리아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7. 12 ~ 2017. 8. 16
작가명	김현신

레지던스 기관 소개

비엔나 임풀스탄츠의 댄스웹 장학금(Impulstanz danceweb scholarship)은 일반 아트 레지던시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먼저 댄스웹은 5주 간의 프로그램으로 임풀스탄츠 페스티벌과 함께 이루어진다. 임풀스탄츠는 그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용페스티벌로, 몽플리에 단스 (Montpellier Danse)와 베를린의 탄츠임 아구스트 (Tanz im August Berlin)와 함께 유럽에서는 주요 3대 페스티벌로 꼽힌다. 임풀스탄츠만의 특징은 약 5주 간 146개의 공연과 함께 265개의 무용관련 워크샵이 이루어진다. 댄스웹은 전해의 12월 달에 참가자 모집이 마감된다. 올해는 59개국에서 920명이 67명의 자리에 지원하는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이다.

댄스웨버 (dancewebber, 댄스웹에 참여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뽑히면 5주 동안 비엔나에서 숙식하며 워크샵을 듣고 공연을 본다. 그 이외에 댄스웹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50유로로 자전거를 빌려주며 약 67명이 오스트리아의 음악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욕실이 있는 방에서 각자 지내게 된다. 부엌은 한 층에 하나씩 있으며 한 층에는 약 12명이 함께 산다.

댄스웹의 특징 중 다른 한 가지는 멘토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안무가이자 한 때 댄스웨버이기도 했던 도리스 울리히(Doris Uhlich)가 멘토를 맡았다. 멘토와는 첫 주를 주로 함께 보내며 첫주에는 함께 춤을 추며 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며 67명을 함께 알아갔다. 이후에 워크샵과 공연관람이라는 빡빡한 일정이 삼 주 간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주를 또한 함께 보내게 된다. 올해는 도리스의 아뜰리에에서 원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댄스웹과 댄스웨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한나 바우어(Hanna Bauer)로 비엔나 가기 전부터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현지에서 한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데니스 욘손(Dennis Johnson)도 있다. 무슨 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소통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위에서 언급했듯이 댄스웹은 자기 작업을 중심으로 창작하는 레지던시가 아니다. 총 5주 간에 멘토와 다른 댄스웨버들과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함께 보내게 되며 중간의 3주는 워크샵과 공연관람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 3주 간은 정말 각 개인이 신청한 공연과 워크샵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보통 첫수업을 들으러 9시에 떠나서 약 3-4개의 워크샵을 들은 다음에 공연을 관람하고 오면 보통 밤 11시나 12시 경에 돌아왔다. 이걸 3주간 반복하면 정말 빡빡한 스케줄이다. 물론, 필자만큼 모두가 그렇게 많은 워크샵을 듣고 공연을 보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무용인들과 안무가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도 에너지가 많이 든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만남이 많은 만큼 댄스웹에 참여할 때는 열린 자세로,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5주간 쉼 없이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불가능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워크샵은 무용기술을 배우는 워크샵부터 안무가 무엇인 지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샵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또한 리서치 프로젝트나 필드 프로젝트라고 해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사와 움직임을 연구하거나 강사의 지도 하에 자신의 작업을 발전해나가는 수업도 있다. 댄스웹의 특징상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리서치 프로젝트나 필드 프로젝트는 본인이 원하면 최소 하나를 들을 수 있고 워크샵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필자는 안무가 이보 딤체프(Ivo Dimchev)가 진행하는 Do Yourself a Favor라는 필드 프로젝트에 참여해 필자 본인의 솔로를 더 발전시켰고 평상시에 잘 듣지 못하는 워크샵을 위주로 Voguing, Wacking, Afro-Jamaican Dancehall을 들었다. 임풀스탄츠의 장점 중 한 가지는 현대무용(Contemporary Dance)를 유럽중심적인 시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현대무용을 함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Mixed Abilities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춤을 추는 프로그램이 탄탄히 자리 잡혀있다는 것이다.

워크샵 인연으로 Museumsquartier에 일반인들 앞에서 볼레로 공연에 참여하게 됐고 이후에도 안무가이자 올해 멘토였던 도리스 울리히 작품에 춤을 췄다.

5주 동안 66명의 다른 댄스웨버와 함께 살면서 정말 뜻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처음에는 그 수에 정말 깜짝 놀라지만, 5주라는 시간은 금장 지나가 버리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마음 속에 남는다. 댄스웹의 또 다른 힘은 정말 66명의 무용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필자 본인은 독일문화에 꽤 익숙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숙식이나 문화 자체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요즘은 한국음식도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고 기숙사 근처에 그리울 때면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다.

다만, 필자 자신이 작업을 할 때 “이방인의 정체성”, “다름 (other)”, “현대무용에서의 서양 우월주의”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창작을 하고 평상시에도 인종차별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비엔나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쉽게도 비엔나에 머물면서 댄스웹에서 PoC(People of Color, 유색인종) 댄스웨버들은 경찰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 특히, 기숙사 근처의 경찰서에서 유색인종 댄스웨버들을 주시하며 터무니 없는 이유로 추행했다. 홍콩계 캐나다인 친구는 연달아 이유 없이 경찰이 기숙사까지 비자를 보여달라며 쫓아왔고 이집트인 친구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빨간 불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기숙사까지 따라간 후에 경찰서에 데리고 가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언어와 신체폭력을 가했다. 이 경우는 필자를 포함한 몇 명이 그룹을 결성해 끝까지 항의를 한 끝에 임풀스탄츠가 동의해 현재 소송을 걸 예정이다. 반대로 백인 댄스웨버들이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한 상황에서 경찰은 다음 번에는 그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처벌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해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피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유색인종을 향한 경찰의 추행은 더욱 더 심해진다. 그러나 주최측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이 자리를 빌어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 주의하며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언급한다.

워낙 페스티벌에 엮어있기 때문에 비엔나를 탐구하거나 워크샵, 모임이나 공연이외의 관광을 할 시간은 앞뒤로 시간을 잡지 않는 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다. 관광을 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이전이나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싶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무용인이라면 댄스웹에 한번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기억에 난다. 처음에는 66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숙식하며 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무용을 사랑하고 안무가 무엇인 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 어떻게 보면 워크샵을 듣고 공연을 관람한 것 보다 다른 댄스웨버들과 얘기를 나누며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 싶다.

준비사항이라면 많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니 영어로 소통하고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어야 참여가 수월할 거 같다. 그룹 중에 한 명은 영어와 독일어로 소통이 안돼서 얘기를 나눌 때면 소외되는 느낌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다. 춤을 정말 사랑해서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싶어서 댄스웹에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춤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끌렸는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원서를 쓰는 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United Kingdom

CHAPTER 26

영국 더플레이스 CHOREODROME

프로그램명	더플레이스(The Place)
국가	영국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31 ~ 2018. 9. 14
작가명	김이슬

레지던스 기관 소개

Choreodrome은 매년 여름 7-9월 18명의 아티스트들이 영국 런던 The place에서 1-2주간 자신들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나눌 수 있는 레지던시이다. 또한 그 기간에 자신들의 작업들을 나누고, 서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또한, 레지던시 참가 기간과 맞물려 안무가들이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과정을 나누는 것 뿐 아니라, low-tech의 블랙박스 극장 형태에서 자신의 작업을 일반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Touch Wood 공연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레지던시 참가기간 2주간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Touch wood와 Studio Sharing 이다. Touch wood는 첫 주, Studio sharing은 두 번 째 주에 각각 진행되었는데, 내게는 레지던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 이었던 것 같다.

Touch wood

Touch wood는 choreodrome 참가 아티스트들이 관객에게 그 창작과정이나 창작의 일부를 선보이는 공연 시리즈 이다. 3일간 12명의 아티스트들이 약15분간씩 공연하며, 공연 후에는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들이 이끄는 피드백 세션도 함께 진행되어진다. 처음 방문하는 런던에서 현지 관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에 감사했고, 공연 이 후 피드백 세션 또한 굉장히 흥미로웠다. '관객과의 대화'처럼 일방적인 질문과 답의 형식이라기 보단 자연스럽지만 구조적인 피드백세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조금은 아쉬웠던 choreodrome 레지던시 기간이었으나, Touch wood와 studio sharing의 피드백 세션에서 만난 관객과 관계자들을 통해 런던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확장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Studio sharing

Studio Sharing은 극장환경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공연 형태와는 달리, 스튜디오 안에서 아티스트들의 리서치과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드백 세션 역시 Touch wood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졌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choreodrome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긴 레지던시 기간 안에서 각각 개별로 1-2주의 레지던시 기간을 가지는 choreodrome의 특성상 하나의 플랫폼안에서 서로의 sharing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흩어져서 Touch wood 공연이나 각자의 작업에 더 집중하다보니 그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일반 관객과 함께 시도해볼 수 없었던 것을 과감하게 실험해 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이야기들을 나누어준 더플레이스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했다.

weekly lunch get together

작품과 작업의 관련된 활동 외의 아티스트들, 스태프 및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Choreodrorome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점심 미팅이 있었다. 특별한 프로그램 이라기 보다는 사실 더 플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의 무용센터이다 보니 수많은 부서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11개의 스튜디오의 나누어 작업하게 되는 아티스트들이 한 번에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시간이었다. 레지던시 기간 중 다른 아티스트들을 마주치는 시간을 찾기 어려웠기에, 이 시간을 통해 스태프들과 아티스트, 관계자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다만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를 더 기대했던 나로서는 좀 더 잦은 교류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choreodrome이 여러 아티스트가 오고가는 큰 규모의 단기 레지던시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지니지 않았을까 싶다. choreodrome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서로 공유하는 레지던시라기 보다는 각자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큰 플랫폼 안에서 선보이고 공유하며, 그 과정 중 피드백이나 자유롭게 나누어지는 확장된 대화들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기관 자체의 레지던스가 있거나 숙박을 연결해 주는 등의 형태가 아니라 항공과 숙박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자체적으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형식이었기에, 처음에 숙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다.

숙박은 더플레이스의 위치가 런던 내 큰 기차역인 킹스크로스가 가까운 교통의 중심부였기에 정말 많은 호텔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1박에 10만원으로도 인터넷이 해결되고 적당히 쾌적한 호텔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더플레이스와 걸어서 5분거리도 안되는 굉장한 가까운 거리로 위치한 호텔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호텔의 정말 작은 1인실이었다. 화장실과 샤워실 또한 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층에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였으나, 식사도 걱정하던 차에 가벼운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것에 마음이 갔다.

부엌이 있는 숙소가 아니라 호텔이었기에 점심과 저녁은 모두 사먹는 방식이었다. 평소 차가운 샌드위치 보다는 따뜻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터라 걱정을 했었으나, 오히려 터키음식, 이탈리안, 태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았던 것 같다. 사실 런던은 어떤 대표 음식 같은 것들이 특별히 있다기 보다는 프라이나 피쉬앤칩스가 유명하나, 너무 기름진 음식이 많아 자주 먹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내게 런던은 대도시인 서울과 뉴욕 같은 느낌을 주어서 사실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긴 어려웠으나, 도심 속에 작은 공원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오래된 광장과 공원 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도시 중심 속에서도 아름답고 한적하게 유지되고 있어 빌딩숲속에서 쉽게 언제든 전혀 다른 휴식도 즐길 수 있었다. 광장들과 공원들이 많은 만큼 그 광장들과 공원들에 다양한 시장Market 등도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있었다. 동네와 지역 별로 다른 느낌과 다른 물건들이 특성화 되어있었고, 때문에 먹는 것도 식당보다는 market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들도 느껴볼 수 있었다. 물론 수많은 여행객이 들리는 도시인 만큼 큰 프랜차이즈 상점, 음식점, 카페 등이 점령해버린 market들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공간자체가 흥미로운 곳이 많았다. 새로운 빌딩과 건물들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오래된 구조의 빌딩, 광장, 공원 등이 그 자리에 오랜 시간 위치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 도시화와 상업화가 더 진행된 곳, 오래된 것들이 더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있었지만, 런던이라는 도시 속 각기 다른 공간마다의 특징과,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더 지켜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던 듯 하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Austria

CHAPTER 27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프로그램명	Salzburg Global Seminar Young Cultural Innovators
국가	오스트리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10. 16 ~ 2018. 10. 21
작가명	주남희

레지던스 기관 소개

Salzburg Global Seminar

1736년 잘츠부르크 대주교 Leopold Anton Freiherr von Firmian(1679-1744)의 저택

1744년 조카 Laktanz Firmian(레오폴드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후원자, 예술품 수집가)에게 저택을 양도함

1786년 Laktanz 사망 이후 1837년 총포상 George Zierer, 바바리아 왕국 Ludwig Ⅰ(루드비히 1세), 은행가 Carl Spängler, 웨이터 등에게 팔렸다가 1918년 독일 연출가 Max Reinhardt에게 팔림

막스 라인하르트는 잘츠부르크 극장에서 활약하며 특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20년 동안 현재 레오폴드스크론 성의 연회장, 서재, 베니스 방 등을 만듦

1938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재산으로 몰수되었고, 나치는 이를 여름 별장으로 사용함

1945년 종전 이후 라인하르트 집안으로 귀속되었음

1947년 미망인 Helene Thimig과 인연이 있던 하버드대 대학원생 Clemens Heller가 전후(戰後) 세계의 복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Salzburg Global Seminar'를 주창하면서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사무국으로 쓰이게 됨

Young Cultural Innovators 프로그램

Salzburg Global Seminar는 1947년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을 간 오스트리아 학생 Clemens Heller 외 2명이 지성(智性)의 재건 즉, 'Marshall for the Mind'를 주창하며 시작된 토론의 장(場)으로서 안보,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슈를 다루는데 그 중 특히 Young Cultural Innovators 프로그램은 20~30대 세계 각 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일주일간 잘츠부르크에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행동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지역,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Young Cultural Innovators 프로그램은 세계 각 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지식, 경험, 철학,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협동,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이니셔티브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2018.10.16.(화)[1일차]

환영식 : '나'에서 '우리'로

활동 :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면서 현재 하는 일, 일주일 동안 얻어가고 싶거나 서로에게 바라는 점 등을 발표하면서 얼굴을 익혔는데 PLAY 정신(Participation, Love, Arts for Youth)으로 문화예술을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협동과정 : 제한된 재료로 가장 높은 구조 만들기

-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각 지역별 분과로 나누어 제한된 재료(빨대, 종이봉투, 종이, 스카치테이프 등)를 활용하여 가장 높은 구조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함
- 미국 Baltimore가 1등, 한국 서울이 2등을 함

2018.10.17.(화)[2일차]

동료 멘토링 ①

퍼실리테이터 : Marcos Amadeo(아르헨티나 교육부, Cabinet Chief)

내용

- the best innovative practice와 the most spectacular failure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적 방법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 실패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반성적 다짐을 나누었음

- 나, 가족, 친구, 직업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선순위에 대하여 나눔

YCI 네트워크 : 간극 줄이기
각자 살고 있는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한국 참여자와 한국 실정(서울, 충남의 사례)을 토론한 뒤 한국 대표로 발표를 함

충남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의 수가 서울에 비해 적고,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술회관, 미술관, 공연장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즐기고 실생활에서 익힐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간극을 만들고 특히 이는 문화소외로 이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충남문화재단은 도서(島嶼) 및 산간 지방으로 '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2018.10.18.(수)[3일차]

역량강화 워크숍 ② : 리더십과 가치

퍼실리테이터 : Amina Dickerson(미국 Dickerson Global Advisors 대표)
내용 : 나의 core value는 curiosity이며 극복해야 할 혹은 개선해야 할 부분은 patience라 답하며 사례를 공유함

동료 멘토링 그룹
퍼실리테이터 : Marcos Amadeo(아르헨티나 교육부, Cabinet Chief)
내용 : 에너지, 감정, 느낌은 함께 감.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과 충만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생각해봄. 이에 '시도, 격려, 칭찬'을 스스로에게 꾸준히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여기 내 마음을 정성 다해 기울이는 mindfulness'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함.

오픈 스페이스 : 'Find Yourself Bind Ourselves' 추진
'인생학교'의 창시자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만든 질문카드 모음인 'Know yourself'를 활용하여 참여자 간 질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또 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음

질문은 주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겨하는지 등'을 담고 있는데 바쁜 일상 생활에서는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진실한 해답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 간 더욱 깊은 친목을 다짐

2018.10.19.(목)[4일차]

YCI 네트워크 : 협력의 확장

좋은 협력과 나쁜 협력의 사례 중 '좋은 협력'의 사례로서 충남문화재단의 '이제는 금강이다'사례를 공유함

충청의 젖줄로 불리는 금강은 총 길이 394.8㎞로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리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충청북도 등과 도계를 이루며 서해로 흐르고 있음. 금강유역은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권의 다양한 문화요소가 어우러져 선조들의 삶과 문화와 역사적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금강'그 자체가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음.

이에 '이제는 금강이다'는 지역 예술가, 작가, 역사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금강 유역의 지역 문화예술과 인문학 즉 역사, 철학, 문학 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유산과 인문학적 스토리'를 다양한 콘텐츠로 연계하고 있음

충청남도와 한국중부발전, 충남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지역 문화원과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년도 사업을 통해 금강유역의 문화·예술·인문학·역사적 가치의 발견과 관광브랜드로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으며, 내실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쇼케이스

본 시간은 참여자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이에 피아노 연주(George Winston의 Thanksgiving), 노래(Mariah Carey & Whitney Houston의 When you believe 외), 랩(Eminem의 Lose Youself), 시 낭송(김춘수의 꽃)을 선보였음

2018.10.20.(금)[5일차]

역량강화 워크숍 총정리

현재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꿈'은 미래의 내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몸과 마음, 두뇌는 이미 성취한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함

지식 공유 : 시스템의 개혁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며'#11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선택하고 문화유산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보다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복원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세계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답함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도토리에 앞으로의 꿈, 목표, 비전을 담아 자신과의 약속 한가지를 54명 전체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함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본래 레오폴드 퍼미안(Leopold Anton Freiherr von Firmian, 1679~1744) 대주교의 저택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폰 트랩 대령의 집으로 나온 것처럼 역사와 예술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세미나장, 성당, 서재, 정원,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편안하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었음

보통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기에(호텔 예약 손님 제외) 보다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균형있고 영양있는 식사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하우스키핑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이뤄져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서비스를 선사하였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독일어로 잘츠가 소금(salz), 브루크(burg)는 '성 또는 도시'를 말하니,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도시'란 의미임. 본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65~ 1791)의 탄생지로서 매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19세기의 오스트리아 미술가인 한스 마카르트의 고향이며, 작가 토마스 베른하르트도 잘츠부르크 태생임.

2차 세계대전 때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1949년 잘츠부르크 성당의 수녀 마리아 폰 트라프의 자서전 '트라프 가문의 가수들 이야기(The Story of the Trapp Family Singers)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이 1965년에 전 세계에 개봉됨으로서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변했음.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이 응집한 도시에서 일주일을 문화예술가와 함께 생각과 철학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유산 정책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칠 예정임.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Between the Steps"


FIND
BIND



Austria

CHAPTER 27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프로그램명	Salzburg Global Seminar Young Cultural Innovators
국가	오스트리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10. 16 ~ 2018. 10. 21
작가명	조아라

레지던스 기관 소개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는 1947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에 도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래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약 70년간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지리적 분열을 연결하는 530개 이상의 세션을 진행했고, 제도적 변화를 주도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 창안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YCI Forum은 잘츠부르크 글로벌이 구분한 6개의 범주(FinFinanace&Governance, Justice&Security, Planet&Health, Education&Work, Media&Voice, Culture&Society) 중 Culture&Society에 속해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잘츠부르크 글로벌 프로그램들의 가장 기본이자 토대가 되는 세 가지 교차점, '상상력, 지속 가능성, 정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을 통해 전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약 36,00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활동해 왔고, 활동하고 있으며, 각 도시의 허브를 통해 가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 포럼 참여를 통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리더들을 만나거나, 각 나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제적인 인재들과도 다양한 담론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먼저 2018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Young Cultural Innovators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Innovator들과 함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가치를 나누며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문화예술'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사실에 기대되어 본 포럼에 지원했으나, 실제로 포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바탕으로 한 약 50여명의 사람들이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깊이 있고 생산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참가자들은 YCI 포럼의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었고, 이후 모든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온라인 그룹에서 국가와 언어를 뛰어넘은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의 짧은 시간동안 이토록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짜여진 YCI포럼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YCI의 접근 방식이었는데, 포럼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 철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일'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격려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게도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하루 아침에 '잘츠부르크의 성'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와 문화도 언어도 다른 완전히 낯선 타인들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의 '나'를 바로 마주하고 더 깊이 바라보며 진정성 있게 '나'의 생각과 가치, 철학을 나눌 수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측에서는 참가자들의 직업과 직무, 경력 등이 적힌 짧은 Bio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참가자들은 대개 각 활동영역에서 적어도 3년, 길게는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들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자가 속한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 있는 실무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참가자 본인은 사실 명함 교환, 서로의 직무 또는 프로젝트 소개 등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포럼의 프로그램은 대개 직업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서로의 직무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참가자 개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꺼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5일의 짧은 기간동안 어떤 실질적

결과나 효과를 불러일으킬순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파트너일지라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선 어떤 진솔한,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실제로 포럼 종료 이후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본업에서 참가자들과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한 협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축이 되었던 'Peer Mentoring'과 'Capacity Building Workshop'이라는 두 프로그램 가운데 참가자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드러낸다는 것'등을 비롯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함께 토론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Why do I do What I do)와 자기 자신을 조직화하는 법(Principle of Self-Organization), 리더쉽과 가치를 성장시키는 법(Leadership and Values)에 대해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자극받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업무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는 분명 본인이 지금까지 참여했었던 그 어떤 세미나나 포럼, 학술대회와는 전혀 달랐던 새로운 경험이자 배움이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새로운 접근들과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신선한 자극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 벽을 허물고 서로를 교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YCI를 통해 전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50명의 동료들과 함께 나눈 시간과 공간, 생각과 가치들은 제 추후 기획과 활동에 든든한 받침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생각보다 '현지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반에서 9시까지입니다. 오전 9시면 공식 일정이 시작되며, 저녁까지 스케쥴이 차 있어 숙소에 들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동안 포럼이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대개 삼삼오오 모여 네트워킹 시간을 갖기에 바쁩니다. 대체로 장거리 비행 이후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스케쥴에 들어가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피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삼시세끼가 전부 호텔에서 주로 오스트리아식/유럽식으로 제공되므로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식사도 쉽지 않습니다.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평소와 다른 음식들을 먹고, 또 잘츠부르크는 기온이 낮은데다 환절기로 일교차까지 꽤 있다보니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잘츠부르크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3번 정도입니다. 한 번은 공식 일정으로 자유시간이 아니니 현지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고, 떠나기 전날이나 당일에 1~2번씩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기도 하는데 역시나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럼이 진행되는 Schloss Leopoldskron이 호텔뿐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 워낙 아름다워 눈이 즐거웠고, 역사 있는 호텔답게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는지라 피곤한 와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weden

CHAPTER 28

스웨덴 국립전자음악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8. 1 ~ 2018. 9. 1
작가명	유태선

레지던스 기관 소개

스톡홀름 쇠데르말름에 위치한 Munchenbryggerie에 있는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연구소(EMS)는 세계 3대 전자음악 스튜디오 로서 현재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훌륭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양조공장을 현대 예술의 메카이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에는 스웨덴 국립발레단, 방송국, 갤러리 및 공연장 등이 있으며 여러 단체와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는 전자음악의 초기 시절인 1960년대에 설립되어서 K.H.슈톡하우젠 등의 거물 작곡가들이 상주하며 그들의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음악적 실험을 한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는 2대의 대형 모듈러 등의 최신 사운드아트 프로그램들과 장비, 16채널 이상의 다채널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녹음실, 라이브러리 등이 있다. 라이브러리에서는 수백권의 전자음악 이론서들과 초기 시절부터 현재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으며 서유럽 전자음악의 태동기의 숨결과 사운드아트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스톡홀름의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제가 스톡홀름에 도착한 8월초는 스웨덴에 200년만의 더위가 닥친 때였습니다. 때문에 스톡홀름에는 연일 야외행사가 열리며 저녁마다 레스토랑과 펍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스톡홀름의 첫 인상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 예술과 자연이 어울어진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는 작가들이 예약한 기간 동안 스튜디오 사용 시간을 예약하여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제가 도착하였을 때 스튜디오 엔지니어 Mats Erlansson 과 인턴 Felix Mirabel 이 반갑게 맞아주며 스튜디오 소개 및 웹에서의 예약방법, 보안상 유의사항 등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의 첫 며칠은 작업 계획을 짜는 것과 스튜디오 주변과 도시 곳곳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획되어진 세 개의 작품작업에 대한 사운드 소스 작업과 소지하고 있는 국악기(꽹과리 등)의 녹음 및 스펙트럼 분석 계획 및 녹음실 예약, 스튜디오 메인 컴퓨터에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레지던스 기간동안 4분여의 짧은 전자음악 작품 2개와 8분여되는 중편 16채널 전자음악작품 1편을 작곡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업에 대한 기초 프로그래밍과 사운드 작업에 열중하였으며 기존 사운드 프로그래밍인 max, supercollider, live 과 더불어 새로운 reaper, modular synth 등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 부터는 저는 스톡홀름에서 하고자 했었던 무대공연을 위한 아티스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엔지니어인 Mats 로부터 색소폰 연주자이자 사운드아티스트인 Jorgen Petersson을 소개받았지만 그의 휴가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거 협업안무가였던 Ingrid Rosburg로부터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이자 사운드아티스트인 Johannes Burstrom을 소개받고 2회 미팅을 가졌지만 그의 해외 공연으로 인해 공연까지 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의 작업과 네트워킹은 활발하였습니다. 인턴 Felix로부터 reaper 프로그램 기초이론을 배우며 함께 소리를 녹음 및 편집작업을 하였으며 사운드 아티스트 Daniel Karlsson으로부터 아날로그 테이프 합성을 공부하고 작곡가로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3주차에는 전 스튜디오 디렉터이자 저명한 작곡가이며 교수이신 John Appleton과 스웨덴 왕립음악원 교수이신 William Brunson 께서 방문하여 저의 이전 작품들과 현재 작곡 진행 중인 작업을 들려드리고 소중한 충고와 아티스트로서의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4주차에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인 고틀란드의 비스뷔 시에 위치한 비스뷔 국제 작곡가 협회(Visby International Center for Composers)와 그 안의 Studio Alpha에 방문하였습니다. 스튜디오 매니저인 Jesper Elen이 친절하게 스튜디오 내부와 작곡실, 녹음실을 안내해주고 확장계획까지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VICC상주 작곡가로 있던 스페인 출신의 사운드 아티스트 Paloma와 서로의 작품을 들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저의 워크숍퍼포먼스는 실행되지 못했지만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킹과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세 개의 작품의 작업을 80%이상 진행시켰습니다. 이 작품들과 새롭게 알게되어 공부한 프로그램들, 최고의 작업 스튜디오,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아티스트로서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스웨덴은 국민 행복도가 전 세계 10위를 기록할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 수도인 스톡홀름에 조금만 머물러도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발틱해의 수상도시인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들에서 국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읽을 수 있으며 강변을 따라 걷다보면 조깅을 하는 시민들과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울어져 있어 정말 '북유럽'스럽다, 하고 감탄을 내뱉게 됩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현지 생활물가와 시기였습니다.

흔히들 북유럽 물가가 정말로 비싸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수년전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방문하였을 때 외식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위 두 국가에 비해서 스웨덴은 비교적 물가가 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 등에서 쇼핑을 할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도 크게 비싸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를 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외식으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달간 숙박이 가능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지만 가격 면에서 그리고 기간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출발하기 열흘 정도 전에서야 스튜디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를 호스트와의 가격과 기간 협의에 성공해서 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은 파리나 베를린 같은 다른 유럽국가의 수도나 관광도시처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구도심의 역사적 건물들이나 박물관 지구의 문화생활, 왕궁에서의 군악/의장 퍼레이드 등 매일매일 열리는 이벤트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냈던 8월은 바캉스 시즌인 만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만 9

월~11월에는 더욱 다양한 페스티벌과 이벤트 들이 열립니다. 특히 유명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고 음악인으로서는 발틱해 음악 페스티벌(8~9월) 등이 열립니다.

사진 박물관, 바사 박물관 등의 관광지도 매력적인 공간 이지만 근대미술관 등에서는 자주 전자음악 퍼포먼스와 무용 등이 오디오비쥬얼 등의 현대미술과 어우러져 실험적인 공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Fylkingen (https://www.fylkingen.se) 이라는 8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실험예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현대음악/전자음악, 멀티미디어, 무용 등의 실험적인 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곳 뿐 아니라 스톡홀름에는 숨겨진 예술공간이 있습니다. 전자음악적 멀티미디어 예술작품을 전시, 공연하는 작은 갤러리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교통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았지만 패스 사용, 지하철 환승 등을 잘 알게 되면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불 교통카드 사용을 통해 할인금액을 낼 수 있으며 스톡홀름 패스라는 관광객을 위한 교통패스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외에 나가는 경우에도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통해서 (같은 패스로 가능합니다) 아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었으며 아주 작은 역이라도 영어에 능통한 안내원들이 있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스웨덴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는 최신 사운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작업 및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운드 아티스트로서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아주 집중도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테크닉적인,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나 배우고자 하는 점이 있으며 언제든 타 아티스트나 스튜디오 스태프 등에게 배우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뿐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으며 최신 장비들을 사용하여 사운드를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내에 작곡가가 작곡을 하기 위한 어쿠스틱 피아노 등의 악기는 없으며 미디 작업을 위한 마스터키보드도 없습니다. 오직 사운드작업과 컴퓨터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하는 시스템이며 아날로그한 작곡방식을 원하는 작곡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신 컴퓨터음악 트렌드를 따라가는 시스템인 만큼 기초적인 컴퓨터음악 장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튜디오에서는 모듈러를 통한 사운드디자이닝 및 작업에 집중을 하고있는 만큼 이러한 장비들과 기존의 MAX, SUPERCOLLIDER,Ableton Live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공부와 작업을 원한다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weden

CHAPTER 28

스웨덴 국립전자음악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9. 1 ~ 2018. 9. 30

작가명 이상진

레지던스 기관 소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으로 참여한 음악레지던시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전자음악스튜디오로써, 1개의 컨퍼런스룸과 6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레코딩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6개의 스튜디오 공간은 특성이 조금씩 다르며 전자음악을 만드는 작곡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1.2 그리고 레코딩 부스 스튜디오 5 는 믹싱 작업과 레코딩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제네렉과 메이어사운드로 구성된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진행하기에도 좋은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작업 결과물들의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3과 4를 통해서 Buchla system 그리고 스튜디오 6에는 Serge system 의 모듈러 신디사이저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4에 구성되어 있는 Buchla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시스템은 EMS 내에서도 작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로써, 풀 아날로그의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통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버추얼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랙 등도 구비되어 있어, 작곡, 편곡 작업을 하기에 좋은 공간들입니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미팅룸과 컨퍼런스룸 그리고, 휴게공간에는 다양한 음향서적(영어, 스웨덴어 등) 들이 구비되어 있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향서적과 EMS를 통해 발표된 앨범들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스튜디오 내에서도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체류기간 동안 저의 주요 작업은 주로 모듈러 신디사이저 Buchla를 활용한 다양한 음악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던 풀세팅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통한 다양한 전자음악 작곡의 접근이었으며, 레지던시를 통해 진행된 창작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다양한 방향으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스케치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해온 시퀀스에 사운드를 입혀,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2019년 계획 중인 가야금산조와의 협업작업을 위해 진행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활용을 통한 결과물, 그리고 개인 앨범 프로젝트에 진행될 음악 작업들, 데모 가이드 곡 6곡 정도의 작곡 등을 이번 스튜디오 레지던시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작업을 통해 완성된 엠비언스 결과물과 일렉트로닉 음악들은 2018년 12월부터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진행 될 예정인 전시의 사운드작업물로 2개월간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 레지던시 내에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협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한 달간 오며가며 마주친 음악가들(주로 북유럽의 작곡자들) 과 약간의 교류를 가졌습니다. 참가한 작곡가들의 대부분은 핀란드(영화음악 작곡자)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작업 특성상, 참여 작업자들에 대한 정보가 미리 수집이 되지 않으면, 협업의 형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작곡자분들께서는 EM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작곡자들과 교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인 9월에는 STOFF 스톡홀름 프린지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기간 내에 저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프린지의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STOFF 는 2019년에는 더 확장되어, 북유럽의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니, 이후 참가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스톡홀름에서는 9월에 프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STOFF 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로 확장되어 북유럽의 다양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2018년 9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는 아무래도 체류기간이 있다보니, 호텔보단 조금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형 숙소를 임대했습니다.

스톡홀름 센트럴 기준으로 남동쪽에 위치한 Hammarby 쪽에 있는 아파트를 렌탈했습니다. 아파트는 대략 100,000원/1일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스톡홀름 숙소 하루평균치가 10~2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지냈던 아파트형 주거호텔은 스튜디오 및 센트럴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워낙 센트럴로 연결되는 코스도 다양하고 걷는 길이 좋아 스튜디오까지 아침, 저녁으로 40분 정도 걸었으나 큰 무리 없이 지냈습니다. 아파트형 숙소였지만, 30평정도 되었고, 매일 클리닝해주고, 일주일에 한번 침대시트 갈아주고 주방시설, 드라이, 다리미까지 모두 갖춘 곳이라,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사용 했습니다. 일부 음악 작업등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여유있는 곳이었습니다.

체류기간 동안의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외식비가 차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요리가 가능한 분이라면 저처럼 아파트형 숙소를 얻고,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해 식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는 스톡홀름 도시 곳곳에 대형마트인 COOP이나 ICA 등의 마트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해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혹은 약간 높은)으로 생필품과 식자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가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과일, 채소 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으로 판매하고 봉투에 담아서 바코드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램 수대로 파는 것도 많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은 Clas Ohlson 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3구짜리 멀티탭이 4000원정도입니다. 그 외에 가전제품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오히려 더 싼 것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생활관련 물건들을 짐 싸기 전에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고 고려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음식은 북유럽 쪽이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색다른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트볼, 연어스테이크 정도 드셨으면 그 이후에는 다채로운 전세계의 음식을 구미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도시 자체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음식 들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등의 체인도 많고, 유럽 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체인점인 MAX 버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물가가 높은 것인지, 제 생각에는 서울 물가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보통의 식사는 만원에서 만오천원을 평균치로 예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수행을 위해서, 카드로 지출을 대부분 하실 텐데요, 현금은 정말 쓰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대부분이 유료 화장실이지만, 은근 개방 화장실들이 꽤 있고, 용기내서 커피숍 가서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그러면 흔쾌히 쓰라합니다. 사람 많은 카페들은 아예 개방 해놓은 곳들도 꽤 많았습니다. 유료화장실도 물론 옛날처럼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으로 거의 바뀌어서, 동전 넣는 곳이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카드 찍으면 5크로나(700원정도) 입니다.

날씨는 제가 체류하고 있던 9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9월 1일에서 15일까지는 정말 화창하다 못해, 환상적이었고, 20일 정도까지는 흐려지고, 비가 자주오더니 20일~30일은 엄청난 바람이 불며 기온이 확 떨어졌습니다.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 점퍼까지는 필요 없을 듯하고, 기분 좋게 부는 차가운 바람이라 조금 두터운 가디건을 챙겨오시면 좋을듯합니다. 스카프, 비니 등등이 좋은 소품이 될 듯합니다.

도시 자체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1일권의 교통권이 크게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외곽으로 나가려면 어차피 기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조금 외곽으로 나간다거나, 센트럴에서 조금 떨어진 악기점 등을 갈 때만 필요에 의해 1일권을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체류 중에 교통 1일권은 큰 짐이 있었던 며칠 빼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자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으로써, 이번 레지던시의 참가 기회는 좋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악기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겠지만, 작업만 할 수 있게 주어지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도시 자체가 주는 좋은 영향들이, 아무래도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엠비언트를 위한 다양한 녹음 결과물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의 음악결과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톡홀름은 스튜디오에서의 작업시간 이외에 구석구석 돌아다닐만한 곳이 많은 도시입니다. 북유럽답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산책 등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레지던시뿐만 아니라, 아바뮤지엄이나 음악과 관련된 공연 등이 매우 많아, 작업 시간 이외에 많은 부분을 음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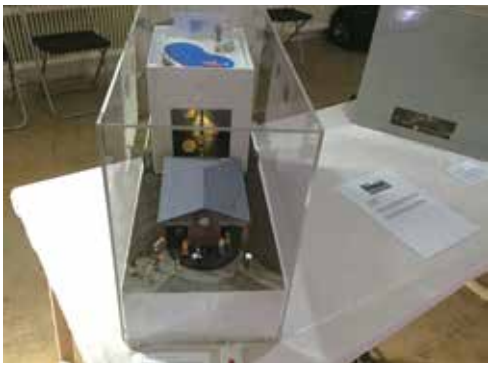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퀀싱 프로그램이 구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평소에 사용하는 가상악기나 샘플 등은 외장하드를 통해 챙겨가거나, 서브작업용으로 노트북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라비아, 일렉트론 등 전자악기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출생지인 스톡홀름답게, EMS 스튜디오 내에는 모듈러 신디사이저인 Buchla 와 Serge 이외에도, 다양한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시를 참여했던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노드랙3, 발도르프의 마이크로큐 그리고 에이블톤 푸쉬2 등도 스튜디오 내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구비장비는 아무래도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 EMS 사이트에 있는 장비들 확인해보시고 겹치지 않게 개인적으로 편하게 쓰던 악기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37건반 정도의 작은 신디사이저를 두 개 정도 들고 갔었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고, 스튜디오 내에는 마스터 건반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건반 작업을 활용하실 작곡자들에게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장비 진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합니다.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좋은 경험이 되시겠지만, 출발 전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많은 스케치 작업을 하고 가시면,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툴 시스템으로 전자음악 악기 녹음 및 작업에 대한 세팅은 잘되어 있지만, 악기나 보컬 레코딩에 관련된 장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레코딩의 계획이 많은 작곡자들은 선호하시는 장비들을 함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Sweden

CHAPTER 28

스웨덴 국립전자음악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1. 1 ~ 2017. 11. 20

작가명 박은경

레지던스 기관 소개

스웨덴 국립 전자음악 연구소는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에 있습니다. 남부 쇠데르말름 섬 북쪽 해변에 위치해 있으며, 인상에 비해 상당히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가까우나 주변에 언덕이 있어 숙소를 구할 때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튜디오는 총 7개의 개별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스튜디오가 최소 4채널 이상 작업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2번 스튜디오는 8채널을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서라운딩 작업시 다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관련으로 특화된 스튜디오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스튜디오는 오디오 작업이 필요한 거의 모든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 작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툴스, 맥스, 에이블톤 라이브 등 주요 프로그램이 다 구비되어 있는 편이고, 소스가 필요할 경우 코디네이터와 상주 엔지니어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주 엔지니어는 두 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주시간 내 매우 진지하게 도와줍니다.

1층에는 휴게공간과 컨퍼런스 룸이 있고, 2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전자음악에 관한 서적이 많이 모여있어 영어가 자유로운 분은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레지던시 기간동안 각 스튜디오를 자유로이 예약하여 작업할 수 있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문자가 많아 사전 예약을 코디네이터가 미리 진행해 줍니다. 확보된 시간에 작업할 수 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약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내실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기관으로서 스웨덴 내 다른 기관들과 공조해주고 있으므로, 요청에 따라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예약이 진행됩니다. 각각 특성에 맞는 스튜디오를 개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가 사전 예약해 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계획서에 썼던 작업 자체는 가능하였으나, 미리 장비와 스튜디오 상황에 대해 알았더라면 좀더 효율적인 작업구상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작품의 작업을 예약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녹음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각국에서 온 레지던시 참가자들이 많아 악센트와 특정언어의 인토네이션을 녹음할수 있었습니다. 생각외로 거리에는 소음이 없었으므로 최초에 구상한 자연녹음에 기반한 테이프뮤직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내의 작업 자체는 수월하였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사운드 연결설정이 가끔 랙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런 문제가 생길때는 엔지니어가 도와줍니다.

전반기에는 사운드 오브 스톡홀름이라는 음악제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르를 불문한 사운드 작품은 기본적으로 모두 출품되는 음악제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전자음악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시 참가자는 모두 EMS측에 의해 초대명단에 올라있어, 모두 참관이 가능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국립음대와 오디오라마라는 서라운딩 시스템 기반 공연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먼저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7개의 스튜디오가 각각 특화된 분야가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 스튜디오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설치작품은 겨울에는 작동하지 않아, 기간도 여름에 진행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방문한 저의 경우, 여명은 상당히 길지만 실제로 해가 비치는 시각은 9시 반정도, 해가 완전히 지는 시각은 3시 반정도로, 하루의 일광시간이 6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4시에서 6시에 문을 닫아, 야외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

다. 특히 유고르덴 지역에 야외설치작품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절의 문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개인적인 분위기인지라,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참가하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참가하거나, 혹은 참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요청 가능합니다. 그 외 작업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구비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최신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요청시 구비해주므로, 작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포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의 체류였음에도 숙박예산이 부족하여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텔 등의 정규숙박시설은 중심가의 게스트하우스 다인실만 가능한 수준이며, 에어비앤비에서도 주간 할인 및 장기숙박 할인을 해 주는 집을 찾아야만 예산에 맞는 상황입니다. 운좋게 많이 할인 해주는 주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결정되신 분은 가능한 한 빨리 숙소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역까지 도보 10분정도 소요되는데, 그 구간이 언덕이라, 반드시 도보로만 가능합니다. 야간작업까지 고려하면, 가능한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숙소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 등에서는 카드 사용시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신분증을 늘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과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셀프계산 등이 이용 불가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속도도 나쁘지 않으며, 핸드폰 셀룰러 속도도 빠릅니다. 현지유심의 경우 상당히 편리하고 저렴한 편으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영어의 경우 전혀 문제가 안될 정도로 통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단어 선택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전이나 교통카드 구입, 심카드 구입은 편의점보다 정식 역이나 대리점 구입이 좋습니다. 필요한 설명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비싼 곳에서 아주 싼 곳까지 있는데 주로 점심이 싸고 저녁은 비싸다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를 못느꼈습니다. 시간대보다는 장소와 식당의 종류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듯 합니다.

스튜디오 근처에는 식당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식사거리를 준비해가서 휴게공간에 놓아뒀다가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개별 스튜디오 내에는 취식과 음료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게 공간에 음료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로 옆 건물에 점심시간에만 운영하는 구내식당 비슷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몰라 식사에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자음악 작업에 대한 장소를 제공하는 레지던시이며, 엄밀하게 말해 사전 조율되지 않은 작품 발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나아가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상하신다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 내 컨퍼런스 룸을 빌려 작품을 시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면 레지던시 참가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다양한 기간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와 있고, 그들과의 교류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미리 개인적인 사업구상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정보가 많지 않던 북유럽 음악계의 동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서유럽과는 매우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북미쪽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Sweden

CHAPTER 28

스웨덴 국립전자음악 스튜디오

프로그램명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

국가 스웨덴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1. 1 ~ 2017. 11. 30

작가명 부다혜

레지던스 기관 소개

EMS (Elektronmusikstudion) 에는 총 7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스튜디오는 각각 다른 사이즈이며, 다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리를 테스트하기에 좋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기본적으로 protools(HD), maxmsp, reaper, abletone live 등등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엔지니어에게 문의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줍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한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에 불편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운드엔지니어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간단한 취사, 커피, 티 등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창문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체류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작품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매우 자유롭게 (24시간, 휴일없음)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 저의 작업 패턴에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창작활동 이외에도, 스튜디오에는 기본적으로 5-10명정도의 레지던스 작곡가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 각기 다른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 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나 작업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Audiorama 라는 전자음악 space에도 방문하였고, 추후 작업할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Stockholm Saxophonvartet 이라는 섹소폰앙상블과의 미팅도 있었으며, 미팅 후 레코딩작업까지 할 수 있었으며 추후 그들과 함께 작업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스톡홀름은 한국에 비해 물가나, 집세가 매우 비쌉니다. 특히 집세는, 전자음악스튜디오 근처에는 주어진 예산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한다면, 필시, 스튜디오에서 가는 길을 검색해보고, 교통편이 편한 곳으로 골라야 합니다. 스톡홀름은 작지만, 스튜디오가 지하철역에서 10-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숙소를 잡을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스튜디오의 장비가 매우 좋기때문에, 작업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실직적으로는 거의 혼자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자 음악에 대해 알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작업하는 것 이외에도,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테스트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자료집
2013~2018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일 2019년 1월

디자인·인쇄 디자인 스튜디오 블럭